발 간 등 록 번 호
78-4960000-100030-15

함평 군정백서

민선 8기
2022-2026

함평군
HAMPYEONG COUNTY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꽃과 나비의 고장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군민이 행복한
군민이 잘 사는 함평을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목차

민선 8기
함평군정백서
2022-2026

제1편 일반현황

01 군 주요상징 010
02 민선8기 군정비전 및 전략 012
03 연혁 014
04 기본현황 016

제2편 지표로 보는 함평의 변화

0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030
02 지역내총생산
03 1인당 지역내총생산
04 기업체 및 종업원 수
05 투자협약 실적 031
06 노인일자리 수
07 장애인일자리 수
08 농특산물 수출액
09 공동주택 수
10 주차면 수 032
11 도시가스 공급
12 전기차충전시설
13 상하수도 보급률
14 농로포장률 033
15 인재양성기금 조성액 또는 지원액, 학생수
16 지역안전지수
17 군민안전보험(보장범위) 확대
18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수혜 가구 수 034
19 찾아가는 행복버스(수혜자 수 또는 횟수)
20 CCTV 설치 수
21 국고확보
22 정부합동평가 035
23 재정자립도, 자주도
24 재정규모
25 관광객 수

제3편 민선8기 20대 핵심성과

01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 및 전략 구체화 038
02 농공단지 규제개선을 이끈 현장 중심 규제혁신 042
03 사계절 축제도시 기반 구축과 관광콘텐츠 다변화 045
04 추억공작소 신설로 황금박쥐를 관광객과 더욱 가깝게 049
05 생태교육·체험형 오락 융합한 나빛파크 조성 052
06 새로운 관광브랜드 '함께함평', 캐릭터 '황박이·뽐비' 개발 054
07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 및 수출판로 확대 057
08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060
09 전남 최초, 대학 납부금 전액 장학금 지원 063
10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065
11 군민 숙원사업인 함평읍 기각 원도심 중앙길 확장 068
1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070
13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 072
14 생명건강지킴터, 함평실내수영장 개장 074
15 농식품부↔함평군 농촌협약 체결 077
16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이전 079
17 신광면 행정복지거점 인프라 확충 081
18 '보훈가족의 새 보금자리'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083
19 전국최초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085
20 호남권 최초, 감염병 관리센터 개소 087
수상실적 090

제4편 부문별 성과

01 지역개발·SOC분야 104
02 일자리·경제 분야 139
03 관광·문화·체육 170
04 농·축산업 분야 230
05 인구·청년·교육 분야 290
06 해양수산 312
07 환경·기후·산림 분야 331
08 복지·보건 분야 372
09 안전·재난관리 분야 439
10 일반행정 · 혁신 분야 473

제5편 읍면별 성과

01 함평읍 532
02 손불면 540
03 신광면 546
04 학교면 553
05 엄다면 558
06 대동면 564
07 나산면 573
08 해보면 578
09 월야면 582

제6편 함평군의회

01 군의회운영 590
02 의정활동 599

제7편 부록

01 역대 군수 현황 618
02 역대 부군수 현황 620
03 민선8기 간부 공무원 명단 621

I

일반현황

01 군 주요상징 010
02 민선8기 군정비전 및 전략 012
03 연혁 014
04 기본현황 016

군 주요상징



심벌마크

3개의 원은 군의 지리적 형상과 민·관·군이 하나됨을 나타내며, 중심원을 감싸안은 새싹 모형은 풍부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지임을 강조한 것임.



마스코트

전통적인 농촌생활을 상징하면서 함평군 특산품인 소를 의인화하여 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승화. 믿음감과 성실함 외에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하여 군민 및 방문객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자세 부각

군목 : 은행나무



튼튼하고 빛깔 고움이 군민의 강인성과 청렴결백을 상징하며, 내한성이 강하고 곧게 자라는 장수목으로 굳은 절개를 지키는 선비정신의 표상임

군화 : 춘란(春蘭)



사군자의 하나로써 춘·하·추·동 사계절 늘 푸른색을 띠고, 청초하고 단아한 자태와 자생력이 강하여 우리 군민의 기상과 단결심, 끈기를 상징함.

군조 : 먹황새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을 상징하며, 큰 날개를 뻗은 힘찬 날개짓은 우리군민의 기상을 상징하며, 창공을 자유롭게 날므로써 우리 군민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함.

군어 : 뱀장어



불굴의 의지, 건강, 행복을 상징하며 군민 정신인 끈기와 인내심을 상징하며, 풍요로움과 다산, 다복을 상징함

군나비 : 호랑나비



오색의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문양은 군민의 예술적 감각을 의미하고, 힘차게 웅비하는 모습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며,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은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을 상징함

민선8기 군정비전 및 관광브랜드 · 캐릭터

민선 8기 군정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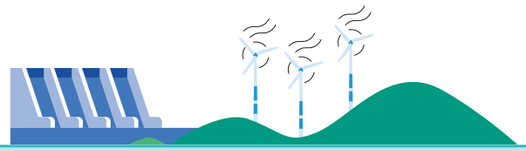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관광브랜드 시그니처

HamPyeong 함께 함평

관광 캐릭터







군정비전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군정방침

01 활력있는 지역경제

02 오감만족 문화관광

03 함께하는 상생복지

04 소통하는 열린행정

군정목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산업·혁신도시 건설**

살고 싶은 고장, 머무는 **관광도시로서의 비상**

6대전략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첨단산업도시 건설

문화·스포츠 관광이 어우러진
치유·힐링벨트 구축

AI 스마트농업 확산 및
유통 혁신

도시 공간 혁신 및
혈맥 확장

든든하고 안전한
군민 복지망 구축

군민행복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구위기 극복

선사시대

1999년 함평읍 진양리 당하산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중 석기제작소, 유구, 돌칼과 토기편 등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유물이 모두 발굴되어,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추정을 사실로 확인시켰다. ※ 함평군고대문화심포지움(1999.10.26.)에서 한국상고사학회 발표

삼한시대

마한 54소국 중 1~2개 소국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군 전체가 역사박물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1987년 나산면 초포리 사산마을 길 확장공사 중 국내에서는 유일한 적석목관묘가 발견되었으며, 세형동검 4점, 세문경 3점 등 총 26점의 귀중한 청동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삼국시대

백제 건국후에도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였으며, 동성왕 20년(498년) 탐라국 정벌시 비로소 굴내현(지금의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대동면)과 다지현(지금의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으로 편입되었다.

통일신라시대

757년(景德王 16) 굴내현을 함풍현(咸豊縣), 다지현을 다기현(多岐縣)으로 바꾸고 물아혜군(勿阿兮郡)의 속현으로 하였다.

고려시대

940년(고려 태조 23) 함풍현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다기현을 모평현(牟平縣)으로 바꾸었다.

조선시대

1392년 (태조 1) 함풍현은 현 임자, 현경, 해제, 함평, 손불, 신광, 대동 이며 모평현은 현 나산, 해보, 월야이며 현재의 학교면과 엄다면은 당시 무안군 소속이었다.

1409년 (태종 9) 1월 18일(음력) 함풍현과 모평현 두 현을 병합하고 함풍에서 " "자 모평에서 " "자를 따 "함평현(咸平縣)"이라 하였다.

1895년 5월 26일(고종 23년) 속령 제98호 반포에 따라 23부제(府制)로 전국의 행정 구역이 바뀌면서 함평군(咸平郡)으로 개칭하였다.

대한제국시대

1896년 8월 4일 13도 실시제로 전라남도 2등 군이 되었으며,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24호에 의하여 16개면을 관할하였다. 현재 무안군의 해제·현경면, 광주의 본양·임곡동, 장성의 동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시 함평군의 영역이었다.

일제시대

1913년 총독부령과 1914년 전남도령 2호에 의하여 1914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 군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1906년에 편입되었던 광주와 장성, 영광의 일부 면을 각각 이속하고, 함평군에는 10개면을 두었다.

19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이제(里制)에 의하여 104개리를 편성하였다.

대한민국

1963년 1월 1일 함평면이 함평읍으로 승격(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1177호)하였다. 1읍 8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학교면 상옥, 금곡, 백호, 월송리를 대동면에 편입하였다.

1982년 대동면 서호리의 분매(分梅), 호정(湖亭), 성정(成丁), 서변(西邊), 동호(東湖) 마을과 연암리의 수현(水峴), 수암(水岩) 마을이 대동댐 축조로 수몰되었다.

1987년 1월 1일 함평읍 성남리 일부와 학교면 사거리 일부가 엄다면에 편입되었다.

기본현황

01. 지역특성

가. 입지여건과 접근성

우리 군은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전라남도 서해안의 북서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체 형상은 심장형(心臟形) 또는 역삼각형(逆三角形)을 이루고 있으며 동서간의 연장거리는 26㎞이고 남북간의 연장거리는 29㎞이다. 동쪽으로 나주시와 광주 광산구, 남쪽으로 무안군, 북쪽으로 영광군·장성군에 접하고 있다.

함평군의 위치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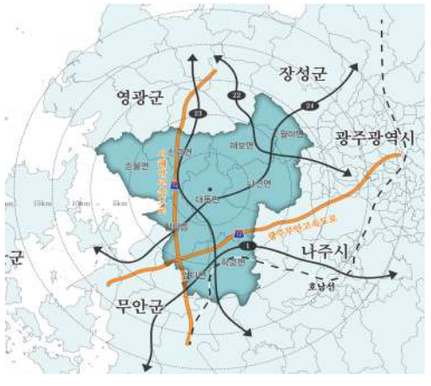
소재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평가기관	지명	극점	
함평읍 함평리 123-1	동단	월야면 외치리	동경 126◦4′ 북위35◦11′	동서간 26㎞ 남북간 29㎞
	서단	학교면 학산리	동경 126◦22′ 북위35◦08′	
	남단	학교면 월호리	동경 126◦33′ 북위34◦58′	
	북단	월야면 월계리	동경 126◦36′ 북위35◦14′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시·도

함평군의 주요 도로는 무안-광주고속도로가 동서지역을 서해안 고속로는 남북을 관통하고 있으며, 호남철도와 국도 (1,22,23,24)가 지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다. 서해바다인 함평만을 서쪽에 끼고 있어 다도해상에 위치한 신안군과 무안군 등 전남 서해안의 섬 지역으로부터 반도의 내부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의 관문에 해당된다.



함평군 위치 및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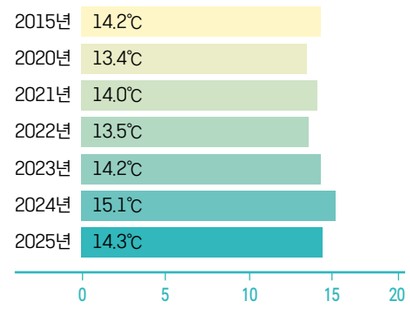


함평군 접근성

나. 기후와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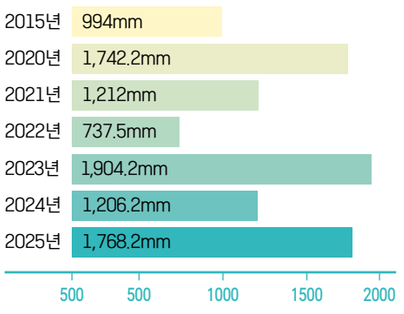
우리 군의 연평균 기온은 13~15℃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나타내며 강수량은 1,200~1,900㎜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온다우(高溫多雨)지역에 속한다. 최근 10년 기준 최고 추운 계절인 1월의 평균기온은 1.1℃, 최고 더운 계절인 8월의 평균 기온은 27.1℃로써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한편, 과거 기록상 가장 비가 많이 내렸던 해는 1974년 1,904.5㎜였으며, 가장 적었던 해로는 2년여에 걸쳐 혹독한 가뭄을 안겼던 1968년의 698.2㎜였다.

연평균 기온(℃)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 방재기상관측(AWS)

연도별 강수량(mm)



자료 : 함평군 기상정보 시스템

※ 최근 10년 동안 2023년이 가장 비가 많이 내림(1,904.2mm), 월별 강수량으로 2012년 8월이 473.9mm로 가장 비가 많이 내렸고, 이어 2025년 7월 443.2mm가 많이 내렸다.

다. 산세와 평야

우리 군의 산세는 노령산맥의 서부맥을 이어 받았는데 이를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동부맥	중부맥	동부맥
월야면의 월악산, 나산면의 어수산, 구절봉, 국사봉	해보면의 연실봉, 나산면의 천주봉, 대동면의 철성산, 학교면의 속금산	해보면의 연실봉, 손불면의 군유산, 함평읍의 감악산

연실봉	해보면 금계리	516m	군유산	손불면 북성리	404m
천주봉	나산면 월봉리	377m	고산봉	대동면 덕산리	359m
모악산	해보면 광암리	352m	철성산	대동면 상옥리	263m
감방산	함평읍 자풍리	258m	어수산	나산면 용두리	194m
곤봉산	함평읍 내교리	190m	옥녀봉	나산면 송암리	187m
노승봉	손불면 대전리	183m	발봉산	손불면 죽장리	180m
속금산	학교면 금송리	172m	월악산	월야면 월악리	164m
기산봉	함평읍 기각리	147m	수산봉	함평읍 수호리	100m

우리 군의 평야는 큰 하천과 바다의 형세에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크게, 함평평야, 고막평야, 손불평야, 신광평야로 나눌 수 있다.

라. 하천

영산강이 함평군의 남쪽 경계, 고막원천이 동쪽 경계를 이루며, 중앙을 함평천이 남북으로 관통하며, 함평군을 유역별로 구분하면, 영산강유역, 함평천유역, 고막원천 유역, 서해연안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영산강

해당구간 : 6.9km
학교면 금송리 고막원천 합류지점~엄다면 영흥리

영산강이 곡류하도를 형성하는 구간으로 영산강 연안을 따라 중천포, 고문진, 사포나루가 있었으나 현재는 나루터의 기능은 소멸됨

2 함평천

주요 지류
대동천, 엄다천, 무안천, 학교천

영광군 군남면에서 발원하여 신광면을 관통하고 대동저수지의 수원을 이루며, 남류 하다가 영산강에 합류

3 고막원천

주요 지류
해보천, 식지천, 평룡천

장성군 삼서면 태청산에서 발원하여 월야면, 해보면의 경계를 이루면서 남류하다가 하류에서 나주시와 경계를 이루며 영산강에 합류

함평천이 영산강 본류와 만나는 엄다면 영흥리 앞에서 부터 고막원천이 영산강 본류와 만나는 학교면 석정리까지를 사호라고 부르며, 영산강 전체를 말하는 옛 이름이기도 하다. 사호의 대굴포는 태종 8년(1408)부터 세종14년(1432)동안 전라수영(全羅水營)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마. 해안과 갯벌

함평만은 함평군 함평읍과 손불면,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영광군 염산면을 빙두른 내륙만으로, 길이는 약 17㎞이고 폭은 최대 약 12㎞이며, 만의 입구는 협소하여 약 1.8㎞이며, 만의 면적은 34,410ha에 달한다. 수심은 얕아 만의 안쪽은 10m가 넘지 않고 만의 입구 쪽에서 가장 깊어 수심이 23m이며, 함평군에 해당하는 해안선은 25.65㎞이다. 함해지구라 불리는 이곳은 갯벌의 형성과정을 모두 관찰할 수 있고, 모래와 펄 성분의 혼합비율이 바깥쪽과 안쪽의 차이가 커서 낙지, 바지락, 장어치어, 갯지렁이, 숭어, 보리새우 등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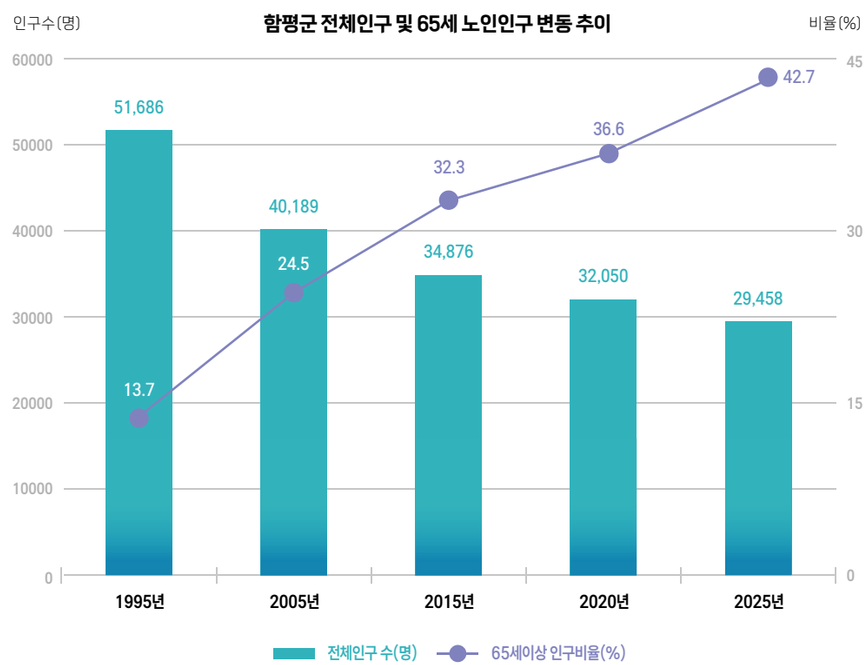
함평군 해안선 계 25.65km
- 함평구간 5.3km
- 손불구간 20.3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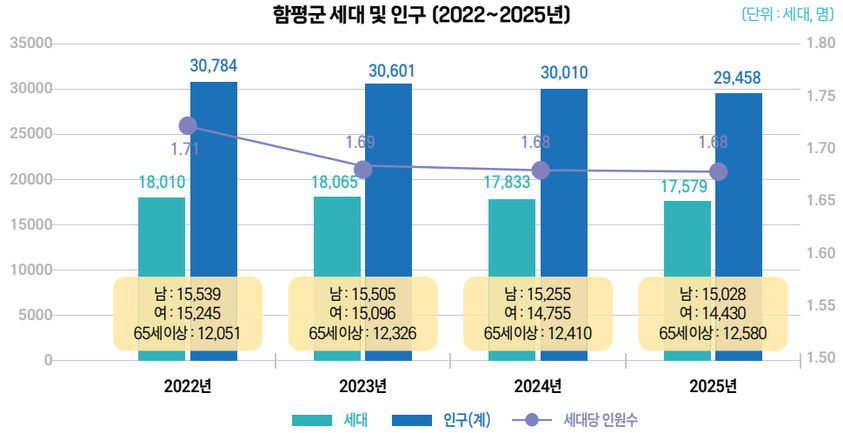
함평군 함평만 전체면적 5,600ha
- 함평관할 3,300ha
- 함평갯벌 2,300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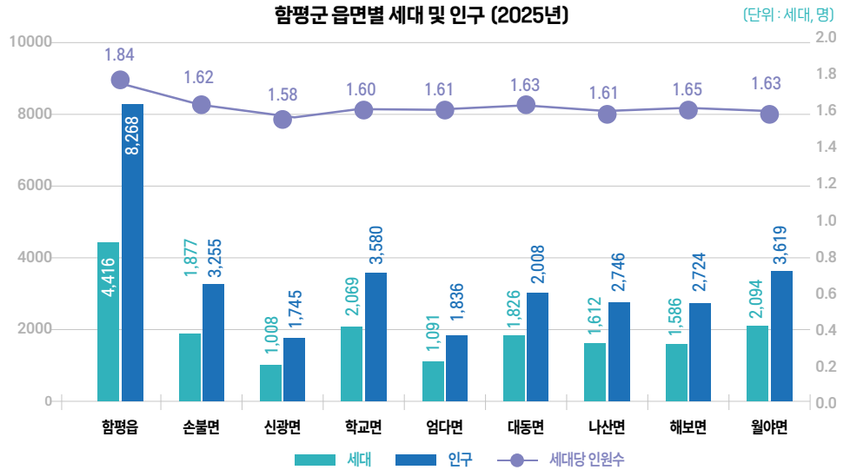
02.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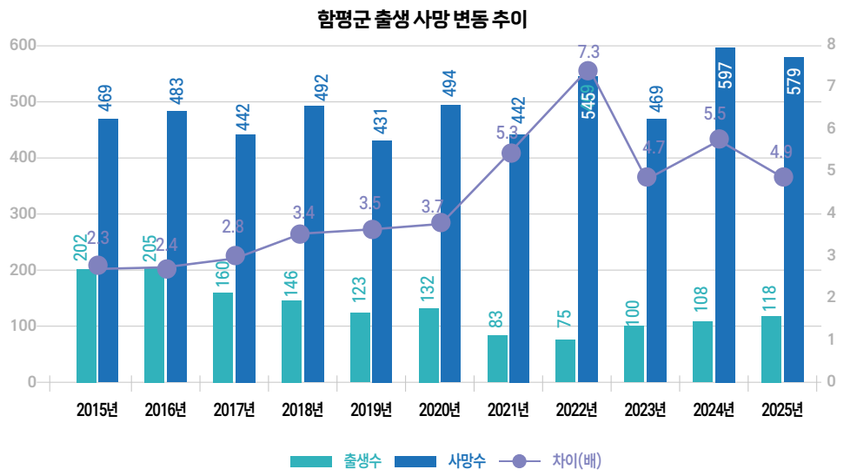
가. 세대 및 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나. 예산규모

세입예산(일반+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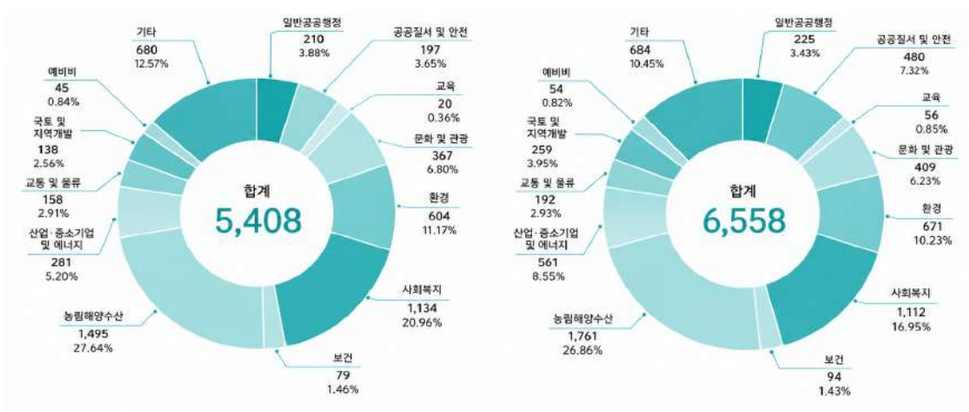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연도별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 수입등
2026 본예산	예산액	5,408	258	251	2234	124	2223	-	318
	구성비	100	4.8	4.6	41.3	2.3	41.1	-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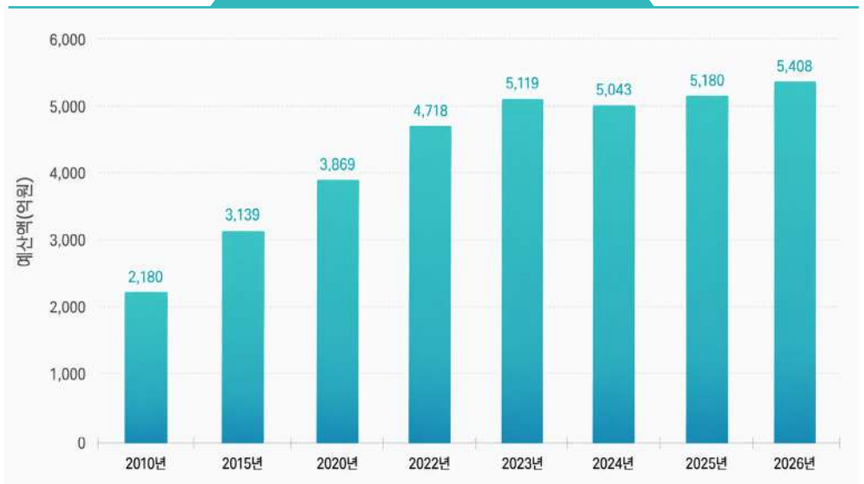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8.20%, 재정자주도 52.93%

세출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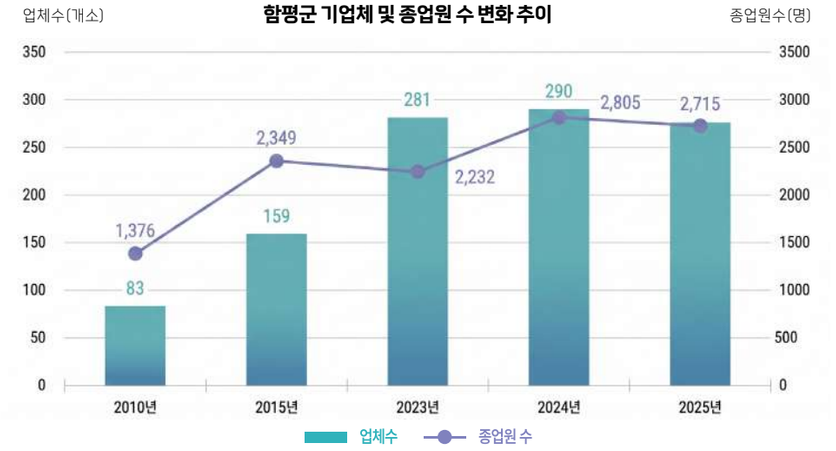
(단위 : %, 억원)



함평군 연도별 본예산액 변화 추이



다. 기업체 현황



읍면별 기업체 및 종업원 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별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2025. 12. 31.	276	2,715	107	737	169	1,978
함평읍	20	175	11	56	9	119
손불면	8	33	8	33	-	-
신광면	4	17	4	17	-	-
학교면	74	673	18	129	56	544
엄다면	10	57	10	57	-	-
대동면	47	362	5	31	42	331
나산면	9	17	9	17	-	-
해보면	62	434	19	124	43	310
월야면	42	947	23	273	19	674

라.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경제활동인구	산업별 취업자 수					
	1차	2차		3차		
취업자 총계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운수 통신,금융	개인사업, 공공서비스
18	7	2	1	2	1	5
100%	39%	17%		44%		

마. 산업단지(공장등록 기준)

(단위 : ㎡, 개소, 명)

구분	면적	업체 수	종업원 수	조성 기간	비고
계	3,793,947	169	1,978		
학교농공단지	163,500	25	339	'84~'89	
함평농공단지	103,200	9	119	'90~'92	
해보농공단지	245,430	43	310	'11~'14	
동함평산업단지	738,773	72	504	'11~'15	
학교명암축산 특화농공단지	318,564	1	32	'14~'26	2단계 공사중
빛그린산업단지 (우리군)	4,073,831 (2,229,021)	19	674	'08~'26	2단계 공사중

바. 주요 교통망

철도 및 도로 현황 (단위 : km)

구 분	계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개 소	158	1	2	4	6	16	129
길 이	602.9	10.8	32.6	78.3	85.9	130.1	265.2

도로(농로) 포장률 (단위 : km)

구 분	총연장	포장	미포장	포장률
군 도	130.1	123.1	7.0	94.6
농어촌도로	265.2	200.7	64.5	75.7

농어촌버스 및 노선버스

업 체 명	등록대수	노선수	운행거리	벽지·비수익노선	
				노선수	운행거리
계	38	52	1,111.8km	69	486.4km
(유)함평교통	28	27	663.5km	40	297.7km
(유)함평군민교통	10	27	448.3km	29	188.7km

관내 택시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전 남	6,508	3,816	2,692
함 평	63	34	29
전남대비	1%	1%	1%
함평읍	27	15	12
손불면	3	3	-
신광면	3	3	-
학교면	8	4	4
엄다면	2	2	0
대동면	2	0	2
나산면	3	1	2
해보면	9	4	5
월야면	6	2	4

사. 복지시설

(단위 : ㎡, 개소, 명)

장애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경로당		어린이집	
시설수	입소 인원	시설수	입소 인원	시설수	입소 인원	시설수	입소 인원	시설수	입소 인원	시설수	현원
3	59	43	1,499	2	50	1	16	377	9,780	11	265

아. 의료기관

공공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전 남	572	22	215	328	7
함 평	25	1	8	16	-
전남대비	4.4%	4.5%	3.7%	4.9%	-

민간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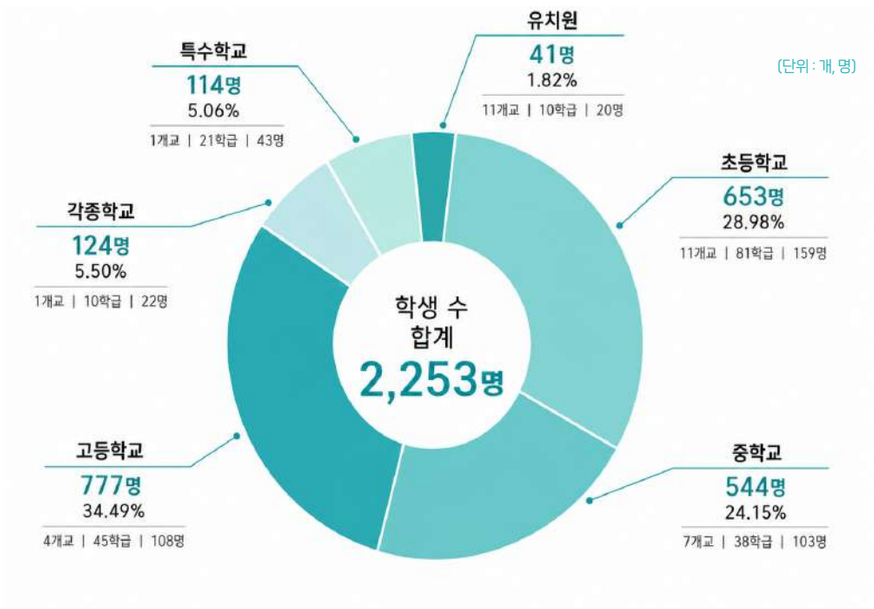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원급	의원급				약국
			소계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전 남	2,936	224	2,713	965	356	516	859
함 평	45	4	27	13	7	7	14
전남대비	1.6%	1.7%	1.1%	1.6%	2.0%	1.4%	1.7%

※ 의약품판매업소 : 32개 (약국 15, 의약품도매업 2, 한약방 5, 기타 10)

자. 교육기관

(단위 : 개, 명)



※ 2016. 2. 28. : 나산고 폐교
2017. 8. 31. : 나산·학다리중 폐교, 2017. 9. 1. : 함평중(舊 함평중 + 나산중 + 학다리중) 개교
2018. 3. 1. : 함평학다리고(舊 함평여고 + 나산고 + 학다리고) 개교
2020. 3. 1. : 월광기독학교(중·고등 통합과정) 설립인가

03. 행정

가. 행정조직

(2025. 12. 31. 기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실	과				
3	14	2	1	1	9

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결원
군전체	634	623	△11
본 청	351	351	-
직속기관	102	95	△7
사업소	16	15	△1
의회사무과	16	16	-
읍·면	149	146	△3

다.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	일반직									지도	별정	연구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나)			
정원	634	1	596	1	4	28	158	167	138	99	1	30	2	5
현원	613	1	588	1	4	28	181	154	143	76	1	28	2	4
결원	△11	-	△8	-	-	-	23	△13	5	△23	-	△2	-	△1





지표로 보는

함평의 변화

0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030
02 지역내총생산
03 1인당 지역내총생산
04 기업체 및 종업원 수
05 투자협약 실적 031
06 노인일자리 수
07 장애인일자리 수
08 농특산물 수출액
09 공동주택 수
10 주차면 수 032
11 도시가스 공급
12 전기차충전시설
13 상하수도 보급률
14 농로포장률 033
15 인재양성기금 조성액 또는 지원액, 학생수
16 지역안전지수
17 군민안전보험(보장범위) 확대
18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수혜 가구 수 034
19 찾아가는 행복버스(수혜자 수 또는 횟수)
20 CCTV 설치 수
21 국고확보
22 정부합동평가 035
23 재정자립도, 자주도
24 재정규모
25 관광객 수

0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생아 수(명)	75	100	108
합계출산율(%)	0.88	1.22	1.32

2025년
118
(1.43)

02 지역내총생산



구분	2020년	2021년
GRDP(백만원)	1,092,857	1,108,784

2022년
1,219,253

03 1인당 지역내총생산



구분	2020년	2021년
GRDP(만원)	3,410	3,545

2022년
3,961

04 기업체 및 종업원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	249	281	290
종업원 수(명)	1,886	2,232	2,805

2025년
276
(2,715)

05 투자협약 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액수(억원)	1,363	255.5	1,430
건	3	5	4

2025년
7,198
(8)

06 노인일자리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자리 수(명)	1,500	1,670	1,840

2025년
1,870

07 장애인일자리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자리 수(명)	95	97	109

2025년
114

08 농특산물 수출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액(천원)	-	2,922,080	6,743,459

2025년
11,289,589

09 공동주택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주택수	1,062	1,446	1,717

2025년
1,889

10 주차면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면수	7,179	7,236	7,293	7,344

11 도시가스 공급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급가구	2,509	2,740	3,046	2,963

12 전기차충전시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누적설치 수	30	79	255	267

13 상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하수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7.8	97.9	98.0	98.1		87.2	87.8	89.3	90.2

14 농로포장률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포장률	75.4	76.8	77.9	78

15 인재양성기금 조성액 또는 지원액, 학생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조성액(천원)	8,164,683	8,853,662	9,844,126	10,328,331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명)	272	360	436	461
지급액(천원)	505,387	663,767	692,956	697,581

16 지역안전지수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2022년	5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2024년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7 군민안전보험(보장범위) 확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항목 수(개)	21	25	32	34

18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수혜 가구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구 수	187	243	245	337
예산 집행액(천원)	152,000	248,000	265,000	290,376

19 찾아가는 행복버스(수혜자 수 또는 횟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 수	1,336	5,981	5,660	5,059

20 CCTV 설치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누적설치(대)	812	861	1,099	1,112

21 국고확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확보액(억원)	586	615	566	694

22 정부합동평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순위	18위	17위	11위	7위	1위

23 재정자립도, 자주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백분율(%)	자립도	7.58	7.16	8.54	8.20
	자주도	50.09	54.75	53.15	52.93

24 재정규모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액(억원)	5,119	5,043	5,180	5,408

25 관광객 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수(명)	578,129	640,045	1,335,822	1,358,070



III

민선8기
20대 핵심성과

01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 및 전략 구체화 038
02 농공단지 규제개선을 이끈 현장 중심 규제혁신 042
03 사계절 축제도시 기반 구축과 관광콘텐츠 다변화 045
04 추억공작소 신설로 황금박쥐를 관광객과 더욱 가깝게 049
05 생태교육·체험형 오락 융합한 나빛파크 조성 052
06 새로운 관광브랜드 '함께함평', 캐릭터 '황박이·뽐비' 개발 054
07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 및 수출판로 확대 057
08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060
09 전남 최초, 대학 납부금 전액 장학금 지원 063
10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065
11 군민 숙원사업인 함평읍 기각 원도심 중앙길 확장 068
1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070
13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 072
14 생명건강지킴터, 함평실내수영장 개장 074
15 농식품부↔함평군 농촌협약 체결 077
16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이전 079
17 신광면 행정복지거점 인프라 확충 081
18 '보훈가족의 새 보금자리'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083
19 전국최초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085
20 호남권 최초, 감염병 관리센터 개소 087
수상실적 090

01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 및 전략 구체화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모성환**



전남도-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

미래산업·관광·정주를 잇는 함평 대도약 시작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9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한 본 비전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6개 분야 18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함평을 명품 관광도시이자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2.0

주요 사업으로는 AI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구축,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되어 지역의 산업·관광·정주 기반을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TF 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확대, 함평천생태·문화 복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체감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5년에는 전라남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 비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보완한'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2.0' 추진에 나섰다. 지역의 신규 성장 동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한 전략 보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미래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광역-기초 간 협력 기반의 발전모델을 구현하였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 TF 출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실현 민관합동협의체 출범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실현을 위한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전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을 군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비전 선포와 전략 구체화는 함평군이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산업·관광·정주가 결합된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군정 전반의 정책 추진에 있어 중장기 발전의 방향성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는 핵심정책 체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18개 사업		18,409
미래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주거·산업·상업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미래 신도시 개발	5,000
지방산단 조성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1,500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국가산단 유치 추진	-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거점 구축	480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센터 건립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거점 및 센터 조성	350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개발	100
어촌뉴딜 300 사업	낙후 어촌·항만 정비 및 생활SOC 확충	163
연안정비	해안 침식 방지 및 연안 안전성 확보	58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보행 인프라 구축	150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 인프라 조성	424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조성	야구 특화 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관광 및 전지훈련 유치	146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AI 기반 스마트 축산과 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5,000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임대 및 창업 지원	200
광역도로(광주삼도~나산) 확장 사업	광주권 연계를 위한 광역도로 확장으로 접근성 개선	496
국도 23호선(신광~영광) 확장	주요 간선도로 확장으로 물류·교통 효율성 향상	1,344
지방도 838호선(신광~해보) 확장	지역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방도 확장	1,100
지방도 811호선(월천~석창) 확포장	도로 확포장으로 통행 안전성과 이동 편의 개선	1,400
함평천 통합하천사업	하천 정비 및 통합 관리로 재해 예방과 친수공간 조성	498


호남신문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004면

함평군, 전라남도와 함께 미래 발전 비전 발표

6개 분야 15개 사업…총 1조 7,100억원 규모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

이상익 함평군수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 5대 전라남도정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역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구 3만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함평군이 푸른비 지역 발전사업을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낸 결과 이뤄낸 성과다.

이날 발표된 비전 6개 분야는▲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넬리,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 조성, ▲광도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미래 융복합 첨단 신도시, ▲SOC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이다.

15개 세부 사업으로는 ▲AI 첨단 축산업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AI 연계 데이터센터 유치 ▲광역도로, 국도 23호선 및 지방도 838호선 확장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등이며 총 1조 7,100억 원 규모이다.

함평군은 이번 비전을 실현해 AI 첨단 축산업과 해양관광,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을 갖춘 첨단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SOC 확충 및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함평 비전 발표는 함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말하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되어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발표는 함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작 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말하며, "오늘 발표된 사업들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행되어 반드시 지역발전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정훈 기자


광주매일신문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06면

"농도 '전남의 심장' 함평 도약 뒷받침하겠다"

숄지사, 도민과 대화…1조8천억 미래비전 강조

'임대농기계 셸프 세척사설 설치' 5억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함평군 도민과의 대화에 앞서 함평에 건설되는 다목적 체육관을 바라보며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농도 전남의 심장인 함평군의 발전을 위해 3개 사업에 1조8천4백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활한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평군민체육관에서 김 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탁 함평군의회 의장, 도의원 전남도의회, 행정선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정기 함평경찰서장, 이영민 월봉수생시장, 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의 대화가 열렸다.

김 지사는 "함평은 호남을 대표하는 고장으로 생태체험관광의 메카이자 농도 전남의 심장"이라며 "전남도는 지난 9일 함평의 멜론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분야 3개 사업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재해한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학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업 구축 등으로 농산업 대도약이 온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상익 군수가 추진하는 4-4 유통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빛고 인공지능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와 배추 산업시설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이상익 군수는 함평사랑 회의 "함평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전남도에 감사드린다"

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셀프 세척 시설을 설치해 군의 전라 아픈 안전한 고 효율적으로 세척하는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5억원)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5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군민들은 ▲지방도 838호선 노선 조정 ▲해보친 해선제예복구 사업 구간 연장과 준설사업비 지원 ▲신광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함평 A.I.산단관련 구축 등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도 승격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하겠으며 해보친 복구와 생활 편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수년 지역 주민들께 많은 불편 수 있도록 적도 개선을 건의해고 올해에 최소한의국도목 한건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02 농공단지 규제개선을 이끈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법무팀장 **신우임** | 담당자 **김충효**

함평이 이끈 농공단지 규제혁신, 전국으로 확대

함평군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과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단순한 민원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관내 기업체와 소상공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모습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시군 평가 장려상

특히 함평군은 규제혁신을 단순 행정 개선 차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건의하며 군민과 기업 중심의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인 성과로도 이어졌다. 함평군은 2023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과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함평군의 규제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는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 완화가 있다.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는 건폐율 80%까지 허용된 반면 농공단지는 70%로 제한되어 있어 입주기업들의 시설 증설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함평군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그 결과 2025년 7월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농공단지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없이도 기존 농공단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라남도 기준 약 121만㎡ 규모의 추가 활용 효과가 기대되면서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대한일보 2025년 2월 4일 화요일 007면

함평군, 농공단지 규제개혁 건의 중앙정부가 인정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로 효율성 떨어져
2년간 전남도·중앙정부 수차례 설득해
국토교통부 건폐율 70→80% 상향 조정

함평군이 불합리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지난 2년 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등 총 4 차례 걸쳐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또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책임관 및 지역경제국장 등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은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민원이 많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전국 484곳의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함평=남영주 기자 freemoo1@naver.com

産經日報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015면

함평군, 2025년 규제 혁신 중앙·광역 평가 '그랜드 슬램'

규제 혁신 분야 탁월한 성과 인정받아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군(郡)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평가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성과 평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성평가(20%)와 자체 정량평가(80%)를 합산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기초자치단체 군 부문 수상 기관이 19곳에서 8곳으로 대폭 축소돼 경쟁이 치열했으나, 함평군은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함평군은 2025년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공직 내 규제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특히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농어촌 지역 공장 담보인정비율 개선 등 지역 기업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로써 함평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규제 혁신 분야에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 주요 평가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에 이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우수상 수상까지 이어지며 2025년 규제 혁신 분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함평군 관계자는 "규제 혁신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해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영규 기자 yg223@skilbo.com

03

사계절 축제도시 기반 구축과 **관광콘텐츠 다변화**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담당자 유유미

겨울빛축제와 물놀이 페스타로 사계절 관광 완성

함평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축제를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봄·가을 중심의 계절 편중형 관광 구조를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사계절 관광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축제를 중심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함평 겨울 빛 축제



엑스포공원 야간경관 연출

- 대형 조형물과 엑스포공원
- 야간 경관조명을 활용한
- 새로운 함평 겨울빛축제


EDM 버블파티

함평 물놀이 페스타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민선8기 관광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겨울철 비수기 관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인 「함평 겨울빛축제」를 새롭게 추진한 점이다. 함평군은 함평엑스포공원의 기존 기반시설과 국향대전 조형물, 야간경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겨울철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빛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포토존,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야간형 축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투게더 인 함평' 시책과 연계하여 읍 시가지 및 9개 읍·면 경관조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축제 효과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켰다. 그 결과 겨울빛축제 방문객은 2024년 8만1천여 명에서 2025년 15만6천여 명으로 대폭 증가하며 겨울철 대표 관광콘텐츠로 빠르게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함평군이 봄·여름·가을에 이어 겨울까지 축제 기반을 완성하며 '사계절 축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서바이벌 물총대전

또한 함평군은 기존 물놀이장 중심의 여름철 관광 운영 방식을 확대하여 2025년부터 「함평 물놀이페스타」를 새롭게 추진하였다. 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서바이벌 물총대전, EDM 버블파티, 체험형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단순 시설 운영에서 벗어난 참여형 여름축제로 발전시켰으며,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 확대를 통해 여름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축제 기간이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3만1천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며 함평군 사계절 축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모악산 꽃무릇축제

함평군은 지역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위해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 운영체계도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해보면 지역행사 형태로 운영되던 꽃무릇 축제를 2023년부터 함평군과 함평축제관광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군 단위 축제로 전환하면서 축제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셔틀버스 운영, 교통대책 마련, 체험 프로그램 확대, 모악산 치유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객 수용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지역 주민 중심 행사에서 관광형 생태축제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모악산 꽃무릇축제는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이어 함평의 새로운 가을 관광콘텐츠로 성장하며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기존 대표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축제도시 기반 확대에도 힘써왔다. 함평나비대축제는 체험형 콘텐츠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서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역시 차별화된 국화 조형물과 자체 육성 국화 품종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전국 대표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전라남도 대표축제와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였다.



달랏꽃축제 개막식 및 함평군 홍보관 운영

특히 함평군은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 교류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 달랏꽃축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 피두구 나비촌 유채꽃축제와 글로벌 축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축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홍보관 운영, 문화교류 프로그램, 관광 콘텐츠 협업 등을 추진하며 함평 관광브랜드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였다. 또한 외국인 방문객 수가 2022년 1만4천여 명에서 2025년 7만5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생태·축제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함평군은 민선8기 동안 신규 축제 개발과 기존 축제의 경쟁력 강화, 국제 교류 확대를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축제를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겨울빛축제 신설을 통한 사계절 관광체계 완성과 물놀이페스타를 통한 여름축제 확장, 꽃무릇축제의 군 직영 전환은 함평 축제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함평군은 체류형 관광 확대와 글로벌 축제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매일신문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004면

'함평의 밤, 빛의 향연'… 함평 겨울빛축제, 26일 막오른다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겨울밤 야경… '빛금토' 체험존·먹자존·판매존 운영

전남 함평군은 올해 함평 겨울빛축제를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겨울빛축제의 주요 테마는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야경이다. 아이남 미디어 아트 작가의 대형 아외 전시물이 웅장을 장을 빛낼 예정이다.

함평군은 전통적인 자연경관에 첨단 예술을 융합해 함평 엑스포공원을 단순한 겨울 야행지가 아닌 하나의 대형 아트 전시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엑스포공원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국향대전에서 인기였던 국화 조형물 등 다양한 포토존과 경관 조명을 설치해 밤마다 빛의 향연을 펼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특별 체험부스와 판매존 등 '빛금토 체험존'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빛금토 먹자존'과 '빛금토 판매존'에서는 군고구마, 국화빵, 떡볶이 등 간식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도 함께 판매한다. 매주 토요일에는 '겨울밤 몬스트와 'EDM 파티'를 진행해 저녁 시간마다 색다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함평 겨울빛축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산타 복장 체험, 루돌프 머리띠와 아킹 페이스페인팅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중 매일 오후 9시까지 추억공작소, 나비곤충표본전시관, 자연생태관, 친환경농업관 등 엑스포공원의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해 실내에서 편안하게 함평을 둘러볼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 엑스포공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겨울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행사"라며 "빛과 자연, 예술을 한데 담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주매일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008면

'함평 물놀이 페스타' 첫 선

군, 내달 18일부터 한달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물총대전·EDM 버블파티·K-POP 댄스파티 등



함평군이 여름 축제인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처음 선보이며 사계절 관광을 완성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함평축제관광재단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첫 개최한다.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군이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봄(나비대축제), 가을(국향대전), 겨울(함평 겨울빛축제)에 이어 기획한 최초의 여름 축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토·일)과 광복절 등 휴일 1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성수기와 공휴일을 포함해 총 15일간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물총대전, 블풀대전, 징검다리 챔린지 등 이색적인 물놀이 체험 콘텐츠와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등 공연 콘텐츠로 구성됐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슬라이드풀, 어린이풀, 워터버킷, 유아풀 등이 물놀이 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편의 점과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운영돼 방문객에게 한층 더 즐겁고 쾌적한 축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와 엑스포공원을 적극 연계해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에서는 어린왕자 의상 체험, 바나나따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상익 군수는 "함평물놀이 페스타는 여름철 새로운 지역축제로서 사계절 축제를 지향하는 함평의 새로운 도전이자 가능성이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함평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7월 18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환경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04 추억공작소 신설로 황금박쥐를 관광객과 더욱 가깝게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관리팀장 **이송도** | 담당자 **김소영**

세대 공감형 체험관광 콘텐츠 탄생

함평군은 관광객 체험 콘텐츠를 세대별로 다양화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설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추억공작소를 신설하였다. 기존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관람객 체류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생활문화와 체험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억공작소 내부



추억공작소 내부



추억공작소 내부

기억을 걷는 시간, 과거로 떠나는 함평추억공작소

추억공작소는 1960~80년대 함평의 생활상을 재현한 체험형 전시관으로, 관람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전시관 내부는 학교, 상점, 극장, 다방, 주거공간 등 당시 일상생활 공간을 실감형 디오라마 방식으로 구현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함께 배치하여 세대 간 공감과 체험이 가능한 구조로 구성하였다.



추억공작소 개관식



함평군이 '나비 대축제' 개최(4월20일~5월6일)에 맞춰 함평엑스포공원에 '함평추억공작소'를 열었다.

함평추억공작소는 '함골목마당'을 중심 전시와 역사 경험 체험 놀이터가 어우러지고 있다.

이곳은 옛 함평민속유물전시관이 지난 2020년 8월 8주 프레임 결으며 이전 신축한 건물이다. 3년 6개월 만에 함평엑스포공원 입장에 문을 열었다.

1960년부터 1980년대의 생활상을 재현해 추억을 공유하는 공간 중심으로 꾸며졌다.

가상 인물인 '함가영' 씨 22살의 공간을 기념고 3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새 1라 학생사'에서는 옛적 상품들을 직접 만져보고 '함평디벨'에서는 미디어 놀이 체험과 함께 차량을 타실 수 있다. '함평극장'에서는 명품들을 배경으로 연 영화 '나에게 오라'와 최초 상영작인 '가로막세를 판 김삿갓' 수 있다. 전시관 입구에는 한국 원래 경우 없이로는 최초의 유튜버격인 1호 '재여에 의문제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함금박쥐를 찾아라' 공간에서는 함관객 쥐를 누르면 카운터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며 관람객에게 합격, 부귀, 다산, 장수를 기원하는 응원을 던진다.

이상적 함평군수가 함평엑스포공원에 새로 문을 연 '함평추억공작소'에서 1960년대 다무집을 재현한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150억원 몸값 '황금박쥐상'… 새 둥지로 이사한다

문화유물전시관으로 이전
나비대축제 개장 맞춰 공개

전시관 1층 입구 정면 규모
풍양 행운의 상징 의미 소개
키워드 콘텐츠로 바꿔

'150억원의 몸값 황금박쥐상'이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다.

함평군에서는 명실 축제 속인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비 이외에도 볼거리 콘텐츠 개발에 힘써 왔다.

함평나비대축제 개장에 맞춰 '황금박쥐상'을 전시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환 전시 2관 명품을 중심에 둔 관람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함평나비대축제 주관 함평문화관광재단은 이곳을 금 군조하여지속 대 명품 모습에 맞춰 전시관 1층 입구에 두 이상한 공간에 배치해 개장했다.

새로 이전한 공간에서 명품하는 황금박쥐 전시는 명품을 맞이하는 입구의 공간과 관련 관련 콘텐츠를 함께 구성했다.

특히 전시 콘텐츠는 가상 인물의 일상 이야기를 따라 이동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되어 관람 동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으며, 영상·음향·인터랙티브 요소를 활용하여 단순 관람을 넘어 몰입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옛 교실, 문방구, 이발소, 극장, 음악다방 등 다양한 공간을 재현하여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각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축제 기간에 한정적으로 공개되던 함평의 대표 상징물인 황금박쥐상을 전시관 내부로 이전하여 상시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터치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엑스포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상시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시관 내 일부 공간에서는 체험과 연계한 소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관람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환경을 조성하였다. 음악다방, 사진관 등 체험 공간에서는 실제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단순 전시를 넘어 이용형 콘텐츠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억공작소 조성사업은 단순 전시시설 확충을 넘어 체험 중심 관광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엑스포공원의 체류형 관광 기능을 보완하고 세대별 맞춤형 관광 수요를 충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05 생태교육·체험형 오락 융합한 나빛파크 조성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 담당자 **조상수**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융복합 관광랜드마크 조성

함평군은 지역 관광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놀이의 혁신적 융합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평 엑스포공원 내 에듀테인먼트파크인 '나빛파크'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단순 관람 위주의 수동적 관광 구조를 오감 만족형 '체류형 융·복합 관광'으로 전환한 민선 8기 관광 정책의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나빛파크는 총 8개 존, 25개 체험 아이템을 갖추고 2026년 4월 정식 개장했다. 곤충 생태계라는 함평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에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첨단 ICT 기술을 투영하여 관람객에게 압도적인 몰입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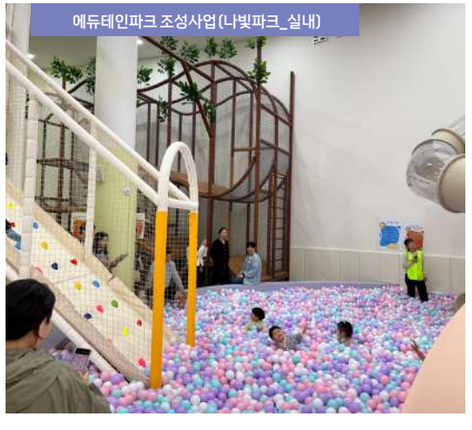


에듀테인파크 조성사업(나빛파크_실외)



나빛파크 개관식

어린이를 위한
교육 기반
놀이&체험 시설


에듀테인파크 조성사업(나빛파크_실내)

공간별 주요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1층 공간(7개 존, 16개 아이템)은 생태 교감과 신체 발달을 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축했다. 입구 단계부터 안내 로봇 '클로이(CLOI)'를 전격 도입하여 스마트 관람 환경을 조성했으며, 13대의 프로젝터를 활용한 '신비로운 나비의 숲'을 통해 함평의 사계절을 실감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며 다면 인터랙티브 실감 영상 기술의 정수를 선보였다.

또한 '꽃줄기 나비마을' 내 연못 챌린지와 나무 덩굴 메이즈 등 체험형 신체 놀이 인프라를 완비하여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했다.

디지털 탐구 거점인 2층 '팔랑팔랑 연구소' (1개 존, 9개 아이템)는 함평 나비 연구의 선구자인 이승모 박사의 서사를 AI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한'박사님의 서재'를 운영하며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동시에 확보했다.

AR 맵핑 기반의 연구원증 발급, 3D 조이스틱 곤충 구조 탐색 등 최신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전면 배치하여 어린이 방문객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라이브 스케치와 홀로그램 등 다채로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집약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방명록 트리가 설치된 '패밀리 그라운드'와 엑스포공원 전경을 조망하는 '옥상 카페테리아' 등 가족 친화적 편의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하여 방문객의 만족도와 체류 시간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이번 나빛파크 개장을 통해 축제 기간에 편중되었던 관광 수요를 사계절 연중 상시 유치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관광 소득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나빛파크를 거점으로 함평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디지털 융복합 생태 관광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전매일신문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함평나비대축제 체험형 놀이터 '나빛파크' 인기

신체활동부터 미래형 체험까지… 세대 아우르는 에듀테인먼트 공간

전남 함평군이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에 맞춰 개장한 체험형 교육 놀이시설인 '나빛파크'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4일 나비대축제를 맞아 새롭게 선보인 체험형 복합 놀이공간 '나빛파크'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축제에 맞춰 새롭게 선보인 '나빛파크'는 실외 놀이시설과 실내 체험 공간을 결합한 복합형 전시관으로, 기존 축제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나빛파크 내부는 층별로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2층의 구조로 구성됐다. 1층은 7개 구역, 16개 아이템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징글짐, 트램펄린, 슬라이더, 볼풀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춰 신체활동과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층은 1개 구역, 8개 아이템으로 구성된 미래형 체험 공간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마련됐다. 관람객은 조이스틱을 통해 나비와 다양한 곤충을 3D로 확대해 관찰할 수 있으며, 직접 그린 곤충 그림이 프로젝터를 통해 구현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을 활용해 함평군의 관광 캐릭터인 콩비·햇리모·구르비를 생동감 있게 구현하고, 함평을 대표하는 나비도 함께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미끄럼틀 역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아외 공간에는 구름나비와 잠자리의 설치된 놀이터가 조성돼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아이들이 유쾌 뛰어놀 수 있어 좋다", "놀이와 체이 함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며 큰 호응을 보였다. 함평/전광훈 기


나빛파크_실내


나빛파크_실외

06

새 관광브랜드 '함께함평', **캐릭터 '황박이·뽐비' 개발**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마케팅팀장 **노호성** | 담당자 **한세인**



'함께함평'으로 새롭게 쓰는 관광도시 함평

함평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통합 관광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된 본 사업을 통해 탄생한 슬로건 '함께함평'은 함평의 지형적 특징을 현대적 감각의 심볼로 형상화 하였으며, 다양한 색을 통해 함평이 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풍요로운 관광 콘텐츠를 표현함으로써 사계절 아름답고 다양한 경험과 만족을 주는 관광도시 함평을 담고 있다.

특히 함평의 상징인 세계적 희귀종인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한 '황박이'캐릭터는 황금박쥐의 줄임말이며, 오복과 장수·다산을 상징하는 박쥐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 함평군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한다.

군은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하여 함평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기념품을 개발·제작하였고, 나비대축제 등 축제 현장에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함평 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함평 엑스포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 중심의 브랜드 '나빛파크'와 나빛파크 캐릭터인 '뽐비'를 개발하였다. 주인공인 '뽐비'는 뽐내기를 좋아하는 나비로, 나빛파크의 빛나는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을 상징한다.

나빛파크 캐릭터 '구르비, 뽐비, 젤리모'



'나빛파크' 브랜드 로고

나빛파크
NAVIT PARK

또한 뽐비를 포함한 나빛파크의 캐릭터들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함평 관광의 핵심적인 스토리텔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함평은 이러한 캐릭터 기반의 콘텐츠를 통해 함평이 생태 관광을 넘어 교육과 모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통합 브랜드 '함께함평'과 친근한 캐릭터 '황박이·뽐비'의 탄생은 단순한 시각적 교체를 넘어, 함평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함평'슬로건과 '황박이'캐릭터를 중심으로 일관된 홍보 전략을 전개하여 '함평=치유와 생태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빛파크'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콘텐츠 확장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장을, 부모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등일보

함평나비대축제, 새 캐릭터 '황박이' 인기


대전일보

함평나비축제 입장객 22만4000명…"황박이 캐릭터 흥행"

12일 간 입장료 수입 8억4900만원
지역경제·관광산업 활성화 마중물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관광 캐릭터 팝업스토어' 인기몰이

박성환 기자 | 승인 2026.04.29 15:34

인형, 쿠션, 유리컵 등 12종 기념품 판매



함평나비대축제장 내 관광 캐릭터 팝업스토어. [제공=함평군]



광주광보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018면

'황박이·뽐비' 함평 관광 매력 알렸다

군, 용인시 '조아용 페스티벌' 참가·홍보 활동

함평군 관광 캐릭터 '황박이'와 '뽐비'가 용인특례시에 진출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에 참가해 함평군의 관광 캐릭터를 알렸다.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은 제30회 용인 시민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캐릭터 산업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페스티벌에는 용인시 대표 캐릭터인 '조아용'과 함평군의 '황박이', '뽐비'를 비롯한 전국 18개 지역·기관의 29개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여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함평군은 '함께함평'이라는 상생 표어와 함께 '황박이&뽐비' 인형, 컵 등 상품(Goods)과 함께 엑스포공원과 돌머리해수욕장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관람객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매력적인 볼거리를 홍보하며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함평군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구독 행사와 플랫폼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념품을 증정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함평 관광 매력을 한층 더 널리 알렸다.



함평군은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조아용 페스티벌'에 참가해 함평군의 관광 캐릭터를 알렸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조아용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함평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특색있는 콘텐츠를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국내외에 함평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choeig7390@gwangnam.co.kr

光州日報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014면

함평군, 국향대전 이모티콘 '황박이' 무료배포

함평군이 관광 브랜드와 슬로건을 대표하는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통해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홍보한다.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를 주제로 18일부터 11월3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브랜드 개발은 함평의 독특한 매력을 부각하고 방문객과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황박이는 멸종위기 야행성 생물인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함평군 대동면 일대에 서식하는 황금박쥐를 알리자는 취지를 담았다.

이모티콘 배포는 14일부터 시작했으며, 카카오톡에서 함평군청 공식 채널을 팔로우하면 참여할



국향대전 홍보 이모티콘 '황박이'.

이상익 함평군수는 "황박이 이모티콘 이벤트가

07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출범 및 수출판로 확대**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마케팅팀장 **백선웅** | 담당자 **황성민**

해외 수출판로 확대와 글로벌 유통 기반 구축

함평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중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를 출범시키며 수출 판로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이는 단순 농산물 판매를 넘어 생산·유통·마케팅 기능을 통합한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축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프랑스 ACEFOOD 우렁색시미 수출 상차식

우선 함평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7개 농축협과의 정례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며 대표 농특산물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 11월 농업법인과 기업, 농협, 축협, 행정 등이 참여하는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2025년에는 원예조공법인과 농축협, 행정이 참여하는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함평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인 'K-HC FOOD(Korea Hampyeong County Food)' 상표 등록을 추진하며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힘썼다.

아울러 함평군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태국·대만·베트남·프랑스·중국·말레이시아 등 8개국 10개 도시를 방문하여 국제식품박람회와 시장개척단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김·샤인머스켓·쌀 등 30여 개 품목을 중심으로 함평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특히 농악단 공연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한 홍보마케팅을 병행함으로써 함평군 농특산물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중국 사천성 청두시 피두구 우호교류 추진



캄보디아 SREYMOM FRUIT SHOP 수출협약



말레이시아 PASARNITA Mart 조미김 수출



K-HC푸드 상표 등록출원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함평군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 추진

또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하였다. 중국 사천성 청두시 피두구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태국·프랑스·중국·인도네시아 등 해외 한인회와 유통업체, 현지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수출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함평군 농특산물 수출 실적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약 29억 원에서 2025년 약 112억 원 규모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조미김과 샤인머스켓을 중심으로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프랑스 등 해외시장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지역 농특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다.

08



함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감도

먹거리 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 담당자 **황지훈**

생산부터 식탁까지, 함평형 먹거리 완성

함평군은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결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가 실태조사와 먹거리 소비 분석, 전문가 자문 및 군민 공청회를 거쳐 함평 실정에 맞는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중소농 중심의 기획생산 체계 구축과 지역 먹거리 자급률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함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자·소비자·교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함평군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협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아울러 함평군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군민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5년 '함평로컬푸드직매장 함평점'을 개장하였다.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 먹거리 유통 거점으로 운영되었으며, 출하 농가 조직화와 품목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 형태의 로컬푸드 코너 4개소를 추가 조성함으로써 군 전역의 소비 접점을 확대하고 '함평산 농산물'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함평군은 지역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과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농산물 집하·선별·전처리·배송 기능을 갖춘 복합 물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며, 학교·군부대·공공기관 등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품질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구인 '함평먹거리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향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을 전담하며 생산 농가 조직화와 공공급식 연계,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먹거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행정과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먹거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운영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함평로컬푸드직매장(함평점) 전경



나비골농협 하나로마트(대동점) 로컬푸드 코너

지역 생산,
지역 소비!
행복한 선순환

호남매일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005면

함평,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쾌거'

5년간 45억원 확보…'월급받는 농부 2000농가 육성' 목표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다.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국비 22억원을 포함, 45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함평형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단위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추진, 농산물종합가공기술 등 총 10개다.

이에 앞서 함평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먹거리 정책팀 신설 등 지역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월급받는 농부 2000농가 육성을 목표로 함평형 먹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09 전남 최초, 대학 납부금 전액 장학금 지원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교육지원팀장 **조아라** | 담당자 **노정선**

지역인재를 위한 파격적 장학정책 실현

함평군은 인재양성이 곧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뜻을 모아, 1993년 '범군민 애향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출향인, 사회독지가들의 참여 속에 인재양성기금 조성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11월 29일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5년 군민의 날에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설정하고,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였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백년지대계 마련'을 공약사항으로,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수 봉급 전액'을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는 공약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켰다.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995~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인원	5,507	3,977	272	360	436	461
지원금액	5,440	2,879	505	664	693	698



2025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24년 상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2024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남도일보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016면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회.

함평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전남 최초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모집

전남 함평군이 지역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난 달 26일 개최된 '2024년도 제5회 함평군 인재양성추진위원회 심의회'에서 의결된 장학생 선발요강을 바탕으로, 오는 17일까지 함평군 읍·면사무소에서 하반기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장학생 선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인재'와 '성적우수' 전형을 통해 각각 150명과 25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 소득분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선발요강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은 11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선발 확정 후 1개월 내 지급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교육을 위한 투자는 곧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은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그 결과 재임 이전 연간 1억 원 미만이던 기부금 규모가 연간 2억 ~ 4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100억 원 기금 조성을 5년 앞당긴 2025년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주민과 사회 독지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며 인재양성기금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당초 선발 요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계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2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균등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3년에는 '전남 최초'로 대학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인 '학업장려금'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장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8기 이전인 2020년 216명에서 2025년 461명으로 약 11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역 학생들에게 사실상 '대학교 무상교육'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함평군은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가 학비 부담 없이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애향심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춘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연계 함평골프고등학교장배 골프대회

10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교육지원팀장 **조아라** | 담당자 **윤정화**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교육도시 도약

함평군은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이겨내고, 지자체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당면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급감과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유출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교육이 지역발전의 뿌리가 되는'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교육부 주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이는 단순히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공교육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2026 역사문화 국외체험학습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늘봄학교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함평형 돌봄·늘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통합·연계 교육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내 교육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구축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고를 육성하는 등 우리 군만의 '글로컬 특화 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나아가 지역 인재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생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고향에 머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은 시범지역 선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우리 군은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혁신의 마중물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교육을 위해 떠나는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지역'으로 군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앞으로 특구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면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젊은 층의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사업 목록

추진전략	추진사업
함평형 돌봄·늘봄	-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 지역사회 유치원-어린이집 간 돌봄 연계 - 학교별 늘봄학교 운영(방과후 늘봄학교) -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마을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역아동센터) - 함평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용 마을돌봄학교 운영(마을교육공동체) **3개년 예산 : 3,231백만원**(특교 335, 군비 703, 도교육청 2,193)
학교 간 통합·연계 교육체계 구축	- 초·중등 골프 꿈나무 육성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 상상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함평형 창의융합 교육 운영 - 문화예술 특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 학교 간 공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함평역사 바로 알기' 운영 - 맞춤형 학력 향상 책임교육 **3개년 예산 : 2,173백만원**(특교 564, 군비 995, 도교육청 614)
글로컬 특화교육	- 골프선수 전문 육성 교육과정 운영(함평골프고) - 보건 의료 치유인재 양성 교육 운영(전남보건고) - 장애 이해의 특수 치유 교육과정 운영(함평영화학교) - 자율형 공립고 2.0 구축 및 운영(함평학다리고) **3개년 예산 : 1,607백만원**(특교 712, 군비 405, 도교육청 290, 기타 200)
지역인재 정주 선순환체계 구축	-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 교육(농어촌공동체과) - 명문고등학교 육성(함평학다리고, 함평고) **3개년 예산 : 1,085백만원**(특교 180, 도비 140, 군비 765)


서울일보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014면

함평,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업무협약

전남 함평군이 7일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함평교육지원청을 비롯해 목포대, 초당대, 동신대 등 지역대학, 그리고 함평 하다리고, 함평고, 전남보건고, 함평골프고 등 지역 고등학교가 참여했다.

또한 함평군 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회 등 관·산·학 각 주체를 대표하는 13개 기관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협약은 함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등에 따른 지역협력체 구성을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자율형 공립고 등 공교육 분야 협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위해 모두가 아낌없이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원 기자


서울일보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014면

함평,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인재 육성 박차

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특구 지정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들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특구 지정 지역은 학생과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분야별 직업 실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있다. 현재까지 2개교에서 15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일반 구직자들은 맞춤형 일자리 알선과 취업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군민 숙원사업인 함평읍
기각 원도심 중앙길 확장

추진부서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계획팀장 **박상균** | 담당자 **신종식**


사업 시행 전 도로


사업 시행 후 도로


중앙길 전경 사진

막힌 도심혈관 뚫고, 원도심 활력 되찾다

함평군은 구도심의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읍 소재지의 중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역점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농협 함평군지부에서 군청을 거쳐 국토정보공사까지 이어지는 읍 중앙길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협소한 도로 폭과 일방통행 체계,


중앙길 전경 사진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문제 등으로 발생하던 교통 혼잡과 보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기존 폭 8m 이하의 일방통행 도로를 폭 18m로 확장하는 총 620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추진되었다.

읍 중앙길은 함평읍 구도심을 관통하는 중심축으로서 군청, 금융기관, 공공기관, 상가,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그동안 도로 폭원이 협소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하여 차량 통행 지체, 보행자 안전 취약, 상권 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함평군은 단순한 도로 확장에 그치지 않고, 구도심의 교통 흐름을 회복하고 생활권 중심가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존 일방통행 중심의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성을 높이고, 양방향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가로환경 정비 등을 병행하여 차량·보행·상권이 조화되는 중심가로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됨으로써 단순한 도로시설 개선을 넘어 구도심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읍 중앙길 인근에는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읍사무소, 경찰서 신축(예정) 등 주요 공공기능이 집적된 만큼, 도로확포장 사업은 향후 행정·상업·문화·생활서비스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앞으로 읍 중앙길 도로확포장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막힌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중심상권 활성화, 지속가능한 읍 소재지 재생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빛그린산단 이전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투자유치팀장 **김경남** | 담당자 **조영훈**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투자협약식

빛그린산단에 미래산업 엔진 장착

함평군은 미래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립이 본격화되며, 함평군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701-1번지 일원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에 조성된다. 1단계 사업은 약 500,000㎡ 규모 부지에 총 6,609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스마트 타이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용인원은 639명, 연간 생산규모는 530만 본으로 계획되어 있다.

금호타이어는 기존 광주공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스마트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함평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였다.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1단계 투자 개요

위치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1701-1번지

투자기간
2025. 12. ~ 2028. 3.

생산품
친환경 스마트 타이어

부지면적
약 500,000㎡

투자금액
6,609억 원

연간생산
530만 본

주요일정
2025. 12. 착공, 2028. 3. 타이어공장 준공 및 타이어 생산 예정


"금호타이어 함평신공장 차질없이 완공"

빛그린산단 부지서 현장 브리핑
전남도·함평군과 지원방안 논의

금호타이어와 전라남도가 차질없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의지를 다졌다.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현장 브리핑이 열렸다.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임원주 금호타이 경영기획본부장·황호림 안전생산책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건설회사 이어 함평공장 부지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형

3일 오후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빛그린산단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 현장 찾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을 이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임원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손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찍

짧은 나흔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 2026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석곳에서는 초정밀 다이올 생산에 금호타이어의 대도약과 시이정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1단계

금호타이어, '함평신공장 시대' 본궤도 올랐다

빛그린산단 공직사 공장 건설노사 협동 '안전기원제'
무사고·무재해 기원…근로 희망은 공직 의지 등 각각

함평공장 건설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 실천 선포식

2025.12.09

투자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전라남도와 함평군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함평군은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협의, 보조금 지원방안 검토 등 공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 5월 광주공장 화재 이후 생산기능 회복과 공급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함평공장은 미래 수요에 대응할 신규 생산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였다. 2024년 10월 빛그린산단 입주계약과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025년 9월 중도금 납부, 2025년 11월 창고동 건축허가를 거쳐 2025년 12월 9일 전라남도·함평군·금호타이어 간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창고동 착공으로 함평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단순한 공장 신설을 넘어 빛그린산단의 산업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관산업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제조업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유입, 부품·자재·물류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함평군은 2027년 6월 정련공장 준공, 2028년 3월 타이어공장 준공 및 생산 개시 등 단계별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2028년 이후에는 광주 1공장 이전을 포함한 2단계 사업도 검토될 예정으로,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함평군의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계획팀장 **박상균** | 담당자 **박세영**

교통안전과 지역활력을 잇는 미래 거점 조성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내 공공서비스 기능과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교육·연수·방문 수요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



함평군-도로교통공단 MOU 체결식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예상 조감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은 교통안전 전문교육, 운전자 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육, 교통안전 문화 확산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함평군은 이러한 교육원이 지역에 유치될 경우, 연수생과 방문객 유입을 통해 숙박·음식·교통·생활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에 '국가 교통안전교육원' 들어선다

함평군은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입지 여건, 교통 접근성, 부지 확보 가능성, 주변 기반시설,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광주·전남권과의 접근성, 서남권 교통축과의 연계성, 비교적 안정적인 부지 확보 여건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를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교육원 운영에 따라 연수생·교육생·관계자 등의 지속적인 방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서비스, 관광자원과 연계한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고령자, 운수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생활안전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를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 기능을 확충하고, 교육·연수 중심의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주인구 증가가 어려운 지방소멸 대응 여건 속에서 방문인구와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유치 추진은 함평군이 지역의 입지 장점과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과 연계한 새로운 활력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4


함평실내수영장 전경


수준별 수영강습

생명건강지킴터,
함평실내수영장 개장

추진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진흥팀장 **정병호** | 담당자 **김승환**

군민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생활체육 랜드마크

함평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수상 안전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하여 함평실내수영장을 건립하고 2025년 1월 정식 개장하였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함평실내수영장은 생활체육 기반 확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표 생활SOC 사업으로,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실내수영장 준공식

함평문화체육센터 내에 조성된 실내수영장은 연면적 2,624㎡ 규모로 성인풀 7개 레인과 유아풀, 탈의실, 샤워장 등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로 구축되었다. 특히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안전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쾌적한 시설 환경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층 등 이용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장 첫해인 2025년에는 약 6만 7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어린이·청소

전남매일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011면

함평실내수영장, 개장 첫 해 6만 7000명 방문

쾌적한 환경·맞춤형 강습
공공 체육시설 역할 수행


함평실내수영장에서 수강생들이 수영 강습을 받고 있다. 함평군 제공

지난해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이 개장 첫해 이용객 6만 7,000명을 돌파하며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 운영 결과 총 6만 7568명이 이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영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 수영을 병행해 군민 전 연령이 고르게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함평실내수영장은 △학생 수영 교육 △지역 수영 동호회 활동 △노년층 건강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돼 공공 체육시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성인·노년층 맞춤으로 운영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기초 수영 능력 향상과 재활·건강 관리 측면에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2026년에도 군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편과 단계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체육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실내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만기 기자

년·성인·노년층 대상 수준별 강습 프로그램과 자유수영을 병행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수영강습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에 수렴된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탈의실 확장,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어린이·고령자용 수심안전판 설치 등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였다.

안전관리요원과 환경정비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중심 공공체육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아울러 함평군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수상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넘어 생명 보호와 안전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지역 공공체육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특히 함평실내수영장은 군민 건강관리와 생활안전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를 기반으로 함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체육과 힐링, 건강 증진 기능이 결합된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 중심의 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수중 아쿠아로빅



15

농식품부 ⇌ 함평군 농촌협약 체결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김혜연**

사람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기반으로 생활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은 총 573억 원 규모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정비,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학교면·나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광면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지역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일부 사업은 완료 단계에 도달하거나 정상 추진 중이며, 농촌유휴시설 활용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전담부서, 중간지원조직(농촌활성화지원센터)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 회의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과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성과 측면에서는 생활서비스시설 이용자 증가(1,928명), 관광 방문객 증가(48만 명), 주민행사 확대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체 활동과 주민참여 기반이 강화되면서 지역 활력 회복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약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3년 연속 선정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주민주도형 지역발전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함평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계획을 완성하고, 준공된 거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협약의 성과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함평군 농촌협약식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015면

함평군-농식품부 '농업·농촌 상생발전 도모' 농촌협약 체결

5년간 국비 310억원·지방비 261억원 확보

B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 왼쪽부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상익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과 농림축산식품부 간(2023~2027년)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31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농촌협약 사업들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군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꽃무릇케어센터 등을 구축하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과 취약사여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협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생활SOC 확충은 물론 분야별 생활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정주기반 조성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농촌협약은 열악한 농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는 "무릎과

16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이전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행정·문화·복지를 한곳으로! 주민중심 통합생활거점 완성

함평군은 읍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분산된 행정 및 주민 커뮤니티 기능을 집적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207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중심지 내 핵심시설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육공간 등을 복합화하였다. 특히 기존 행정시설의 기능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전경

17 신광면 행정복지거점 **인프라 확충**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식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식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어 행정·복지 기능뿐만 아니라 동아리실, 공유주방, 대회의실 등 다양한 주민활동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장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하여 복합 생활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배후마을 거점시설 정비를 병행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함평읍은 행정과 주민활동이 결합된 통합형 생활거점으로 재편되었다.


함평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

군, 207억 투입…행정·문화·복지·예술 융합 공간

함평군은 지난 2일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열고, 주민과 함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결실을 기념했다.

센터는 어울림센터가 반슨안병훈·복지공간을 넘어, 군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 넓은 손상식은 그것이 추진 성과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의원, 유재현, 마난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에는 준공으로 끝나 아니, 매이므 커뮤니티 진행됐으며, 2026에는 시

주차장으로서 주민 주도의 자립형 운영에 힘쓸 것이 목표이다.

이는 어울림센터가 반슨안병훈·복지공간을 넘어, 군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서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 넓은 손상식은 그것이 추진 성과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의원, 유재현, 마난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추진위원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행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004면

호남신문

함평군,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본격 운영 돌입

2028년 12월까지 센터 시설·프로그램 관리·주민 참여 활성화 등

함평군이 읍내 생활 거점시설인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함평군은 "지난 9일 군청에서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함평군과 수탁기관인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해 센터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추진된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생활복지 거점시설이다.

내부에는 ▲주민자치회실 ▲건강증진실 ▲공동보육실 ▲대회의실 ▲공유 주방 ▲동아리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다양한 편의공간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은 이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관리,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

강길원 함평읍 어울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센터가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울림커뮤니티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심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향후에는 조성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함평읍을 지역 생활권의 핵심 중심지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활과 문화가 연결되는 신광면 중심공간 마련

함평군은 신광면을 농촌생활권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복지·문화 기능이 집적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균형 있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어 총 82억 원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주민 편의시설

광주타임즈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008면

함평 신광면 생활환경 '업그레이드'

군, 오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착공식' 개최
82억 투입…새빛행복센터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

함평군이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지난 8일 함평군에 따르면 11일 신광면사무소에서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착공식이 열린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 2018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2019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행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82억여 원을 투입,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 새빛행복센터, 새빛행복홈, 경관정비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새빛행복센터는 행정타운(신광면사무소)과 신광면민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새빛행복홈은 주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의 주요시설들은 신광면민을 위한 쉼터이자 문화·복지 공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역량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 소재지에 각종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함평=나근채 기자

신광면사무소



새빛행복홈센터



확충,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병행되었다. 특히 다목적 시설 및 생활서비스 공간 조성을 통해 행정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 착공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중심지 내 시설 확충과 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신광면은 단순 행정 기능을 넘어 복지·문화·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생활 중심지로 재편되었다.

또한 중심지 활성화를 통해 배후마을과의 연계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이 개선되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향후에는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기능 보완을 통해 신광면을 지역 내 핵심 생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식



18 '보훈가족의 새 보금자리'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부서 주민복지과장 **정 석** | 복지기획팀장 **박미선** | 담당자 **오윤덕**

국가유공자의 헌신, 더 따뜻하게 예우하기 위한 공간 조성

함평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함평군 보훈회관」을 건립하였다. 이는 분산되어 운영되던 보훈단체의 활동 공간을 통합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선8기 주요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고령의 보훈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단체 활동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식

함평군 보훈회관은 함평읍 내바람길 일원에 총사업비 26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1년 12월 착공 후 2024년 6월 준공되었다. 회관 내에는 보훈단체 사무공간과 회의실, 소통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단체 운영과 교류 활동, 각종 회의 및 행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공간 설계를 통해 보훈가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보훈단체별로 사무공간이 분산되어 있어 단체 간 협업과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훈회관 건립 이후 9개 보훈단체가 한 공간에 입주하게 되면서 상호 소통과 공동사업 추진 기반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훈가족 공동체 기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각 단체의 운영 안정성과 활동 효율성도 함께 높아졌다.

또한 함평군은 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아울러 보훈회관은 단순한 행정시설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종 보훈행사와


광전매일신문 2024년 7월 8일 월요일 004면

보훈가족의 새 보금자리,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식 개최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식이 지난 5일 함평읍 내교리 현장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이향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내빈 소개와 건립경과 보고에 이어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커팅 이후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군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으로서 분산된 보훈단체 사무실 일원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1년부터 총사업비 2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함평읍 내교리 18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618.39㎡ 규모의 신축 보훈회관을 건립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기념행사, 단체 간 교류 활동 등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 기반도 한층 강화되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보훈단체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보훈정책 추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19 전국최초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부서 | 축산과장 **한영자**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 담당자 **이보현**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 업무협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준공식

전국 최초, 탄소중립 축산의 길 열다

함평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며 탄소중립 축산 선도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고품질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선8기 핵심 전략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기반 강화와 함평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대응형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총사업비 276억 원을 투입하여 대동면 동함평산단 내에 조성되었으며, 2022년 착공 이후 2024년 준공되었다. 센터에는 저메탄 발효사료(TMR·TMF) 생산설비와 가공·포장시설, 미생물 배양 및 저장시설, 관리동 등이 구축되었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전경

며, 조사료의 생산·가공·유통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의 사료 경쟁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함평군-함평축협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업무협약

특히 저메탄 사료는 소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기능성 미생물과 과학적 배합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사료로,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형 축산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료 효율성과 기호성을 높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순천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메탄 저감 사료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조사료협의회와 총체벼 생산단지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원료 생산부터 가공·공급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저탄소 조사료 생산 기반과 안정적인 원료 수급체계를 함께 강화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친환경 프리미엄 축산물 시장 선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축산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축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 구축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는 전국 최초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저탄소 축산정책 확산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축산 신기술 도입과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업 육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광도일보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함평에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개소

대동면 백호리 동함평산단
연면적 1만6천929㎡ 규모
TMF 생산설비 갖춰…친환경
준공식서 저탄소 축산시대 열어

전남 함평군과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한 전국 최초의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최근 대동면 백호리 동함평산단에서 센터 준공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총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로, 부지면적 7천483㎡, 연면적 1만6천929㎡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는 저메탄 인증 조사료 및 TMF(완전배합발효사료) 생산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저탄소 축산 체계를 위한 전문 유통 기반을 구축했다.

저메탄 조사료는 가축의 장내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이다.

또 국산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사료비 절감, 품질 향상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준공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연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이남오 군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축산농가 1천여 명이 참석해 저탄소 축산시대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함평군은 최근 대동면 백호리 동함평산단에서 센터 준공식 및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함평군 제

행사는 고품질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유공자 공로패 수여, 공장 가동 버튼 오픈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센터 준공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함평 축산의 미래 경쟁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함평이 친환경·저탄소 축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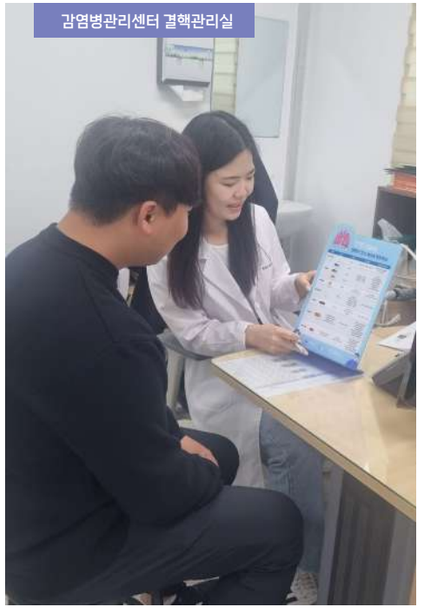
김영주 함평축협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 농가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이라며 "고품질 저메탄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illegible]했다. 함평/이경선 기

20

호남권 최초,
감염병 관리센터 개소

추진부서 | 보건행정과장 **장지선** | 보건행정팀장 **박미온** | 담당자 **오선아**

군민 안전 지키는 선제적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감염병관리센터 결핵관리실

함평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역 단위 공공보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호남권 최초로 감염병관리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는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확산 차단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성과로 평가된다.

감염병관리센터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도비를 포함한 총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전문 대응시설로 조성되었다. 센터 구축을 통해 검체채취, 역학조



2023년 함평군 감염병 관리센터 개소식

사, 방역대응, 상황관리 등 분산되어 있던 감염병 대응 기능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1층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검체실과 검진실을 중심으로 방사선실과 감염병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연계 배치하여 검사·진단·처리까지 이어지는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진과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감염병관리센터는 예방접종, 감염병 검사, 역학관리 등 지역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공공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감염병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단위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감염병관리센터 구축은 향후 신종 감염병과 재난형 보건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함평군의 보건행정 수준과 군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호남 최초!
군민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인프라!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교육


감염병관리센터 검체채취실


남도일보 2024년 1월 3일 수요일 015면

함평군 감염병 관리센터

함평군, 2023년 감염병관리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보건소

전남 함평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함평군, 道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코로나19 대응 호평

전남 함평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 및 업무 관심도 등을 가감해 총 12개 항목 22개 지표로 실시했다.

함평군은 올 한해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의 높은 입력률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PCR·ATK 검사를 비롯한 감염병 대비·대응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감염병 관리자 전문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을 비롯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추진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며 코로나19 예방에도 앞장섰다.

또한 경로당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 손씻기 교육, 손소독제 비치 등을 강조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고 경로당 이용자 결핵 전수 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 조기 지단에 기여했다.

이울러, 전 군민 대상 감염병 예방수칙을 담은 홍보물(기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광판,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SNS 활용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수상은 함평군 보건소가 군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이래서 기자


産經日報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015면

함평군, 호남권 최초 감염병관리센터 개소

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 체계 새 지평 열어

함평군 감염병관리센터 개소식

기념사

이 상 익

함평군수

▲함평군 감염병관리센터 개소식 참석해 기념사하는 이상익 함평군수.

전남 함평군이 호남권 최초로 보건소 부지 내 독립 감염병관리센터를 준공해 지난 28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함평군 감염병관리센터 개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윤영랑 함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의료기관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기존에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30억7천9백만원을 투입, 지상 3층 연면적 641.25㎡ 규모의 감염병관리센터로 증축했다.

센터 1층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검체실과 검진실, 호흡기진료를 위한 X-선실, 폐기물 보관실을 갖췄으며, 2~3층은 대응공간으로 활용돼 사무실과 상황실, 다목적 교육실을 마련했다.

감염병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증축됨에 따라 평상시에는 호흡기 감염 질환의 통합관리가 이뤄지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신속·다량 검사를 통해 선제적 위기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전남 최초의 독립 감염병관리센터가 문을 엶으로써 대량검사 및 신속진단으로 감염병을 조기차단해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규기자yg223@skdbo.com

민선8기
정부·외부기관 공모 및 평가 결과

분야
263개

공모사업
111건 선정

대외평가
152건 수상

총 확보액
252,711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5,518 백만원	30,886 백만원	51,419 백만원	92,873 백만원	12,015 백만원
공모 29건 | 평가 32건	공모 22건 | 평가 44건	공모 25건 | 평가 36건	공모 25건 | 평가 36건	공모 10건 | 평가 4건

2022. ~ 2026. 5.

상급기관 평가 수상 현황

2022

단위 : 백만원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01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우수	우수상	행정안전부	40
02	2022년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
03	2022년 주소정보 업무 우수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18
04	제35회 세계금연의 날 유공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05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06	2022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07	제14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新PHIS부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08	2022년도 기초연금사업 우수군 표창	선정	보건복지부	-
09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
10	2022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상	환경부	-
11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	여성가족부	-
12	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
13	2022년 규제혁신 우수시군	장려상	전라남도	-
14	2022년 도로명주소 연구과제 발표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
15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전라남도	50
16	2022년 인사분야 우수시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17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최우수상	전라남도	50
18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전라남도	20
19	2022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20	2021년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구매율	최우수상	전라남도	-
21	2022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상	전라남도	35
22	2022년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정비 우수기관	대상	전라남도	-
23	2022년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은상	전라남도	-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24	2022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25	2022년 식품·공중위생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26	2022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10
27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28	2022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우수시군	장려상	전라남도	-
29	2022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10
30	'물산업 미래비전포럼' 상수도분야 우수기관	최우수	환경타임즈 국회물포럼	-
31	2022 내나라 여행박람회	우수상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32	제23회 부산국제관광전(마케팅)	최우수상	부산국제관광전 추진위원회	-

2023

단위 : 백만원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33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관상	행정안전부	-
34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행정안전부	100
35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36	2023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	장관상	여성가족부	-
37	2022년 추계 도로정비 평가	장려상	국토교통부	-
38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상	보건복지부	-
39	202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40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장관상	지방시대위원회	-
41	2023년 민원행정분야 협업 우수상	우수상	농촌진흥청	-
42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 교육장 경진대회	대상	농촌진흥청	-
4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데이터 연계활용 경진대회	대상	농촌진흥청	-
44	2023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45	2023년 규제개혁 우수시군	최우수상	전라남도	-
46	2023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선정	전라남도	20
47	2023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우수상	전라남도	-
48	전라남도 인사분야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49	2023년 지방세 분야	장려상	전라남도	-
50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장려상	전라남도	-
51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전라남도	-
52	2023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53	2023년 시군 옥외광고업무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54	2023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투자유치부문	우수상	전라남도	-
55	제10회 전라남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마을만들기분야	최우수상	전라남도	-
56	제10회 전라남도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만들기분야	우수상	전라남도	-
57	2023년 마을공동체활동 우수사례	우수상	전라남도	-
58	2023년 전라남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노력상	전라남도	-
59	2023년도 축산 시책 종합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60	전라남도 동물방역위생 시책 종합평가	대상	전라남도	-
61	2023년 지방도 도로정비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62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전라남도	-
63	2023년 전라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 경연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
64	2023년 겨울철 걷고싶은 전남 숲길	우수상	전라남도	-
65	2023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재활) 성과대회	장려상	전라남도	-
66	2023년 치매관리사업 유공	선정	전라남도	-
67	2023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 우수작품상	선정	전라남도	-
68	2023년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15
69	2023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70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최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71	2023년 전라남도 생명사랑 챌린지 경연대회	최우수상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72	2023년 광주전남 암 관리사업	최우수상	광주전남암센터	-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73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 어워드(콘텐츠부문)	우수상	한국지방신문협회	-
74	2023 대한민국 의정대상(행정부문)	대상	한국언론 미디어그룹	-
75	제7회 무등행정·의정대상(경영혁신)	대상	무등일보	-
76	2023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	대상	헤럴드경제	-

2024

단위 : 백만원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77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
78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우수상	행정안전부	200
79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공감e가득) 우수상(행안부장관상) 수상	장관상	행정안전부	-
80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선정	행정안전부	50
81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
82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
83	제1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84	`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최우수상	환경부	-
85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일등어촌선정	선정	해양수산부	-
86	2024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장관상	통계청	-
87	2024년 지역통계 우수 지자체 선정	장려상	호남지방통계청	-
88	`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	위원장상	지방시대위원회	-
89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관 표창	선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90	2024년 스마트강소농 우수기관	장려상	농촌진흥청	-
91	농업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경진	우수상	농촌진흥청	-
92	2024년 규제개혁 우수시군 장려상	장려상	전라남도	-
93	2024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최우수	최우수상	전라남도	50
94	행정정보화연구과제 발표대회	우수상	전라남도	-
95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대상	전라남도	50
96	2024년 이송민원 처리실태 우수	선정	전라남도	-
97	2024년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 창구	최우수상	전라남도	-
98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20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99	2024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장려상	전라남도	-
100	2024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우수시군	선정	전라남도	-
101	2024년 양성평등정책 우수기관 선정	최우수상	전라남도	-
102	2024년 동물방역위생 시책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
103	2024년 지방도 분야(도로정비) 우수기관	우수상	전라남도	-
104	2024년 전라남도 생명사랑 릴레이 챌린지 공모전	우수상	전라남도	-
105	2024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우수기관	장려상	전라남도	-
106	2024년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15
107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108	2024년 신종감염병 대응 유공기관	선정	전라남도	-
109	2024년 전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대상	전라남도	20
110	2024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111	2024년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상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112	2024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축제관광부문)	대상	(사)한국축제 콘텐츠협회	-

2025

단위 : 백만원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113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
1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	가등급	행정안전부	200
11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250
116	`25 여름(호우), `24~`25 겨울철(대설)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지방정부	장려상	행정안전부	50
117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118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
119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
120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장관상	성평등가족부	-
121	2025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	선정	질병관리청	-
123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장관상	지방시대위원회	-
124	농촌진흥사업 우수농업기술센터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
125	ASTIS 거점기관 우수기관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126	농촌자원 성과확산 경진	최우수상	농촌진흥청	-
127	2025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30
128	202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129	2025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130	2025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선정	전라남도	-
131	2025년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132	2025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종합평가	최우수상	전라남도	30
133	2025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군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134	2025년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135	2025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우수상	전라남도	-
136	2025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장려상	전라남도	-
137	2025년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선정	장려상	전라남도	-
138	2025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
139	2025년 동물방역위생 시책 종합평가	대상	전라남도	-
140	2025년 전라남도 산불예방 대응 우수시군	최우수상	전라남도	-
141	2025년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대상	전라남도	-
142	2025년 전라남도 산불 지상진화 통합지휘 경연대회	장려상	전라남도	-
143	2025년 치매관리사업 발전	우수상	전라남도	-
144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남도	-
145	2025년 광주·전남 암관리사업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10
146	2025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상	전라남도	-
147	2025년 음식문화 개선사업	최우수상	전라남도	-
148	2025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축제관광생태부문)	대상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

2026

단위 : 백만원

연번	수상명	결과	평가기관	상사업비
149	2026~2027년 명예 문화관광축제 지정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150	2026년 결핵예방관리사업 유공	선정	전라남도	107
151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전라남도	30
152	2026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축제관광부문)	대상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

2022. ~ 2026. 5.

공모사업 선정 현황

2022

단위 : 백만원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1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00
2	2023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행정안전부	250
3	2023년 함평청년 창업지원사업	행정안전부	17
4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안전부	650
5	내교·기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21,788
6	2022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0
7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3,000
8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750
9	농촌협약 신규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22,300
10	시군역량강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83
11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25
12	2023년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16
13	저메탄(탄소중립 대응)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건립	농림축산식품부	6,700
14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산업통상자원부	3,045
15	2022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123
16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체류형귀농학교농업창업상담소)	고용노동부	37
17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농업농촌활력화멘토링)	고용노동부	41
18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원예작물 스마트팜관리매니저)	고용노동부	18
19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500
2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35
21	식량작물 분야 주요사업(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농촌진흥청	1,000
22	2022년 도시취약지역 (함평 대천.백곡)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형발전위원회	1,894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23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월야 복룡)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형발전위원회	1,302
24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전라남도	100
25	2022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 공모	전라남도	105
26	(사회혁신)세대공감, 행복나눔 배달천사	전라남도	3
27	(사회혁신)사계절 행복 가득한 밥상	전라남도	7
28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전남인재평생 교육진흥원	6
29	전남 도민 정책학교 공모	전남인재평생 교육진흥원	60

2023

단위 : 백만원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30	2023년 지방소멸대응 지역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990
3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8,320
32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150
33	2023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49
34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산업	농림축산식품부	550
35	농촌공간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1,700
36	2024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10
37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40
38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중소벤처기업부	420
39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방시대위원회	1,700
40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방시대위원회	2,862
41	2023년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전라남도	32
42	2023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라남도	78
43	2024년 과수채소전문단지 조성사업	전라남도	210
44	2023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전라남도	3
45	2023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전라남도	60
46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전라남도	180
47	2023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 특화사업	전라남도	6
48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FANTASIA_가상과현실' 전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5
49	2023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재현과상상의경계' 전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7
50	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4
51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전남문화재단	2

2024

단위 : 백만원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52	2024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	행정안전부	180
53	고막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행정안전부	20,405
54	2024년 버섯배지관리센터 구축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950
55	2025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93
56	202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100
57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600
58	20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76
59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499
6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해양수산부	7,900
61	2024년도 청정어장 재생사업	해양수산부	2,500
62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사업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9,267
63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학교면 반송마을)	지방시대위원회	1,714
64	2024년 제1차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문화재청	180
65	2024년 전남 블루워케이션	전라남도	120
66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전라남도	3
67	2024년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전라남도	54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68	2024년 마한문화권 조사지원 사업	전라남도	320
69	2025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전라남도	500
70	2024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전라남도	500
71	2025년 농축산업 전남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전라남도	25
72	2025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전라남도	500
73	2025년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전라남도	20
74	2024년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80
75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공감e가득) 사업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00
76	2024「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전라남도문화재단	28

2025

단위 : 백만원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77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78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1,300
79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정안전부	25,746
80	함평읍 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행정안전부	55
81	2026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25
82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5,000
83	2026년 엄다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3,826
84	2026년 대동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400
85	202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00
86	2026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800
87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흑하랑)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6,370
88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7,824
89	2026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산자원부	1,630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90	기후위기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환경부	40
91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69
92	2025년도 지역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	국토교통부	2,500
93	함평군 지역특화 재생사업	국토교통부	17,500
94	함평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6,500
9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국가유산청	20
96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방시대위원회	1,653
97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사업	전라남도	900
98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라남도	1,000
99	2025년 푸드플랜운영 안전품질 관리 사업	전라남도	65
100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80
101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6,000

2026

단위 : 백만원

연번	공모사업명	평가기관	확보액
10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7,000
103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00
10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580
105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해양수산부	800
106	2026년 전남형 새뜰하우스(단지형) 조성사업	전라남도	1,000
107	2026년 지역축제 글로벌화 사업	전라남도	50
108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전라남도	72
109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전라남도	27
110	2026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전라남도	219
111	2026년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30

Ⅳ

부문별 성과

제 1절 지역개발 · SOC분야 104
제 2절 일자리 · 경제 분야 139
제 3절 관광 · 문화 · 체육 170
제 4절 농·축산업 분야 230
제 5절 인구·청년·교육 분야 290
제 6절 해양수산 312
제 7절 환경·기후·산림 분야 331
제 8절 복지·보건 분야 372
제 9절 안전·재난관리 분야 439
제 10절 일반행정 · 혁신 분야 473

제1절
지역개발 · SOC분야

1 미래 산업도시 실현
2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혁신
3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거점 조성
4 도로·교통·접근성 확충
5 주거·건축·생활SOC 확충

01

미래 산업도시 실현

1-1 신규 일반산단 조성 등 개발

함평군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산업입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함평군 일원에 약 45만평 이상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조성의 목표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며, '함평 에너지-모빌리티 파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제조, 신재생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연구·교육 분야 등으로 설정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전라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안정적인 산업입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담당자 **민태홍**

1-2 RE100 국가산단 유치 대응

함평군은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RE100 이행 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유치를 핵심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RE100 기반 국가산단 입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미래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함평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RE100 설명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 등 대외 협력 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입지 여건 측면에서 함평군은 재생에너지 공급, 공업용수 확보, 인력 수급 등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를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 지역의 풍부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첨단산업단지,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산업·연구 인프라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주요 강점이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빛그린 국가산단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차 및 전장부품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의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여 서남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RE100 기반 국가산단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내 고용 확대 및 인구 유입이 기대되며, 협력업체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최일수**

광주타임즈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006면

함평군, RE100 산단 유치 군민 공감대 형성

설명회 열고 RE100 정책 이해도 제고·방향성 제시



지난 1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열린 'RE100의 이해 및 필요성' 군민설명회.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향한 군민의 뜻을 한데 모으며, 친환경 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함평군은 13일 "'RE100의 이해 및 필요성'을 주제로 군민설명회가 지난 12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적 에너지 전환 캠페인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핵심 이행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이에 발맞춰 친환경 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 전환을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100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 향상, 첨단·친환경 기업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RE100의 중요성과 국가산단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는 함평 출신 진우삼 한국RE100 위원회 위원장이 초청 강연자로 나서, RE100의 개념과 국내외 추진 동향, 그리고 함평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인 사례와 전망을 제시했다.

교육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 군민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농지 전용 필요 여부, 허가 절차, 기존 영농과의 병행 가능성 등을 질문하며 RE100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성, 지역 주민 참여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지며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에 대해 진우삼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RE100 특별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제도·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진 위원장은 "RE100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의 핵심 전략"이라며 "함평군이 선제적으로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한다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RE100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발표된 만큼,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산단 유치에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 (RE100산단 군민설명회)

남도일보 2026년 2월 3일 화요일 01면

함평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 부상

빛그린 국가산단 연계 가능성 주목
합리적 용지 가격…투자 매력 ↑

전남 함평군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을 대상으로 'RE100 군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전남산단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함평이 지난 입지와 경쟁을 확대 중이다.

함평군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남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RE100 이행을 전제로 한 산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광역 상수계통과 지역 수자원을 연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이 마련돼 있어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함평은 광주 첨단산업단지와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산단단지 조성 여건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다. 빛그린 국가산단 일몰제는 약 100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한 가용부지가 확보돼 있어, 반도체 산업 집적과 단계적 확장이 가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대비 합리적인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주목된다. 여기에 빛그린 국가산단과의 산업 연계 가능성도 함평군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미래차와 전장부품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 반도체 산업 간 공급망 연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함평의 RE100 기반 국가산단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평군은 광양정부에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사업 건의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여경신 기자

보도자료(RE100 국가산단)

매일일보 2026년 2월 4일 수요일 017면

함평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시동

기본계획·타당성 용역 추진



함평 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 예상 조감도.

전남 함평군이 재생에너지(RE100) 기반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11월 군민을 대상으로 RE100 군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관련 기업 유치 기반 마련과 입지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군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과 용수 공급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보도자료(RE100 산단 용역 추진)

02

도시재생 및 도시공간 혁신

2-1 함평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함평군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산업입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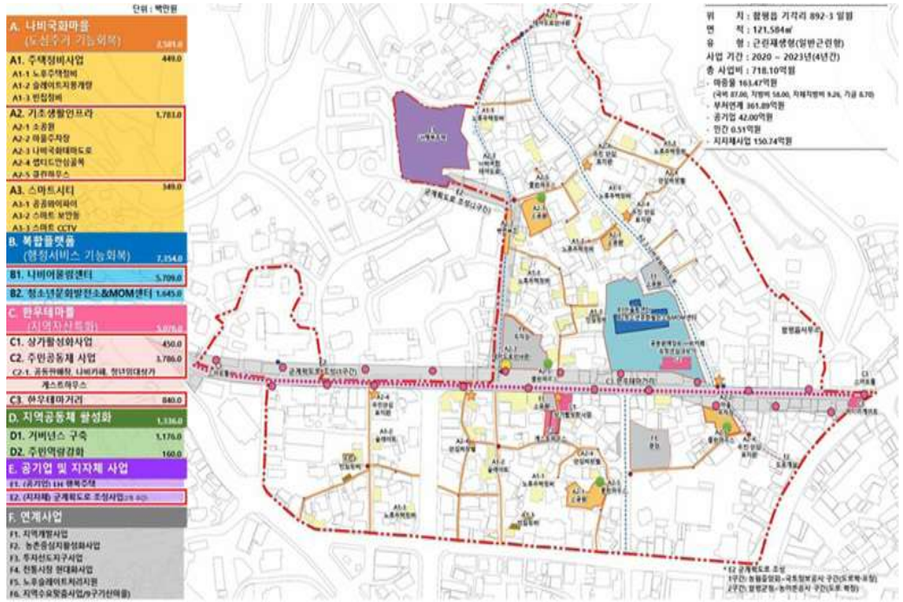
본 사업은 함평군 일원에 약 45만평 이상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며, 조성의 목표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수요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며, '함평 에너지-모빌리티 파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미래형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 중에 있으며, 또한 광역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제조, 신재생에너지, 물류, 정보통신, 연구·교육 분야 등으로 설정하여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전라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안정적인 산업입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도시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재생팀장 **이종일** | 담당자 **김은길**



함평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호남신문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004면

함평읍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문 열었다

나비스 카페·나비스 스토어 등 4개 분과 운영

주민 자발적 공동체 거점시설 운영·상권 활성화

함평군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이 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15일 "함평읍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개업식이 이날 오전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나비스카페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업식에는 강하춘 함평군 부군수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계자,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함평읍 중앙길에 위치한 주민거점시설은 함평천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나비스 카페 ▲나비스 스토어 ▲나비쉼자리 ▲마을공작소 4개 분과가 운영된다.

군은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개업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거점시설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 환원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업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쇠퇴해가는 중앙길 상가 거리가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로 밤에도 환해지고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함평읍 원도심에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적극 변영할 계획이다.

강하춘 부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군계획도로 확장사업 등 연계사업을 포함해 총 718억원이 투입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함평읍이 함평군 미래 성장의 한 축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호 기자

보도자료(나비스카페 운영)

2-2 읍면 생활권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함평군은 읍·면 지역 전반에 걸쳐 약화된 생활기능과 공동체 기능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원도심 중심의 재생을 넘어 면 단위 생활권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월야면의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은 월야면의 지역의 특성·역사·문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역사문화 특화거점 조성과 집수리 등 정주환경 개선을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의월마루, 공유마루, 월야시장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권 재편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교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학교면의 지역 특성·문화·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노인·아동 돌봄 거점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함평군은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와 행정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 주도의 지역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함평군이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생활, 경제,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재생팀장 **이종일** | 담당자 **김은길**



남도일보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016면

함평 월야면, 도시재생 사업비 250억 확보

전남 유일…4년간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함평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특화재생)'에 월야면이 선정돼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남에서 유일한 성과다.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도비 25억 원, 군비 75억 원으로 구성되며, 함평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월야면 일원에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월야면의 상징인 '달빛'과 항일 의병 역사 자산을 핵심 콘텐츠로 ▲역사·문화 특화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군 동북권 관문인 월야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이경신 기자

보도자료(월야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2-3 도시공간 혁신과 생활권 연계를 통한 도심혈맥 확장 추진

함평군은 분산된 도시 기능과 단절된 생활권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함평읍 중앙길 중심으로 도시공간 혁신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는 도심혈맥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 주요 거점과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람·경제·문화의 흐름을 활성화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특히, 함평읍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앙길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야간경관 조성 등 특화거리 조성을 단계적 추진중에 있다. 또한, 도로망 확장 및 보행 동선 개선 등을 통해 주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권 간 이동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과 지역경제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주요 거점 공간에 대한 기능 재편과 다양화를 추진하여 도심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시설, 상업시설, 체류시설 등을 연계한 거점 조성을 통해 생활서비스의 집적도를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체류까지 이어지는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심혈맥 전략은 중앙로 도로 정비 및 복합센터 조성등 잠재적인 전략 요소들을 활용하여 서로 연계하여 상생할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재생팀장 **이종일** | 담당자 **김은길**

2-4 함평읍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운영

함평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 주도의 자생적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함평 나비어울림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도시재생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재생 기본 교육, 마을주민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나비어울림센터 및 청소년 문화발전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함평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나비어울림센터 및 청소년 문화발전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예술창작소 △ 공유부엌 △ 교육창업거점센터 △ 공방교육 △ 문예교실 △ 청소년 동아리 △ 어린이작업실 △ 공동육아방 및 맘카페 등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주민이 직접 실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역량을 갖춘 주민들을 기반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향후 도시재생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주민역량강화 운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며, 주민들이 주도하여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일보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007면

함평군, 함평읍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개최…26명 수료

주민거점시설(나비어울림센터, 카페, 공동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본격 개소

함평군이 지난달 29일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나비어울림센터 3층 영상교육실에서 '함평읍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공동체 거점시설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도시재생 주민거점공간 운영컨설팅 ▲커피바리스타 자격과정 ▲게스트하우스 관리기법 ▲공동판매장 운영기법 및 공예품 제작 ▲홍보물 제작 및 갈등관리 등 실무 중심의 4개 분과 워크숍과 멘토링이 포함됐다. 총 26명이 수료한 이번 수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수강생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학사보고,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에 이어 주민거점시설인 나비어울림센터, 마을공작소, 나비스 카페, 나비스 스토어, 나비잠자리를 순회하며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한 주민 수료자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 지식을 배워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이번 수료식을 계기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며, 함평읍이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나광주기자freamoo1@naver.com

보도자료(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도시재생팀장 **이종일** | 담당자 **유광태**

03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거점 조성

3-1 읍면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함평군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생활권의 중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촌협약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23~2027년, 총사업비 150억원)을 중점 추진 중이며, 꽃무릇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문화·복지·교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이동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함평군은 함평읍, 신광면, 손불면, 학교면 등 5개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완료하여 지역별 중심거점 기능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역시 생활SOC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단계별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농촌중심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생활권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	꽃무릇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해보면 꽃무릇센터 조감도(안)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



신광면 새빛행복센터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3-2 읍면 생활서비스 거점 확충을 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은 농촌 중심지 접근이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학교면, 나산면, 엄다면, 대동면 등 4개소에서 총 219억원 규모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복합센터 조성, 생활SOC 확충,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병행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면사무소 복합화, 세대공감복지센터 구축 등 주민 체감형 시설 조성을 통해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 완료지구(대동면, 월야면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거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는 단계별 사업 완료와 함께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촌생활권 내 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23~27년	60	학나래이음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24~27년	84	세대공감복지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엄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26~30년	55	엄다누리 복합문화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26~30년	20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엄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업계획도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업계획도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3-3 마을별 농어촌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

함평군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을 특성과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24~2026년까지 총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시설 정비, 쉼터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 컨설팅, 마을축제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공동체 회복과 지역 활력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그간 30개 이상 마을에서 사업을 완료하여 기초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특히 주민 주도의 마을 운영 역량이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신규 마을 발굴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은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택정비, 안전·위생 인프라 확충, 마을환경 개선 등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현재 7개 지구(총사업비 약 137억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도로 및 배수로 정비, 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 완료 지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에도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농촌지역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소계	7개소		13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 대천·백곡	2022~26년	24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월야 복룡	2022~26년	16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동 금적	2023~26년	21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사업명	대상	사업기간	사업비	주요내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 백년	2024~27년	19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월야 덕산	2024~27년	16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학교 반송·반곡	2025~28년	21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함평 장고산	2026~29년	20	주거 및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진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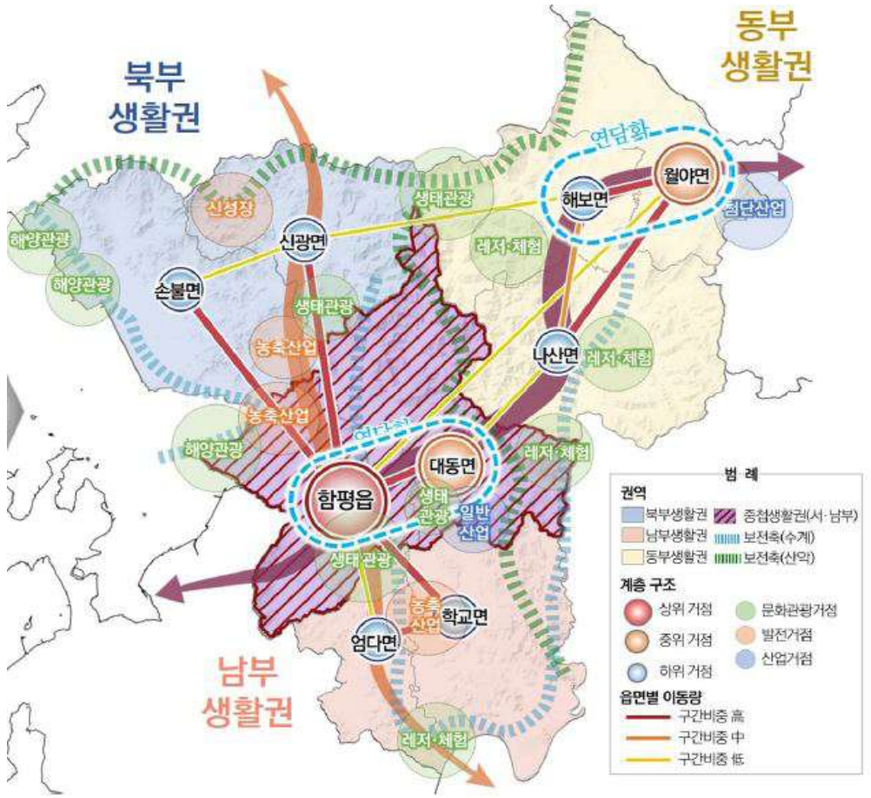
3-4 중장기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 수립

함평군은 인구감소, 고령화, 농촌 기능 약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농촌공간 재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의 기능 재편, 생활권 중심 거점 설정, 취약지역 정비, 유휴공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농촌공간을 전략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심지-거점-배후마을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서비스 전달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 수립과 함께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단순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계획 기반의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35년 함평군 농촌공간구조 계획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개요

단위 : 억원

구분	내용	비고
계획기간	중장기(10년단위)	
주요내용	공간 재편, 거점 설정, 취약지역 정비	
추진방향	계획-사업연계 및 단계적 실행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김혜연**

3-5 신광면 동정지구 정비를 통한 농촌공간 기능 재편 추진

함평군은 농촌지역 내 난개발과 유해시설로 인한 정주환경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신광 동정지구를 중심으로 한 본 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노후화된 농촌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동정지구는 돈사, 폐교, 빈집 등 유해·유휴시설 정비 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부지를 활용한 ICT 기반 스마트팜 조성과 청년·이주민 임대주택 18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비와 재생을 연계한 공간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의 스마트화와 청년 유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향후 인근 지역과 연계한 공간 재편을 통해 지역 전체의 기능 개선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일 지구 정비를 넘어 농촌공간 기능 재편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로 발전시키고 있다.



신광면 동정지구 공간정비사업 사업 계획도

신광면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신광면 동정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180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3-6 읍면별 생활서비스 균형강화를 위한 면 거점기능 지속 강화

함평군은 농촌생활권 내 읍·면 간 생활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 단위 거점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고, 배후마을까지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거점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 이용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거점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 교육 및 컨설팅, 공동체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운영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으며,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생활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거점시설이 실질적인 생활권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연계 제공되면서 주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배후마을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생활권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점차 촘촘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 '운영 중심의 농촌개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에는 완료지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 운영 준비를 강화하여 사업 완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

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읍·면 간 생활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군 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농촌생활권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면 거점기능 강화 추진현황

구분	내용	비고
추진방향	생활서비스 균형 강화	
주요내용	복합거점 조성, 기능 통합	
기대효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역격차 완화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농촌개발팀장 **김세진** | 담당자 **나인성**

04

도로·교통·접근성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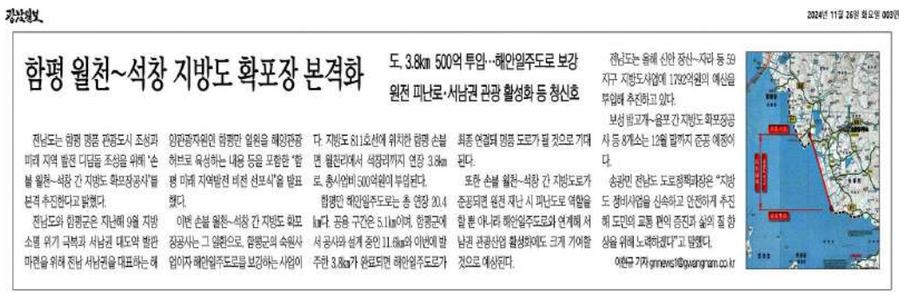
4-1 관광·교통 기능을 연계한 함평만 해안도로 건설

함평군은 서부권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간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함평만 해안도로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중에 있다. 특히 돌머리해수욕장과 함평항, 월천항 등 주요 관광·생활거점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망 구축을 통해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재난 대응 기능 강화를 함께 도모하였다.

함평만 해안도로는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서부권 핵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기존 해안도로의 협소한 폭원과 단절구간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국도77호선과 연계한 해안 교통축 기능 강화를 통해 관광·교통 기능이 복합된 해안권 도로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해안도로 1~3공구와 지방도 구간에 대한 단계별 사업 추진을 통해 해안권 교통망 구축을 지속 확대하였다. 해운천교 설치와 평면교차로 개선, 배수시설 정비 등 도로 이용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으며, 돌머리해수욕장과 안악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자원 접근성 향상과 함께 서부권 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에도 힘썼다.

아울러 함평군은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해안권 연결도로망 확충에 노력하였다. 해당 사업은 함평항과 월천항 간 교통 연계성 강화와 해안 관광자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일보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009면

함평 월천~석창 지방도 확포장 본격화

도, 3.8㎞ 500억 투입…해안일주도로 보강
원전 피나로·서남권 관광 활성화 등 청신호

전남도는 함평 명품 관광도시 조성과 미래 지역 발전 디딤돌 조성을 위해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인 함평만 일원을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식'을 발표했다.

이번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그 일환으로, 함평군의 숙원사업이자 해안일주도로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지방도 811호선에 위치한 함평 손불면 월천리에서 석창리까지 연장 3.8㎞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된다.

함평만 해안일주도로는 총 연장 20.4㎞다. 공용 구간은 5.1㎞이며, 함평군에서 공사와 설계 중인 11.6㎞와 이번에 발주한 3.8㎞가 완료되면 해안일주도로가 최종 연결돼 명품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로가 준공되면 원전 재난 시 피나로로 역할을 할 돌머리·피나로 해안일주도로와 연계해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올해 신안 장산~지력 등 59지구 지방도사업에 17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보성 벌교개~율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8개소는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송공빈 전남도 도로정책과장은 "지방도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구 기자 gmnews1@gwangnam.co.kr

보도자료(해안일주도로 확포장 본격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토지보상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도811호선 승격에 따른 보완설계와 설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안도로 구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함평만 해안도로 건설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교통 접근성 향상은 물론, 재난 대응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교통 기능이 조화된 서부권 해안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 도로시설팀장 **정원상** | 담당자 **김성만**

4-2 지역 간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

함평군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 향상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병목구간 해소와 선형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산업·관광 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국도24호선 함평~해보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지역 간 이동 편의 향상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함평군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다. 특히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건의와 행정협의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현재 잔여분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도24호선 나산지구 폭원 부족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 폭 확장과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였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 협소와 보행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함평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도상 보도설치 5단계 및 길어깨 정비 2단계 기본계획」에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도 확포장 및 노선조정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건의와 협의를 지속 추진하였다. 지방도838호선 손불~해보 구간은 위험도로 개선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확포장사업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지방

도808호선은 군도20호선 구간의 지방도 승격과 노선 조정을 통해 함평읍과 영광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강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 확포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도 지속 건의하였다. 광주와 전남을 연계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을 통해 공동생활권 형성과 교통 접근성 향상,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타당성 확보에 힘썼다.

이와 같은 국도·지방도 확포장사업 건의와 관계기관 협의는 주민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은 물론, 산업·관광 기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과 건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 도로시설팀장 **정원상** | 담당자 **김성만**

4-3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확대

함평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지속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 간 생활권 연결성과 통행 편의 향상을 위해 도로 확·포장, 선형개선, 교량 설치, 배수시설 정비 등 생활밀착형 도로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사업은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과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량 신설과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포함한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공사 추진과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또한 군도13호선(용산~용월), 신광 농어촌도로101호선(계월~사천), 나산 농어촌도로204호선(금선~쌍영), 함평 농어촌도로316호선(옥산) 등 주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로 선형 개선과 교행구간 확보 등 실제 이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나산 안영~월평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군도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 개량사업 등 위험도로 및 선형불량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도9호선은 해양관광 거점 연계와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노선으로, 교통안전 확보와 광역 교통기반 확충 측면에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확대는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과 현장 중심의 도로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어촌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도로시설팀장 **정원상**	담당자 **김성만**

4-4 도심 혼잡 완화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함평군은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생활권 중심지의 주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 밀착형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도심 내 상습 불법주차 구간과 주차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영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우선 학교면 소재지 원사거리 일원에는 상습적인 갓길 주차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지역은 차량 통행량과 생활권 이용 수요가 많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와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함평군은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 2,500㎡ 부지에 5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폐건물 철거와 지장물 정비를 병행하여 소재지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2025년 5월 준공 이후 공영주차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차량 통행 흐름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주변 상권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은 읍·면 소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도 확대 추진하였다. 함평읍과 손불면 등 총 10개소에 309면 규모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방치되었던 유휴부지 1만676㎡를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생활권 중심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사유지 임대와 군유지 활용을 병행한 방식으로 신속한 공간 확보와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였으며, 주기적인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 편의성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단순한 주차공간 확충을 넘어 도심 내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 안전 확보, 주민 생활편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상습 불법주차 해소와 소재지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중심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공영주차장과 생활 밀착형 주차공간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 중심의 체감형 교통행정 구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현황

구 분	주 소	면 적(㎡)	면 수
함평1공구	함평읍 내교리 140-1	465	12
함평2공구	함평읍 내교리 205-3	359	10
함평3공구	함평읍 내교리 218-4	1,594	51
함평4공구	함평읍 내교리 176-4	1,670	37
함평5공구	함평읍 내교리 171-2	2,276	57
함평6공구	함평읍 내교리 172-3	2,858	72
함평7공구	함평읍 기각리 997-11	284	33
함평8공구	함평읍 내교리 414	816	20
손불1공구	손불면 대전리 179-1	155	10
손불2공구	손불면 대전리 647-8	200	7



광전매일신문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004면

함평군, 읍내 자투리땅 무료주차장으로 '탈바꿈'

함평읍 도심지 곳곳에 방치됐던 자투리땅이 군민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장으로 탈바꿈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활용도가 낮은 함평읍 도심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30여 면의 주차가 가능한 무료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주차장 부지는 함평읍 시가지 내 함평우체국 뒤와 광신오토바이 옆 부지 2곳이다.

군은 교통량이 많은 읍 시가지에 주차장이 확보돼 주차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투리 공간을 물색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 중에 있다"며 "군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광전매일신문)



광전매일신문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004면

함평군, 시가지 자투리 공간 활용한 신규 주차장 조성

전남 함평군이 함평읍과 손불면 시가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함평읍 하나로마트 인근과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왔다. 최근에는 함평읍 에이스노래방 뒤편(함평읍 내교리 일원)과 손불면 소재지의 방치된 폐가(손불면 대전리 일원)를 정비해 각각 20대와 17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지난해부터 총 309면의 주차 공간을 새로이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자가용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군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광전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011면

함평군 월야면, 자투리 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7면 설치…군민 주차 불편 해소 기대

함평군은 20일 "함평군 월야면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면 소재지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 공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면소재지 중심에 위치해 있던 국유지는 겨울에는 큰 나무들로 인해 눈이 쉽게 녹지 않아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평소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었다.

월야면에서는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나서 주차칸 7면을 설치했다. 〈사진〉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월야면을 찾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태 월야면장은 "앞으로 자투리 공간 외에도 미활용 개인 사유지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보도자료(광주매일신문)

추진부서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 교통행정팀장 **김홍기** | 담당자 **김재현**

4-5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생활권 중심 교통 접근성 강화

함평군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교통취약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교통약자의 이동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 행복택시 확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군민 체감형 교통복지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며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우선 함평군은 농어촌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해 벽지·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과 단일요금제 운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이용객 감소와 운영 적자 누적 등으로 운수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농어촌버스 운영 손실액과 유가보조금, 광역환승 손실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2026년 기준 총 38대의 농어촌버스 운영을 지원하여 생활권 이동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100원 행복택시' 사업도 지속 확대하였다.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사업으로, 현재 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교통약자들의 병원 이용, 장보기,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대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함평군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도 지속 확대하였다. 장애인 콜택시 6대와 바우처택시 15대를 운영하여 이동이 어려운 군민들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위탁 운영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 편의 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신호등,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다.

이처럼 함평군은 생활권 중심의 교통 접근성 강화와 교통복지 확대를 통해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와 농어촌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체계를 지속 확충하여 군민 중심의 포용적 교통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 2026년 교통분야 주요 현황

• 농어촌버스 현황

업 체 명	등록대수	노선수	운행거리	벽지·비수익노선	
				노선수	운행거리
계	38	52개	1,111.8km	69개	486.4km
(유)함평교통	28	25개	663.5km	40개	297.7km
(유)함평군민교통	10	27개	448.3km	29개	188.7km

• 농어촌버스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유)함평교통	1,354	1,310	1,354	1,488
(유)함평군민교통	3,333	2,933	3,344	3,470

• 장애인 콜·바우처 현황

단위 : 년도 / 명

구 분	주 소	면 적(㎡)	비고
2025년	33,758명/ 월2,813명	329,000천원	
2024년	29,224명/ 월2,435명	329,000천원	
2023년	18,430명/ 월1,535명	250,000천원	
2022년	4,397명/ 월 366명	250,000천원	

• 행복택시 이용실적

단위 : 년도 / 명

계	2022	2023	2024	2025	비고
108,235	25,868	32,965	27,045	22,298	59개리 (75개 마을)

•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개소

계	신 호 기			CCTV	버스승강장	버스표지판	비고
	신호등	보행등	경보등				
204	65	46	42	51	357	742	

추진부서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 교통행정팀장 **김홍기** | 담당자 **박희영, 김미경**

4-6 서해안 철도 건설 및 달빛내륙철도 연장 추진

함평군은 서남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 철도 건설 및 달빛내륙철도 연장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사업 반영을 목표로 전라남도 및 관계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 활동을 지속 전개하였다.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새만금에서 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연결하는 총연장 110km 규모의 사업으로, 서해안권 교통 접근성 향상과 환황해권 관광·물류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함평군은 국가 균형발전과 광역 철도망 구축 필요성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철도 중심 복합물류체계 구축과 관광산업 연계 기반 마련 등 정책 논리를 적극 발굴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 성장 거점 확보를 위한 "신 함평역" 건설 필요성도 함께 건의하며 미래 성장 기반 확보에 힘썼다.

이와 함께 달빛내륙철도 연장선은 광주송정역에서 빛그린산단을 거쳐 영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서해안 종단축과 내륙 횡단축을 연계하여 철도 음영지역 해소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함평군은 광주·전남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과 관광·문화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철도 접근성 향상과 광역 생활권 연계를 위한 신규역 설치 필요성도 함께 건의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부안군·군산시·고창군·영광군과 함께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과 중앙정부 정책 건의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함평군의 미래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반영촉구 실무협의회

추진부서 |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 도로시설팀장 **정원상** | 담당자 **김성만**

05

주거·건축·생활 SOC 확충

5-1 청년정착과 생활거점 조성 위한 대동면 청년주택(인문학 거점시설)

함평군 행복한 家 건립사업과 고향올래 사업의 추진배경은 관내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 생활인구의 우리 군 체류 및 정착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 대동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본학교(호접몽가)는 2020년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매주 주말 40명 ~ 70명 정도 학생들이 기본학교 수업을 위해 함평을 방문하여 관내 식당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사업은 부족한 체류 인프라를 보완하여 학생과 외지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함평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체류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행복한 家 건립사업과 고향올래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장소는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총 8,000백만원이다. 행복한 家 건립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59억 군비 1억이 투입되었으며 고향올래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특별교부세 10억을 교부받았고 도비 3억과 군비 7억으로 투입 되었다.

2025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건축기획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다. 설계공모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26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1월부터 공사 착공 계획이다.

건립 완료후에는 숙박과 더불어 인문학 프로그램(인문학 음악강좌, 독서모임, 철학강좌 등)과 각종 문화체험(도자기 다도체험, 떡만들기, 스마트팜 농장체험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공동체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농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대동면을 중심으로 청년 생활인구의 체류 기반이 강화되고 숙박 불편이 해소되며 지역민 소득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함평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생활 인구 확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인구정책팀장 **배성아** | 담당자 **오민지**

5-2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만족도 제고

가.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노후화와 주거환경 저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내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외벽 보수, 공용부분 내부 도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상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노후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단지/천원

구 분	지원 단지	지원 금액	비 고
계	9	164,189.5	
2022년	3	47,831	
2023년	1	20,000	
2024년	1	19,602	
2025년	-	-	신청자 부재로 사업 미추진
2026년	4	76756.5	

나. 건축 해체시 비용 경감 협약 추진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해 마을 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의 자발적인 해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건축사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수수료 감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위험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행정절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자진 해체를 유도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용 감면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민관 협력 기반의 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수수료 감면 협약



건축물 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 감면 협약

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주택을 살기 좋은 농어촌 주택으로 개량하고 빈접정비(철거)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사람으로, 노후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포함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함평군 관내지역이며,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주택의 신축과 개량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전반에 걸쳐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주택 지원 정책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돕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 농어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사업대상 : 부속건물을 포함한 150㎡ 이하인 주택 건축**
- **지원조건 : 세대당 250,000천원 한도 융자**
- **대출기간 : 1~3년거치 19~1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년리 2%(청년 1.5%)**

나) 빈집정비(철거) 보조사업

빈집정비(철거) 보조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안전과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촌향도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어촌지역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노후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빈집은 붕괴 위험과 화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주변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비어 있는 노후·불량 주택이며, 실제 거주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포함된다. 신청자의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철거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경우에는 철거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함평군은 농어촌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여 빈집 증가 문제가 심각해 철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빈집정비(철거)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험 건축물을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도시 미관과 농촌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빈집정비(철거) 보조사업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빈집 또는 폐가 정비(철거)**
- **사업대상 : 빈집 및 폐가의 실소유자**
- **지원조건 : 빈집 및 폐가 정비시 세대당 2,500천원 보조**

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존 주택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이며,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 특히 주택이 노후하거나 구조적으로 불편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내용은 주택 내부 및 외부 환경을 장애인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출입구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안전 손잡이 설치, 싱크대 및 조리대 높이 조정, 바닥 미끄럼 방지 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조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 방식은 신청 및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공사 내용과 주택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거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형평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등록장애인 중 주거공간이 열악한 장애인에게 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 개량**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조건 : 가구당 380만원 보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2022년~2025년)

사 업 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사업량(동)	69	226	82
사업비(천원)	17,250,000	445,960	302,600

추진부서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건축지도팀장 **이건상** 담당자 **김정인, 정남철**

5-3 체계적 건축행정과 대규모 개발행위 관리를 통한 공간질서확립

함평군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간관리를 위해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에 표준화된 처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민원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허가·변경·준공 등 인허가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처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기존 방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부터 처리현황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건축허가팀장 **송현아** | 담당자 **나형엽**

제2절
일자리 · 경제 분야



1 지역경제 활력 제고
2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3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5 에너지신산업과 지역경제 기반
6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01

지역경제 활력제고

1-1 민생 안정과 소비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가. 지방물가 안정관리

함평군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군민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과 지역 내 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읍·면별 물가조사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생활 밀착형 43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매월 2회 시행되는 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업체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지역 물가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함평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매년 현장 점검과 실질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엄격히 선정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기준 한식, 중식, 카페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18개소의 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정된 업소에는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지방공공요금 감면 혜택 및 쓰레기봉투 등 업소별 맞춤형 기자재, 소모품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정 업소의 홍보를 강화하여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업소 정보 제공과 더불어 각종 지역 축제 및 행사 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권장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정책은 함평군이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가격업소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업소수	6	9	12	15	18
지원액	4,021	20,040	13,758	18,520	25,080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

함평군은 전통시장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상밀집 지역을 발굴하고, 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침체된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혁신적인 상생 모델이다.

특히 군은 조 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인 조직화 및 구역 설정 요건을 검토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 확대는 개별 점포 단위의 지원을 넘어 상권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라남도의 각종 공공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골목형상점가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은 함평군이 소외된 골목 상권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특화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산업과 관광 그리고 정주 여건이 결합한 명품 상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 현황

상점가명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규 모		최초지정일
				면 적	점포수	
함평천지 골목형상점가	함평천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박종태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01-1 및 내교리 212-3 등 일원	5,906m2	63개	2023.12.20.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김은지**

1-2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순환을 위한 함평사랑상품권 활성화

함평군은 지역 자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함평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왔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화폐 발행을 넘어 고물가 시대 민생 경제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경제 정책의 일환이다.

함평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 및 모바일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군민 외에도 지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할인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형 상품권 비중을 높여 이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지역 상인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맹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온누리상품권·공공배달앱 등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명절 및 지역 축제 기간과 연계한 특별 발행 및 홍보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권 운영의 고도화와 전략적 관리는 함평군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과 소비가 결합한 자립형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스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사랑상품권 연도별 발행액 및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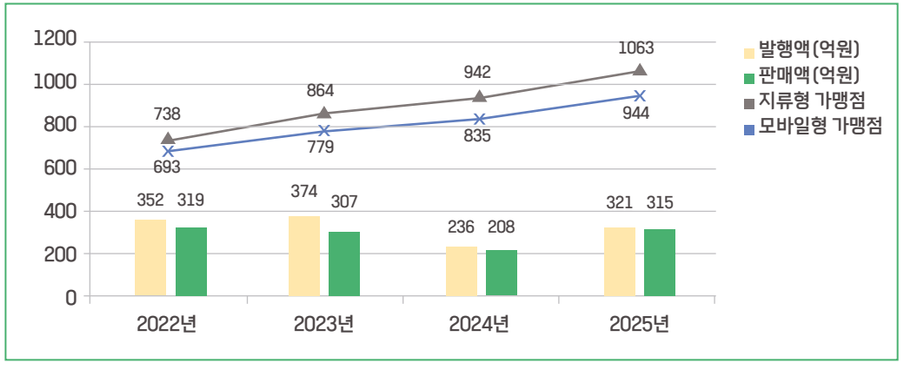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행액	352	374	238	320
판매액	319	307	208	315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류형	738	864	942	1,063
모바일형	693	779	835	944

함평사랑상품권 연도별 발행·판매액 및 가맹점 등록 현황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김은지**

1-3 함평읍 골목 경제 회복 지원사업으로 지역상권 회복 기반 마련

함평군은 함평읍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통해 함평의 상징인 '나비'를 테마로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일원(농협군지부~함평공영터미널 구간)을 중심으로 나비특화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노후 건축물 도색, 간판 정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컬러 포장 등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방문객이 머물고 싶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비 거리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상권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적 자원 투자와 상인 공동체 역량 강화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상인 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업종별 전문가 컨설팅,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상인이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함평읍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 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정인혜**

02

전통시장 · 소상공인 지원

2-1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함평군은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와 상권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함평천지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 대표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연계한 야시장 운영, 소비 촉진 바우처 지원, 명절 연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아트월과 포토존 조성 등 생태 문화공간 조성과 프리마켓 운영·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또한 함평군은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 에어컨 설치와 낙설방지 막 구조물 설치를 추진하고,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별 냉동·냉장 판매시설 및 전면부 어닝 설치를 지원하는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제 방문 관광객의 전통시장 유입 확대, 야간 소비 활성화, 고객 체류시간 증가, 방문 만족도 향상 및 명절 소비 촉진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정인혜**

2-2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가. 함평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함평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융비용 부담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 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이다. 융자 규모는 총 10억 6,000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함평군은 대출 이자 중 3.0%, 업체당 최대 9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8억 5,000만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체결하고, 1억 8,000만 원 이상의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난 해소는 물론, 시설개선과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개수, 원

사업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융자금 신규보증	신규 보증 업체	38	37	25*	*25년 수해피해 재난특별보증과 중복불가
	신규 보증 금액	1,060,000,000	1,060,000,000	730,000,000	
이자 차액분 보전	이자차액 지원 업체	87	75	96	
	이자차액 금액	69,000,000	61,000,000	55,200,000	

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함평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전년도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이다. 함평군은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경영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50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8,000여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카드 결제 증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절감과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하여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다. 소상공인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함평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 내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 상권 자생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함평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함평군소상공인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이 중 군 보조금은 2,970만 원, 자부담은 330만 원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함평군은 현장 중심의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 함평군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함평군은 폐업,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생계 위협이 발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재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기반 자금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자립 지원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평군은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제 가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내 2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5,000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이는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폐업 이후 재도전 기반 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입장려금 지원과 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노란우산 공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김산하**

2-3 함평천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통한 이용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주차장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사업은 2019년 착수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2025년 9월 3일 군관리계획(시장·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2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현재 총 16세대 중 13세대에 대한 이전 및 보상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0세대의 지장물은 철거를 마쳤다. 또한 미이전 3세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잔여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계획을 병행 검토하여 사업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보상액을 재산정하고, 미이전 세대를 대상으로 성실히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잔여 보상 및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내 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 및 체류시간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지역경제팀장 **서영주** | 담당자 **정인혜**

03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3-1 신규고용과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자동차 연관 기업 유치

함평군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전자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스마트화 흐름에 대응하여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었다.

관광·식품·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55개 기업, 1조 1,613억 원 규모의 투자와 1,650명 고용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이 가운데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투자협약과 착공은 빛그린산단의 산업기능을 강화한 주요 성과이다. 금호타이어는 월야면 외치리 1701-1번지 일원 500,000.7㎡ 부지에 6,609억 원을 투자하고 639명의 고용을 계획하고 있어, 자동차 연관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제조업 투자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는 빛그린산단의 제조업 기반을 넓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자동차 부품, 금형, 플라스틱 부품, 루프렉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추진되면서 자동차 연관산업의 입지 기반이 확대되었고, 향후 소재·부품·장비와 완성품 생산이 연계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 가능성도 높아졌다.

함평군은 전라남도, LH,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입주상담, 부지공급, 투자협약, 인허가 지원 등 기업 유치 전 과정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자동차 부품, 소재, 물류, 정비 등 전후방 연관기업의 동반 입주를 유도하여 빛그린산단을 미래 성장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투자유치팀장 **김경남** | 담당자 **조영훈**

3-2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투자기업 행정 지원체계 운영

함평군은 투자기업이 입주 상담부터 착공, 공장 가동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운영하였다.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 확보, 입주계약, 건축·환경 인허가, 기반시

설, 세제·보조금, 인력채용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투자 초기에는 입지 상담과 투자협약, 부지공급을 지원하고, 투자 실행 단계에서는 인허가와 기반시설 협의, 보조금 안내 등을 연계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투자 이후에는 공장 가동과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병행하였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투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여러 부서와 기관의 협의가 동시에 필요하므로, 함평군은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조율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 계획한 일정에 맞춰 착공과 입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초기 정착 여건을 개선하였다.

원스톱 행정지원은 기업 유치 이후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투자유치팀장 **김경남** | 담당자 **조영훈**

3-3 규제완화와 기반 정비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함평군은 기업 유치가 실제 투자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 여건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함께 정비하였다.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더라도 기반시설, 인허가, 보조금, 세제, 공장등록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투자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에 맞춰 지원 가능 사항을 안내하였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지원이 실제 착공과 공장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병행하였다.

산업단지별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였다. 빛그린산단, 동함평산단, 학교농공단지, 해보농공단지 등 주요 산업입지의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금호타이어 함평공장과 같은 대규모 제조업 투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방안과 기반시설 여건을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투자 실행력을 높였다. 이러한 지원은 개별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빛그린산단의 산업기능 강화와 후속 기업 유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투자유치팀장 **김경남** | 담당자 **조영훈**

3-4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한 지역경제 연계형 투자유치 전략 마련

함평군은 투자유치 효과가 기업 입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 근로자 정착, 지역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고용·정주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자가 지역 안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연관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생활편의를 함께 지원하기 위한 산업단지 지원시설 확충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빛그린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법률, 세무 등 기업지원 서비스와 상업·휴식·문화강좌, 안전보건 교육 등 근로자 편의기능을 갖춘 종합 지원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단지별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도 병행하였다. 학교농공단지에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구내식당, 생활체육실, 북카페, 커뮤니티실, 세탁실, 근로자 기숙사 등 근로자 편의기능을 갖춘 문화·복지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동함평산단에는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식당, 세탁실, 근로자 숙소 등 산업단지 내 부족한 정주·복지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러한 산업단지 지원시설 확충과 준비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근로자 생활편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 연관기업과 협력업체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함께 추진하여 지역경제 연계형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투자유치팀장 **김경남** | 담당자 **조영훈**

04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4-1 빛그린국가산단 2·3단계 준공 및 활성화를 위한 신속 추진

빛그린 국가산단 조성은 미래자동차 및 친환경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기반조성 사업으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기존 1단계 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에 따라 추가적인 2단계 산업용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그린국가산단의 신속한 준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2·3단계 조성 규모는 1,411,195.3㎡로 계획되었으며, 현재 산업시설 용지 약 59.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분양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함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 기관인 LH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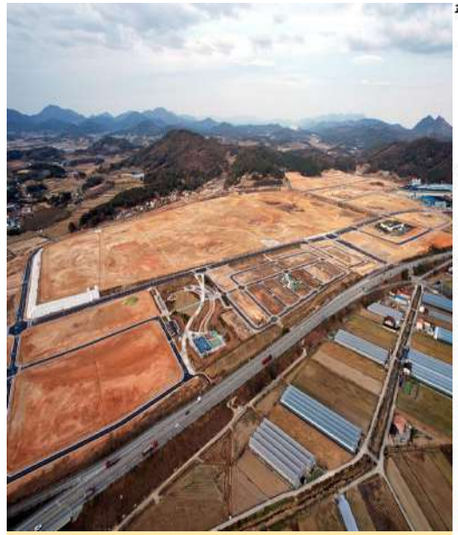
또한, 산업단지의 준공을 위해 군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준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를 통해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소하고, 기반시설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행정절차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관련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중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있다.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2·3단계 구간은 준공을 앞두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 기반을 완료했으며, 주요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의 신속한 준공 및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빛그린국가산단 현장사진



광주일보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016면

'민·관 협력'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립 순항

군, 전남도·금타와 협업…2028년 1월 생산 목표

함평군이 전남도, 금호타이어와 3자간 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올해면 외치리 일원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최대 스마트 생산공장으로, 2단계에 걸쳐 조성될 예정이다. 2028년 1단계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530만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입주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핵심 투자유치 성과이자 지역 산업 모델로 평가되며, 군은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유치에 탄력을 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금호타이어, 함평군은 건축허가를 비롯한 주요 행정·기술적 절차를 긴밀히 조율하며,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최근 사업의 시작점이 될 창고동 건축허가를 승인하며 본격적인 공장 건립의 첫발을 내디뎠다.

2026년 정련동과 타이어 공장동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202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타이어 생산을 목표로 한다.

군은 향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상생 기반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심생명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남도와 함평군, 금호타이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며 "기업과 행정이 상생하는 자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길군 기자 choi0730@gwangnam.co.kr

빛그린산단 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현장

보도자료(함평공장 건립 순항)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최일수**

4-2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함평군은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포함한 총 79억 원(국비26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4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까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였다. 이번 공모 선정은 함평군의 체계적인 사업 기획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전략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439.39㎡ 규모로 조성되며, 커뮤니티실·체육시설·기숙사 등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의 휴식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湖州日報 2022년 8월 4일 목요일 014면

함평군, 산업단지공단과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함평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이뤄지게 됐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00㎡ 규모로 편의점, 체육시설, 쉐어하우스 등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건립사업을 통해 학교농공단지가 다시 한번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보도자료(산업단지공단 협약)



조감도

이를 통해 기존에 문화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다양한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근로환경 개선과 정주 만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기업 유치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함평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체감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기반사업으로, 향후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산업·정주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고홍일**

4-3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동함평일반산단 주거복지센터 조성

함평군은 동함평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 증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인구소멸 대응과 연계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등 총 8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698㎡ 규모로 조성되며,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1층에는 식당·세탁실·관리실·기계실·통신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배치되고, 2~3층에는 총 26호, 5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2인실 24호, 3인실 2호)가 마련된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휴식 기능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더불어, 커뮤니티 공간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함께 갖춰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부담 완화와 생활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청년 근로자 유입 및 장기 근속 유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 내 정주 인구 증가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향후 동함평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정주환경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센터 위치도



주거복지센터 조감도

추진부서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고홍일**

4-4 축산 연관산업 직접화를 위한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함평군은 지역 농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9년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총 318,564㎡ 규모의 축산업 중심의 농공단지와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04억 원(국비 96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290억 원)규모로,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2단계)과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1단계)는 2013년~2019년까지 시행하였으며,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완료되었다.

산업시설 195,315㎡와 도로, 용수, 배수 등 기반시설 123,249㎡를 조성하여 지역 축산물의 가공·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18년 지역개발계획 승인, 2020년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 등 주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별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26년까지 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분양 등을 통해 지역 내 축산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축산업을 6차 산업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품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조감도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민태홍**

4-5 입주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함평군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및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매해 예산을 세워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과 환경 저해 요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우선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과 공공녹지에 대하여 매년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여 잡초로 인한 경관 저해 및 해충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가로수 전정 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차량 통행 안전 확보와 산업단지 미관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상습 적치 구간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불법투기 예방과 청결한 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였다.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과 도로변 적치물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환경요인을 해소하였다.

우기철 침수 예방과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하여 배수로 준설 및 정비사업도 해마다 점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파손된 포장면을 보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도로 균열 및 침하 구간을 정비하여 차량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보행편의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과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도 및 보도 정비작업 실시



인도변 풀베기작업 실시

추진부서 |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고홍일, 최일수**

4-6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빛그린산단 비즈니스센터 건립

전남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포함한 총 11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은 함평군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청년 수요를 반영한 전략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청년문화센터는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며, 청년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소통·편의 공간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과 휴식·여가 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청년층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단지 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함평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행정적 지원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 관리와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교류·편의 기능이 결합된 공간이 제공되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 유치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청년 중심의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향후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산업·정주 환경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치도



조감도



함평군-산단공,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협약 체결

빛그린 국가산단, 청년이 머무는 산업단지로 변화 '첫 삽'

함평군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상호협력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단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 원(총사업비 114억 원)을 확보했다"며 "2028년까지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지역주민과 청년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함평군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을 관리하며 군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

청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지역 청년의 문화·소통·편의 공간이 마련돼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을 비롯한 주민에게 지속 가능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빛그린산단 청년문화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소통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함평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산업단지공단 협약)

추진부서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 산단관리팀장 **김광덕** | 담당자 **고홍일**

05

에너지신산업과 지역경제 기반

5-1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군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군정의 핵심 경제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군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사업은 특정 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을 대상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집중 보급하는 융복합 형태로 진행되었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사업에 매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비 등 외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급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읍·면 단위 마을 중심의 집중 지원을 통해 가구별 전기요금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한 가구는 월 평균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고물가 시대의 가계 안정을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단순한 설비 보급에 그치지 않고 ICT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다.

향후 함평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역의 신산업 기반과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형 청정 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궤를 같이하며,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추진부서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에너지신산업팀장 **김형기** | 담당자 **나경섭**

5-2 산업입지와 생활 기반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연계형 에너지 기반 확충

함평군은 단순한 에너지 보급을 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경제 연계형 에너지 기반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인식 아래 추진된 민선 8기의 차별화된 경제 전략이다.

먼저,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관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요구에 부합하는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에서 제시된 AI 첨단축산업 융복합밸리와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도입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에너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생활 기반 측면에서는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망 확대와 마을단위 소형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병행하여, 농어촌 지역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체계의 현대화는 군민의 생활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의 에너지 기반 확충 사업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에너지 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지역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강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 함평군은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산업과 생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에너지신산업팀장 **김형기** | 담당자 **나경섭**

5-3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효과 창출

함평군은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이자 보편적 복지인 도시가스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민선 8기가 지향하는 '군민이 행복한 함평'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은 기존 함평읍 중심의 공급 체계를 넘어, 인근 면 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으로 배관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지리적 여건상 배관 연결이 어려운 외곽 지역에는 소형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결합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체계의 다변화는 기존 등유나 개별 LPG 사용 대비 연료비를 30% 이상 절감시켜, 고령화된 농촌 지역 가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기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렴한 산업용 에너지 공급은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비를 절감시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인프라를 중요시하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데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이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의 한 축인 '융복합 첨단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으며, 에너지 비용 절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함평군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 배관 정비와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생활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와 함께 지역 경쟁력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 도시가스 보급률

단위 : 가구

지역	합계	주택용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냉난방용	기타
합계	3,257	3,013	185	25	27	7	-
함평읍	2,539	2,362	152	20	-	5	-
학교면	345	303	17	2	23	-	-
대동면	355	330	16	3	4	2	-
월야면	18	18	-	-	-	-	-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에너지신산업팀장 **김형기** | 담당자 **나경섭**

06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6-1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함평군은 지역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4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약 2,21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지원하였다. 2026년에는 총 1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828백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공공근로(연 80명)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연 80명)를 병행 추진하여 총 160명 규모의 참여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참여자들은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경험을 축적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였고, 또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지역사회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사업 제안부터 선발, 운영까지 단계별 추진체계를 정례화하여 연 2회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모집공고 및 선발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주 30시간 및 25시간 근무체계와 4대 보험 가입을 전면 적용하여 참여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지역일자리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참여인원	159	159	160	
예산 집행내역	687,674	771,580	758,933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일자리공동체팀장 **김용민** | 담당자 **양소리**

6-2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근속 정착형 일자리 지원 확대

함평군은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라는 직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일터를 찾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청년 근속 정착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 근속, 주거 및 자산 형성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로 인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근로자 1명당 4년간 최대 2천만원의 지원금을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차등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난 민선8기 동안 총 37개 기업과 70명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또한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4개사 5명의 청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마을 단위 기업과 청년 활동가를 매칭하는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매칭하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개 기업과 6명의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공동체와 청년의 동반 성장을 꾀하였다. 단순한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희망적금'을 통해 사회 초년생인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도움으로써 청년들이 함평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은 청년들이 지역 산업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2025년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과 연계한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해 관내 고교생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우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로컬 인재 육성 로드맵을 가동하였으며, 그 결과 178명의 고등학생들이 직업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함평군 일자리상담소를 중심으로 관내 구인·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 평균 50~60명의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함평군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체계를 가동하였으며, 외부 유능한 청년 인재의 유입과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로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타 시·도 청년들이 함평으로 이주하여 함평의 특산품인 나비쌀과 국화를 활용한 디저트 카페, 지역 특색을 담은 북스테이 등을 개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냈다. 철저한 후속 지원 등의 결과 창업 지원 대상의 절반 이상이 현재에도 함평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용 환경을 실현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근속 정착형 일자리 정책의 확대는 함평군이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향후 청년 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주를 견인하는 핵심적인 정책적 버팀목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함평군은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2025년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7년 만에 장려상을 수상하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다. 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군정 운영에 있어 일자리 중심의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정착형 일자리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22.~'26)	주요성과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374,070	37개사, 70명 근속장려금 지원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470,669	5개사, 6명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역 정착 등 지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지원사업	237,014	2개사, 3명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역 정착 등 지원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90,280	4개사, 5명 청년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지역인재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	455,000	178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82,000	6개사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함평군 일자리상담소 운영	228,000	연평균 50~60명의 취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사업	388,222	10명 청년 창업가 육성 및 6명 청년 창업 정착
합계	2,325,255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일자리공동체팀장 **김용민** | 담당자 **박진아**

6-3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기반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함평군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영리 중심의 경제 구조를 넘어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추진으로 평가된다.

함평군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관내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723백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끌어냈으며, 7개사에 시설·장비 및 사업개발비 사업비 143백만원의 지원을통해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등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지역 자산 기반의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개사, 행안부형 마을기업 1개사 등 각 마을기업의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 구체화 실현을 지원하였다. 이는 고령자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마을 단위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함평군은 23년(22년 실적), 24년(23년 실적) 도내 평가에서 평균 3위를 기록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22.~'26)	주요성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6,800	2개사 지원, 기술개발 및 특허 지원 등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116,573	5개사 지원, 시설장비 설치를 통한 매출액 향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23,472	5개사 지원, 54명 취약계층 고용 지원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지원사업	60,000	3개사 육성 지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30,000	1개사 육성 지원
합계	956,845	

이렇듯 지역의 빈곤과 소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함평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체 중심의 활동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으로 확장되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총 42개소에 약 25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씨앗·새싹·열매'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형성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가공·전통공예·체험 프로그램 등 수익 창출형 활동으로 발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18개소에 103,000천원을 지원하여 돌봄 활동가와 프로그램 강사 등 지역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공동체는 지역 농산물 재배 및 가공, 전통공예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수익 창출형 활동으로 발전하며 향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50,000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다양화 및 브랜드 사업개발 지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	103,000	주민주도 돌봄 활동 사업비 지원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일자리공동체팀장 **김용민** | 담당자 **박진아, 양소리**

제3절
관광 · 문화 · 체육

1 매력 넘치는 체류형 관광 전환
2 엑스포공원 관광거점화
3 관광 개발과 신규 콘텐츠 확충
4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활용
5 축제 경쟁력 강화 및 관광콘텐츠 고도화
6 체육 인프라와 스포츠 활성화

01

매력 넘치는 체류형 관광 전환

1-1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여행사와 단체관광객의 함평 방문을 적극 유도하였다. 관광지 방문, 음식점 이용, 숙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관광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연도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 인원	5,268명	7,491명	9,669명
지급 신청액	4,583천원	8,395천원	12,368천원

나.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함평군은 모바일 기반 관광 서비스 제공과 할인 혜택 연계를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5년 3월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관람시설 1곳, 체험시설 6곳, 숙박업소 8곳, 식음료업체 6곳 등 총 21개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관광객들은 이를 통해 숙박 체험, 카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는 2026년 4월 기준 8만 8,126명으로, 인구수 대비 300.58%에 달하는 발급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여행객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현황

2026년 4월 기준

관광주민증 발급자 수(명)	인구 수(명)	인구수 대비 발급 현황
88,126	29,319	300.58%

다. 일과 쉼을 동시에, 블루워케이션 운영

함평군은 해양·섬 관광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을 통해 유휴공간 재생과 생활인구 유입, 지역소멸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휴식과 업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색 체류 프로그램으로 기업 재직자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평의 대표 피서지인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 워케이션 전용 공간을 마련해 제공한다.

함평군은 2024년 전남 블루워케이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박3일 또는 3박4일 일정으로 숙박, 공유오피스, 체험이 포함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5년까지 169명이 282박 규모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돌머리해수욕장 일대 워케이션 전용 공간

라. 교통 할인과 지역소비 혜택을 연계한 철도연계 관광상품 운영

함평군은 철도를 이용해 함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비와 지역 소비 혜택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기차타고 함평으로 체크 in 은 한국철도공사의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4년 함평군과 한국철도공사의 MOU 체결을 계기로 관광상품이 출시하였다.

또한 함평군은 또한 2025년부터 자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철도 운임 할인과 함께, 관내 소비를 인증한 관광객에게 함평군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인 함평천지몰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소비 확대, 함평천지몰 이용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漢城日報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007면

함평군-한국철도공사, 철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함평군이 16일 한국철도공사와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역에서 치러진 이날 행사에 임만규 부군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23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철도 연계 관광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에 공동으로 대응,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한국철도공사는 함평 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소재 유명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철도 자유여행 및 패키지상품을 8월 1일부터 할인 판매한다.
상품명은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관광객은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지정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함평군은 관광객에게 철도운임 할인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석재 기자 hsilbo@naver.com

보도자료(한성일보)

마.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 복지 확대

함평군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만 6세 이상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내 당일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추진 결과 총 318명의 관광 취약계층이 참여하였고, 2026년에도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도별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사업 추진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인원	40명	93명	121명	64명
지 원 액	5,846천원	12,983천원	16,504천원	10,405천원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 담당자 **선지원**

1-2 숙박·체험·소비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다각화

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함평군은 기존의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함평에 체류하는 관광객에게 숙박비, 체험활동비 등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참여 관광객이 직접 경험한 함평의 관광명소, 문화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SNS에 홍보함으로써 함평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 결과 총 74명이 422일을 함평에 체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제 중심의 일회성 관광 패턴을 개선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추진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여행일수	108일	126일	108일	80일
참가팀	12팀	11팀	10팀	5팀
참가인원	28명	18명	18명	10명
지원금액	21,884천원	18,300천원	17,777천원	4,854천원

나.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는 함평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숙박업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함평군이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연간 평균적으로 60팀이 함평을 방문해 체류하며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남도숙박 할인 빅 이벤트 추진 실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용건수	40건	81건	49건	64건
숙박요금 지원금액	1,600천원	4,200천원	2,460천원	3,580천원

다. 남부권의 매력적인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역관광개발 진흥사업

함평군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자 지역 내 관광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소도시의 새로운 관광매력을 이용하여 여행권역 상품을 개발하는 소도시 여행권역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권역 내 민간 협의체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2025년 목·포·무안·함평을 연계한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함평군은 돌머리해수욕장, 주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하는 팜파티, 촌캉스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함평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권역 연계 관광상품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남부권 로컬투어랩 운영

가) 기　간 : 2024. ~ 2027. (4년간)
나) 대　상 : 함평, 나주, 무안, 영광(1권역)
다) 사업내용 : 지역 협의체 네트워킹을 통한 권역 연계 관광상품 운영



소도시 여행권역 육성사업

아울러 함평군은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와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사업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에도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사업

가) 기　간 : 2024. ~ 2033. (10년간)

나) 대　상 : 전남 남서권 15개 시군

※ 함평, 목포, 나주, 담양, 장흥, 강진, 영광, 무안, 장성,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신안, 화순

다) 사업내용 : 남도의 고택, 한옥 등을 활용해 남부권 로컬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체류형 관광 상품 운영

3)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

가) 기　간 : 2024. ~ 2029. (6년간)

나) 대　상 : 전남 남서권 15개 시군

다) 사업내용 : 지역 역량과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남도미식 글로벌 브랜딩 및 한국 대표 글로벌 미식 관광지 육성 및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미식 상품 운영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 담당자 **선지원**

1-3 현장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최근 관광 형태가 단체 중심에서 개별·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광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의미를 함께 경험하는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함평군에는 총 18명의 문화관광해설사와 4명의 문화관광해설가가 활동 중이며, 함평엑스포공원과 자연생태공원, 용천사 등 주요 관광거점에서 관광객 안내와 해설서비스를 제공한다.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대규모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 동선 안내와 관광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객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함평군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매년 함평문화유산알기 심화교육과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소통 능력 향상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해설 수준을 높이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설 이용 관광객	26,249명	24.885명	19,987명
활동비 총액	117,640천원	118,660천원	100,800천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 담당자 **선지원**

1-4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관광전략을 위한 관광종합계획 수립

함평군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축제기반의 관광에서 상시 및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함평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2023년을 기준으로 계획 기간을 단기(2025~2027년), 중기(2028~2030년), 장기(2031~2034년)로 구분하였고 단기 계획목표는 실천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중기 계획목표는 기본구상과 전략계획 수립, 장기 계획목표는 사업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만의 특별한 관광상품 및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4계절 관광객의 유치로 함평군이 대한민국 관광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함평군 관광종합계획 세부 사업계획

구 분	권역별/사업명
관광개발계획 (총22개 사업)	오감만족 문화벨트(함평읍·대동면 일원)
	1. 함평읍 및 함평천 예술콘텐츠 로드 조성
	2. 함평 글로벌 세계분수정원 조성 및 여름 축제 개최
	3. 함평읍, 함평박쥐로 날다 함평상징조형물 및 나이트플라잉사업
	4. 함평 대동 세계수중조형폭포 전시관 조성
	5. 함평 글로벌 동물도감 의학전시관 조성 및 페스타 개최
	해양레저 관광벨트(손불면·신광면 일원)
	1. 함평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 및 박람회 개최
	2. 함평 어싱길 조성 및 어싱학교 운영
	3. 함평만 글로벌 이색명품 숙박 인프라 조성
	4. 함평 명품 해수찜 활성화 사업
	5. 함평 월천 노래하는 조형예술 거점 및 방조제 가로수 조성
	생태역사 체험벨트(월야면·해보면·나산면 일원)
	1. 용천사 전통 발효식품 페스타
	2. 함평천지 MTB 스포츠 거점 조성 및 대회 개최
	3. 마한 역사 보물 찾기 게임형 역사관광 상품개발
	4. 유럽형 문화예술 레지던스 타운 조성
	5. MZ세대 글로벌 핫스팟(포토존) 저상
	건강치유 테마벨트(엄다면·학교면 일원)
	1. 함평 대한민국 건강치유복합센터 플랫폼 조성
	2. 대한민국 실내 특화 스포처 허브 조성
	3. 함평 6차산업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4. 함평 국제생태예술 트리엔날레
	5. 행동하는 함평 인문학, 철학으로 만나다
	기타 제안 사업(함평군 일원)
	1. 함평군 디지털관광주민증사업
	2. 함평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관광진흥계획 (총6개 사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도시 제고
	1. 함평 관광 인력 역량강화
	2. 함평 굿스테이 인증사업 및 창업지원
	관광 안내 체계 개선 및 홍보마케팅
	1. 군민참여형 관광명소 선정 및 관광 안내시설 개선
	2. 스마트관광안내소 조성 및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
	3. 온라인 홍보마케팅 채널 리뉴얼
	4. 함평 시티투어 버스 운영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정책팀장 **박유향** | 담당자 **홍의성**

02

엑스포공원 관광거점화

2-1 노후시설 개선과 체험성 강화를 위한 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조성

함평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함평엑스포공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체험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엑스포공원은 연간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핵심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수변공간·진출입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광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방문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수호리 일원 엑스포공원을 대상으로 광장 정비, 친수공간 개선, 기반시설 확충, 진출입구 상징 시설 재정비 등 관광 전반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원 내 광장은 바닥을 정비하고 블록포장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방문객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잔디 식재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친수공간은 계류 준설과 함께 데크계단, 쉼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수변 접근성과 이용 안전성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차라인 정비, 진입로 덧씌우기 등을 통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원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를 병행하였다.

이와 함께 엑스포공원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주요 진출입구인 '나비의 문'과 '황소의 문'을 재조성하고, 공원 이미지와 연계한 경관 요소를 보완하여 방문객이 공원 진입 단계에서부터 함평의 대표 관광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축제 기간 집중되는 방문객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광장, 산책로, 주차장 등 주요 동선과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행사 시 관람 및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평상시에도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였다. 특히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공간 재정비를 통해 방문객 수용 여건을 강화하고, 엑스포공원이 함평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공원의 기능과 이용 효율을 함께 높이는 사업으로, 향후 엑스포공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엑스포공원 관광인프라 정비사업(토목) 계획도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교체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의 문 교체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광장 정비



데크 공간 정비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주차장 계단 보수



함평엑스포공원 제3주차장 포장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관리팀장 **이송도** | 담당자 **김소영**

2-2 청년 참여형 관광상권 조성을 위한 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성

함평군은 지역 청년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새로운 소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청년상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엑스포공원 내 음식 및 판매시설은 축제 기간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적인 먹거리와 소비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설 상업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함평읍 수호리 엑스포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청년상회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과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내외 판매 및 휴게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인 미미라운지 조성,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청년상회 및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소비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청년상회는 엑스포공원 서측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었다. 이는 신규 건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기존 전시·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접근성 및 운영 측면에서 보다 실효적인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성사업(안)

또한 청년상회는 단순 판매공간을 넘어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먹 거리·상품 판매, 문화공연 및 전시가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며,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시 운영이 가능한 관광 소비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지원하고, 팝업스토어 및 플리마켓 운영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시장 진입과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청년상회는 고정형 매장 운영에 더해 이동형 판매시설인 공유트럭을 활용하여 엑스포공원과 주요 관광지, 면 소재지 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상회 입점 청년, 지역 상인, 플리마켓 참여자 등이 함께 장터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농특산물, 가공품, 굿즈, 먹거리 등을 직접 판매하고, 관광객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형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청년상회 조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엑스포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감도


함평엑스포공원 청년상회 조감도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시설관리팀장 **이송도** 담당자 **김소영**

2-3 사계절 관광매력 제고를 위한 엑스포공원 경관 연출

엑스포공원 및 생태습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사계절 축제와 연계한 경관 조성을 통해 계절마다 새로운 방문 동기를 창출하고 관광매력을 강화하였다.

가. 함평나비대축제

꽃양귀비, 루피너스 등 11종 34만본의 자체 육묘 초화류와 웨이브 샤피니아 등 12종 10만본의 구입 꽃을 식재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생동감 있는 봄꽃 경관을 조성하였다.

1) 중앙광장 꿈나무　희망나무에는 웨이브샤피니아(4,000분)로 연출하여 아름답고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 야생화정원 내에 열기구 포토존을 연출하여 관람객 참여형 포토존을 연출하였다.


중앙광장 꿈나무 및 봄꽃 초화류 연출


야생화정원 열기구 포토존 연출

3) 관람 동선 곳곳에 다양한 초화류 화단 연출을 통해 봄철 경관 분위기를 살리고 휴게 쉼터에 녹음수목을 활용하여 편안한 쉼과 여유로움을 제공하였다.


엑스포공원 목교 웨이브 사피니아 연출


대통령 방문 기념동산 봄꽃 초화류 연출


엑스포공원 생태수로 봄꽃 연출


등나무 터널 봄꽃 및 꽃볼 연출

나. 함평 물놀이 페스타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 하는 여름철에는 녹음 수목을 활용한 시원한 여름 경관을 제공하고, 주제영상관 주변 목수국 화분을 배치하여 여름철 경관을 연출하였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주제영상관 주변 목수국 연출


생태습지 여름철 수목 경관 연출

다. 대한민국 국향대전

오색국화, 어자국 등 10종 50만본의 자체 육묘 초화류와 현애국화, 가든멈 등 3만본의 구입 꽃을 활용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 경관을 연출하였다.

1) 중앙광장 꿈나무·희망나무에는 현애국화(4,000분)로 연출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향기로운 국화꽃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였다.



나비의 문 진입부 국화 포토존 연출



나비주차장 국화 연출



주제영상관 앞 황박이와 뽐비 포토존 연출



셍태습지 국화 들녘 연출



중앙광장 나비 바닥분수 조명 연출



주제영상관 '벽타는 산타' 포토존 연출



등나무 터널 크리스마스 볼 연출



대통령 방문 기념동산 주변 연출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시설관리팀장 **이송도** 담당자 **김진실**

라. 함평 겨울빛축제

겨울철 크리스마스 테마 경관 및 겨울빛축제 운영에 따른 각종 야간관광 콘텐츠 확충하여 겨울철 비수기 관광수요를 창출하였다.



황소의문 진입부 반디 조명 연출



야생화정원 '호호호 트리' 연출

2-4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물놀이장 운영

함평군은 여름철 관광 비수기 극복과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엑스포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계절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 봄철 축제 중심의 관광구조를 보완하고, 연중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물놀이장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심,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을 고려하여 조성되었으며, 안전요원 배치 및 이용시간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무더위 기간 동안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기능하며 여름철 대표 체험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객 증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내,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설물 점검 및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엑스포공원이 단순 관람형 공간에서 체험과 휴식이 결합된 복합 관광공간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도별 운영 실적을 보면 운영기간, 기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는 일부 변동이 있으나, 콘텐츠 확대 및 운영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물놀이 페스타 도입과 운영 효율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임시 휴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언론보도 및 현장 운영 사례를 통해 물놀이장은 지역 대표 여름철 관광 콘텐츠로서의 인지도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용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운영기간 및 콘텐츠를 확대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름철 대표 관광시설로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연도별 운영 성과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기간 (일수)	7. 8. ~ 8. 15. (39일)	7. 14. ~ 8. 13. (31일)	7. 19. ~ 8. 18. (27일)	7. 18. ~ 8. 17. (19일)
이용객수	47,982	31,122	35,743	31,289
운영수입	478,110	335,510	372,523	309,973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코로나 상황 속 안정적 운영	노후화 시설 개선 등 안전관리 중심 운영	DJ 버블파티 등 콘텐츠 확대 및 이용객 증가	물놀이 페스타 도입 팔찌 입장 등 운영 효율 개선

※ 운영기간 단축 및 기상 여건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는 연도별 변동이 있음
※ 2025년은 집중호우에 따른 임시휴장【8. 5.(화) ~ 8. 13.(수) (8일)】 발생



슬라이드풀 버블파티(신설 프로그램)



파도풀(가족 단위 이용객 중심 체험시설)



키즈풀(유아·어린이 맞춤형 물놀이 공간)



워터버킷(다양한 체험시설 구성)



호남신문 2023년 8월 7일 월요일 004면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지역경제 '활짝'

여름 피서지로 큰 인기…지역경제 활성화 효자노릇 톡톡

오는 13일까지 운영…많은 피서객들의 인기 끌것으로 예상

함평군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이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4일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 이날 하루 동안 2천 명이 넘는 가족 단위 피서객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붐볐다.

방문 피서객들은 물놀이장 주변 잔디밭에 마련된 파라솔에 모여 준내 음식점에서 배달된 치킨, 피자, 중국 음식 등을 먹어 한층 즐겁게 물놀이를 했다. 군은 물놀이장 내 취식을 위해 주변에 대형 그늘막과 60여동 파라솔 80여 개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물놀이장 내에 음식점 연락처를 게시해 물놀이장 내에서 배달 음식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평읍 중국집 사장 A씨는 "물놀이장 개장 후 배달이 늘어 매출이 3배 정도 올라서 좋다"며 웃음을 지었고 함평읍 B씨는 "저녁에 치킨집 2곳을 전화했으나 재료 소진으로 주문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물놀이장 개장 기간 중 평소 대비 2~3배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도 있어 물놀이장의 인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오신 관광정책실 시설운영팀장은 "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3천명 이상이 다녀가는 여름 인기 피서지로 덕분에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됐다"며 "물놀이장 운영을 마치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이 관광객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4일 기준 1만 8천명이 입장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수용인원을 최대 9천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달 13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안전하고 수질이 깨끗해 앞으로도 많은 피서객들의 인기를 끌것으로 예상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인기)

아시아투데이 2025년 7월 1일 화요일 Z23면

함평군, 여름축제 '물놀이 페스타' 첫선

18~다음 달 17일 체험·공연 등 다채
郡,봄·가을·겨울 사계절 축제 완성



'함평 물놀이 페스타' 홍보 포스터.

전남 함평군이 여름 축제인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함평군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17일까지 총 31일간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과 연계해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를 올해 처음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군이 사계절 축제를 완성하기 위해 봄(나비대축제), 가을(국향대전), 겨울(함평 겨울빛축제)에 이어 기획한 첫 여름 축제다.

축제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주말(토·일)과 광복절 등 휴일 11일 △공연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성수기와 공휴일을 포함해 총 15일간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 물총대전 △블풀대전 △징검다리 챌린지 등 이색적인 물놀이 체험 콘텐츠와 △EDM 버블파티 △K-POP 댄스파티 등 공연 콘텐츠로 구성됐다.

아울러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는 파도풀, 슬라이드풀, 어린이풀, 워터버킷, 유아풀 등 물놀이 시설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축제가 여름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축제와 엑스포공원을 적극 연계해 사계절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엑스포공원 식물전시관에서는 어린왕자 의상 체험, 바나나따기 체험 등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상익 군수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는 여름철 새로운 지역축제로서 사계절 축제를 지향하는 함평의 새로운 도전이자 가능성"이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함평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동준 기자

보도자료(물놀이 페스타 시작)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운영팀장 **김오선** | 담당자 **김은수**

2-5 생태교육과 체험관광 연계를 위한 나비곤충생태관 운영

함평군은 나비와 곤충을 활용한 생태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함평의 대표 자원인 나비를 중심으로 생태·교육·관광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나비곤충생태관은 다양한 곤충 및 생태 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관람 중심의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살아있는 곤충과 생태환경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전시 구성을 통해 자연 친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개관 이후 전시 환경 개선 및 관람 동선 정비 등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관리해 왔으며, 축제 기간과 연계한 전시 연출을 통해 방문객 참여 요소를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빛축제와 연계하여 테마형 전시 연출 및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계절·행사 맞춤형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나비곤충생태관은 축제 기간 외에도 상시 운영을 통해 엑스포공원의 관광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방문객 유입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운영 사례와 방문객 증가 추이를 통해 나비곤충생태관은 생태교육과 체험관광이 결합된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서의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도입과 생태해설 및 체험 콘텐츠 확충을 통해 생태교육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비곤충생태관 연도별 입장객 수

단위 : 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나비대축제)
이용객수	210,414	257,527	73,320

※ 2023년 개관(2023. 3.)에 따라 초기 운영 단계로 별도 통계 미집계

☞ 개관 이후 나비곤충생태관 이용객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축제 연계 운영 및 전시 연출 강화에 따라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6년은 나비대축제 기간 이용객 기준으로, 향후 연간 운영 실적 집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비곤충생태관 전경



나비곤충생태관 곤충 소리체험 및 표본



나비곤충생태관 인터렉티브



나비곤충생태관 VR



무등일보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013면 광전매일신문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006면

함평 '나비곤충생태관' 인기몰이

날갯짓 따라 관광객 발길 줄이어
곤충 표본·체험형 콘텐츠 '호평'

국화 향기로 가득한 함평군의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한가운데, 나비의 날갯짓을 따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 내 '나비곤충생태관'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4월 문을 연 나비곤충생태관은 다양한 나비·곤충표본과 체험형 콘텐츠를 갖춘 함평의 대표 생태교육 공간으로, 올해 봄 제27회 나비대축제 기간 1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관람객들은 실제 곤충 표본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생태의 신비를 느끼고,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전시관을 들어서면 파란 나비들이 원형으로 '비행하는 듯한 '모뉴먼트링(Monument Ring)'이 설치돼 있다. 특히, 모뉴먼트링에는 내부 포토 키오스크에서 나비·곤충 캐릭터와 함께 촬영한 합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모뉴먼트링에 송출돼 이색 포토존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VR(가상현실) 체험존에서는 개미가 되어 알 정소, 먹이주기, 벌 퇴치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곤충의 생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교육과 오락을 동시에 잡은 콘텐츠로 호평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나비 인터랙티브'는 손을 벽에 가까이 대면 형형색색의 나비가 손끝 주위를 날아오르는 신비로운 연출이 펼쳐져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 밖에 귀뚜라미, 매미, 벌 등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공간은 바쁜 일상 속 작은 여유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나비곤충생태관 온실에서 나비를 만날 수 있는 '나비의 가을정원'과 '명품 국화 분재 전시회'가 운영돼 향기로운 국화와 생태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함평=정성현기자 jch3857@mdilbo.com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

'하얀 겨울 오두막' 새단장

전남 함평군 나비곤충생태관이 겨울을 맞아 포근한 '하얀 겨울 오두막'으로 새 단장을 했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이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새로운 감성 공간 '하얀 겨울 오두막'을 선보인다.

나비곤충생태관은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 표본 354종 1378점을 보유한 생태 교육 전시관으로, 전시관 중앙의 모뉴먼트링을 비롯해 나비 인터랙티브 체험, VR 체험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함평군은 '2025 함평 겨울빛축제'를 맞아 나비곤충생태관의 기존 전시 공간에 겨울 테마 연출을 더해, 관람객들이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전시관을 새롭게 꾸몄다.

'하얀 겨울 오두막'은 눈 덮인 숲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트리와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진 겨울 테마 공간으로, 휴식과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특히 나비곤충생태관의 특색을 살린 나비 모양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공간 곳곳에 배치돼 일반적인 겨울 연출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선사한다. 금색·은색, 분홍빛, 푸른빛 나비 장식이 트리와 조화를 이루며 겨울 포토존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겨울빛축제 기간 나비곤충생태관을 비롯한 엑스포공원 내 주요 전시관을 겨울 테마 공간으로 꾸며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관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나비곤충생태관 인기)

보도자료(나비곤충생태관 새단장)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운영팀장 **김오선** | 담당자 **김은수**

2-6 디지털 체험수요 대응을 위한 VR체험장 운영

함평군은 디지털 콘텐츠와 실감형 체험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함평엑스포공원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VR체험장 운영을 본격 추진하였다.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단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은 주제영상관 1층에 예전 하천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VR 12종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 퓨처라이드, 로봇, 드론, 워킹우주여행, 워킹해저탐험, 패러글라이딩, 비트세이버, 오버테이크, 마법양탄자, 해머팡팡, AR 2종 ▲스크린사격, 스크린축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제공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엑스포공원의 상시 운영 기반 마련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은 VR체험장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기기 유지관리와 운영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였다. 노후 장비 보완, 이용객 동선 안내 및 안전표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체험기기별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현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는 VR체험장을 상시 운영하여 축제 방문객들에게 실감형 디지털 체험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광객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체험 대기열이 이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며 함평엑스포공원의 대표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체험관광 활성화와 함께 엑스포공원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함평군은 체험시설 운영환경 개선과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연도별 운영 성과

연도	입장객(명)	금액(천원)	비고
계	20,261	169,440	
2025	4,660	38,528	
2024	5,153	41,732	
2023	4,302	37,421	
2022	6,146	51,759	22. 4. 22. 개장


VR체험장 운영


VR체험장 운영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운영팀장 **김오선** | 담당자 **진은애**

2-7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함평자동차극장 운영

1992년 함평 읍내의 극장이 폐관된 이후, 군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29년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함평군은 군민의 이러한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급증한 비대면 문화 수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함평엑스포공원 내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상영관 부지로 활용, 부지 매입비를 절감하고 기존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극대화하는 등 저예산·고효율 행정 모델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단순 영화 상영 시설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이자 군민 문화복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2개관 동시 운영 시스템과 온라인 예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국 자동차극장의 운영 모델을 선도했으며, 함평 고유 테마인 황금박쥐와 나비를 적용한 상영관 디자인과 다목적 문화공연 무대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비대면 문화시설의 선도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주민 중심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개장 100일 만에 누적 관람 차량 4천 대 돌파, 일일 최대 관람 189대 기록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

현재 함평자동차극장은 관람객 유입을 통해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대비 문화시설 접근성이 낮은 군민들에게 최신 영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관람관 운영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며 군민 문화복지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과 연계된 함평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자동차극장은 야간 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함평군은 2년 연속 선정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동력 삼아 자동차극장을 중심으로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고도화, 가족 친화 프로그램 확대, 지역 상권 연계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군민에게 체감도 높은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함평자동차극장을 서남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마케팅팀장 **노호성** | 담당자 **김남훈**

03

관광 개발과 신규 콘텐츠 확충

3-1 체류형 레저수용 대응을 위한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사항인 '체류형 명품 관광지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은 급증하는 아웃도어 레저 수요와 캠핑 문화의 확산에 발맞추어 함평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프로젝트이다.

축제 관람 중심의 단기 방문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숙박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산 49-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유원지 부지 119,309㎡와 진입도로 5,835㎡를 포함하여 총 125,14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개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진입도로 조성비 등을 포함하여 15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8억 원, 도비 36억 원, 군비 56억 원, 원전세 8억 원으로 다각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분담한다.

공간 구상과 시설 배치는 대상지가 지닌 수려한 수변 경관과 양호한 지형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명품 레저 공간으로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된다. 숙박 인프라로는 이용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적인 오토캠핑장 43동(캠핑데크 8동 포함)을 배치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고품격 자쿠지 시설을 갖춘 펫글램핑 10동과 자연친화적인 삼각 지붕 형태의 친환경 테마하우스 4동을 조화롭게 구성한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지형·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하고, 대형견과 소형견 공간을 분리한 펫놀이터와 반려동물샵을 마련하여 차별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문화 활동을 위한 야외무대, 플리마켓,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텃밭 등 풍성한 체험 공간도 함께 집약한다. 유원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리시설 역시 품격 있게 계획된다. 입구 단계에는 출입 관리와 방문객 편의를 지원하는 웰컴센터가 들어서며, 중심부에는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사무소 및 카페 건물이 건립된다. 이 관리동 내부에는 매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함평군의 우수한 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공간이 연계된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대응 숙박동 설계와 함께 공공야영장으로서의 공익적 가치도 높인다.

현재 유원지 편입부지 사유지 총 18필지 중 16필지의 보상 등기를 완료하여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하반기 내에 모두 마무리하여 2026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단지 토목·조경·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완공 시 인접한 해양관광 벨트 및 주변의 앵두공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함평을 대표하는 사계절 힐링 레저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 계획(안)


숙박동 조성계획(안)


관리사무소/카페 조성계획(안)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 담당자 **조상수**

3-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연접목형 야행관광공간 조성

함평군은 풍부한 생태 자원과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함평읍 석성리 주포 한옥마을 일원을 남도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총 125억 원 규모의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로서, 청정 자연환경과 전통 문화, 그리고 현대적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명소 개발을 목표로 한다.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사업 계획(안)

사업의 뼈대가 되는 야외공연장(문화공원)은 주포 한옥마을에 인접한 9,185㎡ 규모의 부지에 공원 형태로 조성된다. 아름다운 함평만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들어서는 이곳은 화려한 공연의 장으로, 평상시에는 피크닉 마당과 잔디 광장을 갖춘 다목적 여가 공간으로 기능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을 제공한다.

또한, 새롭게 건립되는 방문자 센터는 전통 한옥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연면적 303.5㎡ 규모로 지어지며, 탁 트인 함평만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라운지와 테라스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미디어 전시 공간과 함평 특산물 판매장을 배치하여,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야간 관광 활성화의 핵심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방문자 센터 진입부에서 시작하여 주포 한옥마을의 전통 돌담길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매력적인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수목 투사 조명과 나비를 모티브로 한 빛 조형물 등이 조성되어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함평군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주도의 맞춤형 진흥 프로그램(주포 예술여행 육성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인접한 '해양 관광 보행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체류형 야간 관광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야외공연장(문화공원) 조감도


방문자센터 조감도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담당자 **이은주**

3-3 해안경관 활용을 위한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의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특화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기존 돌머리권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이용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주포 한옥마을 및 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보행로(해안 데크길)'조성이다. 총연장 약 2.0km에 이르는 이 보행로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길을 넘어, 서해안의 낙조와 갯벌 생태를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생태 관찰의 장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한다. 특히,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보행로 곳곳에 특화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빛의 해안길로 탈바꿈하여 관광객들의 야간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돌머리권역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사업 계획(안)

아울러, 보행로와 연계된 친수 및 휴게 공간도 대폭 확충된다.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쉼터와 전망 데크가 구간별로 배치되며, 돌머리권역을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진입 광장과 주차 공간 등 기반 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문화공원 조감도



보행로 데크길 및 야외공연장 조감도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담당자 **조상수**

함평군은 이번 해양관광 보행로 조성 사업을 통해 돌머리권역의 산재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자연 친화적인 힐링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남부권 광역 해양관광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담당자 **조상수**

3-4 치유관광 기능 강화를 위한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

함평군은 자연과 휴식을 연계한 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심신 회복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을 본격 추진하였다.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함평만의 차별화된 치유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악산 치유센터는 건강측정실, 온열치유실, 치유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을 갖춘 복합 치유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봄맞이 치유프로그램으로 평일에 반려돌 테라리움 만들기, 꽃 디저트 힐링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숲속 소리 치유, 숲속 운동 치유, 숲속 물 치유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치유·휴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용천사권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꽃 디저트 힐링 프로그램(원예치유)



산림치유 프로그램(숲속 소리 치유)

또한 함평군은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시설 환경 개선 및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다. 치유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치유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 속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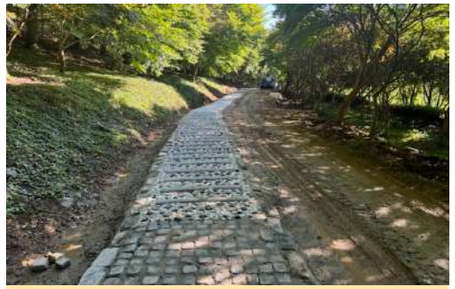
향후에도 함평군은 변화하는 치유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치유센터 운영 기반 강화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치유관광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모악산 치유센터를 함평을 대표하는 치유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시설운영팀장 **김오선** | 담당자 **정은영**

3-5 용천사 관광인프라 구축(3단계) 사업 추진

함평군은 해보면 모악산 일원의 우수한 산림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용천사 치유산책로 조성사업'과 '광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계 완료하였다. 이는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표준을 제시한 핵심 성과이다.

먼저, 기존 용천사 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조성된'용천사 치유산책로'는 모악산의 숲, 바람, 물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순환형 둘레길로 완성되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한 무장애 흙길과 보행데크를 구축하고, 계류를 활용한 물치유공간과 세족장, 명상쉼터 및 초화원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힐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용천사 치유산책로



광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러한 용천사권역의 산책로 조성 및 관광 개발 확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광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병행하여 완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하수처리 용량은 기존 일일 45㎥에서 110㎥로 대폭 확충되었다(증 65㎥/일). 특히 유입수 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현수다단계 고도처리방식(BRC 공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질소(N)와 인(P) 등 영양염류의 제거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추진부서 |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 관광개발팀장 **김용석** | 담당자 **조상수**

04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활용

4-1 복합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함평군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함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내에는 군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전문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문화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함평군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전시·문화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거점시설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문화예술회관은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90-1번지 일원 화양근린공원 내에 연면적 2,94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398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하여 전시장, 카페테리아, 주민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총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도비 20억 원과 군비 259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전라남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였으며, 같은 해 2022년 전환사업비(설계비)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건립부지를 확정하였으며, 군 공공건축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또한 2024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핵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공연시설을 넘어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공연과 전시,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평엑스포공원과 군립미술관 등 기존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함평군은 실시설계와 함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및 에너지 예비인증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라남도 기술심의와 계약심사, 군 일상감사, 조달청 원가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공사 착공,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문화복지 실현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핵심 기반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90-1번지 일원(화양근린공원 내)
사업기간	2022년 ~ 2028년
사업규모	연면적 2,948㎡, 지상2층, 객석수 398석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장, 카페테리아, 주민문화센터
총사업비	279억원(도비 20 군비 259)



위치도(함평 문화예술회관)



조감도(함평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주민설명회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장보고회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문화유산팀장 **이승철** | 담당자 **정정훈**

4-2 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군립미술관 기획전·특별전 운영

함평군립미술관은 군민과 함께하는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호흡하며 공공문화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년 4회 이상의 기획전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표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미술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는 지역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아내며 방문객에게는 차별화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

전시 구성 또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젊은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역 미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함평 나비축제와 연계한 전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체험형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가을 국향대전 기간에는 성인 관람객을 중심으로 전남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를 초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미술의 역사성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세대별, 주제별로 차별화된 전시는 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함평군립미술관은 연간 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미술관은 지역 주민과 작가들에게 중요한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으로서 공공적 가치와 문화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 운영 실적 목록

연도	전시 내용	시기	관람객수
2022	정우성 사진전 〈밀재〉	2022. 7.15. ~ 8. 28.	22,334명
	〈함평 예술단체 연합전〉	2022. 9. 8. ~ 10. 4.	
	국향대전 미디어아트 특별기획전〈Digital Signal〉	2022. 10. 21. ~ 12. 4.	
2023	소장품 기획전 〈전남미술의 재발견〉	2022. 12. 20. ~ 2023. 2. 19.	37,307명
	〈FANTASIA 가상과 현실〉	2023. 3. 15. ~ 4. 16.	
	〈풍경과 감정이입〉	2023. 4. 28. ~ 7. 2.	
	〈함평 예술단체 연합전〉	2023. 7. 18. ~ 8. 15.	
	〈한국화의 새로운 모색과 확장〉	2023. 8. 29. ~ 10. 9.	
	〈재현과 상상의 경계〉	2023. 10. 20. ~ 12. 10	
	〈윤현식 _ 흔적〉	2023.10. 20. ~ 12. 20.	
2024	소장품 기획전 〈예향의 격 〉	2024. 1. 9. ~ 3. 10.	53,518명
	〈재현과 위로〉	2024. 3. 26. ~ 6. 2.	
	〈미술 시간〉	2024. 6. 27. ~ 9. 1.	
	〈함평 예술단체 연합전〉	2024. 9. 10. ~ 9. 29.	
	〈백화난만 : 김영태·김형수〉	2024. 10. 15. ~ 12. 15.	
2025	안종일 기증 작품 특별전 〈구름 가듯 물흐르듯〉	2025. 1.23. ~ 3.16.	52,931명
	〈한희원 : 빛과 안식〉	2025. 4. 1. ~ 5. 25.	
	〈변건호 : 생명과 예술〉	2025. 4. 8. ~ 5. 25.	
	〈함평 예술단체 연합전〉	2025. 9. 9. ~ 10. 1.	
	〈평보 서희환, 귀향 서예전〉	2025. 10. 17. ~ 12. 25.	
2026	〈확장의 순간 : 설박·이성경〉	2026. 2. 3. ~ 4. 5.	35,601명
	〈동물과 나 : 공생과 병존〉	2026. 4. 21. ~ 6. 28.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담당자 **이태우**

4-3 지역 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함평군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가를 발굴·양성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소양을 높이고, 지역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을 근거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6천만 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다. 교육은 함평군립미술관 강당 및 도예공방에서 군민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도예와 다례·다도 분야의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였다.

2023년에는 도예 제작 과정과 전통 다례 교육을 중심으로 기초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도예 분야에서는 핀칭법, 코일링법, 성형틀 활용, 다관 만들기, 판치기법, 초벌·재벌 소성 등 작품 제작 전 과정을 익혔으며, 다례 분야에서는 예절, 바른 자세, 다구 명칭, 차 마시기, 다례 예절, 찻상 차리기, 다식 만들기 등을 교육하였다.



2023년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 성과발표회-배움의 결실을 지역과 함께 나누다

2024년에는 전년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급반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도예 분야에서는 물레성형, 박지기법, 덤벙기법, 상감기법, 인화문 활용 등 심화된 전통 도예 기법을 다루었고, 다례교육은 한국·세계 차문화사, 다도정신, 글로벌 에티켓, 차의 이해, 차의 블렌딩, 생활다례 및 접빈다례 등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 성과발표회 전통문화로 이어가는 군민 참여 문화예술

사업 성과는 성과발표회와 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하였다. 2023년 성과발표회는 12월 14일 함평군립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수,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3년에는 참여 인원 20명, 교육시간 240시간, 출품작 150점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자기 작품 전시와 다례 시범 부스를 운영하였다.

2024년 성과발표회는 12월 18일 함평군립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군수, 수강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수강생들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 50여 점을 전시하고 성과발표 및 수료식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25일까지 겨울빛축제 기간과 연계한 전시를 운영하였다. 또한 교육 수강생 20명이 전통 다례 시범을 선보이고 방문객에게 전통차를 대접하여 교육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하였다.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은 도예와 다례라는 전통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실습, 전시, 발표를 연계하여 군민이 직접 문화예술을 배우고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졌다.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 활동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사업 활동

추진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문화예술팀장 **이윤희** | 담당자 **이효진**

4-4 함평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자원 및 유산 발굴 및 활용 확대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문화유산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함평군은 2023년 문화체육과 내에 문화유산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화유산 행정 기반을 강화하였다. 문화유산팀은 팀장, 학예연구사, 건축직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국가유산 조사·발굴, 지정 추진, 활용사업 발굴 등 문화유산 정책 전반을 전담하고 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에 맞춰 기존 보존 중심 정책에서 활용·향유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관리 기반을 확대하며 함평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마한문화권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사업도 본격 확대되었다. 죽암리 고분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엄다리 제동 옹관묘, 초포리 사산 고분군, 진양리 화동 고분군, 대덕리 고양 고분군, 용두리 용수 지석묘 등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역 고대문화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함평 지역 마한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 자원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사·연구 성과는 국가 및 도 지정유산 확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금산리 방대형고분과 예덕리 고분군에 대한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추진하였으며, 엄다리 제동 옹관묘와 자산서원·제동사에 대해서도 전라남도 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하였다. 특히 예덕리 고분군은 3~5세기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함평군 최초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덕리 고분군은 마한 고분문화의 전개 양상과 사회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함평 마한문화 연구와 활용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유산의 보존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활용사업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을 통해 함평향교와 향교리 느티나무숲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주민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선정되면서 함평 마한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기반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마한문화권 유적 정비와 역사문화경관 조성, 체험·교육 기반 확충 등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사업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정책을 통해 함평 마한문화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문화유산 발굴·지정 및 활용 추진 현황

단위 : 건

구분	주요내용	비고
문화유산 기반 구축	문화유산팀 신설(2023)	학예연구직, 건축직 배치
발굴·조사	죽암리 고분, 제동 옹관묘 등 조사	국·도비 확보 추진
국가유산 지정	예덕리 고분군, 금산리 유적 사적 지정 추진	함평 최초 국가사적 (예덕리 고분군)
도 지정유산 확대	제동 옹관묘, 자산서원·제동사 지정 신청	문화유산 보존 강화
활용사업 확대	함평향교·느티나무숲 활용사업	체험·교육 프로그램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국가유산청 공모 선정(130억원)	광역 연계 추진



함평 예덕리 고분군 전경



사적 지정 현지조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현장조사



사적지정 국제학술대회



발굴조사 현장공개

추진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문화유산팀장 **이승철** | 담당자 **류아라**

05

축제 경쟁력 강화 및 관광콘텐츠 고도화

5-1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함평군은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고도화되는 문화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축제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단순 행사 운영 중심의 축제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축제 전문조직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함평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의 효율적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및 사무국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제 기획과 운영,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전문적인 축제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하였다.

재단 설립 이후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비롯하여 모악산 꽃무릇축제, 함평 겨울빛축제, 함평 물놀이 페스타 등 계절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며 함평형 사계절 축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축제 콘텐츠의 차별화와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 관광객 유치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재단은 축제 기획·연출·홍보·안전관리·관광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 축제를 단순 관람형 행사에서 벗어나 체험과 체류가 결합된 관광형 축제로 발전시키고, 숙박·먹거리·지역상권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등을 통해 함평군 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재단 운영은 함평군이 사계절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지속가능한 축제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추진체계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생태·문화축제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모현숙** | 경영총괄팀장 **이승욱** | 담당자 **이수인**

5-2 축제 상징성 확장을 위한 2028 나비대축제 30주년 준비

함평군은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대축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계승하고,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8년 제30회 함평나비대축제 준비를 본격 추진하였다. 1999년 처음 개최된 함평나비대축제는 친환경 농업과 자연생태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생태·교육·체험이 결합된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통해 함평군 브랜드 형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와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축제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와 지역축제 간 경쟁 심화, 체류형 관광 수요 확대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함평군은 30주년을 단순 기념행사가 아닌 축제 혁신과 미래 비전 재정립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나섰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축제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축제 30년 성과 분석과 진단을 통해 브랜드 재정립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형 축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규 콘텐츠 발굴에 나섰으며, 공모사업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어 ICT·AI 기술을 접목한 미래지향형 콘텐츠 기반 구축과 함께 킬러 콘텐츠 개발,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 축제장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광 동선과 휴게공간 정비, 안내체계 개선 등 관람환경을 고도화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학술포럼,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축제의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운영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함평나비대축제를 세계적 수준의 생태축제로 육성하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모델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30주년 준비는 함평나비대축제가 단순 지역축제를 넘어 세계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생태축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함평군의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모현숙** | 경영총괄팀장 **이승욱** | 담당자 **이수인**

5-3 사계절 축제 완성을 위한 겨울빛 축제 개최

함평군은 봄철 함평나비대축제와 가을철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축제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겨울철 관광 비수기로 인한 계절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신규 겨울축제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근 야간경관형·체험형 관광 콘텐츠 수요 증가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빛과 예술을 접목한 「함평 겨울빛축제」를 개최하며 사계절 축제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함평 겨울빛축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읍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되며, 함평군과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축제는 빛과 예술이 결합된 야간 경관 연출과 미디어아트 전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공간 운영 등을 통해 겨울철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였다.

특히 화려한 빛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활용한 감성형 관광 연출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세대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함평읍 시가지와 연계한 야간 경관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황박이 팝업스토어와 VR 체험장 등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여 축제의 다양성과 체험 요소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5년 겨울빛축제는 약 15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관광객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농특산물·먹거리·체험 프로그램 판매 실적 역시 증가하는 등 겨울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함평군 겨울빛 축제 관람객 방문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5년	2024년	비 고
입장인원	156.724	81,107	무료
개최기간	25. 11. 28.(금) ~ 26. 1. 11.(일) / 45일간	24. 11. 26.(화) ~ 25. 1. 1.(수) / 37일간	
최고입장	25. 12. 25.(목) 15,620명	24. 12. 25.(수) 11,633명	일 최대

이를 통해 함평군은 기존 봄·가을 중심의 관광 구조를 넘어 겨울철 관광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사계절 축제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향후 겨울빛축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고, 봄·여름·가을·겨울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외식·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패키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겨울빛 축제장 판매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비 고
농특산물 및 체험·음식점 판매액	계	339,066	201,530	
	먹거리(17)	182,074	110,683	
	기념품(2)	18,215	20,341	
	농특산물(10)	103,092	47,945	
	체험존(10)	23,318	22,561	
	황박이 팝업스토어	6,558	-	
	VR 체험장	5,809	-	

추진부서 |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모현숙** | 축제운영팀장 **김덕수** | 담당자 **박세원**

5-4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관광 콘텐츠 다변화

함평군은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중심의 기존 관광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역의 숨은 자연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방문 목적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해보면 모악산과 용천사 일원은 대규모 꽃무릇 군락이 형성된 지역으로,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함평군은 꽃무릇 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축제를 운영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 육성에 나섰다.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는 매년 9월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꽃무릇 군락지를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물 및 수공예품 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모악산 치유센터와 연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치유와 휴식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특히 기존 주민 중심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함평축제관광재단이 축제를 기획·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였으며,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 구성과 운영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관광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2024년 개최된 축제에는 2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농특산물·수공예품 판매와 먹거리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창출하였다. 특히 꽃무릇과 자연 경관을 활용한 감성형 관광 콘텐츠는 힐링·트레킹·생태관광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새로운 관광층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다.

함평군 꽃무릇 축제 관람객 방문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25년	2024년				비 고
		계	9. 12.	9. 13.	9. 14.	9. 15.	
입장인원	미개최	23,087	3,677	2,310	7,817	9,283	

함평군은 향후 모악산 꽃무릇축제를 단순 계절축제를 넘어 치유와 힐링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보면 시가지와 함평엑스포공원,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군 꽃무릇 축제 판매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비 고
농특산물 및 체험·음식점 판매액	계	미개최	15,330	
	농특산물·수공예품(5)	-	6,370	
	음식점·푸드트럭(5)	-	8,960	

추진부서 |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모현숙** | 축제운영팀장 **김덕수** | 담당자 **양세온**

5-5 함평국화 브랜드 육성과 국향대전 관광자원화 성과

함평군은 가을철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단순 전시형 축제를 넘어선 고품격 예술 축제로의 성장을 민선8기 주요성과로 창출하였다. 이는 기후 변화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함평만의 고유한 자산인 국화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향대전은 매년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테마를 도입하여 축제의 외연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왔다. 2022년 'K-문화'를 담은 근정전과 9층탑 전시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행복여행'을 상징하는 선물 상자 애드벌룬을, 2024년에는 '겨울 이야기'를 테마로 한 대형 트리와 국향대교를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매년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였다.



제20회 국향대전(나를위한 행복여행 in 함평국화)



제21회 국향대전(함평국화의 겨울이야기)



제22회 국향대전(마법의 국향랜드)



17종의 다양한 분재 수형 전시관

이어 2025년에는 '마법의 국향랜드'를 주제로 마법의 성과 성벽으로 둘러싸인 비밀의 정원을 조성하고 회전목마와 대관람차 등 화려한 국화 조형물을 배치함으로써 독보적인 테마파크형 전시연출을 완성하였다. 메인 조형물인 회전목마는 실제 탑승이 가능하여 다채로운 사진 촬영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에게 오감 만족을 선사하는 체험형 공간을 구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4개년간의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시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을 이끌어내며 함평 엑스포공원을 명실상부한 가을 관광의 명소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기 개화 국화 육성 기술과 자체 육종한 국화를 축제 전반에 활용하여 '함평국화'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억새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공간 연출은 가을 축제의 정취를 극대화하였다.

수준 높은 국화 분재 전시는 축제의 예술적 품격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17종의 다양한 분재 수형 전시와 함께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 안내판을 비치하여 '명품 국화 분재 전시관'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는 전국 국화 분재 애호가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함평의 우수한 분재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기술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등 축제의 전문성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결실을 보았다.

함평군이 국화 육종 및 재배 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전시연출 데이터와 국화 육종 기술은 향후 지역관광 정책 수립과 축제 콘텐츠 다변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 자원기술팀장 **고찬훈** | 담당자 **전선혜**

06

체육 인프라와 스포츠 활성화

6-1 종합 체육거점 조성을 위한 함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은 열악한 체육시설을 집중화 · 거점화하여 지역민의 체육시설 활용을 증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체육시설 거점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에 걸쳐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45억 원으로 균형 발전특별회계 80억 원과 군비 36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규모는 총 206,935㎡로, 기존 118,054㎡ 부지에 88,881㎡를 확장하여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의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스포츠텔 등을 활용하는 한편, 실내체육관, 축구장 1면, 테니스장 6면, 풋살장, 체육공원 등을 신규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복합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함평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계획도



종합실내체육관 조감도

추진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 담당자 **차현호**

6-2 실내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

함평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읍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총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된다. 기금 30억 원과 군비 18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연면적 959.26㎡, 지상 2층 규모의 시니어형 실내체육관 1동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존 함평읍 게이트볼장은 존치하고, 1층에는 읍 경로당, 분회사무실, 게이트볼장 사무실을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2층에는 요가와 댄스 등을 위한 GX룸, 건강 측정 및 운동처방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여 고령층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설계공모를 거쳐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이후 2025년 9월 기존 건축물 철거와 입주자 이주를 완료하고, 같은 달 건축·전기 등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야구전문타운 스포츠텔 조감도

추진부서 |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 담당자 **차현호**

6-3 전문 체육기반 확충을 위한 야구전문타운 확장 추진

함평군은 야구전문타운 조성을 통해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각종 훈련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 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개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규모는 총 107,959㎡로, 기존 야구전문타운 부지 57,752㎡에 50,207㎡를 추가 확장하는 내용이다. 기존 시설로는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리틀야구장, 본부동, 더그아웃, 주차장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확장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스포츠텔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야구전용구장, 실내연습장 및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가 가능한 전문 체육시설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주요시설 규모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확장	5개 사업			28,000	
	1단계 (2024년 ~2028년)	소 계	2개 사업	15,400	
		스포츠텔	▶(부지) 3,194㎡(연면적 2,713.16㎡) ▶(시설) 스포츠텔 1동(100실 200명) 부대시설(헬스장, 다목적실 등)	12,500	
		주 차 장	▶3블록 5,424㎡(소형차 115대)	670	
		▶ 설계비 등 부대비		2,230	
	2단계 (2028년 ~2030년)	소 계	3개 사업	12,600	
		야 구 장	▶ 야구전용구장 1면(16,000㎡)	5,400	
		실내연습장	▶ 실내연습장 1동(918㎡)	2,200	
		주 차 장	▶ 1블록 4,911㎡(소형 125대, 대형 10대)	1,110	
		▶ 설계비 등 부대비		3,890	



야구전문타운 계획도



함평 생활스포츠센터 조감도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 담당자 **차현호**

6-4 주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성화 위한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현재 운영 중인 함평읍 수호리 소재의 함평 파크골프장은 2018년 준공 이후 철저한 관리를 거쳐 2022년 8월,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전국 15번째(호남 최초) 공인 인증을 획득했다.

전체 면적 59,450㎡, 36홀 규모로 운영되는 이 구장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 넘는 동호인이 방문하며, 연간 약 2억 3,4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함평군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 생활체육 활동인 파크골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 대상지는 대동, 손불, 학교, 함평, 월야, 나산 등 총 6개소이다. 이 중 함평은 기존 36홀에서 108홀로, 월야는 18홀에서 23홀로, 학교는 6홀에서 9홀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대동, 손불, 나산에는 각각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여 군 전역에 권역별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연차별 조성계획(안)

목표연도(준공)	사업명	부지면적	기존	변경	사업기간	추정공사비(백만원)	비 고
	6개소		60홀	194홀	2025 ~ 2028	8,250	
2026년	대동파크골프장 (대동제수변공원)	21,888㎡	-	18홀 (신설)	2025 ~ 2026	700	
2027년	손불파크골프장 (면소재지 인근)	22,365㎡	-	18홀 (신설)	2026 ~ 2027	1,300	
	학교파크골프장 (급수탑 주변)	5,335㎡ (증 2,574㎡)	6홀	9홀 (증 3홀)	2027	400	
2028년	함평파크골프장 (엑스포공원)	59,450㎡ (증 100,000㎡)	36홀	108홀 (증 72홀)	2026 ~ 2028	4,500	
	월야파크골프장 (달맞이공원)	9,282㎡ (증 2,820㎡)	18홀	23홀 (증 5홀)	2026 ~ 2028	350	
	나산파크골프장 (나산강 야영장)	14,000㎡	-	18홀 (신설)	2026 ~ 2028	1,000	



권역별 개발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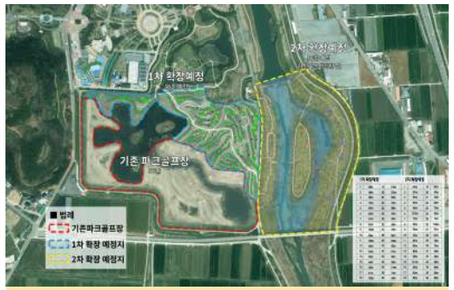
대동 파크골프장 조성계획도



손불 파크골프장 조성계획도



학교 파크골프장 확장조성계획도



함평 파크골프장 확장조성계획도



월야 파크골프장 확장조성계획도



나산 파크골프장 조성계획도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시설팀장 **이종선** | 담당자 **정희수**

6-5 생활체육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

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1) 각종 체육대회 개최

함평군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개최하였다. 체육대회는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선수단과 방문객 유입을 통해 숙박·음식·관광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산품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며 지역 홍보 효과도 함께 창출하고 있다.

함평군은 관내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종목별 대회 개최에도 힘쓰고 있다.특히, 야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무원 야구대회, 유소년 야구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야구 종목 육성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함평야구장, 함평 리틀야구장 등 다양한 규격의 구장과 나비베이스타운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각종 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유치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파크골프가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잡으면서 함평군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함평군은 잔디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경기 환경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파크골프 대회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대회 개최를 통해 함평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자연환경을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요 체육대회 개최 현황

단위 : 천원

추진시기	대회명	대회규모	예산액
2022. 10. 27. ~ 10. 28.	전국 어르신 가족사랑 파크골프대회	400여명	30,000
2023. 6. 3. ~ 6. 6.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500여명	30,000
2024. 8. 15. ~ 8. 18.	함평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700여명	50,000
2025. 5. 28. ~ 5. 29.	전라남도지사배 전국파크골프대회	700여명	50,000
2025. 8. 14. ~ 8. 17.	함평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700여명	50,000
2026. 4. 28. ~ 4. 29.	함평사랑 2026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150여명	80,000
2026. 5. 22. ~ 5. 25.	함평군수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500여명	30,000

2)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함평군은 체육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동호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대회 참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 선수 발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주요 체육행사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목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예산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체육 참여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군민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대외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함께 함평군 선수단의 경쟁력향상 및 함평군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체육대회 참가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 건수	8	8	8	12
예 산 액	309,400	319,000	319,000	362,000

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함평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배치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관련 자격을 바탕으로 읍·면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리듬댄스, 생활체조 등 다양한 체육활동의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지역 공동체의 연결고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체육인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12월 함평군장애인체육회 창립 이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파크골프, 배드민턴, 슐런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체육활동 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며 장애인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어로빅, 어린이 스키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참여자들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구 분	참석인원	수업 횟수	구 분	참석인원	수업 횟수
함평읍	114	7	대동면	60	4
손불면	78	4	나산면	15	1
신광면	20	1	해보면	30	2
학교면	25	2	월야면	63	4
엄다면	20	1	합계 : 42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

구 분	참석인원	수업 횟수	구 분	참석인원	수업 횟수
함평읍	118	9	대동면	86	6
손불면	45	3	나산면	96	7
신광면	57	4	해보면	78	6
학교면	81	6	월야면	44	3
엄다면	40	3	합계 : 645명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 체육진흥팀장 **정병호** | 담당자 **신소정**

제4절
농·축산업 분야

1 농정기반과 농가 경영 안정
2 친환경 ·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업생산 기반 강화
3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
4 축산 경쟁력 강화와 AI 첨단축산
5 농업기술과 청년농 육성

01

농정기반과 농가 경영 안정

1-1 생태·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농업생태마을 육성

함평군은 저탄소·친환경 농업의 조기 확산 및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발굴함으로써 4개의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추가 지정받았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마을 내 10호 이상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야 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이 10ha 이상, 그 중 유기농 인증면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최대 5억원의 지원을 받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과 4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3천만원을 지원받아 마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함평군은 2022년 이전 지정된 5개 마을 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가로 4개의 마을을 지정받아 총 9개의 유기농 생태마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해당 마을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및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등 4년간 총 880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태·환경가치 확산을 위한 유기농업 정착과 농촌이 지닌 가치 및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기농 생태마을 신규 지정현황(2022년~2025년)

연번	읍면	리	마을명	신규지정
1	해보	광암	운암	2022. 6.
2	신광	동정	신여	2023.10.
3	학교	마산	신기	2024. 6.
4	대동	상옥	옥동	2024.10.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친환경농업팀장 **이동훈** | 담당자 **이동훈**

1-2 농지대장 전환을 통한 농지관리체계 정비

함평군은 농지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실경작자 중심의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농지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했다. 이는 농가주 기준의 관리 방식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토지별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농업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였다.

법령 개정 시점에 맞춰 함평군은 모든 농지를 작성 대상으로 확대하고,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하여 지역 농지에 대한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제도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9,26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했으며, 기존 행정 자료와 실제 데이터를 대조하는 정비 과정을 통해 농지 이용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관리 기반을 다졌다.

또한, 임대차 계약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농지 소유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의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 프로세스를 보완했다. 유관 공적 장부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누락된 농지 정보를 발굴하여 등록함으로써 군 전역의 농지 이용 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정비 과정은 행정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합동평가 등 대외적인 행정 지표 관리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정비된 농지 데이터는 현재 농업직불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세우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함평군은 이를 바탕으로 농지의 본래 목적에 맞는 이용을 독려하며,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농정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농업정책팀장 **김해숙** | 담당자 **고연주**

1-3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권역별 설치

함평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심화로 영농철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 확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존 농가별 임시 숙소 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주거 안전성과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권역별 숙소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권역별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숙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현재 함평군은 손불면, 엄다면, 월야면 등 권역별로 숙소를 조성·운영중이며, 일부 숙소는 신규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타 권역에 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숙소를 추가 공급하고,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숙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여 영농철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숙소를 추가 확충하고, 운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권역	위치	사업비	마을명	신규지정
해보·월야	월야면	600	운영 중	
손불·신광	손불면	600	운영 중	
엄다·학교	엄다면	600	운영 중	
해보·월야	월야면	600	신축 중	26년 상반기 완공예정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농업정책팀장 **김해숙** | 담당자 **정원태**

1-4 영농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함평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심화로 영농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MOU 체결 국가를 통한 근로자 초청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리핀, 라오스 등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근로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근로자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를 도입하고, 농가와의 근로계약 체결, 비자 발급 절차 지원, 입·출국 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근로

조건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정 외국인 안심병원 이용 시 외래 및 입원·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 시 필요한 마약검사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근무기간을 성실히 이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 시 항공료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수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지원사업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기준	비고
의료비 지원	전라남도 지정 안심병원 이용 시 외래·입원·수술비 지원	외래 및 입원·수술비 일부 지원	도 사업 연계
마약 검사비 지원	마약 검사비 일부 지원	1인당 2만원 한도 지원	군 자체사업
성실 근로자 항공료 지원	성실 근로자 대상 출국 시 항공료 지원	근로기간 80% 이상 근무 시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고용주 대상 제도 개정 사항 안내 및 인권 교육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농업정책팀장 **김해숙** | 담당자 **김효준, 정원태**

1-5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함평군은 교통 여건이 열악하고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도입, 민선 8기 핵심 복지 모델인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이는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체감형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24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지역 농협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한방 진료, 검안, 건강상담 등 농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문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담을 병행하며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건강 문제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분담하는 체계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됐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진료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2026년은 관내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월야면과 함평읍 지역에 대한 왕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어지는 남은 2개 지역의 순회 진료에 대해서도 풍성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 정책을 지역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 환경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 왕진버스



농촌 왕진버스

호남신문 2025년 9월 8일 월요일 016면

함평군, 농촌왕진버스로 찾아가는 의료복지 실현 '호평'

현장 진료 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고령층 맞춤형 건강 지원



함평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군은 손불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와 취약계층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함평군,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함평농협이 주관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왕진버스에는 장흥통합의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척추·관절 질환 관련 진료와 건강 상담, 수액 처방을 진행했고, 누리안 옵틱스 안경원에선 전문 안경사가 나와 정밀 시력검사 후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아이오바이오에서 구강 관리 검사,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했으며, 차원스튜디오에서는 주민의 장수를 기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 손불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은 올해 학교면, 신광면에 이어 손불면까지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호남신문)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농업정책팀장 **김해숙** | 담당자 **고연주**

1-6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함평군은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과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들은 가사 노동가 농작업을 병행하며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육체적 피로도와 특정 질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농작업 관련 질환(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취약 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하고 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25년부터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30명 중 185명을 모집하여(모집률 80.4%) 124명 수검을 완료하여, 농촌 현장의 고질적인 질환인 근골격계 문제와 농약 중독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였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230명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173명을 모집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검진을 시작해 현재까지 30명 수검을 완료하였다. 올해부터는 농업 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접수 창구를 다각화하였고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수검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성심병원과 협력을 강

화하고, 수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명

사업명	사업년도	집행실적			비 고
		계획인원	모집인원	수검인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2025	230	185	124	'26.5~
	2026	335	173	30	'26.3~



근골격계, 낙상, 심혈관계 예방교육



근골격계, 낙상, 심혈관계 예방교육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농업정책팀장 **김해숙** | 담당자 **김효경**

1-7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가.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확대

함평군은 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생활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원을 실시하였다.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까지 지원되며, 국산 채소, 과일, 육류, 흰우유, 잡곡 등 신선 농식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신청·접수, 자격 검증, 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농정과 복지를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5 ~ '26년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추진

단위 : 천원, 개소

구분	지원대상	가구수	집행실적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2025년 (시범사업)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포함가구	49	46,000	23,000	23,000	
2026년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청년 포함가구	107	90,000	45,000	45,000	



호남매일 2026년 4월 1일 수요일 005면

함평, 생계급여 가구 '농산물 바우처' 지급

농산물 지원으로 건강한 식생활 제공·지역 농가 상생 도모

함평군이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농산물 바우처를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달 31일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이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영유아·아동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청년은 199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통해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하나로마트 등 지정된 매장이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재료 부담을 덜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노길상 기자

보도자료(호남매일)



농식품 바우처 사업 포스터 홍보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 담당자 **윤상문**

02

친환경·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업생산 기반 강화

2-1 청년농 정책과 생산혁신을 위한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

함평군은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 스마트팜 보급 및 기반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생산혁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3년에는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엄다면 학야리 일원에 9,152㎡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신축하여 첨단 농업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어 2024년에는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나산면 삼축리에 6,000㎡ 규모의 스마트 온실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였다.

2025년에는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나산면 월봉리와 신광면 함정리 일원에 총 6,240㎡ 규모의 스마트 온실 및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신소득 작목 육성과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딸기 중심의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 10,443㎡ 규모의 생산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 품목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 YOUNG 스마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6,600㎡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교육, 컨설팅, 브랜드 개발 등을 연계하여 청년농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6년에는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여 엄다면, 나산면 일원에 3개소 7,497㎡ 규모의 스마트 온실 및 시설하우스를 확충할 계획으로, 스마트농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군은 이와 같은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농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스마트농업팀장 **홍성오** | 담당자 **조아라**

2-2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함평군은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핵심 농정 전략으로 설정하고, 생산·인증·소득보전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4년에는 총 1,085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 직접지불제는 약 800ha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600여 농가가 참여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통해 3,000여 농가를 지원하며 제초제 사용 저감과 안전한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에는 총 1,747백만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증비 지원은 600건 이상 규모로 추진되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직접지불제 또한 1,000ha 이상으로 확대되어 친환경농업 참여 기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는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더욱 정비하였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직접지불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를 도입하여 장기 실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400여ha)과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 단위의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친환경농업 참여 농가와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소득 안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동시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친환경농업팀장 **이동훈** | 담당자 **이아름,오채연**

2-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스마트 시설 확충

함평군은 기후변화와 농업 인력 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설원예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기반 시설 확충과 생산비 절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CT 기반 환경제어 기술 도입과 노후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작물별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였다.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보온커튼 지원)을 통해 난방비 절감과 생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였으며,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수출전문 딸기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명품쑥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소득 작목 육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3개소 규모의 스마트 농업 시설을 확충하고, 자동화·정밀화된 재배 환경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원예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업인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함평군은 이와 같은 시설원예 분야의 단계적 투자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시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스마트농업팀장 **홍성오** | 담당자 **조아라**

2-4 품질향상과 기계화를 연계한 고품질 밭작물 생산체계 구축

함평군은 밭작물 생산 과정의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증가, 품질 편차 문제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품질향상과 기계화를 연계한 고품질 밭작물 생산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파종부터 수확·선별까지 주요 작업 단계의 기계화를 확대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8개 사업, 400여 개소 규모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다. 총사업비는 약 48억 원 규모로, 보조사업과 융자 지원, 자부담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사업별 특성에 맞춰 파종기·선별기 등 밭작물 기계장비 1,133대를 지원하고,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100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388대,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를 566대를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기계화 기반 확충을 통해 파종·제초·수확 등 노동집약적 작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속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특히 작업 강도가 높은 밭작물 재배 과정에 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였다. 또한 콩, 고구마, 양파,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규격화 출하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생산-관리-수확을 연계한 효율적 영농체계 구축을 통해 함평군 농업의 고령화 대응력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22 ~ '25년 농업 기계화 사업 목록

단위 : 천원, 개

사업명	지원 개소수	구 분			비고
		계	보조	자담	
8개 사업	8,458	7,391,317	3,657,635	3,733,682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133	4,331,359	1,842,989	2,488,370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구축사업	209	1,250,833	596,190	654,643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100	675,210	385,560	289,650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388	88,375	88,375	-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191	580,320	365,820	214,500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566	312,460	249,968	62,492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	105	27,300	16,380	10,920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	5,766	125,460	112,353	13,107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스마트농업팀장 **홍성오** | 담당자 **홍성오, 정윤하**

2-5 저탄소 식량작물 확대 등 저탄소 농업 전환 기반 마련

함평군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 구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저탄소 농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특히 논물 관리 방식 개선, 바이오차 활용, 논 이용 타작물 재배 확대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천형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저탄소 인증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분해 멀칭필름 보급, 가축분뇨 시비처방 확대 등 농업 전반에 걸친 탄소저감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산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과 인증제 단지 육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농업구조 전반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논물 조절관리 면적은 2022년 198.2ha에서 2024년 345.1ha로 확대되었으며,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또한 78ha에서 359.3ha까지 증가하는 등 저탄소 농업기술의 현장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면적은 157.5ha로 확대되었고, 가축분뇨 시비처방은 누적 5,000건 이상 지원되는 등 농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이 강화되었다.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또한 대부분 100% 달성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저탄소 농업기술이 농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함평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참여,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비·도비·군비를 연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정책은 농업생산성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탄소중립 농업 실현과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농축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저탄소 인증 농산물 생산체계와 연계한 유통·소비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식량작물 확대·전환 기반 마련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비	주요내용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2.5	탄소중립 기반의 환경친화적 지속가능농업 구현 및 저탄소농업기술 현장 확산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밭작물 생분해 멀칭필름 적용 시범	0.3	폐비닐 제거작업 생략에 따른 노동력 절감, 농작업 기계화, 저탄소 농업 촉진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0.3	벼 생산비 절감효과 및 품질 안전화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저탄소 기능성 율무 재배단지 조성	1	식량안보 위기 대응 수입의존도 높은 밭작물 특화단지 사업화로 식량 자급률 향상 및 밭작물 소비촉진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	1	디지털 벼 농사기술 실용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1	직파재배 신기술, 드문모심기 기술 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레이저균평기 균평작업 시연회 개최

추진부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 식량작물팀장 나 민 | 담당자 나 민

2-6 E-commerce 확대를 위한 스마트 경영마케팅 포털센터 구축

함평군은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목표로 농업경영개선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은 농업기술과 경영정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가별 경영 진단과 실질적인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스마트 경영 및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함담 홍보단 역량강화 교육, 스마트스토어 운영관리자 교육, 라이브커머스 운영관리자 교육, SNS 통합마케팅 및 블로그 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이 직접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AI를 활용한 농장 홍보물 제작, 릴스·숏츠 영상 제작,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강소농업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매년 전남 및 전국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스마트 경영 혁신사례, 라이브커머스 및 스마트 콘텐츠 분야 수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농업경영 효율화 및 경영개선 분야에서는 경영기록장을 작성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지원하였다. 2025년에는 전남 우수 농축산업 TOP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을 통해 에어포그, 냉온풍기, 체험교육장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여 농업 현장의 생산성과 체험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품목 생산자조직의 경영·마케팅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함평군 감귤연구회를 대상으로 과실세척기, 유통포장재, 선진지역 현장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구조를 넘어 조직화된 경영과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창업과 상품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무화과잼 상품화와 체험농장 조성, 유기농 쌀·보리·밀 쿠키 개발 및 상품화 등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체험을 결합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별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지역특화품목의 가공 상품화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였다.

종합하면, 함평군의 농업 경영개선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 역량 강화, 청년농업인의 가공상품화 창업 지원, 생산자조직의 마케팅 경쟁력 확보, 농산물 소득자료 구축,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라는 여러 축으로 추진되었으며 생산 기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체험·온라인 마케팅까지 연계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영개선 사업 및 경쟁력 제고 스타트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공상품화	청년 3농가	청년 2농가	청년 2농가	청년 2농가 일반 1농가
경영진단 현장컨설팅	5회 19명	5회 20명	3회 21명	6회 21명
경영개선 사업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E-commerce 스마트 마케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블로그 교육	-	28회/474명	18회/345명	29회/395명
SNS 마케팅	34회/505명	12회/237명	14회/259명	4회/189명
함담크리에이터	-	4명	10명	10명
라이브커머스	30회/322명	11회/319명	14회/136명	6회/32명



마케팅 교육



유튜브 교육



라이브커머스 교육



라이브방송



(농촌진흥청)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상



(농촌진흥청)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상



전남 정보화경진대회 수상



전남 정보화경진대회 수상



전남 정보화경진대회 수상



한일 친환경 청년 교류회



국향대전 해름 팜파티



국제농업박람회 해름 라이브방송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경영개선팀장 **심지승** | 담당자 **심지승**

2-7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기술 보급

농업활동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작목별 작업환경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이 추진되었다. 나비골딸기연구회를 대상으로 딸기 수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딸기 재배 농가의 시설하우스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수확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기공사를 지원하고 노후된 농약살포기를 전기 분무기 등으로 교체·보급하여 농약 살포 과정에서의 작업 부담과 위험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농업인들이 일상적으로 안전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동면 고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농작업 안전교육과 농업인 업무상 질환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 공동물품 구입, 폐농약병 분리수거함 설치, 농로 커브길 보수, 반사경 설치, 조명 설치 및 주차장 정비 등을 추진하여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월야면 양지마을 농작업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안전한 농업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약 안전 사용법 등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농약 취급과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농로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드레일과 반사 조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기계 이동이나 야간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였다. 이러한 사업은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시설 개선과 안전장비 보급을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재해예방기술보급은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예방기술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농장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SNS 릴스 및 숏츠 영상 제작 교육과 함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천 교육이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농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지식과 예방기술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작업 안전 사업들은 농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작목과 마을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딸기 수확작업, 농약 사용, 농로 이동, 시설하우스 작업 등 실제 농업활동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컨설팅, 교육, 장비 보급, 시설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며, 안전한 농촌 작업환경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농약 안전 사용법 교육


농작업 재해예방 물품 배부


농작업 위험환경 안전점검 컨설팅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농작업 현장컨설팅


농작업 현장 컨설팅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경영개선팀장 **심지승** | 담당자 **조현화**

2-8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함평군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지속 확대하였다. 본점·동부점·서부점 등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103종 528대의 임대농기계를 운영하며 농업 현장의 기계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만 5천여 건의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였으며, 농번기에는 토요일 정상근무와 평일 연장근무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노후 농기계 교체와 신규 장비 보강을 지속 추진하여 총 74종 197대의 농기계를 확충하였으며, 불용 농기계 매각을 통해 장비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제고하였다.

아울러 2025년에는 본점·동부점·서부점에 임대농기계 셀프세차장을 조성하여 농기계 유지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편의성과 위생적인 장비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영농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기계팀장 **배철진** | 담당자 **조성찬**

2-9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함평군은 농업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기계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기술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 안전사용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였으며,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또한 굴착기·지게차·스키드로더 등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기계화 영농 기반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무 교육을 운영하여 농기계 조작과 수리·정비기술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환경 조성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기계팀장 **배철진** | 담당자 **조성찬**

2-10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

함평군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의 농작업 기계화 확대와 공동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 등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공동경영체 중심의 기계화 영농체계를 구축하고, 임차 농기계를 활용한 인근 농가 작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내 농기계 공동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33개소에 83종 134대의 농기계를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의 기계화율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업 추진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용임대농기계 농업인 현장매각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장기임대 추진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기계팀장 **배철진** | 담당자 **조성찬**



임대농기계 입·출고



농기계 수리·정비 기술교육



농기계 순회수리·안전교육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교육 지원

03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 혁신

3-1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을 위한 농특산품 개발 지원 확대

함평군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소득 작목과 특화품목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연계한 농특산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였다. 총 사업비 3,535백만원 규모(2022년 ~ 2026년)로 원예작물 단지화, 특화작목 발굴, 농산물 가공 및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특화 품목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아열대 채소 5.2㏊, 아열대 과수 3.3㏊ 조성을 지원하고, 체리, 감, 무화과 등 지역에 맞는 과수 작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중소과 수박, 흑하랑 상추, 블랙베리 옥수수 등 틈새 작목을 발굴하여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였다.

지역 대표 소득작목인 애호박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개소, 총 7.4ha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배 기술 교육(13회 117명)과 현장 컨설팅(31회, 47명)을 병행하여 농가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2025년 국제농업박람회 및 주요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판로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 및 창업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0회 이상 3,700여명을 교육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가공·유통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특화작목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해 포도, 애호박, 단호박 등 주요 품목 중심 현장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도를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포도·애호박·단호박 재배 교육을 강화하고, 특화작목 전문경영인 양성 교육 2개소, 틈새작목 발굴 3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발굴·확대하고, 생산과 가공을 연계한 농특산물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국화와 양봉 산물 등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하였다.



애호박 연중생산 종합기술 보급사업 추진



함평 샤인머스캣 캄보디아 수출



함평군 과일 홍보관 운영

추진부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 원예특작팀장 **공인배** | 담당자 **김민주**

3-2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일반벼 전량 매수

함평군은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하여'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농지(답)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관내 농협 및 통합 RPC에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 보전을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2022년도 303,557포대/40kg, 9억 1,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449,071포대/40kg, 8억 9,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도별 목표 이행률 100%를 달성하였다. 특히 군비 100% 재원을 투입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농가 수취 가격을 지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전량 매수는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급변하는 쌀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

단위 : 40kg, 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집행실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	2022	303,557포대	911	
	2023	449,071포대	898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담당자 **정예진**

3-3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

가.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저온저장시설 등 기반 구축

1) 농산물 소 ·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유통, 저온저장고) 추진

3) 농산물 유통 · 저장시설 지원

함평군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유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산지 중심의 저장 기반을 강화

함으로써 수확기 일시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농산물의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였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산물 소·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총 5개 사업, 600여 개소 규모의 유통·저장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총사업비는 약 54억 원 규모로, 보조 및 융자 지원과 자부담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사업별 특성에 맞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568개소, 중형 저온저장고 2개소,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30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의 저장·선별·출하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사업은 홍보와 수요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2 ~ '26년 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유통 · 저장시설 확충

단위 : 억원, 개소

사업명	지원개소수	총 사업비			비고
		계	보조(융자)	자담	
5개 사업	602	39.6(15)	18.3(15)	21.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33	33	15	18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1.4	1.4	0.7	0.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15	15	(15)	-	
농산물 유통 · 저장시설	5.2	5.2	2.6	2.6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담당자 **윤상문**

3-4 상품성 향상을 위한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지역 농특산품의 상품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포장재를 단순한 외형 개선 수단이 아닌 제품의 품질 이미지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농가 및 농식품 업체의 판로 확대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 함평 참쑥 브랜드 강화 지원사업,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여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포장 기반을 지원하였다. 총사업비는 약 18억 원 규모로 보조와 자부담을 병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사업별로는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통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개선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및 소포장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였다.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으로 쌀 1인가구 대상 소비 확대와 유통 편의성을 높였고, 함평 참쑥 브랜드 강화 사업은 포장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와 함평군 참쑥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포장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 안정화와 가동률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특산품의 상품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포장 규격화와 디자인 개선을 기반으로 유통 경쟁력과 소비자 선호도가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판로 확대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가와 농식품 기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2 ~ '26년 농특산품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포장재 지원 확대

단위 : 억원, 개소

사업명	개소수	총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5개 사업	207	18.75	9.48	9.27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189	17.4	8.7	8.7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7	0.35	0.28	0.07	
전남 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	5	0.46	0.23	0.23	
함평 참쑥 브랜드 강화 지원	5	0.5	0.25	0.25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	1	0.04	0.02	0.02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 담당자 **윤상문**

3-5 소비 채널 다변화를 위한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수도권 직거래 장터 운영 및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를 통해 함평군 농특산물 판로 다변화를 모색하였으며, 함평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인 '함평천지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성 개선, 모바일 앱 도입,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방식 도입 등 구매 고객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하였고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함평군 브랜드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유통채널 다각화를 도모하여 안정적 판매 기반을 구축하였다.

함평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매출액	직거래장터 매출		온라인 판매 매출
		운영횟수	매출액	매출액
합 계	12,909,002	194	3,287,649	9,621,353
2022년	3,331,797	33	755,261	2,576,536
2023년	3,222,098	1.4	790,070	2,432,028
2024년	2,989,880	15	756,084	2,233,796
2025년	3,365,227	5.2	986,234	2,378,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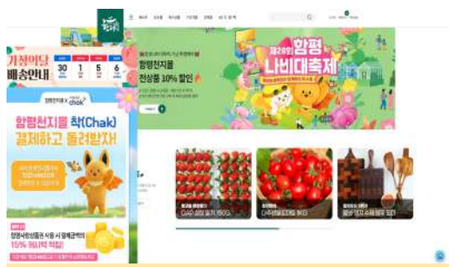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함평군 양파 우수성 홍보 및 나눔 행사



도-시군 협업 기획전(라이브커머스 운영)



함평천지몰 이용 편의성 개선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마케팅팀장 **백선웅** | 담당자 **황성민**

3-6 공공급식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실행력 강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지역 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함평군은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생산-소비-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다품목 소량 생산 농가를 발굴하고,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다졌다.

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성

1) 사업기간 : 2024 ~ 2026
2)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1073-3
3) 규　　모 : 1,350.49㎡(지상 2층)
4) 시　　설 : 공공급식센터(입·출고실, 소분장, 저온저장고 등), 사무실, 교육실 등
5) 사 업 비 : 80억원



함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감도

먹거리 선순환의 핵심 물류 거점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전처리, 배송을 일괄 처리하는 복합 물류 시스템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저온 유통 체계(Cold Chain)를 갖춘 선별장과 소분실을 통해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센터 내 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식생활 교육과 농업인 대상 품질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통 시설을 넘어 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민간 협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 담당자 **황지훈**

3-7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조성

가. 전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재단 설립 추진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정책의 전문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함평먹거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행정과 민간을 잇는 가교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담하며, 지역 내 기획 생산 체계 구축과 공적조달 판로 개척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분산되어 있던 먹거리 관련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함평로컬푸드직매장(함평점) 전경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경

나. 농산물 가공·유통 인프라 연계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고도화

기 구축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하여 생산, 가공, 유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원스톱(One-stop)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농업인이 생산한 원물을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하고, 이를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 내 소비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유통 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향후 건립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유통 체계의 최종 완성점으로 삼아, 생산된 가공품과 신선 농산물을 관내·외의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병원, 기업 등까지 대량 공급하는 포괄적 물류 허브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프라 간의 단계별 유기적 결합은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다각화하고, 함평군 전체를 하나의 '먹거리 밸류체인'으로 통합하여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 담당자 **황지훈**

3-8 농업인 소통·활동 거점 마련을 위한 농업인회관 건립

함평군은 농업인 단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농업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시설인 '신활력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조성함으로써 공공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 공사비 등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행정적 성과를 거두었다.

통합 건립된 시설 내에는 농업인 단체와 유관 조직이 상주할 수 있는 전용 사무 공간 3개소를 마련하였다. 현재 농업인 단체 2개소와 유통클러스터 1개소가 입주를 완료하여, 현장 농업인 간의 상시적인 정보 공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단순한 사무 공간 제공을 넘어, 생산과 기획, 유통 조직이 한 공간에서 호흡하며 지역 농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민관 협치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특산물 홍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화된 다목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최대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회의실을 조성하여 집합 교육 및 각종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촬영 장비를 갖춘 '공유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 환경 속에서 함평 농업의 대회 경쟁력을 높이는 전초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담당자 **임민석**

3-9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가. 민간 주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S/W 역량 강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인적 자원과 민간 조직을 발굴하여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평군은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을 운영하여, 신활력 아카데미를 통해 100여명의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20여 개의 액션그룹을 발굴하였다. 기초부터 심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액션그룹이 지역 특산물 가공, 농촌 체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는 주민 스스로 농촌 혁신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밑거름이 되었다.

나. 지속 가능한 함평 농업을 위한 자생적 성장 거점 조성

1) 유통과 소통이 공존하는 생산적 거점, 신활력혁신센터 건립

가) 위　　치 :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158

나) 규　　모 : 1,298㎡(지상 3층)
다) 공사기간 : 2024. 08. ~ 2025. 08.
라) 시　　설 : 지상 1층(로컬푸드직매장), 2층(농업인회관), 3층(옥상, 기계실)
마) 사 업 비 : 66.5억원

사업의 핵심 거점인 '신활력혁신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업인 소통을 위해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1층은 로컬푸드직매장을 배치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농업인회관으로 운영하여 농업인 단체 사무실과 회의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업인 교육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활력혁신센터 및 농업인회관 전경



농업인회관 대회의실 교육 현장

2) 미래 농업 인력 양성과 안정적 정착 지원, 공유농장 조성

가)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59
나) 규　　모 : 3,360㎡/ 비닐하우스 11동(240㎡ 2동, 216㎡ 1동, 336㎡ 8동)
다) 공사기간 : 2023. 04. ~ 2023. 08.
라) 사 업 비 : 4.4억원

귀농·귀촌인 및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공유농장'을 구축하였다. 공유농장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예비 농업인들에게 실제 경작 공간을 제공하여 영농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농촌 유입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유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로컬푸드직매장과 판매 연계를 추진하여, 초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3) 특화 작목의 고부가가치화 거점, 명품 쑥 가공센터 구축

가) 위　　치 : 함평군 대동면 동함평산단길 74-61
나) 규　　모 : 278.66㎡(지상 1층)
다) 공사기간 : 2023. 12. ~ 2024. 08.
라) 사 업 비 : 14.6억원

함평의 전략 작목인 '쑥'의 산업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문 가공 인프라인 '명품 쑥 가공센터'를 조성하였다. 본 시설은 원물 생산에 머물렀던 지역농산물을 세척, 건조 등 가공 과정을 거쳐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대표 먹거리인 '함평 쑥떡'을 제품화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브랜드화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함평 쑥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명품 쑥 가공센터 전경



공유농장 전경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 담당자 **임민석**

3-10 GAP 인증 농가 육성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가. GAP 인증 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

1) GAP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2) GAP 인증농가(농약안전보관함, 포장재) 지원
3)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4) GAP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함평군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GAP 인증 농가 육성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로, 함평군은 인증 확대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및 포장재 지원사업,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는 1.81억 원 규모로 농가의 인증 취득과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특히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농가의 체계적인 농산물 관리 여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함평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GAP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 농약 안전사용, 농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였다.

2026년 4월 기준 함평군 GAP 인증 현황은 82건, 참여 농가 654호이며, 인증 재배면적은 약 1,300ha, 생산계획량은 약 14,636톤 규모로 나타났다. 주요 인증 품목은 쌀, 밀, 양파, 단호박, 딸기, 포도 등으로, 원예작물과 식량작물을 아우르는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2 ~ '26년 GAP 인증 농가 육성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단위 : 억원, 개소

사업명	농가수	총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5개 사업	3,142	1.81	1.68	0.13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2,084	0.53	0.53	-	
GAP 인증농가(농약안전보관함, 포장재) 지원	67	0.26	0.13	0.13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817	0.68	0.68		
GAP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174	0.34	0.34	-	

2026년 함평군 GAP 인증 농가 현황　단위 : ha, 톤

구분	인증건수	참여농가수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비고
계	82	545	906.6	12,656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 담당자 **윤상문**

3-11 쑥 가공센터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 전략 작목인 쑥의 산업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가공 시설인 쑥 가공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물 생산 위주의 저부가가치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세척, 건조, 추출 등 표준화 가공 공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함평 쑥떡, 쑥 버무리, 쑥 설기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떡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함평 쑥떡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HACCP 인증을 취득하였고, 전용 포장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함평천지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전국적인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지상파 TV 프로그램 출연 등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함평 쑥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가공센터와 생산 농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가공센터에서는 고품질의 원물을 확보하는 선순환 유통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가공 기술 컨설팅과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여 함평 쑥이 지역 농업의 핵심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쑥 떡 포장 디자인 개발



포장된 건강 쑥떡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윤정원** | 담당자 **임민석**

3-12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한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소비 확대

가. 함평로컬푸드직매장 건립을 통한 지역 먹거리 거점 확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오프라인 유통 거점인 '함평로컬푸드직매장 함평점'을 2025년 9월 12일 정식 개장하였다. 본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대면 유통의 장으로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여 갓 수확한 신선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및 규격화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함평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장소 마케팅을 전개하여 조기에 지역 대표 소비 공간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코너 개설 및 권역별 소비망 확충

직매장 건립과 병행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내 농협과의 '로컬푸드 코너 개설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나로마트 내부에 샵인샵(Shop-in-shop) 형태의 로컬푸드직매장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였다.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유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매장 신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판매 접점을 전 권역으로 빠르게 확충하였다. 특히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가공식품까지 품목을 다변화하고 농협의 물류망을 공유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주거지 인근에서 신선한 함평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로컬푸드 순환 체계를 완성하였다.



나비골농협(대동점) 로컬푸드 코너



함평농협 로컬푸드 코너

추진부서 |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먹거리정책팀장 **이대로** | 담당자 **황지훈**

3-13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함평군은 쌀값 하락과 소비 감소로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쌀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163억 원 규모의'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90년대 설치된 노후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공·저장·건조 전 공정을 현대화하여, 수확기 산물 수매 확대와 야적 문제 해결 등 농가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동안 추진되는 본 사업은, 기존 학교·손불면으로 이원화된 가공 라인을 학교RPC로 통합하여 가공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자동 소포장 및 택배 라인을 신설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함평읍에 신규 DSC를 건설하여 거점별 저장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전체 저장 및 건조 능력을 확충하여 계약재배 농가의 수매요청을 적기에 수용할 전망이다.

현재 노후 시설물 철거 등 사전 공정이 원활히 진행 중이며, 2026년 5월 중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1년 차에는 거점별 건조저장시설을 완공하여 당해 수확기 저장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2년 차에는 가공시설 현대화를 최종 완료하여 함평 쌀의 품질 경쟁력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통합RPC 시설 고도화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인 함평군'우렁색시미'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확기 고질적인 야적벼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유통 전반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는 물론 함평군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함평군 '우렁색시미'

추진부서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 식품산업팀장 **이대로** | 담당자 **정예진**

04 축산 경쟁력 강화와 AI 첨단축산

4-1 미래 축산산업 전환을 위한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축산업은 기존 1차산업에서 스마트·AI 기반의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주기 축산업 혁신모델 구축은 정부 농·축산업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은, 2029년 이전 예정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연계하여 축산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 관광까지 전 주기를 한 장소에 집적하는 국가 유일의 AI 기반 축산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에서 2024년 10월 시행한 자체 연구용역 결과 생산 유발효과 약 1조 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6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약 6,600명 규모로 분석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총사업비는 6,754억원으로, 2037년까지 스마트 축산단지, 축산물 제조·가공·유통·수출단지, 축산 기자재 및 연구 집적화 단지, 축산 힐링·치유 테마파크 등을 1~3단계별로 조성할 예정이다.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협의회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국비) 지원 국회 건의

추진부서 축산과장 **한영자** | 축산팀장 **천명철** | 담당자 **민기태**

4-2 국가기관 이전 연계를 통한 축산자원개발부 기반 산업 확장 추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방역 및 연구환경 악화 우려에 따라 2029년까지 함평군 신광면과 손불면 일원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가축 개량·육종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축산기술 및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고부가가치 축산식품 개발,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축산 신기술 보급 및 경영 개선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함평군은 국책산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신광면 가덕리와 함정리에 이주단지 2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이주민 주택 건립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상평가를 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한 최적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주민 생계대책 및 소득사업을 발굴 등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정부 연구기관인 축산자원개발부가 이전되면 미래 축산 R&D 연구시설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축산기술 향상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농촌진흥청장 면담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천안시장 면담

추진부서 | 축산과장 **한영자** | 축산팀장 **천명철** | 담당자 **민기태**

4-3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산업 고도화 추진

가. 한우개량사업

함평군은 한우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 기반 개량체계를 고도화고,우량 혈통 중심의 생산기반 구축에 집중하였다. 우량 정액 지원사업,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개체별 생산성과 육질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농가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개량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기반 사양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였다. 이런한 노력으로 출하 한우의 육질 등급 향상과 생산성 증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지역 한우 브랜드의 균일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체별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개량 가치가 낮은 저능력 미경산우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육 축군의 질적 구조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한 수량 중심의 사육에서 벗어나 우량 암소 중심의 고효율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함평천지한우의 유전적 순도를 높여 브랜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한우 개량을 위한 지원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한우 우량암소 보유 장려금 지원	99,900	우량, 초우량 보유 농가 장려금 지원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사업	320,000	유전체 분석 비용 지원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480,000	한우씨수소 1등급 우량정액 지원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10,000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54,000	전문기술 위탁 교육비 지원



함평천지한우 전문기술 위탁교육 추진

나. 비선호육 유통가공 매출상승

함평군은 구이용 부위에 편중된 소비 구조를 탈피하고 한우 한 마리당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선호 부위(정육 등)를 활용한 유통·가공 산업 고도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화된 육가공 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부위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 수익 구조를 마련하였다.

특히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발맞춰 가정간편식(HMR) 및 밀키트 등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출시하고, 온라인 직영몰과 공공급식 등 유통 판로를 다변화함으로써 비선호육 가공 부문의 매출액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러한 유통 혁신은 함평천지한우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산물 유통센터 가공제품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곰탕류	밀키트류	비고
2022	72,496	72,496	-	
2023	583,168	472,738	110,430	
2024	732,464	520,575	211,889	
2025	1,010,310	684,195	326,115	
2026	487,795	323,533	164,262	2026.4.현재

추진부서 | 축산과장 **한영자** | 한우육성팀장 **이승주** | 담당자 **정은화**

4-4 지역 상생형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악취 저감 추진

가.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함평군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경축순환농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동안 수요에 맞추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군은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동 자원화시설 기계·장비 보급 및 축사 내 부숙 촉진 시설·장비 등 11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강화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의무화에 발맞추어 스키드로더 등 필수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가의 작업 효율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비고
11개 사업 / 3,596백만원	1,619	1,020	603	354	
가축분뇨 살포비 지원	85	66	122	62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35	-	284	147	
액비저장조 지원	677	-	-	-	
정화개보수 지원	659	-	-	-	
퇴비사 설치 지원	50	60	20	30	
퇴비살포기 지원	22	30	30	30	
퇴비 부숙 촉진 지원	47	84	96	44	
퇴비 부숙 톱밥 지원	44	50	51	41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사업단 지원	-	195	-	-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 시범사업	-	460	-	-	
낙농가 퇴비 부숙용 장비 지원	-	75	-	-	

나. 축산농가 악취 저감 지원을 통한 악취 민원 감소

함평군은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편적인 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악취 저감 시설 확충과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악취 관리'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회성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을 병행하여 농

가 스스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함평군 축산 환경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관리와 선제적인 시설 개선의 성과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졌다. 축산 관련 악취 민원이 민선 7기 대비 52%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고질적인 지역 갈등 요인이었던 악취 문제가 행정과 농가의 공동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비고
8개 사업 / 4,907백만원	2,013	930	1,075	889	
축산악취 개선사업	512	154	343	188	
악취저감시설 지원	69	92	87	30	
악취저감제(한우) 지원	76	81	126	102	
악취저감제(양돈) 지원	226	246	216	217	
악취저감제(가금) 지원	151	298	214	217	
젖소 분뇨 발효 촉진 지원	-	46	49	35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979	13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	-	-	40	100	

추진부서 | 축산과장 **한영자** | 가축위생팀장 **김영수** | 담당자 **이른봄, 김재근**

4-5 안전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가축위생·방역체계 강화

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함평군은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 인증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가 스스로 환경 관리의 주체가 되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민선 8기 동안 지정 농가 수를 민선 7기 대비 107% 증가한 222개소까지 끌어올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농장 경관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통해 함평 축산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정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친환경 농가를 지속 발굴·지원하여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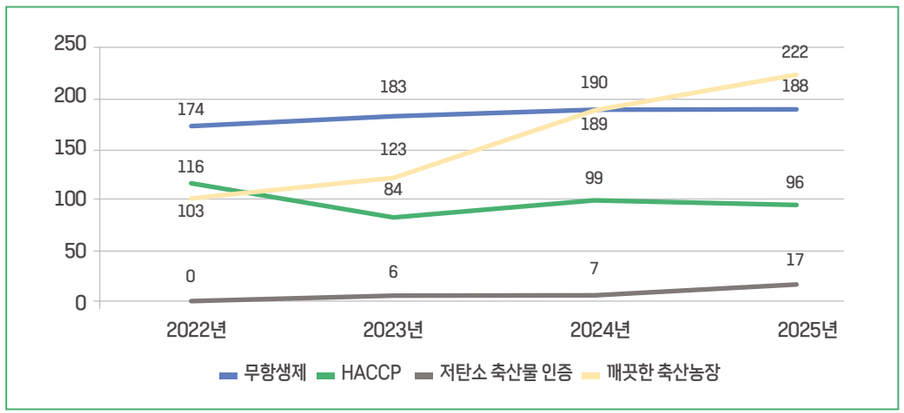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

단위 :백만원, 개수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비고
6개 사업 / 1,767백만원	474	474	483	336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72	79	73	42	
HACCP 컨설팅 지원	17	15	38	11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	-	-	7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385	380	358	253	
깨끗한 축산농가 장려금 지원	-	-	14	10	
저탄소 농업(축산) 프로그램 시범사업	-	-	-	13	

친환경 축산 농가수 변화

단위 : 개소



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축산물 안전관리

함평군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엄격한 위생 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가의 위생 수준을 표준 기준에 맞게 상향 평준화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판매 단계에서 정기적인 위생 감시와 수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축산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4년간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함평형 무상 우유급식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을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전원으로 전격 확대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선도적인 행정은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낙농 산업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민선 8기의 핵심적인 민생 정책으로서 함평군만의 독자적인 복지 모델을 정착시킨 실천적 노력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축산과장 **한영자**	가축위생팀장 **김영수**	담당자 **이른봄, 강원호, 김재근**

05

농업기술과 청년농 육성

5-1 미래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혁신 인재 청년농업인 육성

함평군은 미래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역 농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 인재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지역인재 중심으로 해외 농산업 탐방과 선진 농업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산 중심 농업을 넘어 가공·유통·수출·스마트 농업까지 이해하는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4년에는 대만 글로벌 농산업 탐방을 추진하여 스마트 생산시스템과 농업·관광·유통이 결합된 융복합 수익모델을 확인하며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모색하였고, 2025년에는 말레이시아 농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6차산업 모델, 세계 식품산업 동향과 해외 판로 확대 전략을 학습하며 국제시장 이해도를 높였으며, 2026년에는 일본 도쿄 일원에서 미래 농산업 모델 발굴 탐방을 실시하여 선진 유통체계와 지역농산물 판매 모델을 벤치마킹하였다.

함평군은 해외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생산기술뿐 아니라 가공·유통·브랜딩·수출 역량까지 갖춘 지역 농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 확대와 스마트농업·창업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2025년 청년농업인 국제적 농산업 탐방(말레이시아)



2026년 청년농업인 국제적 농산업 탐방(일본)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농업교육팀장 **노주영**	담당자 **정진주**

5-2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농촌지도 서비스 강화

함평군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기 위해'권역별 농업인상담소'와'농업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였다.

권역별 농업인상담소는 농업인과의 소통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운영되며, 학교면·손불면·해보면 등 주요 권역별로 풍부한 농업 지식을 갖춘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연간 8,000건 이상의 맞춤형 영농기술상담을 수행하였다.

농업현장기술지원단은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들로 구성되어 관내 9개 읍·면의 마을과 개별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병해충 예찰, 재해 대응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하고 농업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에서 개발된 최신 농업기술과 저탄소·스마트 영농기법 등이 함평군 농업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농업현장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 실적

운영실적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농업인 상담소	8,420건	8,450건	8,500건	8,130건
현장기술지원단	1,016명	1,665명	998명	2,003명



농업인 상담소 운영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촌지원팀장 **최선희** | 담당자 **최선희**

5-3 미래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신성장동력 K-농업인 인재(리더) 양성

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함평군은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농업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실용 중심의 교육체계를 지속 확대하였다.

2023년부터는 현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실용교육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최신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정 시책 홍보 기능을 강화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한층 발전시켰다. 2026년에는 권역별 교육을 포함해 총 22회 교육을 운영하여 5,168명이 수료하였으며, 식량작물과 양념채소 분야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해 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였다. 특히 공익직불제 교육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정책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까지 함께 제고하였다.

2023년 ~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 결과

단위 : 개, 명

연도	과정 수	인원	주요내용
2023	20	1,884	○권역별 맞춤형 교육 ○식량작물, 양념채소 전문 교육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
2024	20	2,551	
2025	15	3,600	
2026	22	5,168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나. 신규농업인 영농 기술 향상

함평군은 미래 농업의 역량 강화와 신성장 동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신규농업인(청년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64회에 걸쳐 244명에게 체계적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위해 선도 농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총 29개소(연수생 29명, 선도농가 29명)를 지원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품목별(고추, 딸기, 무화과, 단호박, 애호박, 콩, 토마토 등) 영농 교육을 선도 농가 현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인 및 신규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신규농업인 영농기술 향상 사업 목록

사업명	교육인원	주요내용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244명	청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위한 기초 교육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29개소	멘토·멘티를 통한 영농기술 및 단계적 실습 교육
신규농업인 맞춤형 현장영농교육	105명	안정적 정착과 소득 향상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업인 품목별(고추) 현장 영농 교육



신규농업인 품목별(무화과) 현장 영농 교육

추진부서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업교육팀장 **노주영** | 담당자 **정진주**

5-4 세대계승 기반 마련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4-H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함평군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세대계승 기반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농정발전 간담회와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여 최신 농업기술과 정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세대공감 소통 워크숍을 통해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농업인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자기기 보급 등 디지털 농업 환경 조성에도 힘써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였다.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체리 등 유망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재배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재배기술 향상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묘목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와 판로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여와 해외 농업현장 탐방을 추진하여 선진 농업기술과 유통 사례를 학습하고, 농업인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 식품박람회 및 유럽 농업 선진지 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농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지역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모종 무료 나눔 행사, 사랑의 쌀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후계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청년농 육성과 소득 기반 확충, 디지털 농업 전환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의 세대계승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나비대축제 모종 나눔행사



한농연 농업 정책간담회

나. 4-H 육성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4-H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였다.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간 협력과 지역사회 봉사, 농업 역량 강화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농업의 미래 기반을 다졌다.

4-H회는 2022년부터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야외 나비생태관과 4-H 포토존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축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함평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행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썼다. 또한, 함평군 4-H회 한마음대회를 격년으로 추진하는 등 4-H회의 화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함평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 단체로서, 함평군 청년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함평군 청년4-H 과제공모전을 추진하여 우수한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회원 서로간 경쟁함으로써 자질향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수 과제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현장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영농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함평 농업의 혁신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회 함평군4-H회 한마음대회


함평군 청년4-H 과제공모전 심사

추진부서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업교육팀장 **노주영** | 담당자 **정진주**

5-5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농촌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함평군은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한국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촌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회(한농연)는 미래 농업을 이끌 핵심 주체로서 역량강화 교육과 농정발전 간담회를 추진하고, 세대공감 소통 워크숍을 통해 청년농과 기존 농업인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학사농업인을 선발하여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대회 참여, 해외 농업현장 탐방 등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과 유통 사례를 학습하였다. 체리 등 유망 소득작목 발굴 및 재배 확대, 기술교육 및 현장견학, 묘목 및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산물 유통비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하였다.

한국여성농업인회(한여농)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여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지역노인 대상 무료급식 및 나눔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축제 부스 운영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단체 수익금을 지역 인재양성 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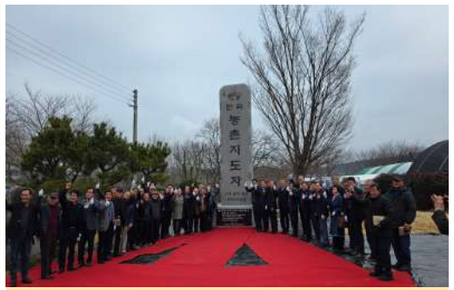
농촌지도자회는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기술 확산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농업정보지 제공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농업정보 공유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여와 단체 활동을 통해 회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한농연·한여농 합동 군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읍·면 간 농업기술 교류와 농산물 홍보를 통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농업인 단체 중심의 활동은 지역 농업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농업의 세대계승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촌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할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라남도 대회 개최



농촌지도자회 비석 건립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업교육팀장 **노주영** | 담당자 **노주영, 박성장**

5-6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장을 위한 치유농업 및 K-HC 푸드 식문화 보급

함평군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 서비스와 K-HC 푸드 기반 식문화 보급을 연계·확산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치유농업사 2급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3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치유농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다.

치유농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단계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 2026년에는 도 공모사업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농장 기반을 각각 1개소씩 조성하며 초기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농촌체험농장 지원사업을 통해 족욕기, 다기세트 등 치유 관련 시설·장비를 보급하여 프로그램 운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이어 2024년에는 농촌자원 소득화 치유농장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6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 개선과 콘텐츠 개발을 집중 추진하였다. 원예 테라피, 만감류 활용 푸드테라피, 도예·다도 체험, 꽃차 및 음식 활용, 커피 체험, 숲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치유 콘텐츠를 발굴·적용함으로써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는 치유농업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농촌자원의 특성과 연계된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1개소를 육성하여 기존 기반을 고도화하고,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질적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다.

특히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공립요양병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함평교육지원청 등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치유서비스 수요처를 확대하고, 아동·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치유농업이 농업 분야를 넘어 보건·복지·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융복합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K-HC 식문화보급 분야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음식문화 선도 플라워푸드교육장을 거점으로 2022년부터 연도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운영하였다. 2022년 40회 835명, 2023년 44회 723명, 2024년 52회 1,031명, 2025년 48회 1,027명의 식문화 선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차별로 자격증 취득반·전통 발효음식·글로벌 음식문화 등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K-HC 건강 식문화를 군민 일상 속으로 확산시켰다.

플라워푸드 교육장 연도별 운영 실적

단위 : 회, 명

연도	사업명	회수	인원
'22년 (7월~)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9	195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4	96
	여성농업 전문인 육성	16	308
	도시소비자 식생활교육	5	116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6	120
	소 계	40	835
'23년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11	264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	18	135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9	180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3	72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3	72
	소 계	44	723
'24년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10	205
	농촌 식문화 전문인 육성	31	608

연도	사업명	회수	인원
'24년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7	133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4	85
	소 계	52	1,031
'25년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24	544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8	339
	우리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6	144
	소 계	48	1,027



치유농업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치유농업 선진지 견학



농촌식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추진부서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경영개선팀장 **심지승** | 담당자 **김수경, 박정은**

5-7 전문성 제고를 위한 농업교육 및 기술보급 체계 강화

함평군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농업인 대 학을 지속 운영하였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소양교육을 병행하며 지역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2년에는 치유농업과 포도 과정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90여 명을 대상으로 47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한우반과 그린농업반을 운영하여 49회 교육을 실시하고 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 전문기술과 친환경 농업 실천 역량을 함께 강화하며 지역 농업의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 농업의 변화과정에 발맞춰 한우·포도·딸기 과정 등의 운영을 통해 농촌조경, 친환경농업 이론·실습, 한우 사양기술 등 실용 중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 함양 교육도 병행하여 선도농업인 육성에 힘썼다. 각 과정별 전문강사 초빙과 전국 단위 선진지 현장교육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최근에는 호박 과정과 청년농업인 과정을 개설하여 청년농업인의 전문리더 양성을 위해 적극 대응하였다. 작목 재배이론 교육과 유통·마케팅 역량향상을 통해 전문 농업 역량을 강하고,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과 현장 적용 능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교육생 간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인 조직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 품목 특화 교육과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과정 확대를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인재 육성 실적

단위 : 년, 반, 명

연도	개설과정	수료인원	연도	개설과정	수료인원
2022	치유농업, 포도	65	2024	한우, 포도	67
2023	한우, 그린농업	87	2025	한우, 딸기스마트팜	58



함평군농업대학 한우반 현장실습



함평군농업대학 딸기스마트팜반 현장교육

추진부서 |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 농업교육팀장 **노주영** | 담당자 **정진주**

5-8 글로컬 기능성 농산물 활용한 그린바이오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함평군은 친환경농업 기반과 우수한 농축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대부분 신선 원물 형태로 유통되어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특화 품종을 단순 농산물이 아닌 기능성 그린바이오 원료 소재로 전환하는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함평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하랑 상추는 락투신 성분이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높아 숙면 기능성 물질 함량이 높은 특화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성분의 과학적 분석과 재배 표준화가 정립이 확립되지 않았고, 가공·건조·분쇄 등 농산물 가공 산업화 기반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 산업으로의 연계가 약해 단순 엽채류 시장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2020년 9월 정부는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 12.3조원 확대를 목표로 그린바이오 5대 유망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린바이오 분야의 산업화를 가속하기 위해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2025년 전라남도는 함평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을 포함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하였다.

함평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114억원을 투입하여 기능성 채소(흑하랑) 원료 산업화 시설을 구축하고, 로컬 기능성 채소 원료 소재화와 재배 표준화하여 고부가 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사업비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그린바이오 소재 식품 제형센터, 파일럿 플랜트, 그린바이오 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한 그린바이오 소재 가공 공유 공장과 기능성 미생물 생산공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함평군 지역 우수한 농축산 자원 기반 원물 중심의 생산 구조를 기능성 원료 소재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기반의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흑하랑 상추 가공제품 일본 수출



흑하랑 상추 재배 모습



그린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조감도

추진부서 |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 원예특작팀장 **공인배** | 담당자 **공인배**

제5절
인구·청년·교육 분야

1 지방소멸대응과 인구정책 전환
2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
3 가족형 인구정책과 정주 패키지
4 교육정책과 미래인재 육성

01

지방소멸대응과 인구정책 전환

1-1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추진

함평군은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정주기반 약화, 지역경제 활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감소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함평군을 포함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인구 증가 시책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50억원을 배분받아 주거·교통·복지·의료·문화·관광·경제·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14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나산강 생태야영장 조성, 청년상회 미미라운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행복한가 건립사업, 근로자 주거복지센터 건립, 청년 야구텔 조성사업 등 청년들이 함평에 머무르고 창업·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새로운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인구감소 문제를 단순히 출생률 제고나 전입장려금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함평을 방문하고 머무르며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각종 공모사업, 자체 군비사업을 연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인구정책팀장 **배성아**	담당자 **오민지**

1-2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 인구정책 마련

우리나라는 출생율 저하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이 5개년의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함평군도 법정계획으로 2022년 ~ 2026년 5년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였다. 현재는 함평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7년 ~ 2031년까지 5년이며 차기 기본계획은 생활인구 확대, 청년유입, 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실행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차기 기본계획에서는 함평군 읍면별 특성과 인구구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족단위 전입과 정착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하려고 한다. 청년인구가 함평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 문화 여가공간, 생활환경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입가구의 정착률을 높이고 기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4월 제정 공포된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여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심의와 변경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행정 내부 단독판단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검토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022년 ~ 2026년 4년간 시행계획을 심의받았다.

향후 함평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인구정책팀장 **배성아** | 담당자 **오민지**

1-3 단순 전입유도에서 정착지원 중심으로의 인구정책 전환

함평군은 민선8기 동안 인구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전입 유도에서 실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에는 학생·군인 등 일부 대상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민선8기에는 일반 전입세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소 유지기간과 세대 규모를 고려한 전입장려금 체계로 개편하여 실거주와 장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특히 함평군은 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의 제한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입세대원 수와 주소 유지기간을 반영한 세대 단위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거주와 정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입세대의 현실적인 정착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거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이자 및 월세 일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전입유도, 주소 유지, 주거 안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정착지원의 대상을 신규 전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군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확대하였다. 인구정책의 핵심을 단순한 전입 경쟁이 아닌 정주여건 개선에 두고, 군민 삶의 질과 밀접한 보건, 교육, 생활환경 분야를 인구정책과 연계하였다. 이는 인구문제를 행정적 전입 실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군민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폭을 넓힌 것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고령층이 지역 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보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경로당 방문보건, 건강드림 행복버스,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정책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이동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특히 보건서비스를 단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고령층의 정주 안정을 뒷받침하는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확장함으로써, 군민이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재양성기금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장학금, 대학 등록금 지원, 학업장려금, 특기자 지원 등을 확대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와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교육문제로 인한 가구 단위 전출을 줄이고, 학생과 청년이 지역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특히 장학사업을 단순한 교육복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교육안전망으로 발전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결과 함평군의 인구정책은 전입장려금 중심의 일회성 지원에서 주거, 보건,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 정주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전입장려금 확대와 주거비 지원은 전입 초기 부담을 낮추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였으며, 인재양성기금과 교육지원 확대는 청년층과 학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인구정책팀장 **배성아** | 담당자 **김정현**

1-4 유입·체류·재방문을 포괄하는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전략 추진

함평군은 민선8기 동안 정주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다. 주민등록상 인구 유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함평을 방문하고 머물며 소비·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확대함으로써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선 함평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연계하여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체계화하였다. 인구감소 대응을 단순한 전입 장려 차원이 아니라 청년 유입, 체류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귀농귀촌 연계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외부 인구가 함평을 경험하고 지역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 확대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청년주택 '행복한 ' 조성사업은 청년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지역 정착 가능 인구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공유공간과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청년 활동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함평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지역 참여 확대와 장기적인 정착 가능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였다.

귀농귀촌 분야에서도 체류와 관계 형성을 중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곧바로 이주를 결정하기보다 일정 기간 함평에 머물며 농촌생활과 영농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였다. 이러한 체류형 경험은 단기 방문을 실제 정착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기능하였다.

축제와 관광을 통한 지역소비·재방문 유도도 생활인구 확대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함평군은 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대표 축제를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 관람에 그치지 않고 관내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하도록 지역 내 사용 쿠폰과 소비 인센티브를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되도록 유도하고, 함평 방문 경험이 지역 상권 이용과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함평군은 민선8기 동안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를 단순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정립하였다. 고향올래 사업, 청년주택, 귀농귀촌 체류지원, 지역소비 연계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유입 – 체류 – 교류 – 재방문 –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구 활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함평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외부 인구를 지역 활력의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인구정책팀장 **배성아** | 담당자 **오민지**

1-5 생활·관계인구 늘리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생활인구'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자매도시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함평나비대축제 자매도시 지자체 방문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교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생활·문화·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교류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3년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자치단체 18개와 국제교류 9개 지역 등 총 30개 기관·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류를 체계화하였다.

교류는 지역 간 실질적 협력과 상호 방문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대표 축제를 매개로 자매도시 방문 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지자체 행사 참여를 병행함으로써 상호 교류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 교류, 향우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연계하여 지역 간 유대관계 강화와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였다. 아울러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및 축제 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체류형 방문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기반을 강화하였다.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베트남 람동성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농업 및 관광 분야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피두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특산품 마케팅과 지역 홍보를 병행하였다. 또한 교류 대상 지역과의 실무협의 및 상호 방문을 통해 협력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농업기술·관광자원·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함평군 ↔ 중국 청두시 피두구 우호교류 협약



함평군 ↔ 베트남 럼동성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협약식

이러한 교류 활성화 정책은 자매결연 도시 간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향후 함평군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상호 발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자치협력팀장 **정갑인** | 담당자 **이지영**

02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

2-1 청년정책 로드맵 설계로 함평군 청년정책 5개년 중기계획 수립

함평군은 인구 자연 감소(데드크로스)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존립 기반이 약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30대 청년층의 이탈은 영유아 동반 유출로 이어져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민선 8기는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별 현상이 아닌 지역 소멸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과거의 청년 정책이 특정 부서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처방(취업 교육, 창업 자금 지원 등)에 치중했다면, 5개년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정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연계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해 함평군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기 수립된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이번 5개년 계획을 긴밀히 연계·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정합성을 높이고 주요 업무 계획과의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지지 기반을 완성하였다. 다만,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추진 상황과 함평군 청년 현실에 맞게 일부 사업이 확대 및 변동되었다.

함평군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8년까지 이어질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함평을 만들기 위한 민선 8기의 핵심적인 정책적 결단이자 성과로 평가된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김가연**

2-2 청년정책 로드맵 설계로 함평군 청년정책 5개년 중기계획 수립

함평군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사회적 연결·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복지를 넘어 청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 안착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핵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가구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총 89쌍의 신혼부부에게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함평에 정착하기로 결심한 청년 세대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안정적인 첫발을 내딛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총 828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공연, 도서, 체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 속 활력을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총 3개 팀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다. 각 공동체에 활동 과업 수행비를 지원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온·오프라인 홍보 등 주도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단순 소모임을 넘어 팀 간 네트워킹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청년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평형 청년 관계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착 토대를 마련하였다.

함평군은 '결혼-문화-공동체'로 이어지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망을 통해 청년 정착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높였으며, 향후에도 실제 수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함평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맞춤형 정착 지원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210,000 (도 21,000, 군 189,000)	3년간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1,000 (도 6,300, 군 14,700)	청년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326,750 (도 130,700, 군 196,050)	문화복지비 연 25만원 지원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오유진**

2-3 전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함평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 운영

함평군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부 청년 자원의 유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거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함평 전입청년 이사 지원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본 사업은 타 지역에서 함평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청년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안정적인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 안심망으로 기능한다.

우선, 전입 청년 세대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화(50만 원~80만 원)함으로써 가족 단위 전입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 가구의 유입 촉진과 정착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상반기(3~5월)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정밀 검토하여 6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자가 몰릴 경우 가구원 수와 전입일 등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나아가 함평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 머물고 싶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향후 이사 지원 외에도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오유진**

2-4 직무경험 제공을 위한 청년인턴제 추진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함평군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였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무 경험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 : 공공부문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쌓음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자신감을 고취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 청년의 군정 참여 활성화 : 인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목격하고 고민하게 함으

로써, 군정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유출 방지 : 지역 내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일차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올해 1명의 인턴 채용을 시작으로 인턴 기회가 부족한 관내 청년들을 위해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료 후에도 취업 상담 및 고용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함평군만의 차별화된 청년 인재 양성 코스로 안착시키고자 한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김가연**

2-5 청년의 활동·교류·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기반 정책 강화

민선 8기는 청년들의 소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함평읍 중앙길(나비어울림센터 3층)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교육실, 다목적실뿐만 아니라 공유 카페와 라운지를 갖춘 이 공간은 청년들이 언제든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야간 및 토요일 운영을 통해 직장인과 학생 등 다양한 청년 계층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대관 및 정책 발굴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실질적인 역량 제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센터 홈페이지와 홍보 책자를 활용해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제공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정책 홍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선 8기는 청년센터 운영과 인턴제 추진을 위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청년센터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정책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함평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경험-소통이 선순환되는 청년 지원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김가연**

2-6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청년주거 기반 확대

함평군은 청년층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과 자산 형성 사업을 연계한 '청년 주거·자립 패키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성과로 평가된다.

우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지원(월 20만 원)을 실시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에 따른 청년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특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을 경감해줌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생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주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의 중장기적 자립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총 44명의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인 저축액에 지자체 지원금을 1:1로 매칭 적립하는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향후 주거 마련이나 창업 등 지역에 안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은 단순히 개별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읍·면별 밀착 홍보 및 추진 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와 자산 형성이 선순환되는 지원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청년들이 함평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향후 함평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함평, 청년이 행복한 활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선도적인 발전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안정 지원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7,200 (도 2,880, 군 4,320)	주거비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60,000 (도 24,000, 군 36,000)	3년 간 월 10만 원 저축 시 1:1 매칭 지원금 지급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오유진**

2-7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스트리트캠퍼스

가. 유휴 공간의 재탄생과 지역 상권 부흥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내 방치된 빈집과 빈가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청년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도시재생 모델로서 기획되었다.

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통합 지원

1) 창업 인프라 구축(H/W)

함평군 일원의 빈집 및 빈가게 4개소를 발굴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창업자에게 1인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초기 진입을 도왔다.

2) 밀착형 매니징 지원(S/W)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매니저를 배치하고, 직무 교육(7회) 및 디자인·인허가 컨설팅(41회) 등 전문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예비 창업자가 직접 상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청년센터 내 일자리 카페를 통한 네트워킹 및 법률·행정 지원 서비스도 상시 제공하였다.

다. 지역 상생과 온라인 판로 확대

굿즈 제작, 요식업(참기름, 브런치 카페), 교육 서비스 등 지역색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성공시켰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 지원(19개소)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창업자 외에도 관내 생산 농가를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청년센터가 민관 협력을 주도하는 정책 허브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함평형 로컬 창업 모델의 브랜드화

창업 초기 안정화를 위해 최소 5년간 창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에 전파 가능한 '함평형 청년 창업 모델'로 브랜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후속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김가연**

03 가족형 인구정책과 정주 패키지

3-1 출생부터 노년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함평살이 지원체계 구축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지역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생부터 노년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함평, 머물고 싶은 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 복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아동 분야에서는 출생 초기부터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생기본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급여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출생기본수당 지급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을 병행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해 문화·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업·진로·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 분야에서는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공예지도사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취·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노년층을 위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여가 및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안부 확인, 정서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여 화재·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노후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생애주기별 정책이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통합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계층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함평살이 지원체계 구축은 군민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 담당자 **김유진**

3-2 귀농·귀촌·농촌유학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정주 활성화

함평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과 농촌유학을 연계한 가족단위 정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농촌 정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함평군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영농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체류 경험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체류형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녀 교육을 고려하는 가족 단위 참여자를 중심으로 농촌유학과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일부 참여 가구는 농촌유학을 계기로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정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 기반 인구 유입 정책을 결합한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함평군은 농산어촌유학 참여 가족의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거주시설을 엄다면과 해보면에 10동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정주 기반을 확충하였다. 해당 시설은 유학생 가족이 유학 기간 지역에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단기 체험을 넘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엄다면 농산어촌유학 가족거주시설 입주식

이와 함께 주거 및 생활환경 적응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외부 유입 인구의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이주민과 기존 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통합을 유도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귀농·귀촌과 농촌유학을 연계한 가족 중심 정주 유입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체류형 지원과 주거·교육 연계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농촌 정주 활성화의 실질적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귀농귀촌팀장 **정난숙** | 담당자 **이혜미**

3-3 청년층 관계 형성과 결혼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혼인율 저하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감성 중심의 '가족형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결혼과 정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트렌드를 반영한 대화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청년들에게 공감대에 기반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함평을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으로 재인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혼 전후의 경제적 허들을 낮추는 '정주 패키지'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다. 미혼남녀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기존 인센티브 정책과 즉각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경제적 부담이 혼인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촘촘한 행정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기반 마련은 지역 내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청년 유출을 억제하는 유의미한 동력이 되고 있다.

나아가 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6월 개최 예정인 미혼남녀 만남 행사의 운영 결과와 참가자 만족도 및 피드백을 분석하여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추가 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미혼남녀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활력 있는 함평 공동체'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청년지원팀장 **나상웅** | 담당자 **오유진**

04 교육정책과 미래인재 육성

4-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확대

함평군은 인재양성이 곧 지역발전의 기반이라는 뜻을 모아, 1993년 '범군민 애향 모금운동'을 시작으로 매년 군비 출연금과 기부금을 적립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설정하고,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부금 모금에 주력하였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6년 4월말 기준 총 104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재육성을 위한 백년지대계 마련'을 공약사항으로,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수 봉급 전액'을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는 공약을 실천함으로써 재임 이전 연간 1억 원 미만이던 기부금 규모가 연간 2억 ~ 4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당초 2030년까지 목표로 했던 100억 원 기금 조성을 5년 앞당긴 2025년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당초 선발 요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계속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22년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균등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전남 최초'로 대학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인 '학업장려금'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학업 분야뿐만 아닌 예체능 계열 특기생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특기자 유형의 선발 대상을 당초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초·중학생까지 확대하고, 보다 많은 특기생들에게 장학금 수혜혜택을 주기 위하여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며 지역을 선도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였다.

인재양성기금 기부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1993~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4.
기부금액	2,617,356	1,170,047	284,663	325,652	417,791	347,278	71,925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교육지원팀장 **조아라** | 담당자 **노정선**

4-2 전 세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은 군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하고 입체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3년 평생학습관을 함평군립도서관 3층으로 확장 이전하여 3개의 강의실과 바리스타실, 군민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함평군 평생교육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함평군 평생학습의 핵심은 군민의 생애 단계별 삶의 과제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데 있다. 먼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기에는 꿈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창의 교육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드론 활용교육, 도전 AI, 메타버스 3D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도자기 놀이, 미술 심리 치료, 쿠킹클래스 등을 운영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매진하였다.

청·장년층을 위해서는 '잡(job) 생각학교'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챗GPT 활용 기술교육 및인공지능 동화책 쓰기 과정을 통해 군민들이 직접 저작권 등록을 마친 전자책으로 개인 동화책과 시집을 출간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읍면 주민의 학습 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별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홈패션 재봉, 드로잉, 꽃차와 차문화, 업사이클 팝아트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였으며 특히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한 함평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군민이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삶의 지혜를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함평군 평생학습 운영실적

단위 : 개수, 명, 백만원

구 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을평생학습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 디지털문해 교육 지원사업		
	과정수	수강 인원	예산액	과정수	수강 인원	예산액	과정수	수강 인원	예산액	과정수	수강 인원	예산액
계	112	1,769	408,000	27	342	157,500	37	418	90,000	64	1259	137,250
2022년	22	265	88,000	-	-	-	-	-	-	3	60	20,700
2023년	30	425	80,000	9	108	45,000	4	60	30,000	13	340	34,000
2024년	28	442	80,000	9	102	45,000	4	51	20,000	23	400	17,000
2025년	14	397	80,000	9	132	45,000	20	183	20,000	25	459	36,980
2026년	18	240	80,000	-	-	22,500	9	124	20,000	-	-	28,570



2024년 함평아카데미



2025년 함평아카데미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추진부서 |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 교육지원팀장 **조아라** | 담당자 **윤정화, 이원화**

4-3 지역학교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교육여건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어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교육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미래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함평군은 농촌유학 참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학경비를 가구당 월 20만 원 지원함으로써 도시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학생 유입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학교의 교육환경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농촌유학을 통해 유입된 학생들은 소규모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자연·생태 기반 체험활동 등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이는 지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농산어촌유학을 기반으로 지역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유입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귀농귀촌팀장 **정난숙** | 담당자 **이혜미**

제6절
해양수산

1 함평만 미래 해양전략 구상
2 어촌 정주기반과 해양생활권 정비
3 수산업 경쟁력 강화
4 해양환경과 지속가능성

01

함평만 미래 해양전략 구상

1-1 서남권 해양거점 도약을 위한 함평만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

함평군은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전남 서부권은 사계절 체류형 해양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광주 등 대도시로 관광·문화 기능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이를 보완할 해양레저 거점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함평군은 함평만 일원에 인공섬, 캠핑장, 먹거리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80억 원 규모로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현재 함평만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양레저, 해양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및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이 마련되고, 서남권 해양레저 특화 거점으로서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함평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인공섬 베이 아일랜드	319.41	인공섬 및 메인센터(함평만 오션라운지) 등 조성
캠핑장	35	글램핑, 카라반, 노르딕 사우나 등 캠핑시설 조성
블루웨일 트레일	28	전망데크(약 4km) 조성, 인프라 확충
빙상 에어돔	45	빙상장(약 2,500㎡) 조성
에너지자립마을조성	52.59	부유식 태양광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ESS설치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1-2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센터 건립계획 수립

함평군은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치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휴식과 건강,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불권역(월천·학산·석창)에서 돌머리권역까지 이어지는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해수찜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유 거점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총사업비 약 396억 원 규모로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함께 해양수, 천연머드, 해양식이, 해양기후·문화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함평군은 해양치유 자원조사 및 지구 지정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을 보완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해양치유지구 지정 승인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해양치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휴양 모델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함평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 해양치유센터 주요시설

주요시설	주요내용
해양치유 및 회복 시설	- 전통 해수찜·해수탕 테라피 시설, 해송림 연계 치유의 숲 - 해양치유 프로그램(명상, 요가, 호흡, 소규모 테라피)
해양자원 활용 체험·활동 시설	- 실내 스쿠버다이빙, 키즈플레이 시설, 안전 및 레저교육
체류·편의 시설	- 소형스테이, 장기체류형 숙박시설, 방문자센터 및 커뮤니티 라운지 - 로컬푸드 기반 건강식 카페·식당
지역연계 및 주민참여 시설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실 및 교육공간 - 특산품 판매장 및 소득연계 공간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1-3 해양관광 허브 조성 위한 안악해송해변 해양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추진

함평군은 전남 서해 북부권 해양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악해송해변 해양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예정으로, 총사업비 55억 원(도비 27.5억 원, 군비 27.5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는 손불면 월천리 일원으로, 약 12,197㎡의 부지에 해양치유형 복합 관광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해양치유 및 체험 기능을 갖춘 해수찜 힐링센터,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 공간, 해양관광 체험시설, 관리·운영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함평의 대표적인 전통자원인 '해수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통 해수찜 콘텐츠의 한계를 보완하고, 치유·힐링 중심의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해수찜 체험시설 고도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중심으로, 함평만 블루푸드 투어, 갯벌 및 연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악해변 야경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연계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또한 축제·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주민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 등 관리·운영 체계도 병행 구축할 계획이다.

안악해송해변 해양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사업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핵심사업	해수찜 해양치유 콘텐츠 관광상품화	함평 해수찜 의 현대화·고도화로 함평만 해양웰니스 관광의 대표 콘텐츠 활용	3.600
연계협력 사업	함평만 블루푸드 투어	주민자치단체와 연계한 청년어부샵, 손불어촌 삼시세끼 운영으로 관광경제 생태계조성	500
	함평만 연안생태체험	함평만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갯벌체험, 도시어부 낚시어선 체험콘텐츠 개발	400
	안악해변 야행길 조성	팜파스 해양경관 명소와 연계한 미디어, 조명연출로 야행관광코스 개발	600
관리운영 사업	함평만 해양관광사업 추진플랫폼	TF팀(함평군, 블루푸드 청년협동조합, 함평만 해양공동체) 운영 및 브랜딩, 홍보 마케팅 사업	200
	함평만 해양관광 역량강화	치유관광, 해양생태 등 관련 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연계	200

함평군은 본 사업을 통해 해양치유와 관광, 지역 특산자원이 결합된 복합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전남 서해안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02

어촌 정주기반과 해양생활권 정비

2-1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주포항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을 투입하여 수산물 혁신센터 조성 및 주포 생활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4년 1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앵커조직 협약 체결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운영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수산업 중심의 소득구조 개선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향후 2026년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7년 사업 준공을 통해 주포항 생활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2-2 어촌 뉴딜 300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3,540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의 경제, 생활, 안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어촌뉴딜300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상지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공정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어촌 경관 개선, 관광자원 연계,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주요 기반시설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어촌 접근성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철저한 공정관리, 주민 참여 기반의 추진을 통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 현황

구분	사업위치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4건	33,540	23,479	2,998	7,063	
2019	함평항	7,925	5,547	713	1,665	
2020	석두항	9,315	6,521	838	1,956	
2021	월천항	8,000	5,600	720	1,680	
2022	석창항	8,300	5,810	747	1,743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강성균**

2-3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을 통한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함평만의 청정 해수와 갯벌 등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치유 콘텐츠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계절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근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단순 이용 중심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향후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해양치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2-4 연안 안전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추진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연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침식 및 월파 등 재해 취약구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연안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사업비 약 91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보강 1,000m, 양빈 35,000㎥, 친수공원 조성 등 침식 방지시설 및 월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연안 방재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노후화된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과 함께 신규 방재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친수공간 조성 및 경관 개선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단순한 방재 기능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연안재해 위험요인이 감소하고,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양빈)



월천지구 연안정비사업(친수공간)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강성균**

2-5 돌머리 해수욕장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체류형 해양관광 기반 구축

돌머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였다.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와 관광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여건 분석과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해변 환경 정비, 편의시설 확충, 접근성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해안 침식 방지 및 안전시설을 보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 개선을 병행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의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관광 구조로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콘텐츠 연계를 통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한동희**

03

수산업 경쟁력 강화

3-1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수산 양식장 스마트화 추진

함평군은 기후변화와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양식 및 어장 관리의 자동화·지능화를 실현하고, 어업인의 작업 편의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 수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수온, 용존산소량 등 주요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제어 기반의 양식장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동 급이시스템, 수질 모니터링 장비 등 ICT 기반 설비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였으며,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양식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수산 ICT 융합지원사업은 전통 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첨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정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2022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3.7	뱀장어 양식장 스마트 자동화 인프라 구축
2023년 수산ICT융합지원사업	3.0	흰다리새우 양식장 사료자동공급 및 생육관리시스템 구축



수산ICT융합지원사업 시스템 설치 모식도



뱀장어 양식장 스마트 자동화 인프라 구축



흰다리새우 양식장 사료자동공급 및 생육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이유리**

3-2 생태 회복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함평군은 해양환경 악화와 어장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함평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오염된 해저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여 지역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하여 추진되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만 어장 및 공유수면 면적 총 1,597.4ha이며,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설계량은 4,022.8t이다. 특히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해저 퇴적물 정화,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 수거, 수질 개선, 서식환경 복원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어장 환경의 질적 개선은 물론, 수산생물 서식 기반 회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기여하였다.

함평만 청정어장재생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50	- 어장환경개선 및 폐기물 처리 용역 - 어장 재조정 측량 - 사업진단 및 효과측정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구역 도면

또한 함평군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지속가능한 어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 참여형 관리 모델을 도입하고, 어장 이용 질서 확립 및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어종의 자원량 회복을 유도하고, 어장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어업 기반시설 정비 및 작업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어업인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였으며, 친환경 양식기술 도입과 스마트 수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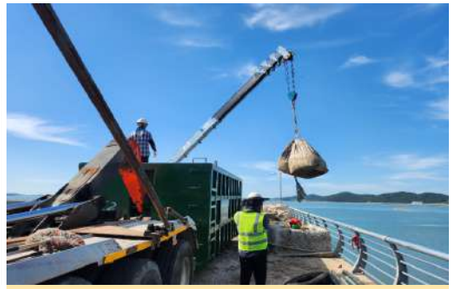
아울러 2025년에는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함평만 일대를 친환경 고부가가치 수산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발굴하고, 청정어장 유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관광 자원과 연계한 복합 해양산업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어업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의 가시화를 위해 단계별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함평군이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핵심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각 굴착기 수거



폐패각 반출 및 처리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이유리**

3-3 어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지역 내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참꼬막, 새꼬막, 바지락 등 지역 특산 패류를 중심으로 한 양식어업 활성화와 더불어 수산종자 방류, 양식시설 개선, 어선어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 기반 확충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함평만 해역은 수산자원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 어업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어업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에 함평군은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어장 환경 개선, 그리고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2026년에는 총 309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함평만 해역 및 양식어장을 중심으로 10개 분야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새꼬막 등 패류 양식 지원, 감성돔·꽃게 등 수산종자 매입·방류,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친환경 양만장 시설 개선, 어선어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장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과 낙지 포장재 및 스티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물장어 양식장에 미생물 공급을 지원하여 친환경 양식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패류 양식 분야에서는 참꼬막 및 새꼬막 종패를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어장 자원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통해 감성돔, 꽃게, 대하 등 다양한 어종을 방류함으로써 해양 생태계 복원과 어획량 증대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460만 미 이상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 조성 노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양식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선별기, 수중펌프, 사료배합기 등 현대화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식어가의 생산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어선어업 분야에서는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양망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조업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양만장 포장재 지원과 '함평 게르마늄 낙지' 브랜드 포장재 및 스티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판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판매까지 연계된 부가가치 창출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는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소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 기반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어업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 소득향상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2022년 새꼬막 살포 지원사업	60	양식어장 생산성 극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2023년 새꼬막 살포 지원사업	60	양식어장 생산성 극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2024년 새꼬막 살포 지원사업	45	양식어장 생산성 극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2022년 수산종자·매입 방류	20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
2023년 수산종자·매입 방류	100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
2024년 수산종자·매입 방류	100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
2025년 수산종자·매입 방류	100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
2022년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20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수산물 상품성 향상
2023년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25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수산물 상품성 향상
2024년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25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수산물 상품성 향상
2025년 친환경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12.5	어업인의 노동력 절감, 수산물 상품성 향상
2022년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	26	수산물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2023년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	13.75	수산물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2024년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	12.5	수산물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2025년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지원	12.5	수산물 상품성 향상,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2024년 양만장 양식수 개발 지원	12	양식수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생산
2025년 양만장 양식수 개발 지원	12	양식수확보 및 수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수산물생산
2022년 어선어업생산성향상 시설개선	10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023년 어선어업생산성향상 시설개선	9.5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024년 어선어업생산성향상 시설개선	9.6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025년 어선어업생산성향상 시설개선	8.8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
2024년 장어 양식장 미생물 공급지원	5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
2025년 장어 양식장 미생물 공급지원	4	양식장 수질환경 개선
2024년 낙지 포장재 및 스티커 지원	10	낙지의 우수성 홍보 및 낙지 명품화로 고소득 창출
2025년 낙지 포장재 및 스티커 지원	5	낙지의 우수성 홍보 및 낙지 명품화로 고소득 창출



새꼬막 종패살포



수산종자 방류



양만장 양식시설 개선



양만장 판매용 포장재 보급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이유리**

3-4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조성

함평군은 낙지 자원 감소와 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대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0억을 투자하여 '함평만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낙지의 안정적인 산란과 서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 회복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다.

특히 낙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산란·서식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서식에 적합한 해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 산란율을 높이고 초기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감소 추세에 있던 낙지 자원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 대상 해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병행하여 서식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산란 및 서식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아울러 어업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어업 방지 및 자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함평만 낙지 자원은 2021년 이후 서식밀도와 주낙어업 어선 1척당 낙지 개체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자원 회복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식밀도는 2021년 59개체/ha에서 2023년 74개체/ha까지 증가하였으며, 드론촬영으로 인한 0.12kg/척에서 1.51kg/척으로 크게 향상되어 생육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자원 회복 기반 마련과 개체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서식환경 관리와 자원 보호 정책을 병행할 경우 안정적인 자원량 회복과 어업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함평군이 지역 특화 수산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모범 사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지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함평만 낙지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0	- 낙지 산란 서식장 조성 10개소 - 교접낙지 10만미 방류 - 산란장 효과 검증을 위한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도면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이유리**

04

해양환경과 지속가능성

4-1 쾌적한 연안환경 유지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함평군은 연안지역의 환경 보전과 쾌적한 해양경관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해안가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사업비 약 7.2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약 6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며, 함평만 해안선 25.65km 구간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 이후 다량 유입되는 부유쓰레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상시 기동순찰을 시행 중이며, 취약구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오염 확산을 예방하였다.

또한, 연안환경 유지를 위해 어업인, 지역주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수거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수거된 쓰레기에 대해 적정 분리·처리를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병행 추진하였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고 연안 경관이 개선되는 등 쾌적한 해양환경 유지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살리기 실천대회 캠페인

추진부서 |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 담당자 **강성균**

4-2 해양관광과 수산업이 공존하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해양관광과 수산업이 상생하는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연계한 복합형 어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에 해양관광 요소를 접목하여 지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포항 생활권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수산물 혁신센터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어업 기반과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안악해송해변 해양관광자원 콘텐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체험, 관광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어촌의 관광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가공·체험·관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역 순환형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어촌체험 프로그램, 블루푸드 투어, 해양치유 콘텐츠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어업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수산업 기반시설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어촌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에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관광과 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 모델을 정착시키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농어촌공동체과장 직무대리 **김용민**	해양수산팀장 **이수현**	담당자 **한동희**

제7절
환경·기후·산림 분야

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2 생활환경 관리와 자원순환
3 수질 · 상하수도 · 물환경 관리
4 산림자원과 산림재난 대응
5 공원·정원·생태공간 조성

0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1-1 군 차원의 선제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가. 제1차 함평군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수립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차 함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하였다.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국가적 추진에 따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계획이 추진되었다.

기본계획에는 군내 산업, 농업, 교통, 건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평군 기후변화 대응 여건, 함평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전 및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등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함평군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함평군은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농업과 자연환경 중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소형 풍력 등 농촌 특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림 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함평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 수립

함평군은 전라남도의 내륙과 해안이 접한 지역으로, 농업과 축산업 비중이 높고, 산림과 하천, 연안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가축 질병, 홍수·침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농업 생산성 변화,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세부시행계획에는 제1차 세부시행계획의 성과평가, 함평군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전망, 부문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부문별 추진방향 및 세부시행계획 등 1차 세부시행계획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 및 개선 대책이 담겨있다.

함평군은 농업 중심의 지역 특성상 가뭄, 홍수, 폭염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한 스마트 관개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강한 농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과 산림과 연안 습지, 하천 생태계가 풍부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생태공원 운영, 탄소저장숲 및 자연생태공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부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기후대응팀장 **임희석** | 담당자 **정은영**

1-2 군민 참여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생활 실천 확대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

함평군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생활 분야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시설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설치 등 단위 사업만으로는 탄소 감축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군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제도 참여자 중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률 3% 이상 5% 미만을 달성한 가구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이 있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 지원 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4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및 감축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3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전남형 탄소중립플랫폼	100	전남형 녹색생활 실천 시 인센티브 지급

아울러 함평군은 전라남도와 전남형 탄소중립플랫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의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포인트 보상 체계를 통해 반복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습관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포트제 운영을 통해 함평군은 총 1,941가구의 에너지 감축 활동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기후대응팀장 **임희석** | 담당자 **정은영**

1-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

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함평군은 운행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연기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고자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2020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차 등록 대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공공기관 충전기 설치와 민간 충전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했으며,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기반 마련에 성과를 거두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단위 : 대수, 백만원

구 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보급대수	601	126	126	120	150	79
사 업 비	9,233	2,246	2,111	2,194	1,771	911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함평군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차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썼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현황

단위 : 대수, 백만원

구 분	합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급대수	1,393	1,195	112	86
사 업 비	3,724	2,388	391	945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기후대응팀장 **임희석** | 담당자 **정은영, 정혜림**

1-4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오염 예방감시원 운영

함평군은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물질의 불법·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예방감시원을 운영하였다.

환경오염 예방감시원은 산업단지와 주요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하여 불법 소각과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지역 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관리 강화에 힘썼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과 신속한 보고 체계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군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이바지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운영인원	6	2	2	2
사 업 비	180	60	62	58

이와 같은 환경오염 예방감시원 운영을 통해 군민 생활환경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계도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기후대응팀장 **임희석** | 담당자 **정은영**

1-5 과학적 감시 강화를 위한 드론 활용 환경감시체계 구축

함평군은 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수질오염사고, 가축분뇨 유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현장 중심 점검 방식은 하천·용수로, 급경사지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현장 확인과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접근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상 축산시설 출입이 제한되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원거리 점검체계를 운영함으로써 방역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환경오염 의심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감시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현장, 하천·용수로 등 공공수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 주요 환경오염 민원 발생 현장으로, 민원 발생현장이나 위반 의심 사업장 중, 가축전염병 방역상 출입 제한, 하천·급경사지 등 접근 곤란으로 곧바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드론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오염원 위치, 발생 규모, 주변 확산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가능케 하였다.

드론 활용 환경감시체계 구축은 함평군 관내 환경오염 취약지역 관리를 효율적·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인력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신속 확인 및 초동 대응이 가능해져 폐기물 불법투기·불법소각, 가축분뇨 유출, 공공수역 오염 등 환경오염행위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감시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환경지도팀장 **박영철** | 담당자 **이승진, 서정의, 이우주**

02

생활환경 관리와 자원순환

2-1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내실화

함평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종량제 배출 폐기물 약 4,500톤, 음식물류 폐기물 약 1,700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내 소비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로,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에 따라 운영 중이다.

종량제 배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접 읍·면 동선에 따라 6개반을 배치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2개반을 읍·면 시가지 위주로 배치하였다.

수집된 종량제 배출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10억원이 소요되며 안정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되고 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순환 활성화와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사료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250백만원이 소요되며 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주민 편의 증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

생활쓰레기 소각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소각량	처리비용	비 고
2022	4,299	1,073	무안군 광역소각장
2023	2,930	762	무안군 광역소각장,
	1,370	383	민간위탁

연도	소각량	처리비용	비 고
2024	5,008	1,173	민간위탁
2025	4,303	1,008	민간위탁
2026. 5.	1,800	376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처리량(재활용)	처리비용	비 고
2022	1,527	198	민간위탁
2023	1,780	230	민간위탁
2024	1,758	249	민간위탁
2025	1,783	253	민간위탁
2026. 5.	720	102	민간위탁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미화팀장 **김진영** 담당자 **장주연**

2-2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함평군은 농촌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불법소각과 무단투기를 방지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농번기를 앞두고 년 2회에 걸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는 환경관리센터에 매년 200톤 가량의 재활용 불가능한 영농폐기물(폐부직포, 폐차광막, 고무호스, 반사필름)을 무상 반입하고, 군은 위탁업체를 통해 소각처리하고 있다.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수거량	수거장려금	비 고
2022	786	61	
2023	819	82	
2024	656	66	
2025	892	80	

또한, 농업활동 후에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마을단위 수거시설인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2025년 21개소 추가 설치하여 현재 128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동집하장을 운영하는 마을에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병은 수거량에 따라 군과 환경공단에서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농촌환경 보전과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미화팀장 **김진영** 담당자 **배유림**

2-3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가. 함평군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함평군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건강 및 생활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2,800천원(국비50% 26,400천원, 지방비50% 26,400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조사는 전문성과 현장 조사 역량을 갖춘 위탁업체를 통해 수행하여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위치, 용도, 노후도 및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총 6,052동으로 주택은 2,394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창고 3,382동, 축사 224동, 기타 52동으로 파악되었다.

함평군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슬레이트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과 지역 내 분포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주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 함평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함평군은 2012년부터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1970년대 전후 전국적으로 보급·설치된 석면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함께 지붕개량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총 2,88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는 8,954백만원(국비50%, 지방비50%)이 투입되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신청 주소지를 기준으로 미지원 이력 주소지에 대해 주택을 비롯한 비주택(창고, 축사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위험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작업 전 안전교육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 후 포장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미화팀장 **김진영** 담당자 **장주연**

2-4 농작물·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함평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변화로 인해 농경지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함평군은 피해 예방 효과가 높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철선 울타리 등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실직적인 피해 저감에 기여하였다. 지원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참여 농가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였다.

지원 대상은 설치지역 및 실제 거주지가 모두 함평군에 소재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중 1년이상 실거주한 농업인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상시설 지원과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량	설치시설	사업비
2022	15농가	철선울타리 5, 경음기퇴치기 10	39
2023	10농가	철선울타리 5, 경음기퇴치기 4, 태양광 목책기 1	34
2024	6농가	철선울타리 5, 경음기퇴치기 1	36
2025	3농가	철선울타리 3	23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관리팀장 **이향희** 담당자 **양채은**

2-5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 저감 및 대응체계 강화

함평군은 악취로 인한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악취 민원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악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악취 민원은 발생 시점과 원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야간·휴일 등 행정 대응이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신속하고 객관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함평군은 주요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 8개소에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 총 8대를 설치·운영하여 악취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함평군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 운영 현황

구 분	합 계	돈 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비료제조업
운영규모(대)	8	6	1	1



무인악취포집기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는 악취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인 15(희석배수)를 일정 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악취 시료를 자동으로 포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집된 시료는 전문 측정기관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악취 발생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민원 대응 및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악취 민원 대응체계 구축은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시간으로 측정·포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도 악취 발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환경지도팀장 **박영철** | 담당자 **이승진, 서정의**

2-6 안정적 처리체계 유지를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함평군은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최종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년 3월 1일부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조성면적 25,638m2, 매립용량 146,000m3을 갖춘 매립시설은 폐기물의 적정 반입관리, 위생적 매립, 침출수 및 매립가스 처리, 사후관리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공환경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안전한 종결처리 및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관리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환경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매립장 전경사진

매립용량

기준 : 2025. 12월말

총 매립용량(㎥)	기 매립량(㎥)	잔 량(㎥)	비 고
146,000	89,440(61.3)	56,560(38.7)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 환경미화팀장 **김진영** | 담당자 **박영석**

2-7 효과적인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함평군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선별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14일부터 함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 운영은 관리총괄 1인을 포함한 총 14명이 근무한다.

센터는 투입호퍼, 자력선별기, 타공기, 압축기, 감용기, 집진기 등을 갖추고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선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기물 감량 및 매립·소각 최소화는 물론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자원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전경사진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미화팀장 **김진영** 담당자 **박영석**

03 수질·상하수도·물환경관리

3-1 수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운영 내실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유역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고, 환경기준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배출총량(허용부하량)을 산정해 유역 전체를 총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도로 함평군은 영산강 유역(B·D 단위유역)의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다.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 관내 오염원 별로 배출 총량을 산정하고 할당량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삭감계획의 이행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공습지나 저류지와 같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토록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주택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잔여 부하량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정된 목표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 관리할 예정이다.

단위유역별 지역개발부하량

단위 : kg/일

구 분	BOD			T-P		
	계	점	비점	계	점	비점
영본B	18.31	5.86	12.45	1.357	0.622	0.735
영본D	269.67	57.0	212.67	14.415	5.124	9.291

추진부서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환경관리팀장 **이향희** 담당자 **정수정**

3-2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기반 확충 및 수질관리 강화

함평군은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급수체계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 간 급수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상수도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군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함평군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공급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배수지 및 가압장 정비, 송·배수관 확충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확대를 통해 군민 간 물 이용 격차 해소에도 힘썼다. 또한 장래 수요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비하여 주요 개발지역과 연계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기반 확충에 나섰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하수와 소규모 급수시설 의존도가 높아 가뭄이나 수질 악화에 취약한 여건이 지속되어 왔으나, 함평군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산업단지와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함평군은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도입과 유지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누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하였으며, 체계적인 시설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급수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군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함평군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관망 정비와 수질관리 강화 정책도 적극 추진하였다. 상수관망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와 적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기적인 관망 세척과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수질 자동측정장치 운영과 정수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수질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군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소통 중심의 수질관리 행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환경 변화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질 유지와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군민 건강 보호와 공공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상수도 기반 확충과 노후 관망 정비, 수질관리 강화 정책은 함평군이 군민 생활의 필수 기반인 물 복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고, 미래 지역개발과 산업·관광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급수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함평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09	노후상수관로 정비 L=23.5km
함평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30	집수조 및 집수관로 설치 L=210m(30m×7열)
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85	노후상수관로 정비 L=49.9km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	도수관로 정비 L=700m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	59	송·배수관로 정비 L=11.2km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100	배수관로 정비 L=6.4km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0	송·배수관로 정비 L=3.8km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	배수지 설치 V=100㎥

추진부서 | 맑은물사업소 **정훈석** | 상수도팀장 **이수병** | 담당자 **김다운**

3-3 도시침수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정비

함평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침수가 반복되던 지역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빗물펌프장을 설치·확충하고 관로를 확대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지대 및 도심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농어촌 지역이 하수처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수관로 확충을 시행하였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고, 오수관로를 신규 설치하여 공공 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하수도 보급률은 91% 수준까지 향상되었으며,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미처리 생활하수가 감소하고 개별 정화조 의존도는 낮아지는 등 공공 처리 비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후 오수관로 교체·보수와 중계펌프장 정비, 지속적인 관로 준설 및 불명수 정비를 통해 하수 이송 및 처리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도시침수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침수 피해가 완화되었으며, 하천 수질 개선과 함께 농어촌 지역까지 하수도 서비스가 확대되어 환경격차 해소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314	중점관리지역 우수관로 정비 A=1,490,000㎡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209	중점관리지역 우수관로 정비 A=1,320,000㎡
월야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115	중점관리지역 우수관로 정비 A=1,060,000㎡
대동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97	중점관리지역 우수관로 정비 A=730,000㎡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1차)	308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오수관로 정비 L=14.8km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2차)	253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오수관로 정비 L=23.1km
손불, 나산 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	117	하수 처리구역 확대 및 오수관로 정비 L=12.7km

추진부서 | 맑은물사업소 **정훈석** | 하수도팀장 **최 혁** | 담당자 **최주영**

3-4 하천생태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환경시설 운영·관리

함평군은 토양 및 하천의 주 오염원인 각 가정 및 사업장,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42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 총 44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영산강 수계 및 하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간 하수 및 오수 3,114,762㎥, 분뇨 3,202㎥, 가축분뇨 18,797㎥를 적정 처리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연간 56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슬러지) 연간 382톤을 재활용업체 위탁 처리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효율적 순환과 친환경적 시설 운영에도 기여하였다.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현황

단위 : ㎥/일

구 분	처리 용량	개소	위 치	처리구역	비 고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	9,000	1	엄다면 영산로 3416-88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엄다면	
분뇨처리시설	40	1		함평군 전역	하수 연계
가축분뇨처리시설	130	1		함평군 전역	하수 연계
손불공공하수처리시설	550	1	손불면 석산로 637	손불면	
나산공공하수처리시설	500	1	나산면 함장로 2265	나산면	
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2,000	1	해보면 밀재로 1418-94	해보면, 월야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015	38	함평군 일원	그 외 공공하수 미처리 구역	

방류수수질 법정기준 및 현황

구 분	BOD		TOC		SS		T-N		T-P		비 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함평공공하수	50이하	1.9	150이하	6.2	100이하	2.4	200이하	6.256	0.30이하	0.059	
손불공공하수	100이하	3.5	250이하	5.2	100이하	4.9	200이하	9.787	2.00이하	0.838	

구 분	BOD		TOC		SS		T-N		T-P		비 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기준	연평균	
나산공공하수	10이하	1.4	25이하	4.2	10이하	4.3	20이하	7.650	0.5이하	0.134	
해보공공하수	10이하	1.2	25이하	4.0	10이하	2.4	20이하	6.588	0.5이하	0.061	

특히 공공하수처리설의 경우 유입수질 변동과 계절별 처리부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반응조 및 총인처리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약품 투입과 수처리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질TMS(실시간원격감시체계) 운영과 수질분석을 통해 방류수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복합악취농도 측정, 기술진단,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등 법정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악취 발생 저감 및 환경관리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였으며, 통신·전기 및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교체 지속 추진, 하수관거 중계펌프장 준설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우수기 침수 및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2024년부터 연간 16억원을 투입하여 손불·나산·해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38개소를 전문 수처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방류수 수질관리에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악취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다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친환경 공공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준설

추진부서 맑은물사업소 **정훈석** 수질관리팀장 **전영화** 담당자 **박희연**

04

산림자원과 산림재난 대응

4-1 산림자원 조성과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450ha의 임야에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목재생산 등 산림의 경영목적에 맞도록 벌기령이 도래한 산림에 대해 수확벌채 후 편백나무 등 경제수종을 식재하고, 경관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함께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가뭄 피해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는 큰나무 조림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식목일을 기념한 군민 참여형 나무심기 행사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특히 2026년에는 여름철 꿀 채밀량이 우수한 모감주나무와 라일락나무를 무료로 배부하여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무나누어주기 행사(2026.03.20.)



나무나누어주기 행사(2026.03.20.)

아울러 조림지 사후관리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시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 도로변·주택가 등 생활권역과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 및 문화재 주변을 대상으로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산물 수집을 확대하고, 숲가꾸기 패트롤 작업단을 통해 발생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을 생산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96톤을 농가에 공급하였다.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ha, 명)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주요내용
2022년~2026년 조림사업	52	512ha	경제림 조성 529천본,큰나무 조림 113천본, 산불피해복구 조림 288천본 식재 등
2022년~2026년 정책숲가꾸기	79	4,027ha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
2022년~2026년 공공산림가꾸기	11	41명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자원조사단 등 인력 운영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말에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매일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011면

함평군, 소외계층에 '사랑의 땔감' 전달

함평군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 24가구에 땔감 25톤을 지원했다.

6일 함평군에 따르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공공숲가꾸기' 인력을 활용해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일부를 땔감으로 준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의 땔감 지원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 제거해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보도자료(전남매일)



광전매일신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010면

숲에서 피어난 따뜻한 온정… 함평군 '사랑의 땔감 나누기'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으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따뜻한 온정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올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 일부를 땔감으로 준비해, 5일과 6일 이틀간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25가구에 땔감 25톤을 직접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함평군은 2006년부터 숲가꾸기4 등 각종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버려질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와 맞춤형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군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 내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산불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함평/전광준 기자

보도자료(광전매일신문)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산림경영팀장 **김선자** | 담당자 **이용범, 윤다솜**

4-2 노거수 보전과 경관 유지를 위한 산림보호 및 보호수 정비

함평군은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에 대해 안전관리, 정비사업, 보호구역 관리 등 단계별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수의 생육 건전성을 유지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한편, 산림경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내 보호수의 분포와 개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 상태와 생육상태를 종합 진단하여 수형 불균형, 공동 발생, 병해충 피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보호수별 이력과 관리 필요사항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보호수 보전 및 경관 관리를 적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수의 생육기능 회복과 경관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하였다. 수목의 상처치료, 수관 솎기, 병해충 방제, 고사지 가지치기 등 생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함께 가지 낙하 및 도복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및 뿌리부 장애물 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함으로써 보호수의 관리 수준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제고하였다.

더불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산림 내 식물종 및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생태적 가지치기, 위협식물 제거, 부패부위 외과수술, 위험가지 지지대 설치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관리를 통해 함평군은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함께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정비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호수 정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비
2022	230	30	160	40
2023	190	30	120	40
2024	181	33	120	28
2025	173	25	120	28
2026	162	28	120	14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산림보호팀장 **이경면** | 담당자 **박수연**

4-3 대형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산불예방 및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함평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대형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예방 및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2023년 4월 대동면 연암리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약 641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겪으면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대형산불 발생 이후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함께 현장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산불 조심기간에는 집중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산림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였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야간 산불 초기 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026년에는 산림재난대응단 56명과 산애(山愛) 감시원 36명을 운영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을 형성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화했다.

또한 마을방송,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산불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차량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정비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실전 중심의 현장 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지방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산불예방·대응 평가'에서 함평군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3년 대형산불 이후 예방 중심 정책과 현장 대응 강화가 결실을 맺은 대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군민 참여 기반의 산불예방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여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산림보호팀장 **이경면** | 담당자 **박수연**

4-4 대형산불 피해지의 산림회복을 위한 신속한 산림복구정책 추진

2023년 4월 3일 대동면 연암리 505번지 일원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대동면 연암리·운교리와 신광면 월암리·삼덕리에 걸쳐 산림 641ha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군은 산불피해지의 재발 방지 및 대규모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신속히 산림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복구정책을 마련하였다.

산림복구정책 목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산불피해복원	7,715	경제숲, 밀원숲, 임도조성 등
경관숲조성	22,285	꽃보라숲, 단풍숲, 휴양숲 등
광역관광계획	45,000	대동호수변정비, 산악승마 조성,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치유의숲 조성, 연천마을 정비 등



대형산불피해지 관광자원화 계획

약 1년에 걸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을 건전하게 복원하는 복구계획과 함께 산불피해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고, 복구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복구를 추진하였다.

단기계획으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조림을 통해 산림을 복원하고, 산불피해지를 활용한 경관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37ha에 대하여 경관수종 266천본을 식재하는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4년 3월 22일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희망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전라남도와 함평군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 산불피해지 일원인 함평 대동제생태공원에서 나무심기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성황리에 추진하였다.

현재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 탄소저장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불피해복구 조림지에 대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사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림목의 활착과 생육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별 실행전략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산불 피해지의 산림복구사업 목록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복구방안 및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	1	관광자원화 방안 및 연계사업 등
2024~2026년 산불피해복구 조림	35	경관수종 모감주나무 외 9종 266천본 식재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30	3ha 탄소저장기능이 높은 수목식재
산불피해지 사유지 매입	4	신광면 월암리 산97-1 :



식목일 행사 개최(2024.03.22.)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개최(2024.03.22.)



복구계획 용역 성과품(2024.06.04.)



광전매일신문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006면

함평군,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눠주기 행사'

전남 함평군이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감나무 800주와 대추나무 800주를 군민 1인당 2주씩 총 800명에게 선착순 배부했다.

이번 행사는 숲과 나무 등 산림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아울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나무심기 - 수확 - 활용)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광전매일신문)



함평 대형산불 피해지를 '희망의 숲'으로

전남도, 대동제생태공원 행사 주민 등 600명 3천 그루 심기
피해지 237ha 수종 복구 계획

전남도는 지난 22일 함평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서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대형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익 함평군수, 도의원 전남도의원, 운영위 함평군의회 의장, 황금영 사)숲속의 전남 이사장, 임업단체, 한국농어촌공사,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주민,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계기가 됐던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이다. 소규기 소각이 원인이었으며, 64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피해액도 임목과 시설을 포함해 240억원에 달했다.

나무 심기 행사에선 산불 피해지가 다시 푸르른 숲으로 자라길 기원하며 산수유나무, 산딸나무, 배롱나무 3천 그루를 심었다. 이산화탄소 흡수는 물론 아름다운 희망의 숲으로 거듭나는 마중물이 될 산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선 생활 주변 나무 심기 운동 확산을 위해 대추나무, 배나무, 대추감나무 등 1천800그루를 나눔도 진행됐다.

전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24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탄소흡수원 부문 목표량의 91%를 산림을 통해 실행할 계획으로, 나무 심기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억 그루의 나무 심기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5억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총 708억원을 들여 앙봉산업육성 입함숲 441ha, 산불 예방 내화수림 60ha, 목재 및 임산물 소득숲 1천315ha, 지역 경관숲 175ha, 도시숲 59개소, 참숲 복원 60ha 등 총 1천4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함평 대형 산불 피해지 총 641ha 중 소나무림가 피해를 입은 237ha는 2026년까지 지역에 입함은 수종으로 복구하고, 나머지 활엽수림 404ha는 울창 경신 등 자연 복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숲은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행정한 임산물을 제공하고, 지유와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등 공익적 가치가 높다"며 "소중한 숲이 한 순간의 부주의로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태양기자 wordfloat@mdilbo.com

보도자료(무등일보)



24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함평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서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함평, 희망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

제79회 식목일 기념 산수유나무 등 3000주 식재

전남 함평군은 24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함평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서 전남도와 함께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임업인, 양봉인, 영농소방대원, 군민, 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여해 산딸나무, 배롱나무, 산수유나무 3000주를 5ha의 임야에 심었다.

이번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3차계기 발령된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이다.

이번 행사에선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태추감감나무, 대추나무, 체리나무 묘목 1800주를 1인당 3주씩 600명에게 총 1800그루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은 청정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숲 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탄소흡수 능력이 심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30~40년 이상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해 지속가능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함평/황인학 기자 whwhang@shinailbo.co.kr

보도자료(신아일보)

추진부서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산림경영팀장 **김선자** 담당자 **이용범**

4-5 재해 취약지 정비를 위한 사방사업 및 산림기반 정비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증가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림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방사업과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단순한 복구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17개소의 재해방지시설을 구축(추진 포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하류 피해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6년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단위 유역 중심의 종합적 재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산림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6년 산림유역관리사업(조감도) - 대동 덕산리 아차동마을

아울러 산림기반시설인 임도 확충을 병행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9.55km의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산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다. 이는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난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림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산림자원의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임도와 사방시설을 연계한 통합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재해예방과 산림경영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합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권 인접 재해취약지에 대한 우선 정비를 통해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피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투자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재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후 복구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광 월암지구(2023년 대형산불 피해지) 임도사업 추진 전경

향후 함평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형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림유역관리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재난 대응력과 산림 활용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지 정비를 위한 사방사업 및 산림기반시설 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량	주요내용
사방시설	43	17개소	-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9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산지 사방 1개소 등 - 토석류, 산사태 피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보
임 도	23	9.55km	- 산림 접근성 확보로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 - 산림경영 효율 제고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산림보호팀장 **이경면** | 담당자 **정다예**

4-6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임산물 산업화 기반 구축

함평군은 농업 및 축산 분야에 비해 열악한 임산물 분야의 저변 확대와 임산물 생산 농가들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보조사업의 신청과 추진을 적극 독려하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임산물 분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마중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잔디객토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원, 총 면적 84ha 규모로 함평군이 전국적 잔디 생산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잔디생산 농가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득구조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사업을 통해 해마다 100농가 이상, 200여 대 이상의 임산물 생산 기계장비(잔디생산장비, 굴삭기, 지게차 등)를 구입하는 데에 국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 임산물 생산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으로 임산물 분야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미래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산림청, 전남도와 적극 소통하여 매년 불용예산으로 인해 사업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임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예산이 임가들의 실질적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산림경영팀장 **김선자** | 담당자 **노유혁**

05 공원·정원·생태공간 조성

5-1 지역 대표 녹색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화양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은 정원문화 확산과 군민의 산림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함평나비대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함평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곤재로 36-33 일원으로, 기존 화양근린공원과 수산봉 일대의 산책로, 맨발로, 데크길 등 기존 녹지 기반을 활용하여 함평만의 특색 있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양근린공원은 1967년 8월 25일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수산봉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맨발로, 데크길 등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군민의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함평군은 이러한 기존 공원 자원을 식물 중심의 정원공간으로 재구성하고, 함평엑스포공원과 연계한 정원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새로운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함평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며, 2028년 12월부터 2029년 1월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조성면적은 205,797㎡이며, 총사업비는 90억 7,400만원이다. 주요 시설로는 지방정원 205,000㎡를 중심으로 정원 196,700㎡, 정원교육장 1,500㎡, 야외학습장 1,800㎡, 주차장 등 편의시설 5,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함평군은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함평군 지방정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정원관광의 거점지로서 함평 지방정원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정원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2024년에는 화양근린공원 폐지를 위한 군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였다. 도 투자심사는 2025년 3월 26일 조건부 2단계로 통보되었으며, 실시설계 이후 심사내용을 보완하여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까지 지방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평가 용역에 1,9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24년에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사유지 매입 등에 2억 5,500만 원을 투입하였다.

향후 사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에는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정원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정원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함께 야외학습장, 정원교육장, 테마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학습장, 테마정원 조성을 이어가며, 2028년에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정원 개장을 준비할 예정이다.

2026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원 명칭 확정, 전문관리인 지정, 전담관리조직 구성, 지방정원 조례 제정 등 선행과제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원을 재정비하는 한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에, 함평엑스포공원을 포함한 국가정원 승격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주제정원의 심미성과 공간적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함평군은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기존 인공물 중심의 근린공원을 식물 중심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정원문화사업 확산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연차별로 변화하는 정원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색 있는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방문객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운영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기반구축단계로 사업타당성 검토, 예산 확보, 지방정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였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사업시행단계로 조례 제정, 정원 조성 및 등록, 시설물 정비, 시설조성 공사, 운영 매뉴얼 작성, 정원 운영자 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는 운영단계로 조직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보수·보완과 사업 모니터링, 보완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정원을 안정적으로 개장·운영할 방침이다.

함평군은 앞으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이 일상 속에서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형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함평나비대축제와 함평엑스포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정원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만의 차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공원녹지팀장 **고재호** | 담당자 **조현우**

5-2 도심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함평군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유지, 자투리땅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도심 열섬현상 완화, 미관 개선, 생태환경 보전, 녹색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산림정책이다.

특히 도시숲은 도심 내부의 녹지공간과 외곽 산림을 연결하는 생태축 역할을 하며, 군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도심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대동면 향교리 983-1번지 일원, 대동 향교숲 및 월산사 주변에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숲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대동면 용성리 1068-2번지 나비베이스타운 일원에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활밀착형숲을 조성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생활밀착형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도시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군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공원녹지팀장 **고재호** | 담당자 **위대한**

5-3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

함평군은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용천사 꽃무릇잔치 등 전국적인 생태체험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도로 구간별 특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경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로변 녹지를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함평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태 관광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동면 운교리에서 천지사 구간 1.2km와 대동면 연암리 구간 0.3km에 왕벚나무 외 2종을 식재하여 봄철 꽃길 경관을 조성하였다. 2023년에는 석성리 521-32번지 일원 0.6km 구간에 팽나무 외 4종을 식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였다.

2024년에는 대동향교에서 해보대각 구간 14km와 나산이문에서 월야용월 구간 2.3km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주요 도로변의 경관 연속성을 강화하였다. 2025년에는 중앙길 180 일원 0.6km 구간에 블루엔젤 외 18종을 식재하여 도심 내 다양한 수종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함평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km 구간에 5억 1,165만 9천 원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관광자원, 생활권 도로환경을 연계한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생활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공원녹지팀장 **고재호** | 담당자 **서화영**

5-4 생태·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가. 산림교육 활성화

함평자연생태공원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군민과 방문객에게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자연생태공원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및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체험·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의 정서 발달과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함평군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공원을 단순 관람형 공간에서 체험·교육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지역 내 영유아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참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숲해설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입 증대와 체류시간 증가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는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산림교육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숲해설	4,155	4,400	4,064	2,202
유아숲체험	3,931	2,260	2,021	1,929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관리

함평군은 자연생태공원을 운영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중심으로 증식·연구·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종 보전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08년 환경부 지정 제14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풍란, 나도풍란, 한란, 지네발란 등 멸종위기 식물 4종을 비롯하여 총15종의 멸종위기 식물을 보전·관리하고 있으며, 붉은점모시나비, 물장군 등 희귀 곤충 표본을 함께 확보하여 생물자원 보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생육관리와 함께 서식환경 조사 및 기초자료 축적을 병행하고, 연 6회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육상태와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증식된 개체를 활용한 자생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훼손된 생태계의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과학적 연구 기반을 토대로 종 보전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체험·전시 중심의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연중운영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화석 만들기 체험학습, 그림그리기 전국대회, 자생식물 새우란 기획전시, 자연생태과학관 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연간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생태공원의 교육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는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험학습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그림그리기 대회	658	693	668	571
만들기 체험학습	2,826	4,075	3,303	997



유아숲체험 운영



새우란(자연생태공원 자생란관 소재)

추진부서 |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생태공원팀장 **신명옥** | 담당자 **용서현, 장소원**

5-5 생물다양성 체험기반 강화를 위한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운영

함평군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본 공원은 뱀, 악어 등 양서·파충류를 주제로 한 특화 생태공간으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복합 생태관광 거점이자 체험형 학습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부지면적 85,000㎡ 규모에 생태전시관, 악어·아나콘다관, 거북관 등 총 4개 동의 전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막관·정글관·한국관 등 서식 환경별 테마 전시를 통해 다양한 양서·파충류의 생태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뱀, 거북, 양서류 등 총 87종 288마리를 전시하고 있으며, 종별 특성과 서식환경을 반영한 전시 연출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갑옷도마뱀(양서파충류생태공원 사막관)



노랑아나콘다(양서파충류생태공원 정글관)

특히 체험관에서는 외래종 거북류 및 갑각류 등 19종 50여 마리를 활용한 체험형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관에서는 골격표본 및 액침표본을 활용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영상관에서는 양서·파충류 관련 교육영상을 상시 상영하고, 동물가족동산에서는 사슴, 염소, 토끼 등 초식동물을 활용한 먹이주기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시환경 개선과 시설 보완을 통해 관람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자연생태공원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언론 및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공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관람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은 연간 수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생태체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생태교육과 관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체험 중심 운영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향후 함평군은 전시종 다양화 및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생물다양성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와 운영 효율화를 병행하여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통합 관광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교육·관광이 융합된 대표 생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시 현황, 2026. 4월 기준

구분	종수	개체수	세부내역
계	87종	288마리	뱀 49, 기타파충류 114, 양서류 100, 초식동물 25
국내종	15종	68마리	뱀 14, 기타파충류 3, 양서류 51
국외종	67종	195마리	뱀 35, 기타파충류 111, 양서류 49
초식동물	5종	25마리	초식동물 25

멸종위기종 보유 현황, 2026. 4월 기준

구분	종수	개체수	세부내역
계	42종	79마리	
1급	3종	6마리	기타파충류 3, 거북류 2, 악어류 1
2급	38종	72마리	뱀 20, 기타파충류 21, 거북류 31
3급	1종	1마리	기타파충류 1

추진부서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 생태공원팀장 **신명옥** | 담당자 **이 건**

5-6 지역 특화행사 육성을 위한 난 명품 대제전 개최

함평군은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본 행사는 전국 애란인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 전시회로서, 매년 수백 점 이상의 작품과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핵심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본 대제전은 단순한 전시행사를 넘어 우수 난 품종의 발굴과 보급, 유통 활성화를 아우르는 복합 산업형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기준 약 500점 이상의 한국 춘란이 출품되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 작품에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대상 시상금 1천만 원을 유지함으로써 대회의 권위와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난 재배 농가 및 애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함평군은 행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예비심사, 본심사, 결선심사 등 단계별 심사체계를 운영하고, 70~80명 규모의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난 전문 매체, 일간지, 온라인 홍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사 기준 약 3만 명 수준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전국 단위 행사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시장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 관람환경 개선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최근 개최 현황

단위 : 점, 명

연도	개최기간	출품작(점)	참가자(명)	관람객(명)	시상규모(점)	비고
2026	3.28. ~ 3.29.	530	151	약 28,000	153	
2025	3.22. ~ 3.23.	565	399	약 30,000	181	
2024	3.16. ~ 3.17.	526	395	약 28,000	155	
2023	3.25. ~ 3.26.	581	398	약 27,000	155	

이와 함께 난 명품 대제전은 자연생태공원 및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핵심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관광·문화가 융합된 대표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난 유통·판매전에서는 회당 약 3억 원에서 6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난 문화의 저변 확대와 산업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향후 함평군은 난 명품 대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를 넘어 국제적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난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층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대통령상 수상 현황 (2023 ~ 2026)

연도	작 품	수상작	수상자	지역	소속단체
2026		황화소심 『보름달』	양위승	전남 화순군	화순난연합회
2025		중투화 『웅비』	박현기	전남 함평군	(사)한국난보존협회
2024		주금소심 『홍룡포』	김영곤	인천광역시	(사)한국난보존협회
2023		주금소심 『태홍소』	오순철	제주특별자치도	(사)한국난문화협회



2026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출품작 심사 현장



2026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 대상 수상(양위승)



대통령상 작품 사진(화예부분 황화소심-보름달)

추진부서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생태공원팀장 **신명옥** 담당자 **이 건**

제8절
복지·보건 분야

1 생활보장과 맞춤형 복지
2 보훈과 사회적 약자 지원
3 노인복지와 돌봄 강화
4 여성·가족·보육·아동·청소년
5 공공보건 인프라와 건강서비스
6 위생·식문화·지역음식 자원화

01

생활보장과 맞춤형복지

1-1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능력지원

함평군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처럼 단기간 일자리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기초생활 능력과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과 직업훈련, 개인별 심층 상담, 근로 기회 제공은 물론 기술 습득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참여자에게는 자활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직업의식과 책임감을 기르고, 점진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의 사회적 적응력과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자활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단 발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형 복지 모델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자활사업 연도별 사업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2022	100	1,969	1,665	94	209	
2023	100	2,023	1,708	98	217	
2024	82	1,843	1,542	94	208	
2025	85	1,923	1,625	93	205	
2026	85	2,074	1,612	142	320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복지기획팀장 **박미선** | 담당자 **오태곤**

1-2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

함평군은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원범위를 세분화하여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급여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관계인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등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해산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지원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급여 변경·중지 등에 반영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적정성과 수급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2022년 1,656가구 2,031명에서 2026년 3월 말 기준 1,905가구 2,34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급여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1,748가구 2,140명에게 총 8,963,601천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으로 기능하였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대상자 발굴과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고, 급여별 맞춤형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통합조사관리팀장 **문규선** | 담당자 **김윤임**

1-3 복지수급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

함평군은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공적자료를 적용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를 병행하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연 2회)와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변동 및 전·출입, 보장변동 등 다양한 유형의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변동 사항을 반영한 인적정비를 추진하고,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자 지정 및 실태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감면서비스 누락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을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통합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최근 4년간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실적은 총 10,504건으로 이중 신규신청 조사는 5,310건, 확인조사는 4,439건을 처리하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3,272건, 2024년 2,974건, 2025년 3,503건, 2026년 상반기 755건을 처리하여 매년 지속적인 신청조사와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통합조사관리팀장 **문규선** | 담당자 **정태영**

1-4 현장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및 민관협력 강화

함평군은 주민 개개인의 요구와 생활 패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는 지역 내 공공과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세부 서비스 제공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통합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며, 개인별 개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가 많다. 반면 단순한 서비스 연계는 개입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민간기관의 사업 신청과 지역 자원 조사, 발굴, 연계 등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둘째, 통합사례관리의 흐름이다. 사업은 대상자 발굴부터 시작하여 초기 상담, 접수, 욕구 및 위기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 관리 단계로 이어진다. 각 단계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추진 실적

단위 : 명

년 도	상담건수	통합사례관리 가구	서비스연계 가구	비고
계	13,541	1,144	2,377	
2021	3,714	537	711	
2022	1,294	63	177	
2023	2669	191	488	
2024	2904	189	510	
2025	2960	164	491	

사업 추진 실적은 연도별 상담 건수와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서비스 연계 건수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러한 실적 집계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각 연도별 데이터는 추후 평가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근거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한 개선점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의 질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용진** | 담당자 **김우희**

1-5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민간 복지단체 간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 위기가구 발굴이다. 지역주민 신고, 공공 데이터 연계, 현장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주거 불안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확인한다.

두번째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지원이다. 발굴된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긴급 생계비, 주거 지원, 의료·심리 상담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는다.

세번째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이다. 주민과 복지 담당자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사업은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된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성 및 설치이다. 읍면별로 설치 유형과 인력이 다르게 구성되며, 기본형과 농어촌 특성화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합평읍, 손불면, 학교면, 나산면, 월야면에 설치되며, 각 팀은 팀장과 팀원 2~3명으로 구성된다. 농어촌 특성화형은 신광면, 엄다면, 대동면, 해보면에 설치되며 팀장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된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 총합사례관리 운영, 건강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둘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기능이다. 통합상담,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와 건강 분야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과 자원 연계를 통해 민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함평군에서는 건강드림 행복버스 운영, 찾아가는 치매 진단검사 등이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구성

단위 : 명

읍면명	설치유형	인원	인력구성	비고
함평읍	기본형	3명	팀장1, 팀원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손불면		2명	팀장1, 팀원1	
학교면		2명	팀장1, 팀원1	

읍면명	설치유형	인원	인력구성	비고
나산면	기본형	3명	팀장1, 팀원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월야면		3명	팀장1, 팀원2	
신광면	농어촌 특성화형	2명	팀장1, 팀원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미설치 (인력만 충원)
엄다면		2명	팀장1, 팀원1	
대동면		2명	팀장1, 팀원1	
해보면		2명	팀장1, 팀원1	

사업 추진 실적은 매년 읍면별 설치 현황과 서비스 운영 현황으로 평가되며, 설치 유형과 인력 구성,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진다. 함평군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8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3명, 복지기동대 183명으로 인적안전망이 구성되어 있다. 2025년도 건강드림 행복버스 연 180회 운영,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266회 2,905명, 찾아가는 복지상담 5,677건, 건강서비스 738건 제공, 자원발굴 229건 등의 추진 실적이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복지·건강 기능 강화 등의 복지 기능을 확대한다.

둘째,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의료·요양 통합 돌봄 등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이다. 셋째, 읍면동별 위기가구 발굴 실적 설정 및 추진계획을 세움으로써 목표치를 도달할수 있게 한다. 넷째, 주민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십시일반 모금사업 전개를 통한 배분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방안을 도모한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용진** | 담당자 **김우희**

1-6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확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2019년도 설립되었다. 본 기동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 지원,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 복지기동대는 10개대 183명으로 구성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 전문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운영 방식은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가정 방문,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건강관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지난 1년간 복지기동대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총 153건의 현장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된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 609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인별 상황과 필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복지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해서는 총 146건의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총 582건의 자원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지난 1년간 복지기동대의 활동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관협력 기반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꼼꼼히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단체, 민간 복지기관 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복지기동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용진** | 담당자 **김우희**

1-7 지역공동체 돌봄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함평군은 고령화의 심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기반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자 자원봉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상 인구 감소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공공 중심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취약계층의 일상적 돌봄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복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자원봉사자 현황

`26.4월말 기준

등록자 수	연인원	실인원	총 활동시간	1인당 활동시간 (활동시간/연인원)
11,922	2,202	698	8,924	13

이에 함평군은 자원봉사를 단순한 참여 활동이 아닌 지역 돌봄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함평 지역축제에서 매년 5개의 자원봉사단체와 학생 자원봉사자들의 1,000여명의 참여로 원활한 축제 진행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며 단발성 활동에 그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봉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축제 자원봉사 활동 현황

단위:년, 명

연도	자원봉사자	학생자원봉사자	참여프로그램
2022	1,086	179	6개 실과소, 26개 프로그램
2023	1,160	122	6개 실과소, 27개 프로그램
2024	1,065	466	3개 실과소, 27개 프로그램
2025	1,291	172	4개 실과소, 30개 프로그램
2026(나비축제)	384	123	5개 실과소, 13개 프로그램

자원봉사 조직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읍·면 단위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활성화하여 재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돌봄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축제자원봉사 (함평나비대축제)



축제자원봉사(국향대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황 - 2025

구성내역(평시)	운영일자	투입인력	활동내역
총 11명 단장 1명, 상황총괄팀 2명 모집배치팀 2명 활동관리팀 2명, 활동지원팀 4명	`25.07.20.~07.25 (6일) `25.08.04.~08.08 (5일)	11명 (자원봉사자 1,794명)	- 자원봉사자 식사 제공 - 봉사자 모집,배치 - 물품지원 - 봉사활동 인정 등록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재난현장 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재난현장 등)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안부 확인, 말벗, 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원봉사센터 자체 프로그램인 「안녕한 함평! 사랑을 쓰자」, 「마음이음키트」 운영으로 매년 500여 명의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독거노인 50명에게 편지 전달, 냉장고 청소, 말벗 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각 읍·면 60~12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였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한 결과,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2022년 11,071명에서 2026년 4월 말 기준 11,922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전남자원봉사센터공모사업(행복나눔문화공연)



전남자원봉사센터공모사업(사랑을쓰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농촌재능나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행복칼로리up)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용진** | 담당자 **박은정**

02

보훈과 사회적 약자 지원

2-1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함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존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3년까지 함평군은 총 9개 보훈·안보단체에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이후 보훈대상자의 다양성과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하반기까지 5.18관련 공법 단체를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총 11개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단체 지원 예산도 증액하여 2023년 1,361만원에서 2024년 1,7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훈·안보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보다 균형 있는 보훈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은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3분기부터 기존 월 7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3만원 인상하여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보훈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함평군은 단체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헌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보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군민 일상 속에 확산되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용진** | 담당자 **박은정**

2-2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확대

함평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존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참전유공자의 사망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공자의 공헌이 가족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이를 위해 함평군은 2025년 12월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배우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포괄적인 보훈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신규로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최초 지급 시에는 총 142명에게 2,050만원이 지급되었다.

특히 이번 제도 확대는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를 통해 보훈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변화하는 보훈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주민복지과장 **정 석**	복지기획팀장 **박미선**	담당자 **오윤덕**

2-3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민선8기 함평군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주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단순한 수혜적 차원을 넘어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함평군은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 관내 복지 인프라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맞춤형 운영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장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보호기능에 그치지 않고 재활교육, 문화체험, 사회 적응 훈련 등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특화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재무·회계 규칙 준수 강화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별 정원 및 현원에 맞춰 운영되고 있다.

각 시설은 장애인의 유형과 서비스 욕구에 맞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함평군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생활시설			이용시설					
소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직업재활	주간보호	수어통역	생활이동지원센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3	2	1	6	2	1	1	1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함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샤론의집	함평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함평군 장애인 근로 사업장	무지개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함평군 수어 통역 센터	함평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합 계	17,736	5,328	3,271	2,364	2,999	2,054	776	944
2022	3,116	923	577	403	534	371	138	170
2023	3,291	935	618	467	570	387	137	177
2024	3,627	1,090	676	480	615	412	161	193
2025	3,747	1,121	695	491	637	436	165	202
2026	3,955	1,259	705	523	643	448	175	202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시설 운영 지원 예산과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함평군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장애인복지팀장 **손준진** | 담당자 **김효진**

2-4 생활기반을 보장을 위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복지지원

함평군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의 생활 여건과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금액으로 월 약 34만원 수준이며, 부가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대 약 43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노인 대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장애인연금에서는 부가급여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2025년)

단위: 원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64세	65세이상	18세~64세	18세~64세	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32,510	432,510	342,510	90,000	432,510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432,510	80,000	342,510	80,000	80,000
차상위초과	372,510	50,000	342,510	30,000	50,000

또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소득 보장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에서 6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월 6만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2025년)

단위: 원

구분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재량지급(신청주의)
급여액	60,000	30,000	60,000

함평군은 이러한 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장애인복지팀장 **손준진** | 담당자 **김태중**

2-5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함평군은 전라남도의 장애인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함평군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연도별 사업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23	97	1,109	555	166	388
2024	109	1,110	556	166	388
2025	114	1,292	647	193	452

앞으로도 함평군은 공공일자리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추진부서 | 주민복지과장 **정 석** | 장애인복지팀장 **손준진** | 담당자 **김태중**

03 노인복지와 돌봄 강화

3-1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

가. 기초연금 지원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함평군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며,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주민등록 기준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으로 선정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소득, 재산 등의 변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위 : 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선정기준액	180	288	202	323.2	213	340.8	228	364.8	247	395.2
기준연금액	27.6	49.2	32.3	51.7	33.4	53.5	34.2	54.8	34.9	55.9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급자	10,164	10,332	10,266	10,235	10,259
수급률	85.4%	84.4%	83.0%	81.5%	81.2%

나. 어르신 결식 예방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함평군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년기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각각 운영되던 사업을 2025년부터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지원 대상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으로, 노인복지관 및 봉사단체 등 지역 내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경로식당 운영과 도시락 배달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정기적인 식사 제공과 방문 전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위기 상황 조기 발견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급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5,000원이었던 급식 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하여 보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다양화와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결식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수요자의 맞춤형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량	180	300	270	299	309
급식단가	5,000	5,500	5,500	5,500	5,500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 담당자 **최정철, 김유진**

3-2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강화

함평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생산적인 여가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함평군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시설은 함평읍 들샘길 36에 위치한 연면적 1,946.46㎡ 규모의 복합 복지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2015년 개관 이래 지역 내 핵심 노인복지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시설 기반은 크게 건강 관리와 사회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층은 식당·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찜질방 등을 배치하여 어르신의 기초 건강 증진과 신체적 편의를 우선시하였으며, 2층은 프로그램실·정보화실·대강당 등을 갖추어 평생 교육과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시설장을 포함한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2,770명의 등록 회원(남 986명, 여 1,784명)에게 최고의 즐김터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총 7억 3,18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합창단 운영 및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노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설 운영과 예산 투입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사회복지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2,770명에 달하는 회원 관리는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어르신을 상시적으로 살피는 제도적 장치로 유지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노인 우울증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1차적 보호체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방적 건강 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리치료실·체력단련실·식당 운영 등은 노년기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인 의료비 절감과 요양 시설 입소 시기 지연이라는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보화실과 프로그램실 운영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니어 합창단과 같은 문화활동은 어르신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사회활동의 주체로 전환시키고, 자존감 향상과 함께 '성공적 노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기반 운영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과 공동체 결속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향후 노인복지의 중심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함평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프로그램명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합 계	243	13,339	290	17,891	328	18,208	347	21,897
한글초급 I	6	387	8	565	9	523	9	551
한글초급 II	5	311	10	725	11	659	11	810
컴퓨터초급	8	435	10	700	11	688	10	761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프로그램명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일평균	연인원
컴퓨터중급	7	450	11	810	11	701	11	804
서예교실	6	182	8	302	8	273	14	436
요가(수리아)	19	1,145	29	1,866	36	2,207	35	2,591
요가(찬드라)	24	1,441	24	1,657	26	1,557	27	1,980
건강체조	20	1,027	20	1,353	26	1,585	25	1,803
문화댄스(초)	8	501	17	1,250	15	923	14	976
문화댄스(중)	17	943	16	1,139	15	912	17	1,160
기공체조	11	559	10	684	14	837	16	1,172
국악민요	11	629	11	783	11	702	12	875
신명난장단	7	449	11	749	10	660	11	819
노래교실	17	477	20	644	17	590	19	680
오카리나	-	-	-	-	16	502	19	726
신바람난타(초)	10	625	12	664	23	1,451	24	1,709
신바람난타(중)	9	561	12	653	0	0	0	0
공예교실	8	243	8	251	9	252	9	268
우쿨렐레	6	364	7	463	5	322	8	605
라인댄스	28	1,588	28	1,918	29	1,844	26	1,902
시니어합창단	16	1,022	18	715	26	1,020	30	1,269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 담당자 **최길남**

3-3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함평군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입식환경 개선사업 및 비품 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본 사업은 고령 및 관절 질환 등으로 기존 좌식 이용 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여건과 시설 구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각 경로당 환경에 적합한 입식시설을 설치하고 건강관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비품을 함께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이용자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친환경 개선을 강화하였다.

또한,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안전하고 쾌적한 무더위·한파 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 경로당(377개소)에 냉방기 및 보일러 일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로 수리 불가한 경우 긴급 교체하는 등 지원책 마련으로 폭염 및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증진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 간 교류가 확대되고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함평군은 앞으로도 경로당 환경개선과 비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 및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비품 지원 실적

단위 : 개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707	123	154	118	214	98
안마의자	195	90	62	33	10	-
붙박이의자	205	-	43	24	81	57
입식테이블	136	-	19	24	52	41
냉방기	171	33	30	37	71	-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 담당자 **최윤정**

3-4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반려로봇 보급 확대

함평군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생활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돌봄수요 확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돌봄 모델인 AI반려로봇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AI반려로봇 지원사업은 우울감이 높은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생활지원, 건강 모니터링, 안

전관리 및 긴급알림의 기능을 갖춘 반려로봇(인형)을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돌봄공백 해소,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고립 완화, 맞춤형 생활관리 등 목적 달성에 큰 성과를 보였다.

또한 기존 인력 중심 돌봄에서 기술 보완형 돌봄 전환으로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상시 돌봄을 통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AI반려로봇 보급 확대와 같은 노력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돌봄 인프라 강화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돌봄통합팀장 **윤여진** | 담당자 **김하정**

3-5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연계한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함평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 노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사업은 함평군 직영과 더불어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함평군노인복지관, 함평문화원 등 민간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 있다. 또한,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수익을 통해 추가 보전이 가능한 공동체사업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연중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2022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25년 1,870명, 2026년 1,9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0명이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노인일자리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혜자	8,860	1,500	1,670	1,840	1,870	1,980
금액	28,499,185	5,226,288	5,884,444	7,318,799	7,570,111	2,499,543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노인복지팀장 **위필숙** | 담당자 **최정철**

3-6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급속한 초고령화와 함께 아프고 불편해도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증가로 돌봄 체계 변화와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함평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2025년 7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반의 서비스 확충 및 협업 체계 구축에 착수하였다.

본사업 시행에 앞서 함평군은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하였으며, 함평형 지역특화서비스 개발과 제공기관 간 협약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협업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역 주민 대상 집중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이후 민·관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 욕구를 반영하여 방문 의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가사·식사지원, 방문목욕, 병원안심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함평형 통합돌봄은 "함께 함평, 평생 함평"의 가치를 실현하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돌봄통합팀장 **윤여진** | 담당자 **임정민**

3-7 스마트 경로당 구축·보급을 통한 고령친화 디지털 복지서비스 강화

함평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41.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경로당의 단순 여가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안전관리, 디지털 교육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 인프라를 디지털 행정복지 기반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가. 여가복지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양방향 영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AI 바둑로봇과 노래방기기 등을 활용한 참여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로당 중심의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적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혈압 및 신장 측정기기를 설치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상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열화상 감지 시스템과 낙상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비상방송 장비와 스마트 보안등을 도입해 경로당 내외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스마트 경로당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이용 및 건강 관련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여가·건강·안전·디지털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복지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와 노인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정보통신팀장 **장정림** | 담당자 **최근형**

3-8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어르신 건강보장 강화

함평군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공약사항인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전략이다.

특히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등)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150% 이하 등 한정적이었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 노인 보건의 핵심 과제인 치매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국·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득 기준 초과자 등 모든 군민으로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치매 조기 검진 상시화와 더불어 약제비 등 치료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치매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지원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였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 정책은 함평군이 '백세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 복지 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지역 사회 내 돌봄 공동체 회복과 건강 격차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고도화를 통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건수	지원액
무릎인공관절	25	41	101	163	117	185	114	186	64	95
백내장·녹내장	119	46	336	128	438	178	421	194	183	88
치매검사·치료	-	-	140	10	146	19	105	14	3	0.1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건강증진팀장 **오은정** / 방문보건팀장 **김판용** / 치매정신팀장 **남궁인정** | 담당자 **오솔비**

04

여성·가족·보육·아동·청소년

4-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 및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가. 여성 사회교육 및 양성평등 인식 제고

함평군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사회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과 양성평등 인식 제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요양보호사, 공예지도자 과정 등 실무 중심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취·창업 기반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연계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특강, 기념식, 유공자 표창 등을 운영하며 여성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였다.

앞으로도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연도별 여성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교육과목	수료인원	자격증 취득
2022	요양보호사, 한식조리기능사	40	22
2023	요양보호사, 정보기술자격(ITQ)	48	36
2024	요양보호사, 정보기술자격(ITQ)	48	36
2025	바리스타2급, 힐링요리지도사	25	25

연도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주 제	참석인원	비고
2022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	300	
2023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함평	300	
202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함평	300	
2025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함평	300	

나.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함평군은 여성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등 다양한 여성단체가 지역사회 봉사, 환경정화, 복지사업, 농업 지원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각 단체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여성의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환경·복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성지도자 육성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여성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회원수(명)	주요사업	비고
1	한국자유총연맹함평군여성회	30	지역사회봉사, 민주주의역량강화사업	
2	(사)새마을부녀회	300	지역사회봉사, 가족소통강화사업	
3	한국부인회	30	지역사회봉사, 여성복지사업	
4	여성자원봉사회	190	지역사회봉사, 주거환경개선사업	
5	고향생각주부모임	41	지역사회봉사, 여성복지사업	
6	한국생활개선함평군연합회	300	지역사회봉사, 농촌의식주개선	
7	농가주부모임	230	지역사회봉사, 농민후원사업	
8	(사)소비자교육중앙회함평군지회	82	소비자사업, 환경보호사업	
9	(사)한국여성농업인함평군연합회	150	지역사회봉사, 농업인 권익향상사업	
10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182	지역사회봉사, 산불방재사업	
11	대한적십자사함평지구협의회	120	지역사회봉사, 재해구호사업	
12	푸른함평지킴이	140	지역사회봉사, 환경정화사업	
13	세계평화여성연합	80	지역사회봉사, 환경정화사업	
14	축산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75	지역사회봉사, 축산물홍보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의 성평등 실현

함평군은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야에서는 높은 평가 실시율을 유지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사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의 성인지성을 높여왔다.

이를 통해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성평등 실현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별영향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제외 대상	개선 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	제외 대상	개선 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	제외 대상	개선 사항 없음	자체 개선안 동의	개선 의견
2022	89	23	43	0	1	0	0	0	0	0	15	5	2
2023	77	18	40	0	0	0	0	0	1	0	3	13	2
2024	65	11	37	0	0	0	0	0	0	0	0	2	15
2025	57	12	34	0	0	0	0	0	1	0	0	1	9

※ 2024년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우수기관 평가결과 : 최우수

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강화

1)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함평군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기 정착 단계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및 공공·지역사회 참여 확대

함평군은 결혼이민자의 자립 기반 구축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한 강사 양성 및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유도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다문화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이다. 이들은 통·번역 지원, 다문화 민원 상담, 정책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 인재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지역사회 통합 기반 조성

함평군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 다양성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문화체험 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과 다문화가족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관련 축제, 문화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내·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문화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여성가족팀장 **정유진** | 담당자 **김정희**

마. 한부모가족 보호 및 운영 지원

함평군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고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였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양육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신규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결정 절차를 통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병행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의 보호를 위해 함평자광드림빌을 중심으로 주거지원과 생활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시설 입소 가구에는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상담치료와 생계급여, 특별위로금 등을 병행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자립기반 마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긴급한 주거 위기와 생활불안을 겪는 가족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강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모자) 가족복지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	인원(명)		시설규모
				정원	현원	
함평자광드림빌 (생활지원시설)	함평읍 함장로 1202-40	김애숙	4명	20세대/60명	6세대/16명	1484.28㎡

연도별 아동양육비 지급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인원	394	96	91	93	114
금액	1,051,070	252,768	231,708	248,542	318,052

연도별 청소년한부모지원 지급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가구	3	3	-	-	-
금액	5,400	5,400	-	-	-

연도별 생활지원금 지급 실적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인원	312	80	74	76	82
금액	201,534	45,812	40,912	54,140	60,670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지원액)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입소자 생계급여 지원		비고
		사업량(개소)	지원액	사업량(명)	지원액	
계	1,635,753	1	1,504,604	41	131,149	
2022	392,251	1	380,232	15	12,019	
2023	433,122	1	391,232	9	41,890	
2024	438,122	1	396,232	9	41,890	
2025	372,258	1	336,908	8	35,350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여성가족팀장 **정유진** | 담당자 **장남옥**

4-2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기본수당 지원

함평군은 출생아 수 감소와 양육비 부담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단기적인 출산 장려를 넘어 아동의 성장 전반에 걸친 지속적 양육 지원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함평군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세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급함으로써 단순한 초기 지원을 넘어 교육·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으로, 신청일 기준 아동과 보호자 1인은 함평군에 동일한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보호자 1인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지역 정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함평군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기반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추진 성과로 2025년에는 67명을 대상으로 약 8억 9천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었으며,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는 87명에게 약 6억 4천만 원이 지원되는 등 제도 시행 이후 수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함평군의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아동의 성장 전 과정에 걸친 안정적인 양육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아동청소년팀장 **문지선** | 담당자 **구아라**

4-3 부모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높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

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보육환경 조성

함평군은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의 신뢰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에 크게 좌우되며, 이를 위해 함평군은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료를 통해 0세부터 2세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누리과정을 통해 보육료 외에도 운영비, 급식비 등을 보충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 군비로 원아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여 교사와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은 보육환경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책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평가 결과와 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육환경 관리가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모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함평군은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개선, 교사 처우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이다.

어린이집 현황

2026. 1월 기준

시설 종별	시설명	계	대표자	원 장	인원(명)		비고
					정원	현원	
국공립	군공립어린이집	함평읍 서부길 68	함평군수	신은영	65	36	
국공립	손불어린이집	손불면 손불중앙길 7-25	함평군수	임선호	49	26	
법인	삼애어린이집	함평읍 내대화길 103-17	윤양성	진행숙	84	38	
법인	자광어린이집	함평읍 들샘길 14-4	유영자	전 현	124	58	
법인	엄다어린이집	엄다면 신송길 13-14	정미진	정미진	49	8	
법인	대동어린이집	대동면 향교길 38-6	이재갑	이재갑	49	10	
법인	나산어린이집	나산면 나산길 97	공국애	공국애	19	10	
법인	해보어린이집	해보면 유정길 42	이왕덕	박은옥	20	5	
법인	명성어린이집	월야면 전하길 40	모광남	김화선	130	19	
가정	나비동산어린이집	함평읍 주공@ 103-101	신란	신란	19	11	

연도별 부모급여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부모급여 지원	-	784,646	1,498,676	1,547,040

연도별 영유아 및 누리과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801,486	744,147	551,524	684,100
누리과정 지원	968,372	848,508	900,573	863,962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여성가족팀장 **정유진** | 담당자 **정세영**

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양육 지원 확대

함평군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증가와 보호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보호자 근로 시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을 강화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을 지원하였다. 특히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정의 상황과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으며, 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홍보 강화와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해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 지속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2025년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공공정책으로 보완하였다. 일정 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 돌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세대 간 정서적 유대 강화와 가족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돌봄 공백 해소와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지원, 가족 친화적 양육 환경 조성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6. 4월 기준

제공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제공인력	아이돌봄사	위탁현황	비고
사단법인 나비뜰동산	함평읍 함장로 1071	정경숙	1명	13명	2024.1.1.~ 2026.12.31.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및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아이돌봄서비스 (사간제, 종일제)	300,722 (319)	378,000 (299)	471,701 (245)	384,775 (216)
조부모돌봄수당	-	-	-	900(1)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여성가족팀장 **정유진** 담당자 **장남옥**

4-4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양육 및 영아 시간제보육 확대

함평군은 영유아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양육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육 형태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영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운영하여 긴급한 외출이나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함평군은 시간제보육 2개소(독립반 1개소, 통합반 1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호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가정양육 지원과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연도별 가정양육수당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가정양육수당 지원	229,485	60,000	28,241	14,560

연도별 시간제보육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반	-	-	통합반 2개소	통합반 2개소
금액	-	-	6,500	11,760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여성가족팀장 **정유진** 담당자 **정세영**

4-5 취약아동 맞춤 지원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함평군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12년 정부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9월 함평군 드림스타트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군 전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전담팀 신설과 조직개편, 사례관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사업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5년에는 인력 재정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원대상은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그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승인 절차를 거쳐 만 15세까지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대상은 2022년 183명에서 2025년 119명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순 대상 축소가 아닌 사례관리 집중도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따른 질적 전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업 운영은 아동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필수·맞춤 서비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와 상담을 중심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를 통해 아동과 가정의 상태를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필수서비스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안전교육,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의 기본적 성장과 보호를 위한 11종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맞춤서비스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영역 등 총 19종으로 운영되며, 간식 및 건강지원, 언어 및 학습지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함평군드림스타트 자아성장캠프



함평군드림스타트 서울역사문화체험


함평군드림스타트 가족사랑 힐링캠프


함평군드림스타트 부모 목공교실

특히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운영을 통해 아동별·가구별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서비스 제공은 2022년 732회에서 2025년 476회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단순 방문 횟수 감소가 아닌 집중 사례 관리와 효율적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된 결과이다.

또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연간 26종에서 34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83명에서 2025년 119명으로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지원액 역시 연간 약 8억 원에서 10억 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평군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상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아동청소년팀장 **문지선** | 담당자 **송은주**

4-6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은 아동 양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양육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함평군은

기본수당 10만원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우대금 2만 원을 추가하여 매월 총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자는 2022년 798명에서 2025년 67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6년 4월 현재 797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도 확대에 따른 수혜 범위 확장의 효과로 나타났다. 지원금 또한 매년 안정적으로 집행되어 아동복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동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1:2 비율로 매칭 지원(월 최대 10만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학자금, 취업 준비, 주거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하며, 아동의 자립 역량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관내 10개소의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을 위한 급식비와 토요·야간 돌봄 운영비도 함께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돌봄과 학습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방과 후 돌봄, 기초학습 지도, 정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연도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총 20명의 인력이 파견되었다. 지원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함평군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한 보편적 복지 강화,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운영, 전문 인력 파견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 아동청소년팀장 **문지선** | 담당자 **송은주,정인복,구아라**

4-7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 개발지원

함평군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참여·복지·보호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정책 환경 조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제7회 정책제안회에서 제안된 '버스요금 100원 운영'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청소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2025년 본예산에 총 12억 원을 편성하고, 기존 대중교통 지원을 넘어 택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 행복택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개개인의 생활권과 이동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이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의지와 자기표현 능력, 주도성을 크게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측면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체험·진로·자치활동 등 10개 영역, 3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다. 음악, 체육, 디지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청소년한마당, 송년문화의 밤 등 지역 참여형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연간 14,600명이 시설을 이용하는 등 지역 청소년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과 지역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지역적 여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나비어울림센터 내 청소년 자유공간 "햇살마루"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을 확충하였다. 해당 공간은 청소년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된 북카페, 코인노래방, 보드게임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여가와 소통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행복택시와 연계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임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분야에서도 함평군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라남도 내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는 도 평균 대비 약 2배, 자립성취도는 18점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상담, 학습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청소년 개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의 결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청소년 수상 성과를 거두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청소년안전망(CYS-Net)은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1388 청소년전화를 통한 상시 상담체계 운영과 함께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고용복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한 내실 있게 추진되었다. 학습지원과 체험활동, 상담, 급식, 건강관리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방과 후 방임 및 비행 노출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캠프, 부모교육, 특별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생활·의료·학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지원하였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해업소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보호 환경을 개선하였다. 연간 629건의 감시·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함평군은 청소년 참여 확대, 활동 기반 조성, 위기 대응 및 복지 지원, 안전 환경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추진부서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아동청소년팀장 **문지선**	담당자 **정인복**

05

공공보건 인프라와 건강서비스

5-1 지역 보건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

가. 사업추진 배경

월야보건지소는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며,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월야면에서 보건소까지의 접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지소는 공간 협소와 기능 제한으로 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건강증진형 월야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단순 진료 중심에서 벗어나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 기능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후 신축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나산면·해보면·월야면 등 3개면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어 2023년 1월부터 전담팀이 신설되고 총 9명의 인력이 치매예방,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권 중심의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사업개요

본 사업은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758-15번지 달맞이문화센터 부지 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거점시설, 월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경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시설은 연면적 659.97㎡ 규모의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조성되었고, 총사업비 2,179백만원(국비 885백만원, 도비 221백만원, 군비 1,073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시설 구성은 1층에 민원대기실, 진료실(일반·한방),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교육실, 영양실습실, 영양상담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여 진료 기능과 건강증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통해 금연·절주, 영양·비만관리, 치매예방, 방문건강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다. 운영 성과

2022년 신축 이후 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거점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결과 진료인원 3,982명, 예방접종 1,376건, 건강증진프로그램 524회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예방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밥상 프로그램



참여형 운동프로그램

추진부서 보건행정과장 **장지선** 보건행정팀장 **박미온** 담당자 **오선아**

5-2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 운영

함평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지리적·경제적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사업명	운영횟수	수혜인원
계	3,724	33,690
이동진료(건강드림 행복버스)	557	18,036
건강100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13	262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	3,138	15,002
서부권역 한방통합 건강증진사업	16	390

먼저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의료취약지 중심의 순회형 이동진료사업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기본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방·치과 진료, 기초검진, 물리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아로마 발마사지와 발 관리 교육, 웃음치료 등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신체 기능 유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남 건강·행복버스와 연계하여 이미용, 생활안전 지도 등 일상지원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증진하였다.

'건강100세,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는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정주형 서비스로, 어르신의 일상 속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었다. 기초 건강검사, 금연상담, 치매조기검진 등 예방 중심 보건서비스와 함께 네일아트, 피부관리, 염색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레크리에이션 중심 건강교실을 통해 사회적 교류와 활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건강관리에서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기능 회복에 기여하였다.

'함께하는 마을 건강 두드림 사업'은 건강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보건지소·진료소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사업으로 뇌 운동, 인지향상 프로그램(공예·미술·웃음치료·운동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2026년 신규 도입된 '함께하는 평생건강, 서부권역 통합프로그램'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서부권역(손불·신광)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작은 보건소'로 탈바꿈시켜 주민 밀착형 한방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기초 건강검진 및 한방 진료를 비롯해 경옥환 만들기, 건강체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발마사지, 염

색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까지 통합 지원함으로써 기존 보건지소 중심 단순 진료를 넘어 마을 단위의 촘촘한 건강·복지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는 진료·예방·복지를 아우르는 통합형 건강관리 모델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건강안전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동진료(물리치료)



이동진료(치과진료)



건강100세 보건복지서비스 (마사지)



건강100세 보건복지서비스 (네일아트)



함께하는 마음 건강 두드림사업



함께하는 마음 건강 두드림사업



서부권역 한방통합 사업(한방시술)



서부권역 한방통합 사업(경옥환 만들기 체험)

추진부서			
	보건행정과장 **장지선**	보건행정팀장 **박미온**	**김민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진료의약팀장 **이은선**	담당자 **박희영**
		건강증진팀장 **오은정**	**이진명**

5-3 만성질환 관리, 건강취약계층 집중관리

함평군은 군민의 만성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건소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정기적인 건강교육과 기초검진, 상담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하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였다.



보건소 만성질환 프로그램



경로당 만성질환 프로그램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오피스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 내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였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오피스 만들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진료소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방문건강관리, 건강상담, 교육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에 힘썼다.

아동·청소년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하였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중심의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취약계층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방문보건팀장 **김판용** | 담당자 **김유민**

5-4 선제적 방역을 위한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운영

가. 계절별 맞춤형 방역체계 구축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강수 패턴 변화에 따라 위생해충 발생 시기 및 서식 범위가 확대되는 등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함평군은 감염병 취약지역 및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집중 방역을 추진하였다.

또한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관리를 강화하여 소독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방역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인 방역 대응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기반을 마련하였다.

1) 사업현황

계절별 방역소독 현황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1월 ~ 2월	3월 ~ 4월	5월 ~ 10월	11월 ~ 12월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방역소독 (분무·연무·연막)	하절기 방역소독 (분무·연무·연막)	동절기 유충구제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 업소 현황

단위 : 개

구 분	개소수	구 분	개소수
숙박업 (객실수 20실 이상)	7	사무실 및 복합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 미터 이상)	9
식품접객업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9	학교·어린이집·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28
버스·역·장의자동차 등	7	소독 업소	6
병원·전통시장 등 (병원급 의료기관)	7	합 계	83

2) 추진실적

방역소독 및 소독 의무시설 점검 실적

구 분	방역소독 횟수(회)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 업소 점검 횟수(회)
	계	유충구제	해빙기 방역소독	하절기 방역소독	
계	567	135	18	399	15
2022년	61	10	0	49	2
2023년	144	34	3	104	3
2024년	163	36	5	118	4
2025년	157	28	5	120	4
2026년	42	27	5	8	2

3) 사진자료



동절기 유충구제



드론 방역



해빙기, 하절기 방역소독



소독 업소 및 소독의무시설 점검

나.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훈련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은 기후변화, 도시화, 국제 교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함평군은 2022년부터 202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가상 시나리오 기반의 토론 및 실습 훈련을 참여하였고, 긴급 대응을 위해 매년 국가비축 물자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3년과 2025년 보건소 주관으로 시군·재난부서·유관기관 등 15개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초동대응 역할 숙지 및 개인방호복(Level A, C)착탈의 훈련을 시행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점검하여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였다.

1) 국가비축물자 현황

재해·재난 대비 비축물자 단위 : 개

생물테러 보호복(5종)-훈련용 포함					다중 독소 탐지 키트	재해대비용 비축물자(5종)				
						살균		살충		
Level A	공기 호흡기	골전도 헤드셋	Level C	Level D set		실내	실외	연막·연무	분무	비누
4	2	2	14	200	8	12	10	30	29	65

조류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보유량 단위 : 개

항바이러스제(Tab/포)		
타미플루 75mg	타미플루 45mg	타미플루 30mg
500	20	20

2) 사진자료



생물테러 훈련



신종·재출현 감염병 교육

추진부서 보건행정과장 **장지선** | 감염병대응팀장 **심미숙** | 담당자 **류수현, 이찬호**

5-5 군민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은 군민의 만성질환 증가와 건강위험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자기주도적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민선8기 핵심 보건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군민 참여 기반의 건강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기주도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통합건강교육, 초등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을 통해 건강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성인 대상 비만예방 운동교실과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모바일 앱 기반 걷기 챌린지 운영으로 일상 속 신체활동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생활터 중심 걷기 프로그램, 맞춤형 영양관리, 건강대학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어린이집 새싹 건강다지기 교실 운영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운영

이와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어린이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건강교실,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실버요가교실 운영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경로당 중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단위의 건강증진 실천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담배연기 없는 청정 함평 만들기' 사업을 통해 금연 실천 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이와 더불어 체험형 건강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한의약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 조성과 건강수명 연장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건강증진팀장 **심미숙** | 담당자 **김아정, 이리라, 김혜화**

5-6 취약가구 밀착 지원을 위한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

함평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취약가구 밀착 지원을 위한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며 군민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부모자녀愛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였다.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전달함으로써 가족이 멀리에 있어도 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고독감 해소와 함께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을 연계한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면 서비스는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영양 및 투약교육 등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였다. 비대면 서비스로는 블루투스 연동 건강측정기기를 보급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건강지표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보건소 전문가가 확인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폭염 및 혹한기 등 계절별 건강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 보호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위험을 예방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방문보건 서비스 강화는 단순한 건강관리 지원을 넘어 돌봄과 생활 안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ICT기반 기술과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혈압 및 혈당 측정


경로당 단체교육


체중 및 허리둘레 측정


폭염 대비물품 배부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건강증진팀장 **김판용** 담당자 **김으뜸**

5-7 지속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치매·정신건강 통합관리 운영

함평군은 군민의 치매환자 증가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 군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정신건강 통합관리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관리, 정신보건, 자살예방 사업 등 군민의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예방 중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조기검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 가족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강화 교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부양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한 전문 상담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치매예방교실


전남대 연계 인지강화교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신건강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장흥통합의료병원, 함평 모악산 치유센터와 협력을 통해 우울·불안 등 고위험군인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군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였다. 지역사회 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인적 자원을 활용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양성 교육을 통해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마음안심버스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이러한 치매·정신건강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노후와 정서적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건강하고 행복한 함평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치매정신팀장 **남궁인정** 담당자 **조은진,유아영,오솔비,장은애**

5-8 질병예방중심 건강관리체계

함평군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관내 병·의원 등 103개소의 전문인력을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요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 등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 군민의 자율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개소	103	100	103	103	103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적

연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회/명	3,591/51,258	303/7,297	-	1,560/18,128	966/13,737	762/12,096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 실적

연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	12,806	2,398	2,358	2,641	2,713	2,696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관리

연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명	1,057	263	282	285	227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물품 배부

연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건	52,926	12,600	14,400	12,916	13,010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계	236	1	65	-	5	-	63	1	56	-	47	-
파라티푸스	-	-	-	-	-	-	-	-	-	-	-	-
A형간염	10	-	6	-	1	-	1	-	-	-	2	-
백일해	3	-	-	-	-	-	-	-	3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	-	-	-	-	-	-	-	-	2	-
유행성이하선염	9	-	5	-	-	-	2	-	1	-	1	-
수 두	61	-	12	-	2	-	20	-	18	-	9	-
급성B형간염	-	-	-	-	-	-	-	-	-	-	-	-
폐렴구균	-	-	-	-	-	-	-	-	-	-	-	-
CRE	10	-	-	-	-	-	5	-	1	-	4	-
성홍열	18	-	-	-	-	-	-	-	-	-	18	-
비브리오패혈증	-	-	-	-	-	-	-	-	-	-	-	-
쯔쯔가무시증	98	-	34	-	-	-	31	-	25	-	8	-
렙토스피라증	-	-	-	-	-	-	-	-	-	-	-	-
신증후군출혈열	4	-	-	-	-	-	2	-	2	-	-	-
매독	2	-	-	-	-	-	-	-	2	-	-	-
C형간염	15	-	6	-	2	-	-	-	4	-	3	-
큐열	-	-	-	-	-	-	-	-	-	-	-	-
브루셀라증	1	-	1	-	-	-	-	-	-	-	-	-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2	1	-	-	-	-	2	1	-	-	-	-
레지오넬라	1	-	1	-	-	-	-	-	-	-	-	-

예방접종은 인체 내 면역력을 형성하여 외부의 병원체로부터 방어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평군은 예방접종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의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연령을 14세까지 확대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함평 군민의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함평군은 단순 예방접종 실적 관리를 넘어, 축적된 예방 접종 결과를 차년도 보건 사업 계획과 예산편성에 전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군민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보건 행정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보건소/보건지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독감 제외)										
		BCG	B형 간염	DTap	DTaP-IPV	Hib	수두	MMR	일본 뇌염	Td/Tdap	PCV	그 외
계	5,799	81	246	169	276	191	161	435	1,236	701	610	1,693
2021년	1,291	23	70	36	59	49	42	86	231	94	178	423
2022년	1,112	10	53	44	45	39	37	83	247	131	120	303
2023년	1,114	18	43	26	43	28	27	65	287	162	101	314
2024년	1,310	20	50	27	85	41	24	103	305	194	104	357
2025년	972	10	30	36	44	34	31	98	166	120	107	296

성인 국가예방접종 현황(보건소/보건지소)

단위 : 건

구분	합계	성인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합산)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코로나19
계	143,856	1,719	34,493	111	214	107,319
2021년	83,394	349	7,495	6	38	75,506
2022년	18,264	400	7,839	12	41	9,972
2023년	15,624	369	7,629	29	49	7,548
2024년	13,826	318	6,045	35	49	7,379
2025년	12,748	283	5,485	29	37	6,914

예방접종비용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원		B형간염주산기 예방사업 (접종비, 검사비)	
	건	지원액(천원)	건	지원액(천원)
계	8,905	444,188	32	2,392
2021년	2,276	101,267	16	612
2022년	1,196	45,995	7	515
2023년	1,536	79,479	2	594
2024년	1,906	103,092	2	284
2025년	1,991	114,355	5	387

함평군은 만성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등록관리를 통해 치료 완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관내 65세 이상 감염병 취약계층의 결핵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센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 및 생계지원을 통해 장애 예방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센환자 11명에 대해 시설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력하여 한센환자 대상 이동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검진 및 환자등록관리

단위 : 명

구분	검 진						환자등록관리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	기생충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	기생충
			X-ray	객담							
계	1,949	1,341	4,917	2,360	-	2,575	-	22	151	55	86
2021년	425	256	3,589	536	-	433	-	5	51	11	2
2022년	408	278	288	193	-	510	-	4	13	11	17
2023년	554	294	361	574	-	511	-	4	27	11	13
2024년	358	324	460	462	-	514	-	4	30	11	19
2025년	204	189	219	595	-	607	-	5	30	11	35

만성질환 지원 내역

단위 : 원

연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한센양로자 생계비		한센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	
	회	지원액	명	지원액	명	지원액
계	20	164,450,000	17	38,045,000	35	74,760,000
2021년	4	30,243,000	3	6,237,000	7	14,280,000
2022년	4	31,198,000	3	6,498,000	7	14,280,000
2023년	4	32,119,000	3	6,750,000	7	14,280,000
2024년	4	35,162,000	4	9,000,000	7	15,960,000
2025년	4	35,728,000	4	9,560,000	7	15,960,000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감염병관리팀장 **이경신** | 담당자 **허주미, 최연희, 박산성**

06

위생·식문화·지역음식 자원화

6-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환경 개선 추진

함평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위생업소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노후화된 위생업소의 영업시설 내·외부개선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기존 2,5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업소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숙박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를 지원하고,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여 관광객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대상으로 제분기 받침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매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및 업종별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평가대상	평가업소 수	녹색등급 (최우수)	황색등급 (우수)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
계		232	21	52	159
2022년	숙박·목욕·세탁업	39	1	12	26
2023년	이·미용업	75	3	10	62
2024년	숙박·목욕·세탁업	42	9	11	22
2025년	이·미용업	76	8	19	49

위생환경 개선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연 도	지원업소	보조금 지원	비 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소 계	37	99,825	개소당 최대 3,000천원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2022	9	22,883	
	2023	10	23,910	
	2024	8	23,376	
	2025	10	29,656	
숙박업소 환경개선	소 계	4	120,000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2024	3	90,000	
	2025	1	30,000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소 계	32	54,802	개소당 최대 2,000천원 지원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2022	16	28,850	
	2023	9	15,000	
	2024	5	8,998	
	2025	2	1,954	
경사로 설치 지원	소 계	6	4,704	개소당 최대 800천원 지원 (도비 30%, 군비 70%)
	2023	4	3,104	
	2024	1	800	
	2025	1	800	



경사로 설치



입식테이블 교체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위생팀장 **서미숙** 담당자 **최빛나**

6-2 먹거리 관광자원화를 위한 함평천지 맛거리 조성사업 추진

함평군은 지역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특화된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공모하여 '함평천지 맛길'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음식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0억 원 규모(도비 50%, 군비 50%)로 추진되었으며, 함평읍 중앙길 76-13 일원 약 1,037m 구간에 조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음식거리 상징물 설치, 안내표지판 구축, 편의시설 확충 등 음식관광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음식거리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형물 및 공공디자인 중심의 특화 콘텐츠를 구축하였다.'함평천지 맛길'의 시작을 알리는 지주형 게이트를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개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였고, 함평비빔밥을 형상화한 놋그릇·오색빛 디자인의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여 지역 음식의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조형물에 스토리텔링 요소를 결합하고 안내사인과 경관조명을 함께 배치하여 주·야간 모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조형물(지주형 게이트)



조형물(함평비빔밥)

이러한 조형물 및 공공시설물은 음식거리 전 구간에 단계적으로 배치되어 공간별 테마를 형성하고 있으며, 입구-상징-체험-휴식-경관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구성함으로써 방문객 체류시간 증가와 관광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음식거리를 벗어나 경관·체험·스토리가 어우러진 복합형 음식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함평천지 맛길'이 함평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남도를 대표하는 음식관광 명소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위생팀장 **서미숙** | 담당자 **서정균**

6-3 지역 외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함평군은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실천 운동'을 연중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안심식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트륨 저감화와 좋은식단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및 안심업소에 대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업소에는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과 함께 소형·복합찬기 및 위생용품 구입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유지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와 평가항목에 대한 상담 및 제도 설명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1:1 맞춤형 위생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과 등급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친절 앞치마 배부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민관 협력 기반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감시원은 민관 합동점검, 식품안전 모니터링, 수거검사 지원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음식문화개선 홍보와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기 및 신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함평군은 자율적 위생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등급별	개소	업소명
매우 우수	45	대화곳간, 정담, 배스킨라빈스 전남함평점, 서정카페, 오월에, 신촌 30년전통 손짜장, 이디야커피 함평점, 담담, 피자나라 치킨공주 함평점, 교촌치킨 함평점, 107커피, bhc치킨 함평나비점, ㈜서원 함평나비(무안)휴게소, ㈜서원 함평나비(광주방향)휴게소, ㈜서원 함평나비(광주)휴게소(열린매장), 함평(무안)휴게소 열린매장, 함평천지(상)휴게소 탐앤탐스, ㈜서원 함평나비(무안)휴게소, 함평천지(상)휴게소 스넥1, 함평(무안)휴게소 용우동 라면, 해안길 312, 컴포즈커피 전남함평점, 함평한우해월다함 본점, 포베오커피, 뚜레쥬르 전남함평점, 본죽&비빔밥 전남 함평점, 빽다방 전남함평점, 함꼬숩, 시간의 정원, 희희낙락, 청계고기짬뽕 함평직영점, 나비스카페, 함평천지(상)휴게소 푸드코트, 라사천마라탕 함평점, 더선셋, 메가엠지씨커피 함평군법원점, 나산할머니다방, 온다, 신전떡볶이 함평점, 나날, 롯데리아전남함평점, ㈜서원 함평나비(무안)휴게소(DROPTOP, ROTTIBUN), ㈜서원 함평나비(광주)휴게소(DROPTOP, ROTTIBUN), 함평(무안)휴게소 한식, 파리바게뜨 전남함평점
우수	5	함평한식뷔페 대동본점, 카페영화, bbq전남함평점, 월야농협 한우마을, 복명식당
좋음	1	맘스터치 전남함평점

모범업소 지정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주메뉴
1	모란정	함평읍	아구찜, 불고기, 생고기비빔밥
2	초록식당	함평읍	생고기, 육회비빔밥
3	선유식당	함평읍	선유정식, 굴비정식, 오리로스
4	천지면옥	함평읍	냉면, 불고기백반
5	고기굽는사람들	함평읍	쇠고기구이, 돼지갈비, 육회비빔밥, 생고기
6	정경복궁	함평읍	생고기,육회비빔밥
7	삼식이네숯불갈비	함평읍	양념갈비, 삼겹살, 육회, 생고기
8	미양기사식당	함평읍	셀프백반, 불고기백반, 한우육회
9	함평흑염소	함평읍	흑염소탕, 흑염소갈비전골, 흑염소수육
10	금송식육식당	함평읍	생고기비빔밥
11	민물장어명가	손불면	장어구이
12	석정	손불면	떡갈비, 비빔밥, 산낙지
13	만석식당	나산면	오리로스, 오리주물럭
14	함평한우해월다함 본점	해보면	생고기
15	월야88장어	월야면	장어구이,장어탕
16	월야농협 한우마을	월야면	꽃등심, 육회비빔밥, 갈비탕, 곰탕
17	향토	월야면	쌈밥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위생팀장 **서미숙** | 담당자 **서정균, 최빛나, 김무아**

6-4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생활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함평군은 식품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관리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중심의 위생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위생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과거 위반업소 및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발생 우려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점검과 위생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식중독 신속보고 체계 운영과 현장 대응 모의훈련, 예방 교육 및 원인조사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였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 추진하였다. 하절기, 명절, 재래시장 등 취약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위해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매월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적인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 순회 방문지도와 급식소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상별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맞춤형 급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위생관리 강화 사업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과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지원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군민 건강 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제조업	무허가
2022년	1,219	1,019	119	2	79
2023년	1,633	1,313	234	3	83
2024년	1,130	867	176	4	83
2025년	1,391	1,130	176	5	80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품목·류 제조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2022년	36	-	6	10	1	5	2	8	4
2023년	25	-	2	9	2	9	-	2	1
2024년	25	1	4	6	-	4	2	5	3
2025년	30	-	6	4	-	6	-	3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보호구역 분류	대상업소	구분	보호구역 분류	대상업소
학교 주변	함평초등학교	-	학교 주변	함평중학교, 기산초등학교	-
	함평여자중학교	-		함평학다리고등학교	3
	함평고등학교, 함평영화학교	1		손불초등학교, 손불중학교	-
	신광중학교	-		손불서초등학교	-
	학다리중앙초등학교	2		해보초등학교, 해보중학교	-
	함평골프고등학교	-		월야초등학교	-
	엄다초등학교	1		월광기독학교	1
	대동향교초등학교	2	학원 주변	전남함평학원1	22
	나산실용예술중학교, 나산초등학교	-		전남함평학원2	4
	월야중학교, 전남보건고등학교	-		전남함평학원3	5
	신광초등학교	1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함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운영 협약식

추진부서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위생팀장 **서미숙** | 담당자 **서정균, 최빛나, 배가영**

6-5 함평천지 장어·한우 전문식당 육성을 통한 지역먹거리 경쟁력 강화

함평군은 지역 특산물인 한우와 장어를 활용한 외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식업 경영혁신 및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별 맞춤형 신메뉴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메뉴 육성을 통해 외식관광 활성화와 함평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된 명품 한정식 요리 강습회에서는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컨설팅과 요리 강습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불고기 전골, 소고기 타다끼, 냉채 등 다양한 한우 신메뉴를 개발하고, 맛 평가와 가격 설정을 거쳐 실제 차림표에 반영함으로써 메뉴의 상품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한우 및 장어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였다. 참여 업소를 선정하여 기존 메뉴 분석을 바탕으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조리 교육과 메뉴 개선을 병행하여 업소별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음식점별 특성에 맞는 신메뉴 개발과 차별화된 외식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외식업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통해 외식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함평을 대표하는 외식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현황

구분	업소명	소재지	주요 메뉴
2022년	선유식당	함평읍	불고기 전골
	전주식당	함평읍	소고기 타다끼, 사태 냉채
	해월다함	해보면	소고기 편채, 소고기 찹쌀 편채
2023년	한옥정	손불면	장어탕, 소스
	월야88장어	월야면	장어물회, 마파장어
	금송식육식당	함평읍	바삭불고기, 육장소스, 육회샐러드
	고기굽는사람들	함평읍	산더미불고기, 뚝배기불고기
	명품관	학교면	육쌈국수, 한우 떡갈비
2024년	나비랑한우암소랑	함평읍	한우구이
	별미관	함평읍	생고기비빔밥
	복명식당	함평읍	생고기비빔밥
	함평 모란정	함평읍	함평한우 육회물회
	함평천지한우명품관	함평읍	한우구이
2025년	나비식당	함평읍	생고기, 육회비빔밥
	낙지마당	함평읍	생고기, 육회비빔밥
	한영식당	함평읍	생고기, 육회비빔밥
	함평천지민물장어	함평읍	장어구이



명품 한정식 요리 강습회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컨설팅

추진부서 |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 위생팀장 **서미숙** | 담당자 **서정균**

제9절
안전·재난관리 분야

1 군민안전망 구축
2 재난예방형 기반시설 확충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체계
4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01

군민안전망 구축

1-1 생활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우리 군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및 일부 사고에 한정되었던 보장 항목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촘촘한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위험을 중심으로 보장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보장금액 또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민안전보험 배너 설치 홍보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제작 배부

또한,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실제 수혜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정책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보장 항목을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함평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정책팀장 **김상욱** | 담당자 **조기룡**

1-2 재해취약지도 제작을 통한 재난 사전예방체계 구축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가운데 방재관련 분야의 계획 수립이 대두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정을 비롯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자연재해분야 중 최상위 계획을 지자체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함평군에는 2009년 7월 7일 집중호우,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덴빈",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함평군에서는 2015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자연재해 유형 또한 가뭄, 대설재해가 추가됨에 따라 더욱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0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과업을 착수하여 여러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5년 4월에 행정안전부 최종승인을 득하여 현재 목표연도 10년중 1차년도에 해당하는 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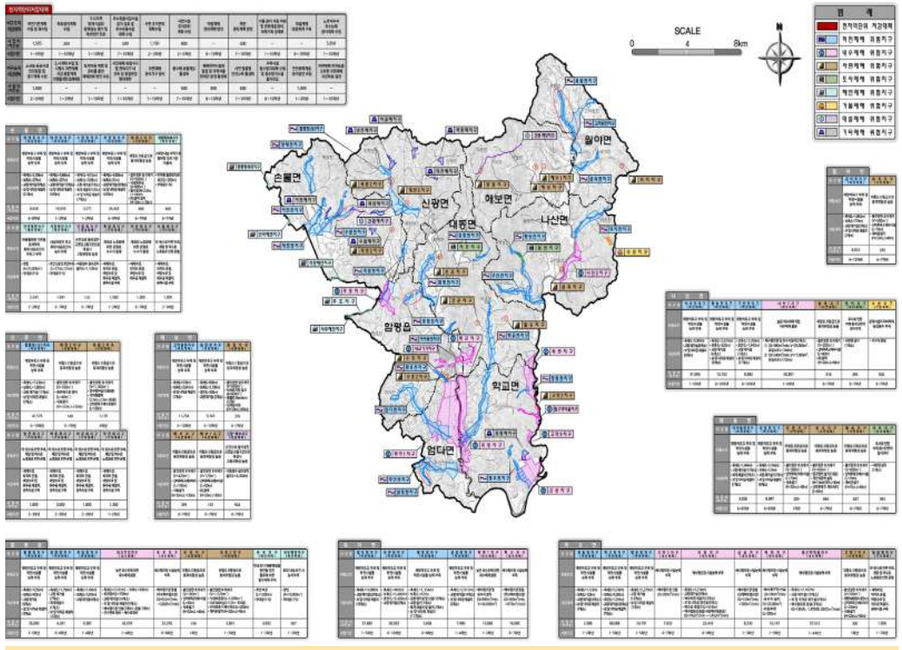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해예방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타 부처 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사방사업, 연안정비사업 등과의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65개소를 선정하여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였고, 제도개선·계획수립·안전점검 등의 비구조적 대책 22개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10개년간 투입될 총 사업비는 6,772억원으로 책정되어 본 계획을 통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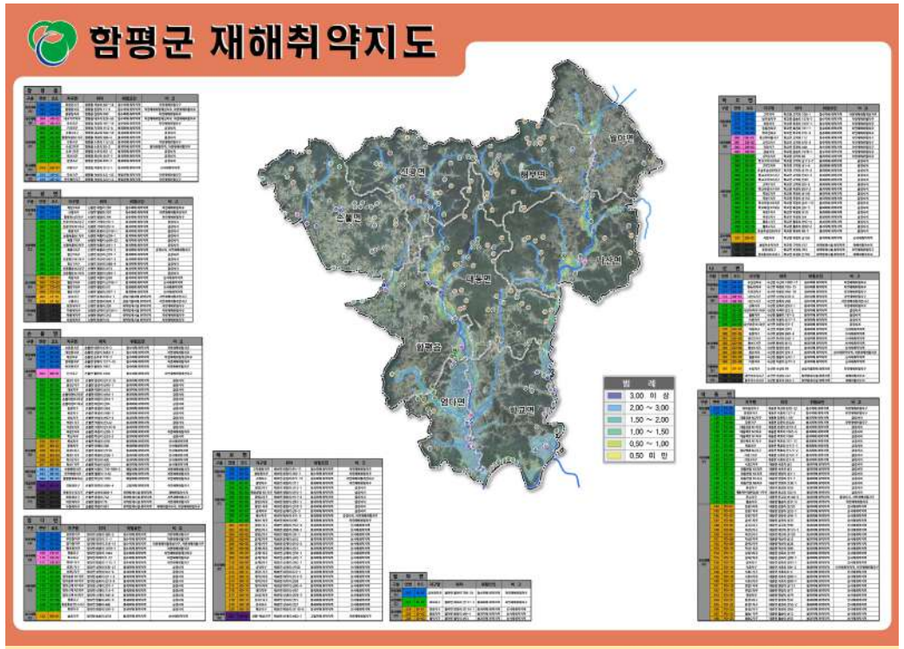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된 내용을 토대로 함평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재해취약지도(재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 포함) 등을 제작하여 자연재해 발생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구분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구조 65, 비구조 22)	677,184	
구조적 대책 (위험지구단위)	소 계	65	663,009	
	하천재해	23	415,262	
	내수재해	10	213,366	
	사면재해	14	8,241	
	토사재해	2	788	
	바람재해	-	-	
	해안재해	5	10,512	
	가뭄재해	1	504	
	대설재해	2	636	
	기타재해	8	13,700	
비구조적 대책 (전지역단위)	소 계	22	14,175	
	전지역단위	22	14,175	



함평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함평군 재해취약지도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재난관리팀장 **박덕용** 담당자 **김요한**

1-3 안전문화운동 등 일상 속 체감도 향상의 군민체감형 생활안전정책 추진

우리 군은 군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제도 개선을 넘어, 군민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한 안전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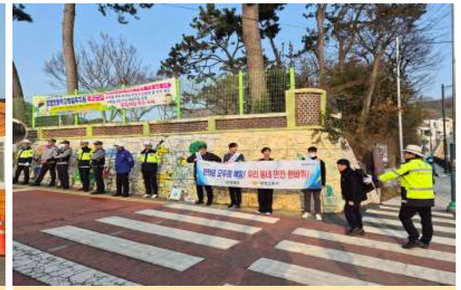
특히, 계절별·상황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하였다. 산불 예방,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생활 속 화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군민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며, 일상 속 안전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1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2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정책팀장 **김상욱** | 담당자 **조기룡**

02

재난예방형 기반시설 확충

2-1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가. 개요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내수침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저지대 생활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재난예방형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다.

함평군은 기존 하천과 배수체계의 통수능 부족, 제방 및 배수로 미정비, 저지대 상습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천·배수로·우수관거·배수펌프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고막지구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침수피해 이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25년까지 총 9회 이상의 호우·태풍 시기에 주거지와 농경지, 공공시설 침수피해가 상습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25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 "가"등급으로 지정·고시(함평군 고시 제2024-41호)되었다.


원고막마을 침수피해


농경지 침수 및 소하천 범람

나. 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장이변으로 국지성 호우 및 이상강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해규모 대형화 및 발생빈도의 증가로 홍수피해 규모가 급증 추세 및 피해이력,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소하천정비(L=2.18km), 배수펌프 3개소 용량 증설 등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

구분	내 용	비 고
하천정비	축제 L = 2.18km, 교량 재가설 10개소, 보 및 낙차공 6개소 등	고막소하천
배수펌프	원고막마을, 고막소하천 배수펌프장 3개소 증설	

총사업비는 371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하였다.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백만원)	2025	2026	2027년 이후
합 계	37,100	800	600	35,700
국 비(50%)	18,550	400	300	17,850
지방비(50%)	18,550	400	300	17,850

다. 효과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상습침수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수능 부족과 내수배제 지연 문제가 개선되어 주거지와 농경지의 침수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방·배수로·관거·배수펌프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단순한 복구 중심 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강사업을 넘어, 반복 재해지역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재난예방사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고막지구는 침수취약 생활권에서 재해 대응력이 강화된 안전 생활권으로 전환되는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재난관리팀장 **박덕용** 담당자 **김요한**

2-2 생활권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2009년 7월 7일 집중호우,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덴빈"으로 인하여 함평읍 내교리·기각리 일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엑스포공원을 비롯하여 기각리 농경지 일대의 대규모 침수발생으로 인하여 문화재, 엑스포공원 시설물, 농경지 일대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과거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위주의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정비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있다. 이를 계기로 함평군에서는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함평읍 내교리·기각리, 대동면 향교리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부터 시작하여 2023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승인 등의 주요 행정절차를 걸쳐 2025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내교기각지구는 함평읍 내교리·기각리, 대동면 향교리 일원은 국가하천 함평천의 높은 외수위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 및 소하천 통수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상습 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항구적인 도시 침수 방재대책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계획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2023~2025	2026	2027년 이후
합 계	49,809	7,118	15,000	27,691
국 비 (50%)	24,904	3,559	7,500	13,845
지방비 (50%)	24,904	3,559	7,500	13,845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계획도

내교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함평읍 내교리 일원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소하천 대화천·외대화천 정비, 함평읍 기각리에 위치한 구 우시장 일원에는 배수펌프장 증설, 우수관거 정비, 함평읍 기각리·대동면 향교리 일원 농경지 지역에는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원활한 배수체계를 확보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재난관리팀장 **박덕용** | 담당자 **김요한**

2-3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예방 기반 구축

가.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 범람 및 내수침수 등 풍수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일원을 포함한 대전지구는 저지대 지형과 소하천 통수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재해취약지역으로, 대전천·수문천·월천천 유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시 하천 외수위 상승 및 배수 지연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2025년 집중호우 시 대전리 일원 주거지 및 농경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생활권 전반에 걸쳐 피해가 현실화되었으며, 하천 주변에 가옥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하도 확장 등 근본적인 정비가 어려워 재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후화된 은곡제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여수로 단면 부족에 따른 월류 및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천 및 배수로의 단면 부족과 기능 저하로 내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구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설정하고,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세천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 사업 주요 내용

1) 소하천 정비사업

대전천, 수문천, 월천천 등 3개 소하천에 대해 총 연장 약 7.334km 구간의 축제 및 886m 구간의 보축을 시행하여 계획홍수량에 대응 가능한 통수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천 단면 확대, 제방 보강 및 호안 정비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하상 준설 및 유수 흐름 개선을 병행하여 홍수위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지 밀집 구간은 하도 확장이 곤란한 여건을 고려하여 국부적 병목구간 개선, 교량 재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 보 및 낙차공 정비를 통한 수위 저감 등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적용하여 사업 효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을 관통하는 대전천 구간의 홍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류부에 분기수로를 신설하여 홍수 시 일부 유량을 우회시키고 하류부에서 재합류시키는 유량 분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통과구간의 홍수량을 저감하여, 제방고 상승 및 하도 확장 한계를 보완하고, 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계획이다.

2) 은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노후화된 은곡제에 대해 제체 증고 및 보강, 여수로 및 방수로 개축을 통해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초과 유입량을 안전하게 방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증대하고, 제체 안정성 확보를 통해 붕괴 및 월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수지 하류부 농경지 및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천 정비사업

유역내 세천 1개소, 약 180m에 대해 정비를 시행하여 내수 배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협소 및 퇴적된 구간을 정비하고 배수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본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지구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설정하고,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세천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대전리 일원 침수 피해를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피해 원인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라. 기대효과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하천 범람, 저수지 붕괴, 내수침수 등 복합적인 재해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되어,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 환경 정비를 통해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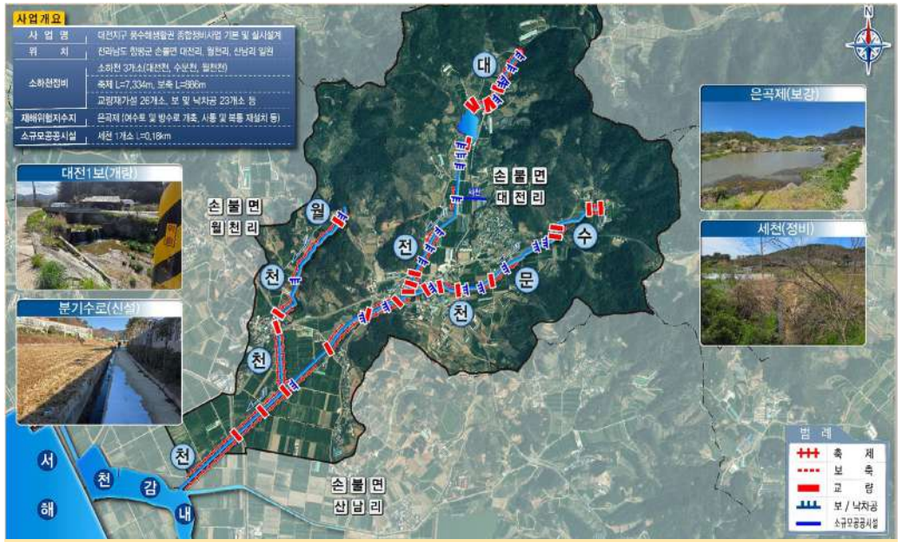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생활권 단위 통합 정비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유사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의 선도 사례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6	2027년 이후
합 계	46,811	2,200	44,611
국 비(50%)	23,406	1,100	22,306
지방비(50%)	23,405	1,100	22,305



대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정비계획도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재난관리팀장 **박덕용** | 담당자 **김요한**

2-4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

함평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와 하천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하였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관내 소하천의 정비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장기 하천관리의 기본계획이다. 총사업비 2,402백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소하천 2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함평군은 기존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유역 환경과 개발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소하천별 현황조사, 수리·수문 검토, 계획홍수량 산정, 하폭·제방·호안·교량 등 주요 시설 기준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위험이 높은 구간과 정비 필요성이 큰 하천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계획 재수립과 함께 지형도면고시 절차를 병행하여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명확히 정비하고 있다. 이는 개발행위 협의, 토지이용 관리, 재해복구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하천관리의 법적·공간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용역은 함평군의 하천관리 체계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하천시설팀장 **나환의** | 담당자 **박경서**

2-5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하천관리 기반 구축

함평군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하천 폭이 협소하거나 유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으로, 제방 보강, 호안 정비, 하도 정비, 교량 및 배수시설 개선 등을 통해 하천 통수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전한 하천관리 체계 구축과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별 소하천 현황

구분	개소수	연장(km)
계	240	340.67
함평읍	33	46.38
손불면	39	57.04
신광면	32	40.24
학교면	21	34.03
엄다면	12	19.87

구분	개소수	연장(km)
대동면	32	43.31
나산면	36	43.17
해보면	17	26.71
월야면	18	29.9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2022~2025)

시행년도	소하천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2020~2024	학동소하천	신광면 원산리	축제 및 호안공 L=2,278km	4,504
2021~2024	요골소하천	해보면 금계리	축제 및 호안공 L=1.225km	3,613
2021~2024	영화소하천	엄다면 화양리	축제 및 호안공 L=2.562km	4,171
2022~2024	동백소하천	손불면 동암리	축제 및 호안공 L=1.0km	1,400
2024~2026	삼축소하천	나산면 삼축리	소하천 정비 L=0.26km	1,800
2025~2026	생동소하천	나산면 월봉리	소하천 정비 L=0.146km	285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하천시설팀장 **나환의** | 담당자 **최영봉**

2-6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재난 대응체계 마련

함평군은 집중호우 시 소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재해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소하천은 하천 규모가 작고 홍수 도달시간이 짧아 짧은 시간의 강우에도 범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계측자료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함평군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총사업비 420백만 원을 투입하여 내동천, 감산천, 신평천, 구계천, 동정천, 석령천 등 관내 소하천 6개소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수위·유속·유량 등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주민 대피 안내, 현장 출동, 상황 전파 등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계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하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현장 확인 중심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실시간 자료 기반의 과학적 하천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재난예방형 하천관리 기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 업 명 : 함평군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위 치 : 관내 소하천 6개소(내동,감산,신평,구계,동정,석령천)
- 사 업 비 : 420,000천원(국 50%, 군 50%)
- 사업내용 : 실시간 하천 자동 우량 계측 프로그램 설치(영상기반)
- 사업기반 : 2024. 3. ~ 2024. 7.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하천시설팀장 **나환의** | 담당자 **박경서**

0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체계

3-1 기후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자연재난 사전대응체계 구축

가. 자연재난 대비 체계 확립

매년 5.15일부터 10.15일 기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11.15일부터 다음해 2.15일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책기간 전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 등 사유시설 복구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인명피해우려지역과 결빙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침수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큼에 따라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의 일제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수방자재 현황 점검 및 이동식 대형 양수기를 제작·구비하였다. 일시대피자, 이재민 발생 시를 대비해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를 확보하고 이재민대피시설을 지정해 철저한 대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읍면 단위로 운영하여 민·관의 재난안전관리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민영보험사와 협력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며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5~100% 지원하고 있다.

자연재난 피해 및 복구 현황(2022~2024) 단위 : 백만원

구분		피해액	복구액	비고
연도	재해명			
2022	제11호 태풍 힌남노	155	638	
2023	6.27.~7.27. 호우	1,495	1,380	
2023	제6호 태풍 카눈	12	13	


배수펌프장 점검


대형양수기 시운전


응급복구 활동

나. 재난·기후변화에 대한 선재적 대처

함평군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매년 5.20일부터 9.30일까지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현장근로자, 농업인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재난문자,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41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엔 야간 및 24시간 운영을 위해 냉방비 및 냉방기기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냉방물품 보급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보행자가 많은 지역엔 스마트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살수차를 운영하여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행동요령 홍보



살수차 운영



스마트 그늘막 운영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재난관리팀장 **박덕용** | 담당자 **황성빈**

3-2 복합재난 발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강화

최근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과 같은 전통적 사고재난을 넘어 다중운집 인파사고, 기반시설 마비, 감염병, 환경오염 등 복합적이고 대형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와 다중이용시설 증가, 노후 기반시설 확산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점검과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함평군은 이러한 사회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정기점검과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과 위기관리매뉴얼 정비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군민 안전 확보와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가. 시설물 안전법상 1·2·3종 시설물 관리

함평군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였다.

최근 사회재난이 화재·붕괴·폭발 등 전통적 재난을 넘어 기반시설 마비와 다중운집사고 등 복합적인 형태로 확대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함평군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시설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였다.

시설물 상태에 따라 지정·해제 및 등급변경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기·수시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노후 공공시설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생활안전 기반 강화에 힘썼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예방 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1 · 2 · 3종 시설물 현황

구분	1 · 2 · 3종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불명
합계	175	44	106	24	1	-	-
1종	1	-	1	-	-	-	-
2종	103	44	59	-	-	-	-
3종	71	-	46	24	1	-	-

유형별 지정관리 현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2026년 기준

구분	1 · 2 · 3종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불명
합계	175	44	106	24	1	-	-
교량(도로교량)	67	-	43	23	1	-	-
댐	1	-	1	-	-	-	-
공동주택(아파트)	14	10	4	-	-	-	-
공공업무시설	4	-	3	1	-	-	-

유형별 지정관리 현황

구분		1 · 2 · 3종 시설물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불명
하천	수문	55	25	30	-	-	-	-
	제방	22	4	18	-	-	-	-
	배수펌프장	1	1		-	-	-	-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3	1	2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4	2	2	-	-	-	-
옹벽(도로옹벽)		1	1	-	-	-	-	-
기타		3	-	3	-	-	-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2026년 기준

나.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점검 강화

함평군은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 안전 확보와 사회재난 예방체계 구축에 주력하였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의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협업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기반시설,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72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과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다. 또한 계절별·시기별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명절, 동·하절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2023~2025 집중안전점검 추진현황

단위 : 개수

구 분	점검대상	이상없음	현장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조치예정	조치완료	조치예정	조치완료
2023	55	44	7	1	3	-	-
2024	52	41	-	1	8	-	2
2025	65	55	-	5	5	-	-



함평군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2024.6.19.)



함평군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2024.1.18.)



함평군 돌머리 유원시설 2개소 현장 안전점검 실시(2024.1.18.)

아울러 함평군은 사계절 축제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도 연중 운영하였다.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 함평 겨울빛축제 등 주요 행사 개최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설물, 전기·소방설비, 교통동선, 인파관리 및 응급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하였다.


함평군 '함평 물놀이 페스타' 안전 관리 총력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개최…경찰·소방서 등 주요 기관들과 맞손

2025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함평 물놀이 페스타)



2024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2024년 제5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함평 겨울빛축제)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관리매뉴얼 현행화도 지속 추진하였다. 부서별 임무와 상황전파 체계, 관계기관 협업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재난을 포함한 신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는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회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함평군이 안전한 축제·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체계 정리

구 분	주요내용	적용 범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의 관리체계와 관계기관 임무 · 역할 규정	국가 단위 기준 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절차 규정	관계기관의 실무 대응 기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 수록	시 · 군 · 구 현장대응 기준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관리팀장 **김상욱** | 담당자 **조중근**

3-3 비상시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비상대비 및 민방위태세 확립

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함평군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군수를 의장으로 하는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관·군·경·소방 등 지역방위 요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적의 침투 도발 및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기관이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분기 1회 운영하고 있다.

나.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대비훈련 시행

함평군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등 충무계획의 3대 기능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13개 부서에서 25개 분야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충무계획은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 비상대비계획으로, 함평군은 시·군·구 단위 실시계획 작성기관으로서 상위계획과 전라남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훈련과 충무시행태세 확인·점검, 자체 토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전시 전환절차, 동원업무,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비상대비 업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단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비상대비훈련 종류

구 분	주기	주관	주요내용
을지연습	1회/년	행정안전부	전국 단위, 전시대비 국가총력전 연습
화랑훈련	1회/2년	국방부	권역 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검증
충무훈련	1회/3년	행정안전부	지역 단위, 자원(인력·차량·건설기계) 동원훈련

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

함평군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역 단위 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편성대상자를 중심으로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고, 신규 편성자, 편성 누락자, 제외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민방위 자원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방위대별 편성실태 확인·점검, 자원 변동사항 관리, 제외자 적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비상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민방위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연차별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및 저연차 대원(1~2년 차)은 집합교육을 통해 기본소양과 실전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고연차 대원(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원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 통지 절차 간소화와 전자화, 교육 일정 선택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대원의 참여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22~2026 민방위대 편성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2022년	1,021	946	35	40
2023년	1,009	896	50	63
2024년	1,117	1,016	39	62
2025년	997	880	50	67
2026년	1,231	1,098	53	80

민방위 대원별 교육시간

단위 : 명

구 분	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함평군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군민의 생명 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를 확보·운영하고 있으며, 반기별 점검, 수질검사, 장비 보관·폐기관리 등을 통해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대피시설은 함평읍 지하시설을 중심으로 지정·관리하고, 시설별 실제 대피인원 지정, 유도요원 배치, 비상연락망 구성, 안내·유도표지판과 비상용품함 정비를 통해 대피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대상인구* (명) 함평읍	소요기준(㎡)	확보량			
		개소	면적(㎡)	확보율(%)	수용인원(명)
2022년	8,170	16	6,517	79.8	6,517

* 대상인구 : 해당 읍면동 전체 인구, 소요기준(1인 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대상인구(명)	소요량(톤)	확보량		
		개소	톤수	확보율(%)
29,996	204	3	550	269

민방위·화생방 장비 현황

구 분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비 고
민방위장비	181점	221점	122%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화생방방독면	1,191개	2,343개	196%	KS M 6685, 일반방독면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관리팀장 **김상욱** | 담당자 **송원종**

3-4 원전사고 등 특수재난 대비를 위한 방사능 방재체계 운영

우리 군은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과 같은 특수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방사능 재난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평시부터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협의 및 점검을 통해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방사선 비상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사능 측정장비 및 개인 보호장비 등 필수 방재물자의 확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동형 방사선 측정기, 방호복, 제염장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비축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비의 즉시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피해 확산 방지 능력을 강화하였다.

군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교육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 교육과 홍보를 통해 방사능 재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훈련과 안내를 병행하여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피 유도를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 해소와 질서 있는 대응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사능 방재체계 운영은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방사능 방재체계를 고도화하고,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조치·집중훈련 1



2025년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조치·집중훈련 2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관리팀장 **김상욱** | 담당자 **조기룡**

3-5 24시간 대응 강화를 위한 상황관제 체계 고도화

가.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안전센터의 24시간 유기적 운영관리

함평군은 2025년 7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센터의 유기적 연계 운영으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상시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1,133대의 CCTV를 통해 재난 유형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난상황 모의훈련과 재난 안전통신망 합동훈련을 통해 집중호우, 대설 등 재난 발생을 대비한 재난상황보고, 재난문자 송출, 유관기관 간 상호통신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훈련하여 재난상황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상황관제팀장 **윤총애** | 담당자 **윤석 외 2**

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고도화 시스템 구축

함평군 안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제시스템으로 고도화 하기 위해 침입, 배회, 장시간 체류, 군집에 대하여 선별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와 관련 군은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스마트관제를 위하여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특교세 1.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국비 8, 군비 2)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국비 6.5, 군비 6.5)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국비 2, 도비 0.6, 군비 2.4) ▲저화질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국비 3.3 도비 4, 군비 6.5) 등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범죄·사고 대응 및 관제영역을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안전센터 CCTV 관리현황 단위 : 대

계	재난관리				방범		어린이		불법 주정차	야생 동물
	재난	산불 감시	불꽃 감지	노후 교량	방범	시설 관리	학교	보호 구역		
1,112	217	16	32	33	483	64	110	92	25	40

앞으로 안전센터의 스마트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2030년까지 전체 CCTV 80%까지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제역량 제고와 지역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상황관제팀장 **윤총애** | 담당자 **윤대륜**

3-6 군민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대응 훈련 강화

가. 군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역량 강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폭염, 대형화재,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재난 양상이 복합화·대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재난관리 역량과 군민의 자율적 안전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군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업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함으로써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연도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2023~2025)

실적년도	안전영역	세부 안전영역	교육내용	참가인원
2023년	화재안전	화재예방, 화재대비, 화재진압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 교육	3,348명
	생활영역	청소년	안전체험	504명
	보건안전	자살예방, 금연, 감염병 예방 등	생명지킴이 양성 및 예방교육 · 환경조성	2,919명
소계(2023년)				6,771명
2024년	화재안전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예방	1,200명
	화재안전	화재대피 · 화재진압	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 진압교육	1,948명
	교통안전	이륜차안전	오토바이 안전 등어르신 안전교육	10명
	자연재난 안전	재난대피	지진대피 행동요령	25명
	보건안전	식중독	마을회관 등 식중독 예방교육	203명
		중독안전	흡연 · 음주 상담 및 클리닉	515명
		감염병 대처	진드기 등 안전취약계층 예방교육	1,607명
		자살예방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교육	205명
소계(2024년)				5,713명
2025년	시설안전	피난시설	완강기 사용교육(소방안전체험장)	1,950명
	화재안전	화재 예방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1,500명
	전기 · 가스 안전	전기 안전	겨울철 화재안전교육	350명
		가스 안전	겨울철 화재안전교육	50명
	여가활동 안전	물놀이 · 수상안전	119수상구조대 운영	100명
	교통안전	보행안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30명
		자가용 안전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안전교육	485명
		대중교통 안전	함평지역 교통안전 캠페인	60명
	재난안전	기후성 재난	폭염대응 생활안전순찰	2,601명
		지질성 재난	지진대피 훈련	90명
		생물테러 대처	생물테러 대국민 홍보 캠페인	300명
		방사능오염 예방	2025 한빛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106명
	범죄안전	폭력 · 성폭력 예방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예방교육	910명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402명
			2025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300명
			2025년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교육	34명
			2025년 드림스타트 아동학대 예방 교육	118명
	보건안전	식중독안전	마을회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교육	2,808명
		유해식품 안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	7명
	중독안전	흡연 · 음주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절주상담 및 교육	3,396명
	감염안전	감염병 안전	경로당 감염병 예방교육	1,793명
	구조 · 구급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	7,026명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98명
	자살예방	자살예방 및 대처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950명
소계(2025년도)				25,464명

나. 함평군 안전한국훈련 추진결과(2022~2026)

함평군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였다. 훈련은 지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판단회의, 유관기관 상황전파, 주민대피,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재난대응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군부대, 한국전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기관별 임무와 협업체계를 확인하였으며,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사항은 위기관리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완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재난 발생 초기의 상황전파 체계와 현장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주민대피 및 취약계층 보호, 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응급복구 전환 등 실제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안전한국훈련 연도별 실적표

단위 : 명

연도	훈련유형	훈련장소		참여기관	주요내용
		토론훈련	현장훈련		
2022	복합재난 (지진 · 다중밀집시설 화재)	재난종합상황실	무지개장애인근로사업장	소방, 군, 경찰 등 7개 기관	지진 및 피난약자 근로시설 화재대응
2023	복합재난 (테러 · 다중밀집시설 화재)		함평문화체육센터	소방, 군, 경찰 등 7개 기관	테러에 따른 화재발생현장대응 훈련
2024	산불(상시훈련 연계)		모악산 치유센터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방, 경찰 등 11개 기관	산불진화 통합훈련병행 종합대응
202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종합상황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훈련규모 축소)		소방, 경찰 등 3개 기관	다중밀집시설 화재에 대한 도상훈련다중밀집시설 화재에 대한 도상훈련



2022년 안전한국훈련 실시(토론훈련)



2022년 안전한국훈련 실시(무지개장애인근로사업장)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토론훈련)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함평문화체육센터)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안전관리팀장 **김상욱** | 담당자 **조중근**

04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4-1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함평군은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군정 전반의 중대재해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중대재해업무 총괄부서(중대재해팀)를 신설하였다.

총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및 체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무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청 실과소, 읍면, 직속기관과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부터 개선, 사후관리 관리체계를 마련,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법령과 지침을 반영한 안전보건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중대재해팀장 **정국진** | 담당자 **박재환**

4-2 사전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

함평군은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과 선제적 개선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재해 발생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매월 3회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상시화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상시 발굴하였으며, 즉각적인 보완 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매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하고 관리 수준을 정밀 진단하

였다.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은 이행 대책 수립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현장 실천력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정기 안전보건 점검과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유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22. 7. ~ 12.	2023년	2024년	2025년
안전보건 점검	60	120	122	157
정기 위험성평가	211	217	245	168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중대재해팀장 **정국진** | 담당자 **이주연**

4-3 현장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시설·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함평군은 공공시설 및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청 실과소, 읍면 등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2023년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상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조직 운영과 현장 대응체계 정착에 주력하였다.

우선 공공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등 군 관리대상 시설 전반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시 즉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였다. 특히 추락, 협착, 감전, 화재 등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장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수칙 이행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공공시설 및 사업장 내 안전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현장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부서별 1:1 맞춤형 컨설팅 실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중대재해 예방교육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중대재해팀장 **정국진** | 담당자 **박재환**

4-4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교육 및 점검 강화

함평군은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밀착형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매년 현업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재해 사례 공유, 작업별 안전수칙, 응급처치법, 근로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하였다. 정기교육 외에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 전환 대상자, 특별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추진



전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추진

또한 매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회의(TBM)을 통해 작업 시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고도화와 점검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중대재해팀장 **정국진** | 담당자 **이주연**

4-5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보건관리

함평군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유해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자 매반기마다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따라 유해인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적정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현장 여건을 즉시 개선하였다.

또한 유해인자 노출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힘썼으며, 검진 이후에도 개인별 맞춤형 사후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근로자 건강상담 및 의견청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시 작업환경에 대한 근로자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매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렇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음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노사가 소통하며 사고를 예방하는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유해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모든 종사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함평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 중대재해팀장 **정국진** | 담당자 **이주연**

제10절
일반행정 · 혁신 분야

1 군정 기획과 성과관리 혁신
2 재정·예산·정책조정
3 감사·청렴·법무·혁신
4 홍보·기록관리
5 조직·인사·후생복지·소통행정
6 디지털행정·통계·민원·재산관리

01

군정 기획과 성과관리 혁신

1-1 민선8기 공약사항 정기점검을 통한 이행관리 강화

함평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6대 분야 5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에 집중하였다.

공약사업은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공약의 종합 이행률은 95.1%로 나타나 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완료 15건, 완료 후 계속추진 26건, 정상추진 18건으로, 다수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다.

재정 측면에서도 임기 내 사업비 3,304억 원 중 2,084억 원을 집행하여 63.1%의 집행률을 보이며,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의 집행 성과를 달성하는 등 공약사업의 실행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공약이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주민참여형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약이행 점검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 체감형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이와 같은 공약 관리 및 이행성과는 민선8기 군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향후 지역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8기 함평군수 공약목록 (6대분야 59개사업)

분야	공약번호	사 업 명
지역경제	가-1	금호타이어 이전 및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
지역경제	가-2	해보농공단지 확장 배후 산업단지 조성
지역경제	가-3	나산·해보·월야면 배후 전원주택단지 육성
지역경제	가-4	농공단지 내 기숙사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역경제	가-5	저탄소·친환경 기반 농공단지 구축
지역경제	가-6	빛그린산단·동함평산단 연계 비즈니스센터 설치
지역경제	가-7	함평천지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경제	가-8	정주여건·생활기반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가-9	함평읍 대규모 경관조성사업
농축수산업	나-1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지원
농축수산업	나-2	저탄소 친환경농업 생태마을 육성
농축수산업	나-3	함평군 특산품 개발 지원(유기농 쑥)
농축수산업	나-4	함평천지 농축산물 유통·판매 지원
농축수산업	나-5	스마트팜 보급사업 확대
농축수산업	나-6	고소득 작목·특화 품목 육성 지원
농축수산업	나-7	한우 ICT 축사관리시스템 구축
농축수산업	나-8	수산 양식장 스마트화 추진
농축수산업	나-9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농축수산업	나-10	다각적 판매망 구축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농축수산업	나-11	함평천지 한우·장어 전문식당 육성
농축수산업	나-12	함평천지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
농축수산업	나-13	고품질 TMF사료 생산시설 구축
농축수산업	나-14	어촌뉴딜300사업 차질 없는 추진
농축수산업	나-15	양파·마늘 생산비 보전대책 추진
농축수산업	나-16	일반벼 전량 매수 지속 추진
농축수산업	나-17	귀농·귀촌인 체류형 임대주택 제공
농축수산업	나-18	귀농·귀촌인 맞춤형 소규모 지원
농축수산업	나-19	함평만 연안 오폐수처리시설 건설
농축수산업	나-20	외국인 노동자 숙소 권역별 설치

분야	공약번호	사업명
문화·관광·체육	다-1	동부권역 숲세권 인프라 강화
문화·관광·체육	다-2	함평만 해안도로 가로수길 조성
문화·관광·체육	다-3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숙박시설 마련
문화·관광·체육	다-4	체류형 관광지 조성
문화·관광·체육	다-5	함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문화·관광·체육	다-6	문화예술인 및 동호인 활동 지원
문화·관광·체육	다-7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문화·관광·체육	다-8	문화예술공간 확충(문화예술회관)
문화·관광·체육	다-9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보건·복지	라-1	어르신 노인성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	라-2	노인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복지	라-3	여성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복지	라-4	다문화가족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복지	라-5	아동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복지	라-6	청소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보건·복지	라-7	장애인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구축·운영
교육·행정	마-1	함평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속 추진
교육·행정	마-2	읍면별 유휴시설 활용 평생학습 확대 운영
교육·행정	마-3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운영
교육·행정	마-4	인재양성기금 장학금 확대 지원
교육·행정	마-5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교육·행정	마-6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교육·행정	마-7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교육·행정	마-8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는 운영
교통·SOC	바-1	국도23호선(함평~영광) 위험구간 선형개선사업
교통·SOC	바-2	함평만 해안도로 및 경관 조성
교통·SOC	바-3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
교통·SOC	바-4	도시가스 보급 확대
교통·SOC	바-5	함평읍 기각사거리 주변 침수예방사업
교통·SOC	바-6	농어촌버스 광주노선 확대·개편 운행

서울일보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014면

함평,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 10일 함평군이 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정보공개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지난 2월부터 1차·2차 평가를 진행했다. 함평군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마련 ▲어르신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일반벼 전량 매수 ▲인재양성 장학금 확대 ▲농공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배후 전원주택단지 조성 ▲먹거리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동부권역 숲세권 인프라 강화 ▲함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으로, 총 59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평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약 이행을 위해 군민 15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 중이며, 2023년 말까지 76.3%의 높은 공약 진도율을 달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약 이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승원 기자

보도자료(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모성환**

1-2 예산성과지표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 자체평가 체계 구축

함평군은 2024년부터 자체평가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방식을 본격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예산성과지표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목표달성도와 지표의 적정성·도전성·대표성 등을 함께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성격평가, 주요업무 정성평가, 공통지표, 기관장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체계를 운영하여 정량성과와 정성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였고, 2026년에는 지표유형별 환산계수를 도입하고 공통지표와 가·감점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였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함평군은 단순 실적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차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성과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모성환**

1-3 대외평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합동평가 총력 대응

함평군은 대외평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평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평가 대응을 단순한 실적 제출이 아닌 전 부서가 참여하는 조직적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월별 실적 점검과 부진지표 집중관리 등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지표별 담당부서 책임제를 기반으로 정량지표는 초과달성을 목표로 관리하고, 정성지표는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발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실적 기준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지표 80개 중 77개를 달성하여 96.25%의 높은 달성률을 기록하였으며, 정성지표 14개 전 지표가 우수사례로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성평가에서 전라남도 내 1위, 정량평가 상위권을 기록함으로써 정성과 정량을 종합한 최종 평가에서 도내 7위를 기록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고,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포함한 총 3,8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다.

또한 민선8기 기간 동안 정부합동평가 순위가 2022년 18위에서 2023년 17위, 2024년 11위, 2025년 7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이어, 2026년 실적에서는 도내 1위를 달성하고 상사업비 및 포상금 총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외평가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지표를 보완하고 이를 차년도 전략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김유경**

1-4 전략적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

함평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역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증가하는 대규모·패키지형 공모사업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응모 전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여건,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공모 동향을 상시 관리하여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컨설팅,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모사업 계획의 전 부서 공유, 군비 부담 사업 사전 협의, 군의회 보고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운영하고, 추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5년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22건이 선정되어 1,538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중 국비 749억 원, 도비 102억 원을 확보하여 단일 연도 기준 군정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성과를 기록하였다.

특히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비사업과 지역특화 재생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이 다수 선정되어 재해 예방, 정주여건 개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함평군은 단순한 외부 재원 확보를 넘어 전략적 사업 발굴과 공모 선정이 연계된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김유경**

02

재정 · 예산 · 정책조정

2-1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지방재정 운영 추진

민선8기 함평군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지연과 국제 분쟁 등의 영향으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안전, 지역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농가 소득 안정, 취약계층 복지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말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698억 원을 적립하여, 2023년 지방교부세 감소(395억 원 규모)에 선제 대응하였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 강화,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재원 확충에 힘썼으며, 그 결과 세외수입은 2024년 203억 원, 2025년 260억 원을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한편 지방보조사업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 성과 및 재정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 사업은 재검토 또는 축소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관행적·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22년~2025년간 총 54건, 약 31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또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수, 연구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과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2025년간 총 21건(적정 7, 조건부 14)을 심사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 및 사전 검증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함평 민선8기 재정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최종예산	621,366	618,538	608,497	655,838

앞으로도 함평군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균형이 있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예산팀장 **채화미** | 담당자 **이보라**

2-2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적 국·도비 확보 활동 강화

함평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비 확보를 군정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재원 확보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부서별 주요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 및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기획 단계부터 국비 반영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필요성·정책 부합성·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군수 주재 국고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중 수시로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국고 건의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

특히 중앙부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체계를 체계화하였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선정 가능성을 제고하고, 대형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또한 국가 예산 편성 순서와 기간에 맞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손불면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고막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품질쌀 유

통 활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국비 확보 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국비 확보 건의 활동



광전매일신문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006면

함평군, 국비 확보 총력… 국회 방문 전방위 건의 활동 전개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한다.

함평군은 3일과 4일 이틀간 2026년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왔다고 4일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개호·신정훈·문금주·조계원·안도걸·정진욱·전종덕·박정현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함평의 핵심 현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함평군의 주요 사업을 담은 국회 대응 서면질의서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군이 건의한 주요 핵심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424억원) ▲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벨리 조성(6,754억)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129억) 등 3개 사업 총사업비 7,190억 원에 대해 35.1억 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현재 함평군은 ▲손불면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88억 원) ▲해보면 중불독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85억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170억 원) ▲석성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135억 원) ▲월야면 몇그린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33억 원) 등 총 75개 사업, 666억 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상태다.

군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 활동을 이어가, 함평군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군민이 행복한 희망찬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국비 확보 건의 활동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예산팀장 **채화미** | 담당자 **윤재형**

2-3 행정효율화·재정절감 위한 시책일몰제로 업무다이어트 추진

함평군은 재정여건 악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효율적·관행적 사업을 정비하는 시책일몰제를 도입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4~2025년 추진계획을 수립·시달하여 기존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사업목표 달성 여부, 투자 대비 성과, 중복성 및 행정환경 변화 등을 기준으로 일몰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자체일몰과 심의일몰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4년에는 17개 사업을 정비하여 약 1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25년에는 추가로 12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확정하여 약 75백만 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성과 미흡 사업, 중복사업, 수요 감소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절감된 재원을 군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시책일몰제 운영은 단순한 사업 축소를 넘어 행정 전반의 '선택과 집중' 기반을 마련한 제도적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군정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기획정책팀장 **박철근** | 담당자 **모성환**

2-4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 강화 및 세원관리 고도화

함평군은 민선8기 동안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의 전반적인 고도화와 세원관리의 정밀화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특히 납세 편의 증진과 체납액 최소화를 양 축으로 삼아,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안내 및 소통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2022년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부 안내, 환급 통지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고지서 송달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기존 문자메시지 대비 낮은 비용 구조를 통해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었으며, 납기일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 발생을 예방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방세 안내 책자 및 감면 안내문 제작·배포, 마을세무사 및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히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세무상담 지원은 세정 행정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세원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미신고 상속토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상속취득세 및 신증축 건축물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였다. 또한 중과세 대상 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신규 및 전입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자발적 성실 납세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선제적 세원관리 정책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이어졌다.

셋째, 체납액 징수 분야에서는 단계별·집중형 전략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월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담 조직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22년~2025년에 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도 단위 평가에서도 연이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2025년에는 경기침체와 고액 체납 증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징수 체계를 유지·강화하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재산조사와 분할납부 유도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알림톡과 문자 발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목표 대비 다소 미달에도 불구하고 도 평균을 상회하는 징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였다.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계	목표액(A)			징수액(B)			징수비율(B/A)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2022	44,244	18,300	25,944	45,259	18,392	26,867	102.3	100.5	103.6
2023	42,811	16,721	26,090	47,341	20,462	26,879	110.6	122.4	103
2024	42,934	18,164	24,770	40,819	14,191	26,628	95.1	78.1	107.5
2025	41,634	15,539	26,095	42,744	16,220	26,524	102.7	104.4	101.6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함평군 지방세 행정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납세 편의 증진, 세원관리 정밀화, 체납징수 역량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계는 한층 고도화되었으며, 이는 곧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도 함평군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함평군 지방세 주요성과 목록

단위 : 원

연도	주요내용	성과
2022년	2022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20,000,000원
2022년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장려상, 20,000,000원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장려상 수상
2023년	2023년 상반기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18,000,000원
2024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특별상 수상
2024년	2024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15,000,000원
2025년	2025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장려상, 10,000,000원


대한일보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009면

함평군, 지방세정 연찬회 '장려상' 수상 쾌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稅)상' 주제로 참가

함평군이 '2022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지방세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함평군은 22일 "재무과 정예랑 주무관이 지난 17일 순천시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 참가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稅)상'을 주제로 참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공유를 통한 제도 개선으로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세 6개 시·군, 세외수입 7개 시·군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연구과제를 발표했으며 창의성, 발표력, 기획력, 참여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가 결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춘 세원 발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평=나광주 기자

2023년 세정연찬회 장려상 수상(보도자료)



2023년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장려상

추진부서 재무과장 **정순용** | 세정팀장 **이수인** 부과팀장 **김보양** 징수팀장 **김경인** | 담당자 **장기도** **류정옥** **정윤재**

2-5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상생 기반 구축

함평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무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 초기부터 기부금 모금과 함께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답례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함평군은 출향 인사와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안정적인

모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간 목표액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2024년 475,632,900원, 2025년 443,156,400원을 각각 기록하며 2년 연속 목표 수치를 상회하였다. 아울러 주요 기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기부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금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군의 운영 노력이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답례품 운영 측면에서는 기부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 주력하였다. 나비쌀을 포함하여 선호도가 높은 제철 딸기와 품질이 검증된 기름세트 등 함평의 특색이 담긴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답례품목을 구성하였다. 함평군은 공급업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배송과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재기부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기금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 공동 빨래방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가사 편의를 돕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대형 세탁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신광면 보전마을이 '전남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특화 자원을 연계한 기금 사업의 다변화도 도모하고 있다. 군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함평 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 지역 대표 행사를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는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축제 현장에서의 대면 홍보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단발성 참여를 넘어 함평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함평군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부자가 보람을 느끼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답례품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기부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유효한 재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기금사업 '마을 공동 빨래방'



전남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기탁 추진



고액기부자 기탁식 진행

추진부서 재무과장 **정순용** 세정팀장 **이수인** 담당자 **최민정**

03

감사·청렴·법무·혁신

3-1 감사 역량 전문성 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의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

가. 종합감사

종합감사는 기관의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감사이다. 우리 군은 3년 주기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적발 중심의 처벌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군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연도별 종합감사 실적

연도별	횟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기타	계	회수	추징	부과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15	304	203	99	2	53,889	37,235	1,065	948	14,641	3	0	0	3
2022	3	61	38	21	2	11,325	5,296	1,065	-	4,964	-	-	-	-
2023	3	58	36	22	-	9,695	6,728	-	-	2,967	3	-	-	3
2024	4	78	61	17	-	10,750	10,650	-	21	79	-	-	-	-
2025	4	85	53	32	-	20,018	12,490	-	897	6,631	-	-	-	-
2026	1	22	15	7	-	2,101	2,071	-	30	-	-	-	-	-

※ 2022년도 : 7. 1. ~ 12. 31. / 2026년도 : 1. 1. ~ 3. 31.

나. 특정감사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이다. 우리 군은 주요 시책사업을 비롯하여 세출·세입·민원·공사 등 특정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산하 전 부서(기관)를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나 민원 발생 등 필요시 특정 사안에 대해 수시감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세원 누락방지 등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고 있다.

연도별 특정감사 실적

연도별	횟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기타	계	회수	추징	부과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22	31	26	5	1	117,083	116,575	-	-	508	32	6	14	12
2022	3	1		1		254	-	-	-	254	3	1	2	-
2023	5	29	24	3	-	6,876	6,622	-	-	254	12	2	4	6
2024	5	1	-	-	1	20,534	20,534	-	-	-	9	2	6	1
2025	8	-	-	-	-	-	-	-	-	-	8	1	2	5
2026	1	-	2	1	-	89,419	89,419	-	-	-	-	-	-	-

※ 2022년도 : 7. 1. ~ 12. 31. / 2026년도 : 1. 1. ~ 3. 31.

다. 공직감찰

공직감찰은 비리연루,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복무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우리 군은 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기에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회계·세무·건축·환경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민원 발생에 따라 수시 감찰을 병행하여 적법·공정한 업무 추진 및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공직감찰 실적

연도별	횟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기타	계	회수	추징	부과	기타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25	213	-	-	213	-	-	-	-	-	1	-	1	-
2022	5	51	-	-	51	-	-	-	-	-	-	-	-	-
2023	6	-	-	-	-	-	-	-	-	-	-	-	-	-
2024	6	22	-	-	22	-	-	-	-	-	-	-	-	-
2025	6	110	-	-	110	-	-	-	-	-	1	-	1	-
2026	2	30	-	-	30	-	-	-	-	-	-	-	-	-

※ 2022년도 : 7. 1. ~ 12. 31. / 2026년도 : 1. 1. ~ 3. 31.

라. 일상감사(계약심사)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후 감사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이다. 우리 군은 3억 원 이상 종합공사(기타 공사 2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용역,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이전 단계에서 타당성, 공법의 적정성, 원가 및 단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도별 일상감사 실적

연도별	건수(건)	요청액(백만원)	평가액(백만원)	절감액(백만원)	절감률(%)
계	850	573,885	564,456	9,429	1.64
2022	149	112,006	109,375	2,631	2.3
2023	215	141,092	139,680	1,412	1
2024	189	141,147	139,545	1,602	1.1
2025	224	140,827	137,563	3,264	2.3
2026	73	38,813	38,293	520	1.3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감사팀장 **곽명숙** | 담당자 **양은영, 황재환**

3-2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반부패·청렴실천 협의체 운영

함평군은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명예감사관과 반부패·청렴실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이는 공직사회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내 유관 기관과 군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였다. 또한 정기 회의와 협력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군민 참여 기반의 체감형 청렴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위촉식



2025년 함평군 반부패·청렴실천 민관협의체 회의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감사팀장 **곽명숙** | 담당자 **고휘영**

3-3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부패 ZERO 청렴 함평 실현

함평군은 공직사회 내 관행적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내부 청렴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강화하여 청렴의식 내재화에 힘썼다. 또한 익명 신고 및 상담체계를 활성화하여 내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구성원 간 신뢰 기반의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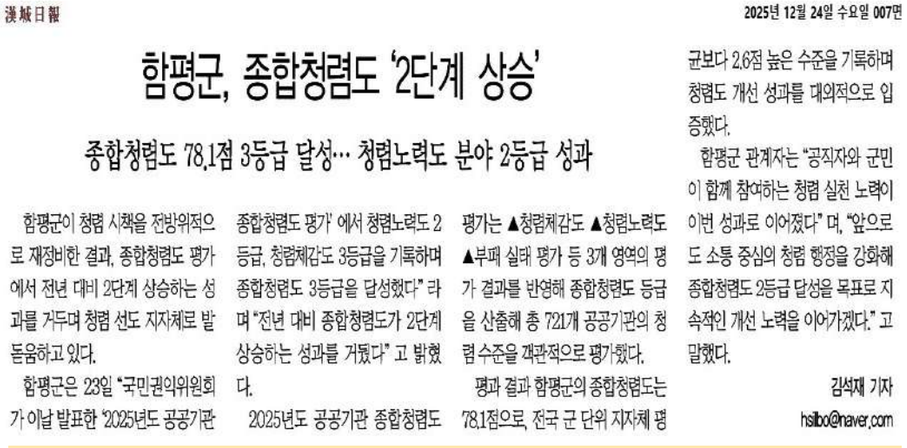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청렴교육 강화, 내부 소통 확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자율적인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과 부패 사전 예방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향후에도 조직문화 진단과 분석 기반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부패 ZERO 청렴 함평'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 및 청렴교육 추진 실적

단위 : 등급, 회, 명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4	2	5	3
청렴교육 실시	2	2	2	2
교육 참여 인원	604	644	613	623



漢城日報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007면

함평군,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

종합청렴도 78.1점 3등급 달성… 청렴노력도 분야 2등급 성과

함평군이 청렴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재정비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며 청렴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함평군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라며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해 총 721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평과 결과 함평군의 종합청렴도는 78.1점으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평균보다 2.6점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청렴도 개선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실천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소통 중심의 청렴 행정을 강화해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재 기자 hslbo@naver.com

보도자료(한성일보)

추진부서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감사팀장 **곽명숙** | 담당자 **고휘영**

3-4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한 부패취약분야 분석 기반 청렴시책 추진

함평군은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석 기반 청렴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정책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특히 설문조사 및 비대면 FGI 조사를 통해 조직 내외의 부패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수립·추진하였다. 또한 취약분야 집중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반복되는 부패요인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도 분석 고도화를 통해 보다 정밀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패취약분야 분석 기반 청렴시책 이행실적

단위 : 개수,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청렴시책 과제 수	25	31	30	31
이행률	100	100	100	100

추진부서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감사팀장 **곽명숙** | 담당자 **고휘영**

3-5 군민 고충 해소를 위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함평군은 군민의 생활 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는 군민 중심 행정 구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이다.

특히 고충민원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하여 현장 중심 조사 및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다. 또한 처리 결과를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군민 체감형 민원 해결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과 접근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6년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

漢城日報 2026년 5월 8일 금요일 007면

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식

군민 권익 보호, 고충 민원 해결

함평군이 군민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마련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은 7일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직 경험자, 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30년 4월 말까지 4년간이며, 임기 동안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위원회는 앞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 민원 조사를 지원하고, 조사한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존 민원 처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듣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재 기자 hslbo@naver.com

보도자료(한성일보)

추진부서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감사팀장 **곽명숙** | 담당자 **고휘영**

3-6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현황

함평군은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법령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 · 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과의 체계적인 연동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춘 자치법규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자치법규 정비를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닌 행정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로 인식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규제나 과도한 제한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했다. 특히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제처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입안 단계부터 위임 범위 일탈이나 근거 없는 규제 생성을 철저히 차단하며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기했다.

이를 위해 초안 심사부터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법제 심사, 조례 · 규칙심의회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는 '5단계 정밀 점검 체계'를 확립하여 법적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검토 시스템은 자치법규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으며, 함평군은 앞으로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명한 자치입법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자치법규 정비실적

단위 : 건

구 분		관리 현황	정비현황			
			계	제정	개정	폐지
2022	계	514	102	25	74	3
	조례	416	87	24	62	1
	규칙	98	15	1	12	2
2023	계	566	93	57	31	5
	조례	468	79	55	21	3
	규칙	98	14	2	10	2
2024	계	588	70	23	46	1
	조례	489	59	22	36	1
	규칙	99	11	1	10	-
2025	계	600	71	17	49	5
	조례	502	57	17	36	4
	규칙	98	14	-	13	1

추진부서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법무팀장 **신우임** | 담당자 **김송이**

3-7 신속·공정한 쟁송 업무 처리

함평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쟁송 업무 처리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다.

특히 쟁송 업무를 민원에 대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행정 처리 과정이 법과 원칙을 준수

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군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소통의 과정으로 인식하여, 처리 기한 단축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집중하였다.

또한 법률 전문가를 함평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쟁송 발생 초기부터 종료 단계까지 정밀한 법리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송무 교육을 통해 행정 현장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함평군 행정심판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기각	각하	인용	취하	계류중	비고
2022	12	10	-	2	-	-	
2023	17	5	11	1	-	-	
2024	21	13	1	3	4	-	
2025	10	6	-	3	1	-	

추진부서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법무팀장 **신우임** | 담당자 **김충효**

04

홍보·기록관리

4-1 군정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 강화

가. 추진방향

민선 8기 군정홍보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전략적 광고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통해 군정 주요 시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군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군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축제, 각종 행사에 대해 단계별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군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나. 홍보 현황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홍보를 위해 1일 평균 5~8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450여 개 언론사에 보도·영상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시기별·분야별 기획 및 특집 보도를 통해 군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을 심층 홍보하였으며, 축사 및 언론 인터뷰 자료 작성 지원으로 대외 소통 기능도 강화하였다.

특히 영상 콘텐츠는 군정 정책과 지역 소식을 군민은 물론 출향인, 관광객, 외부 투자수요층 등 다양한 대상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SNS 게시를 통한 확산 효과로 군정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군정뉴스 월 2편, 「함놀아볼까」 월 1편, 「EPISODE」 월 1편 등 연간 50여 편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연간 10~15회 TV프로그램 유치와 주요 행사·축제 포토데이(연 2회) 운영으로 전국 단위 홍보 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시책·축제·관광지·특산품에 대한 언론매체 광고를 통해 지역 인지도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힘썼다.

언론매체 광고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	해외	전광판	대중교통
매체수	178	6	2	122	38	2	6	2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홍보 영상



함평군 관광 홍보 영상



함평군 공식 SNS 채널(인스타그램) 운영



함평군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추진부서 |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 홍보팀장 **이계수** | 담당자 **김대우**

4-2 행정 역사자산 보전을 위한 군정 기록물 체계화와 보존 강화

함평군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축적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기록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였다. 2020년 기록관 준공 이후 물리적 보존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과 서고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비전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이원화·연계 운영함으로써 통합적 기록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기록물의 생산부터 이관, 평가·폐기, 보존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 역사자산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확립하였다.

기록물 관리의 체계성 강화를 위해 생산부서 중심의 분산관리에서 기록관 중심의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기록물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여 부서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다. 또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을 통해 전자기록물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기록물 보유현황의 정기적 점검과 함께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회를 운영하여 불필요 기록물은 엄격히 폐기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아울러 시청각자료, 행정박물, 간행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의 지속적인 이관을 추진하고, 기록관리 교육·지도점검·컨설팅을 병행하여 전 직원의 기록관리 역량을 제고하였다. 특히 기록관리 우수부서 선정, 맞춤형 교육, 재난대비 교육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자율적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 보존 중심의 기록관리에서 나아가 행정 역사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향후 군정 기록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록관 보존서고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록물 보존체계 확립



특수유형 기록물 분류·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기반 강화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서무단체팀장 **홍은득** | 담당자 **서향희**

05

조직·인사·후생복지·소통행정

5-1 함평군 MZ세대 공직자 대상 혁신주니어보드 운영으로 조직문화 혁신

함평군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젊은 공직자 중심의 혁신주니어보드를 지속 운영하며, 상향식 정책 제안 기반을 확대해왔다. 특히 팀별 활동을 통해 함평군 현안과 업무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혁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도록 운영하였다.



제2기 혁신주니어보드 발대식



혁신주니어보드 팀별 활동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워크숍

각 기수별로 도출된 아이디어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전 부서에 공유하고, 공무원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정책 제안으로 제출하는 등 제도화된 검토 절차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아이디어 제시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 문제 해결 중심의 업무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혁신주니어보드 성과공유회

또한 주니어보드 운영 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 수평적 의사소통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젊은 공직자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적응력 향상과 조직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함평군은 혁신주니어보드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와 연계함으로써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 혁신 기반을 강화하였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노우석**	자치협력팀장 **정갑인**	담당자 **이지영**

5-2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감 맞춤형 후생복지 추진

가. 여가활동 지원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활안정 및 안전보장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 인원		910	962	962	964	971
소요 예산	합계	1,255,808	1,349,650	1,383,320	1,408,704	1,464,705
	복지포인트	1,045,845	1,151,768	1,172,161	1,178,876	1,200,539
	단체보장보험	209,963	197,882	211,159	229,828	264,166

2) 편편라이프를 위한 여가활동비 지원

전직원 1인 1취미 갖기 운동 지원으로 직원들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워라밸(work-life-balance) 모델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가활동비 지원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여가활동비 지원 현황

지원분야	분야별 선발 인원				비 고
	합 계	취미활동	건강증진	역량강화	
합 계	100명	29명	43명	28명	1인당 /200천원 지원
50세 이상 ~	24명	6명	10명	8명	
40세 ~ 50세	23명	8명	10명	5명	
40세 미만	53명	15명	23명	15명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 동호회를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로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과 사기를 진작시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각종 친선 경기로 교류 활성화에 일조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장동호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축구	산악회	야구	골프	트래킹	배구	모듬북	요가	마라톤
계	609	88	117	107	79	72	80	20	12	34
2022	70	15	14	18	12	-	11	-	-	-
2023	91	14	22	17	12	16	10	-	-	-
2024	152	19	30	21	16	16	17	10	12	11
2025	159	20	30	27	18	20	23	10	-	11
2026	137	20	21	24	21	20	19	-	-	12

나. 가족친화 환경 조성

1)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저출산 해소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 보장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지원 대상	지원내역		
		학부모	보육아동	보육비 지원
2022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36	45	77,495
2023		34	40	72,564
2024		30	33	53,565
2025		29	33	53,565
2026. 4. 현재		23	27	8,290

2)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가화만사성"

부모 및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일과 가정, 양측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직장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가화만사성" 지원 현황

지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비 고
지원 인원	53명	81명	80명	80명	80명	1가족당/ 300천원 지원

3) 출산축하 및 수능자녀 직원 격려

직원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에서 중요한 순간인 출산과 수능시험을 함께 응원함으로써 조직 내 상호간 배려문화를 촉진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출산 축하 지원

단위 : 명, 천원

지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4. 현재	비 고
지원 대상	13	22	12	33	10	
소요 예산	1,300	2,200	1,200	6,300	2,500	


수능 격려 메시지 및 선물 전달 (2-1)


수능 격려 메시지 및 선물 전달 (2-2)

다. 직원소통·공감 창구 마련

1) 부서별 문화가 있는 날

부서 내 직원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영화, 스포츠 관람,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여 상호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능률 제고에 기여하였다.


부서별 문화가 있는 날(2-1)


부서별 문화가 있는 날(2-2)

2) 직원 생일 축하해요(소통피크닉)

직원들에게 생일축하금 전달 및 생일파티를 열어주는'직원 생일 축하의 날'을 운영하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소통하고 화합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직원 생일축하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지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4. 현재	비 고
지원 인원	447	453	464	482	179	
소요 예산	13,410	13,590	13,920	6,300	5,370	


직원 생일축하해요 소통피크닉(2026, 학교면사무소)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서무단체팀장 **홍은득** | 담당자 **김유빈**

5-3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최근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민원 대응, 현업업무 증가로 인해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지고 있어 마음건강 관리가 단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고용주가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한 근본적인 해결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넘어 표준적 복지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당초 민원담당 공무원에 한정하여 실시하던 심리검사 및 인사혁신처주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외에 군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2026년부터 전문 심리상담가 초빙을 통한 '마음토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직원 심리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직원 심리상담 세부 추진내용

사 업 명	2026년 마음토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비 고
사업내용	직원 심리상담실 정기 운영 및 대면·전화 상담 추진		상담 내용비밀 보장
	운영기간	2026. 3. ~ 2026. 12.	
	운영일시	월 4회, 매주 수요일(공휴일 제외)	

사 업 명	2026년 마음토닥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비 고
사업내용	운영장소	나비어울림센터 2층(동아리실 2)	상담 내용비밀 보장
	상담방법	상담 전 이메일·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예약	
	상담분야	직장문제, 심리·정서, 가족·자녀 문제 등	
소요 예산	20,000천원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서무단체팀장 **홍은득** | 담당자 **김유빈**

5-4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열린 군수실 운영

민선8기 함평군은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였다. 열린 군수실은 민선7기부터 이어져 온 군민 소통 창구로, 군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군수가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행정의 대표적인 소통 제도이다.

열린 군수실은 2022년 8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초 민원실 내 민원상담실에서 진행하던 방식을 군수실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였다. 군수와 소통비서가 참석하고, 필요 시 해당 실과소장이 함께 배석하여 군민 의견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 대상은 함평군민 누구나 가능하도록 개방하였으며, 생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방문·전화·읍면사무소 및 관련 부서를 통한 사전 신청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 접근성과 참여 편의를 높였다.

특히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은 가능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열린군수실 운영을 재개하여 총 2회 운영을 통해 7건의 군민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군민 요구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열린 군수실 운영은 군민과 행정 간 소통의 폭을 넓히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참여행정 기반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군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높이고, 군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밀착형 행정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행정팀장 **문용경** | 담당자 **이한진**

5-5 주민주도 행정기반 확대를 위한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

함평군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기존의 행정 중심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함평형 주민자치회 정책'을 추진하였다.

2022년 12월 함평읍·신광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환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대동면, 2025년 8월 월야면과 2025년 12월 해보면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확대하여 9개 읍면 중 과반 이상인 5개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함평군은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논의 기구를 넘어 실제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주민들의 정책 참여 의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범실시 운영 되어오던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신설: 2026. 4. 14./시행: 2026. 10. 15.)으로 본격 제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자치회 중심의 행정·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함평형 주민자치회 또한 전면전환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안정감있게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함평군의 주민자치회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 발굴 ▲주민 참여 예산 운영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등으로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함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1회 대동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 및 발대식



제3회 함평읍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자치협력팀장 **정갑인** | 담당자 **정현주**

5-6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전라남도가 2021년부터 추진해온 대표 시책 사업으로, 마을의 청정 자원을 관리·보존하며 주민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 자치 기반 사업이다. 선정된 마을에는 연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함평군은 2021년 45개 마을을 시작으로 "내 마을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구호 아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2025년까지 200개 이상의 마을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은 마을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마을활동가를 양성·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마을 문제를 발굴·해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관 개선과 환경정비를 넘어 복지·안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행정·주민·중간지원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러한 체계적 노력은 곧바로 성과로 이어졌다. 2024년 전라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과 2025년 시군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 대상 수상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단순한 마을 경관 개선이나 환경정비를 넘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신뢰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함평군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단순한 행정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



대동면 백련마을 선돌행사(밧줄꼬기) 운영



대동면 내덕마을 어린이 농촌체험장 조성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자치협력팀장 **정갑인** | 담당자 **정현주**

06

디지털행정·통계·민원·재산관리

6-1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성형 AI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

가. AI 및 데이터 활용 행정 기반 마련

AI 이용권을 구입 및 보급하여 행정 업무에 AI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AI 및 데이터 관련 실습·온라인 교육을 매년 추진하여 구성원 스스로 AI 도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행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 수료 인원

단위 : 명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수료인원	177	731	271	

나. 공공 클라우드로 신속한 디지털 기반 마련

「'22년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통해 대표 홈페이지 등 7개 정보 시스템(내부 1, 대민 6)을 전액 국비로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맞춰 정보 자원을 실시간 변환 가능하게 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23.4)에 따라 2025년 클라우드로 운영 중이던 시스템 5종(두레서비스 등)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여 자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데이터 개방으로 실현하는 스마트 행정

1)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 도출, 2025년 CCTV 설치 최적지 도출 및 온나라 문서 자동배부 키워드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하게 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데이터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및 조직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매년 진단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관 종합역량 점수가'24년 53점(개인 46, 조직 59) → 25년 62.91점(개인 61, 조직 64)으로 향상되는 등 개인 및 조직의 데이터 인식도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3) 전국 통합 개방 사업 참여

행안부 주관 2025년 전국 통합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초정밀 버스 실시간 위치정보와 민원실 실시간 이용정보를 개방하여 국민 편익 민간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였다.

※ 2025년 개방 사업 : 2건(초정밀 버스 실시간 위치 정보, 민원실 실시간 이용 정보)

추진부서 | 총무과장 **노우석** | 정보통신팀장 **장정림** | 담당자 **박혜지**

6-2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이용 증가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과 내부망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보안솔루션 도입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부 업무망 등 주요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대응 능력 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정비 및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관리계획 정비와 개인정보파일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점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를 지속 추진하였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단위 : 횟수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6월까지
정보보안 점검	1	1	1	1	1
개인정보보호 교육	1	2	2	1	1
개인정보파일 정비	2	2	1	1	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4	4	4	3	6

추진부서 총무과장 **노우석** 정보통신팀장 **장정림** 담당자 **박소라**

6-3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군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함평군은 디지털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군민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예방하고 군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군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였다.

군민 정보화 교육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산교육장에서 운영되었으며, ITQ 공인강사를 통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기본 교육과 함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 자격취득 과정 등 실생활과 취업에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전화·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수강료와 교재비를 전액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연령과 계층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금융·생활서비스 등 일상 속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5개 과정에 1,1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정보화 교육 기반 확대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군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과 연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하여, 군민 누구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군 군민 정보화 교육 실적

단위 : 천원, 개수

구 분	연도	과정수	예산액	수강인원	비고
정보화교육	계	115	33,190	1,108	
	2025년	23	2,090	384	
	2024년	30	2,240	121	
	2023년	29	16,530	328	
	2022년 하반기	33	12,330	275	

추진부서 총무과장 **노우석** 정보통신팀장 **장정림** 담당자 **박소라**

6-4 정책기반 고도화를 위한 함평형 통계조사 추진

함평군은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함평형 통계조사를 추진하였다.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통계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군정 운영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라남도·함평군 사회조사」, 「함평통계연보」,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정기 통계조사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지역경제, 산업구조 등 군정 주요 분야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발굴하고, 행정 내부자료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정책 수립과 성과관리까지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24년에는 지역 실정에 특화된 「함평군 청년통계」를 최초로 실시하여 청년 인구, 고용, 주거 등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맞춤형 통계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통계 수요를 사전에 반영하고, 조사 결과를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 설계 표준화, 조사요원 교육, 결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공신력 있는 통계 생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함평형 통계조사 추진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군정 주요 정책 수립과 성과관리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총무과장 **노우석** 자치협력팀장 **정갑인** 담당자 **이지영**

6-5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군민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함평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급자 위주의 관행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체질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는 군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설정되어, 하드웨어적인 환경 개선과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법정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최신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365일 연중무휴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군민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에도 서류 발급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간적 제약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민원행정팀장 **임정아** | 담당자 **방정현**

6-6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함평군은 민원 접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물리적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이는 공무원의 안전이 곧 군민에 대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로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민선 8기 출범 이후 강력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결과이다.

제도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 공무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한 '비상벨 핫라인'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1:1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조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계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고, 정기적인 실제 상황 가상 모의훈련을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 조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과 소송 절차를 직접 지원하는 무관용 원칙의 대응 기조를 확립하였다.

함평군은 이러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민원 문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서 보다 건강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일보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914면

함평, 민원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남 함평군이 민원 업무담당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부안군 일원에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2024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개 조로 나누어 실시된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채석강 힐링문화 탐방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에타버스 체험활동 등,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접점을 갖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직원은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서 벗어나 직원 간 소통 등 다양한 힐링 체험으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스로의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상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행복한 조직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승철 기자

보도자료(한성일보)



호남신문 2025년 8월 4일 월요일 004면

함평군, 민원실 안전 강화…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함평군이 민원실 내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비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은 함평경찰서와 협력해 군청 민원실 직원과 청원경찰, 함평읍내파출소 경찰 등 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 통제 ▲비상벨 작동 ▲민원인 대피 및 피해자 구조 ▲경찰 출동 및 연계 대응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실제처럼 숙지하고 점검했다.

특히, 관계기관 간 실시간 협력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호남신문)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민원행정팀장 **임정아** | 담당자 **방정현**

6-7 신속·정확한 인허가지원을 위한 건축지도·건축허가 행정운영

함평군은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특히 복잡한 관계법령과 인허가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문 상담 기능을 확대하며 맞춤형 건축 민원상담체계를 운영하였다.

먼저 군민이 보다 쉽게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축·개발행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다. 매월 읍·면 반상회 등 지역 주민회의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상담과 행정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월 2회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축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건축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왔다.

이와 같은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은 단순 민원응대를 넘어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건축행정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신속·정확한 인허가지원과 군민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부서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건축허가팀장 **송현아**	담당자 **나형엽**

6-8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한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 추진

가. 토지관리

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하고 있다.

함평군은 최근 4년간 지가를 산정한 필지의 70% 이상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 연접 시·군과 지가 협의를 추진하고 토지·주택 간의 특성 일치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34,861필지를 조사하여 산정하였으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함평군 전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0.44%로 전남 평균(0.49%)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신고·검인 처리 현황

단위 : 필지, ㎡

구 분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소재지	지가	소재지	지가
전	월야면 월야리 780-7	144,400	신광면 함정리 221-1	1,490
답	학교면 사거리 991-32	208,800	신광면 삼덕리 912	1,680
임야	월야면 외치리 산74-11	38,700	대동면 연암리 산115	336
대	함평읍 기각리 998-4	1,441,000	학교면 복천리 443-4	3,620
잡종지	함평읍 내교리 824-10	728,700	신광면 백운리 171-9	1,520

2)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현황

단위 : 원/㎡

연 도	계		실거래 신고		검인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계	13,148	46,461,130	8,415	13,662,671	4,733	32,798,459
2023	4,194	31,935,138	2,515	4,167,136	1,679	27,768,002
2024	4,095	6,993,849	2,694	4,272,498	1,401	2,721,351
2025	3,596	5,518,913	2,345	3,849,537	1,251	1,669,376
2026	1,263	2,013,230	861	1,373,500	402	639,730

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명

합 계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25	20	1	1	3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토지관리팀장 **윤 준** | 담당자 **이태령, 김수인**

나. 지 적

지적행정은 국가에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수요자가 편리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적·측량 제도의 혁신 및 지적 공부의 전산화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함평군은 주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개별적 토지의 특성을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정보의 전산화 및 지적자료의 정보 공유로 국기기반사업 및 제반 행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함평군의 토지 현황은 총 면적은 392㎢로써 임야가 180㎢로 전체 면적의 약 46%, 농지가 135㎢로 전체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및 관광, 개발사업 위주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읍면별 토지 등록 현황

2025.12.31. 기준

읍·면	지번수	면적(㎡)
계	240,215	392,072,296.0
함평읍	34,631	40,237,636.3
손불면	36,460	55,190,827.0
신광면	20,900	40,979,484.6
학교면	29,493	46,411,986.1
엄다면	17,554	23,231,892.3
대동면	24,264	56,586,132.1
나산면	28,971	55,558,233.7
해보면	19,526	39,475,410.3
월야면	28,416	34,400,693.6

지목별 토지 현황

2025.12.31. 기준

구 분	필지수	면적(㎡)	구 분	필지수	면적(㎡)
계	240,215	392,072,296.0	철도용지	282	607,112.0
전	47,898	47,471,263.9	제방	2,311	1,605,422.0
답	60,078	87,773,456.0	하천	5,059	10,608,318.8
과수원	152	622,946.3	구거	15,200	10,770,699.2
목장용지	1,355	3,184,760.4	유지	2,324	5,521,698.7
임야	25,750	180,847,934.0	양어장	160	274,489.0
대	28,897	12,684,379.5	수도용지	727	1,162,100.9
공장용지	515	1,952,693.8	공원	158	587,551.1
학교용지	172	829,873.4	체육용지	174	1,874,096.7
주차장	43	83,494.0	유원지	60	409,093.1
주유소용지	33	32,502.0	종교용지	229	165,844.1
창고용지	596	648,733.2	묘지	727	380,289.0
도로	44,809	19,138,502.8	잡종지	2,506	2,835,042.6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지적팀장 **이경자** | 담당자 **최신영**

6-9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종합공부 서비스 제공

100여년전 작성된 종이도면(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 문제점을 안고 도면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적·임야도면의 경계불일치로 토지경계분쟁 및 재산권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도곽, 축척, 행정구역간 전산도면 오류사항을 일제정비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및 3차원 공간정보 기반조성으로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함평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료정비시스템에서 오류 필지를 추출해, 폐쇄 지적(임야)도, 측량원도, 항공영상 등을 통한 기초 자료를 분석한 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자료정비 기능을 이용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접합 결정 및 정비를 진행한다.

2025년에는 함평읍, 손불면의 25개 리를 대상으로 개별지적 3,223필지, 연속지적도 1,252도곽을 정비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개별지적 1,393필지, 연속지적도 1,299도곽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로써 지적공부 오류에 따른 토지이동 처리기간 및 지적측량지연, 중복성과 제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감소하고, 지적공부 오류정비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 데이터의 정확성 향상으로 고품질 종합공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무결성 기본정보 구현으로 도해지적 수치화사업, 지적재조사,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의 국가정책사업 기반이 마련되어 정확하고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추진부서	민원봉사과 **오호석**	지적팀장 **이경자**	담당자 **김현경**

6-10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도로명 주소 및 주소정보체계 구축

기존의 지번 주소 체계는 토지 중심으로 부여되어 실제 건물이나 출입구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위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 구조의 복잡화로 인해 건물의 고층화·밀집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지번 주소만으로는 정확한 위치안내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증가되었다.

화재·응급환자 발생·범죄 신고 등 각종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는 현장 접근성과 위치 식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고 안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주소정보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다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주소 체계 구축이 요구되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주소 체계를 정비하고, 군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초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함평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군민 인지도 제고와 사용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전광판·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주소정보 정비를 병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의 지속적인 설치·정비를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주소정보시설물 현황

2025.12.31. 기준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23,623	3,153	19,157	660	413	240

사물주소판 설치 현황

계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어린이공원
413	3	3	392	1	9	5

추진 실적

2025.12.31. 기준

구 분	건 수	비 고
건물번호 부여	447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3,813개소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612건	(정부합동평가 180%달성)
상세주소 부여	9건	(목표량: 5건)
사물주소 부여	1,233건	(사물주소 29종 중 18종 부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및 보도자료 및 홍보물품(타포린백, 우산, 파스 등)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옥외전광판 및 함평군 유튜브·SNS에 홍보영상을 송출 및 게제하였다. 초등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교육하고, 부동산중개업을 대상으로 상세주소의 활용을 촉구하는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위치 파악이 수월하고 소방·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으로써 함평군민의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6-11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가지점번호체계 구축

국가지점번호사업은 산악지역, 하천변, 해안가 등 건물이나 도로가 없어 일반적인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일반적인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등산객 조난, 수난사고, 산불, 집중호우 및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어렵고 구조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위치표시 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 등산로, 해안 탐방로 및 재난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정비하여 누구나 현

재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지점번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좌표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위치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와 인접한 해양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로·세로 10m 단위의 격자형 좌표 개념으로 구획하고, 각 지점마다 고유한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위치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등산객 조난, 산불, 수난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와 구조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 설치 현황

2025.12.31. 기준

계	함평군	산림청	한국전력	산림조합	기타
240	160	5	23	45	7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지적팀장 **이경자** | 담당자 **정아원**

6-12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가 대상이다.

함평군은 2011년 학교지구를 시작으로 35개 지구, 23,93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6개지구, 2,035필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 진행중이다. 대상지는 경계분쟁이 빈번하거나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크게 차이나는 지

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읍·면별 분포 및 추진율과 토지소유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선정하며, 사전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였다.



주민설명회 개최 (1월)



온라인 주민설명회 (1월)



시군 지적재조사 간담회 (4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실시 (5월, 10월)

또한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정확한 경계 조정을 실시하고, 특히 경계조정 과정에서는 현장 중심의 협의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한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 군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토지소유자 협의회 개최 (8월)



경계결정 설명회 개최 (9월)

민선8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연 도	지 구 명	필지(수)	면적(㎡)	측량비(천원)	비 고
2022	문장·용산·금덕	2,425	893,564	464,849	사업완료
2023	보여·원산·산남	1,486	922,145	268,740	사업완료
2024	금송·월호·마산·화양	1,012	413,821	190,068	사업완료
2025	곡창·석정·성천	990	435,739	191,990	진 행 중
2026	초포·월봉·해보산내	1,045	492,481	213,357	진 행 중

추진부서 |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 지적재조사팀장 **조지혜** | 담당자 **노지연, 윤혜림**

6-13 군민 친화적인 군청사 리모델링으로 행정서비스 환경 개선

함평군 청사가 1990. 8. 3.로 사용승인 후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방문객 및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1월부터 3개월간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다.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	3.6	1청사 현관 1,2,3층 로비 리모델링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6.3	1청사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청사 본관 LED전광판 교체 설치	0.64	청사 본관 LED전광판 교체

청사현관은 방문객이 처음 접하는 공간으로 밝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군정의 개방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1청사 1, 2, 3층 현관에 대기공간 확충, 안내표지 개선, 조명 개선, 공간 재정비, 바닥타일교체 및 내벽 마감 등을 진행하였다.

군청사 현관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개선을 넘어 행정서비스 품질과 기관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사업으로 군정 홍보 영상 표출 및 디지털 안내시스템 설치로 정보 전달기능 확대는 물론 단순 통로에서 벗어나 소통·대기·휴식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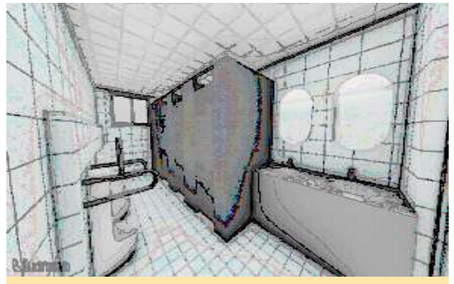


1층 로비 리모델링 모습



2층 로비 리모델링 모습

1청사 화장실 시설물 노후화로 여름철 악취 및 오염이 심각하여 전층 화장실(10개소)에 대해 냉온방시스템을 갖춘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코자 1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2026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오배수 배관, 내부타일, 세면대, 수납장, 창호, 냉난방기 등을 전면 교체·설치할 계획으로 2026. 5월초 착공하여 2026.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남자화장실 리모델링 조감도



여자화장실 리모델링 조감도

또한, 함평군 기존 군청사 본관 전광판의 기술지원 종료로 유지보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2026년 5월에 군 홍보를 위한 LED전광판을 신규 구입 설치했다.



군청사 본관 전광판 설치

금번 설치된 전광판은 최고급 LED소자 적용으로 균일한 휘도 및 압도적인 밝기로 영상표출이 가능하며, 자체 대기전력 절감기능 적용 시 약 72% 전력이 감소 되는 내구성이 좋은 조달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실시간 정보전달 및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총사업비는 6천4백만원이다.

추진부서 | 재무과장 **정순용** | 재산관리팀장 **박영희** | 담당자 **소정선**

6-14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자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행정 기반이다. 그러나 재산 취득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공부상 현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달라지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재산대장 정비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함평군은 장부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실태조사는 단순히 재산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인된 재산을 행정목적 사용 여부, 장래 활용 가능성, 보존 필요성, 대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재산별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다.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활용가능한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 등 적정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대상에서 누락 될 우려가 있던 재산을 군 재산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되살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료, 매각수입, 변상금 등 총 12억 3,799만 원의 수입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부료는 1억 1,706만 원으로 유휴재산과 기존 대부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이며, 매각수입은 11억 832만 원으로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보존 필요성이 적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정비한 성과이다. 아울러 무단 점·사용 재산에 대해 변상금 1,264만 원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사용질서를 확립하였다.

대부료 부과 현황(2025년말 기준)

단위 : 개, ㎡, 천원

구 분	대부재산		부과액	비 고
	필지 수	면적		
합 계	302	197,695	28,473	
도유재산	67	30,540	3,451	도: 50%, 군: 50%
군유재산	235	167,155	25,022	군: 100%

한편, 함평군 공유재산은 민선 8기 동안 지역개발사업, 생활SOC 확충, 공공시설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숨은 재산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2022년 말 6,014억 원 규모였던 공유재산은 2025년 말 1조 334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는 함평군의 공공 인프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늘어나는 재산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 줬다.

함평군은 공유재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군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공유재산(토지) 현황(2025년 말 기준)

단위 : 개, ㎡, 천원

재산종류		재산내역		
		필지 수	면적	재산가액
도유재산		75	36,924	636,517
군유재산	소계	31,476	13,194,089	241,169,387
	행정	30,984	12,632,066	236,704,526
	일반	492	562,023	4,464,861

추진부서 | 재무과장 **정순용** | 재산관리팀장 **박영희** | 담당자 **나록현**

6-15 공공주차타워 건립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및 군민 이용편의 증진

함평읍 중앙로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사업부지 일대 일방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교통량 증가 및 주변 상권 신규 조성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대상지 주변 읍사무소, 경찰서, 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각종 공공기관과 법률·건축상담소 및 음식점·병원 등이 밀집하여 주차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해소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도 전환사업 보전금 10억원을 포함하여 87억여원이며, 위치는 함평읍 함평리 130-2번지 일원으로 3층4단, 연면적 4,538.28㎡ 규모의 주차면 135면 이상을 갖춘 공공주차장으로 건립코자 하며, 기존 주차타워와 중간브릿지를 통해 연결하여 이동성 및 효율성을 확보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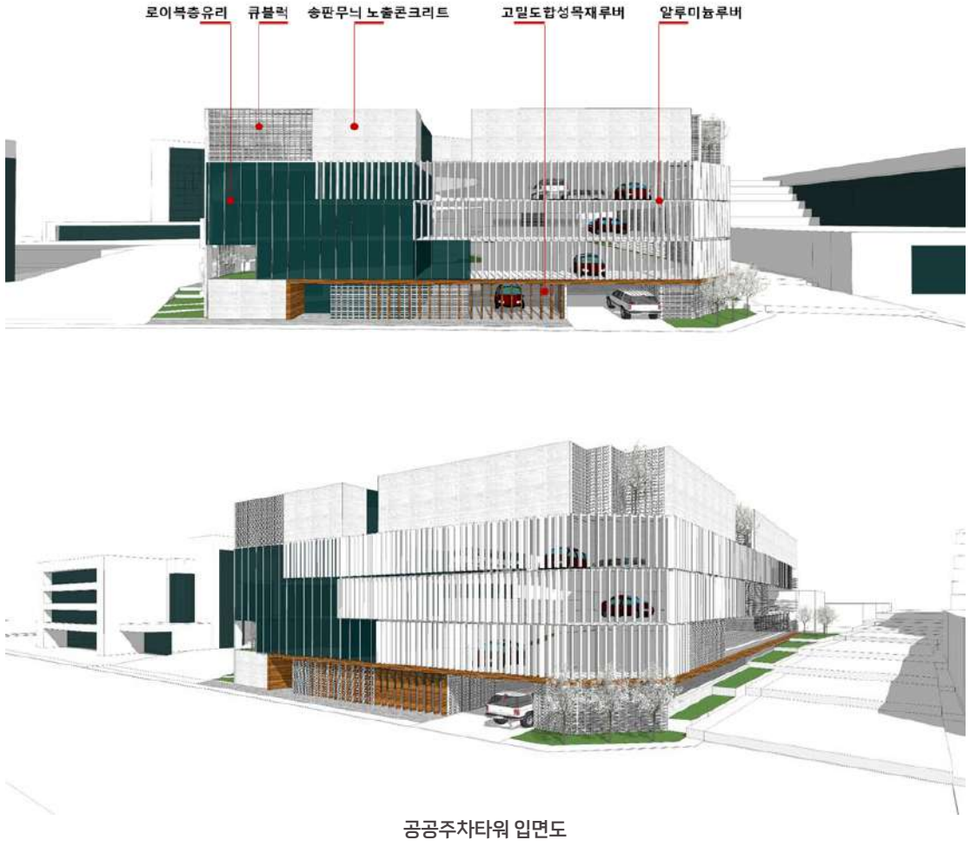
공공주차타워 건립 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주요내용
함평 공공주차타워 건립 사업	87	주차타워(3층, 4단 태양광설치) 건립

2026. 5월 현재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금번 공공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하고 노상주차 감소로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차타워 입면도

추진부서 재무과장 **정순용** 재산관리팀장 **박영희** 담당자 **소정선**

V

읍면별 성과

제 1장 함평읍 532
제 2장 손불면 540
제 3장 신광면 546
제 4장 학교면 553
제 5장 엄다면 558
제 6장 대동면 564
제 7장 나산면 573
제 8장 해보면 578
제 9장 월야면 582

함 평 읍

01. 연혁

함평읍은 백제때 굴내현(屈乃縣), 통일신라시대와 고려때는 함풍현(咸豊縣) 땅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한평현(咸平縣)에 속했었다. 그 뒤 1895년 함평군에 속해 군 소재지가 되었다.

1895년 당시 현재의 함평읍 관할지역에는 3개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현내면(西縣內面 : 소재지 대천저수지 앞)과 동현내면(東縣內面 : 소재지 기각리), 그리고 영풍면(永豊面 : 소재지 만흥리 국산)이 바로 그것이다.

서현내면은 현 내교리 외대화를 비롯 수호리의 수산·소등·송정·대명·신기, 장교리의 칠언·월봉, 만흥리의 발산, 대덕리, 진양리, 장년리, 성남리의 성남 등지가 관할 구역이었다.

동현내면은 현 함평리, 기각리, 대동면의 향교리, 강운리가 관할 구역이었다. 영풍면은 신라 이후 조선조 초기까지 특수 행정구역인 영풍향(永豊鄕)으로 고려 명종 2년(1172년) 이전까지는 나주목의 관할지역이었다가 이때부터 함평현 감무가 관할하게 되었다. 영풍면은 지금의 수호·성남·만흥·옥산·가동·석성리 등이 관할구역이었다.

1906년 서현내면과 동현내면을 합해 기성면(箕城面)을 신설하였으나 영풍면만은 독립면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었다. 그러다 1914년 기성면(현 대동면의 향교리와 강운리는 이때 대동면으로 편입됨)과 영풍면을 합쳐 함평면(咸平面)이 신설되었다. 오늘날의 법정리는 이때 출현되었다.

1914년 당시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신설된 리(里)에 소속된 마을은 가동리, 기각리, 내교리, 대덕리, 만흥리, 석성리, 성남리, 수호리, 옥산리, 자풍리, 장교리, 장년리, 진양리, 함평리이다.

이후 함평면은 1962년 11월21일 법률 제1177호에 의거 함평읍(咸平邑 : 1963. 1. 1)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른다.

2026년 현재 함평읍은 14개의 법정리, 43개의 행정리, 70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02. 지역특성

함평군의 중심지로 뒤쪽은 기산봉이 우뚝 솟아 있고 앞으로는 영산강의 지류인 함평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국도 23호, 24호선이 교차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함평IC가 위치하고 있다.

서해바다와 접하고 있어 석양이 아름다운 돌머리 해수욕장이 위치하며, 자연산 굴과 세발낙지, 숭어 등 미식가를 유혹하는 해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문화재로는 함평 기각리의 붉가시나무 자생북한지대(천연기념물 110), 함평 해보리 석불입상(전남유형문화재 171), 함평 보광사 범종(전남유형문화재 172), 영파정(전남문화재자료 168), 함평 척화비(전남문화재자료 176), 진양리 화동고분군(전남문화재자료 230), 대덕리 고양고분군(전남문화재자료 231), 함평 이재혁가옥(전남 문화재자료 250), 구 함평성당(등록문화재 117)이 있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40.3㎢	4,416	8,134	43	74	3,237	312	758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특수	업체수	종업원			
13	6	2	2	2	1	18	175	31	39	30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692	2,019	892	1164	764	764	36	91	-	-

04. 특색사업

읍민이 주도하는 지역 변화의 시작, 풀뿌리 주민자치회 시작

가. 추진배경

- 읍민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기존 행정 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중심 구조로 전환하여 지역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 기반 마련
  - 주민총회, 주민자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의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치 역량 강화

나.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주민총회 등을 통해 발굴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주민자치 특화 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사업명	내용	추진실적
국향마켓	프리마켓, 아나바다장터 개최	▸2023 ~ 2025 매년 개최
벽화그리기	깨끗한 마을 이미지 변신	▸기각리~ 함평리
생활쓰레기 집하장	깨끗한 마을 관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	▸43개소
쉬어가는 의자	주요 인도변 쉬어가는 의자 설치	▸13개
주변경관 정리 및 꽃밭가꾸기	꽃밭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9개소
화분걸이 설치	축제장 진입로 화분걸이 교체	▸50조
태양광 센서등	취약구역에 설치하여 주민 생활 안전 도모	▸50개
혈압계	마을 어르신 사전 건강관리	▸60개

다. 사업성과

- 주민총회를 통해 정한 자치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고, 주민 중심의 자립적 운영 강화
- 아나바다 장터 '국향마켓'을 개최하고, 수익금 기부를 통해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나눔 문화 정착
-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활동의 중요성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필요성 체감


국향마켓



주민총회


벽화그리기


여기 의자, 잠시 쉬어가자


수해 이재민 위해 "무료세탁 지원"


국향장터 모금액 200만원 전액 기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기반 마련으로 일상 속 돌봄문화 확산

가. 추진배경

- 고령화·취약계층 증가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기존 공공 중심 체계만으로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파악·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

- 주민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복지공동체 구축
  - 지역 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협력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 민·관 유기적 협력으로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함평읍 만들기를 통해 촘촘한 돌봄문화 확산
  - 나눔과 참여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조성
  - 나눔 실천을 활성화하고 민간자원과의 연계 강화로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문화 확산 및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

나.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특화 민간 · 공공 협력 복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주체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함평읍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소외계층에게 지원금 지급 ※ 약 10만원 계좌송금	18가구 (1,800천원)
	오늘, 마음을 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밑반찬 제조 및 전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5회 (100명)
	기운찬 한끼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의 기력보충 한끼 제공	2회 (40명)
	Cool!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용품 지원	40가구 (6,000천원)
	369 행복 보따리 지원사업	▸관내상가와연계,민간자원발굴(20개관내업체후원) ▸후원물품 수집하여 대상가구에 배달(육류, 계란 등)	3회 (120명)
	따스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명절지원금 지급 ※ 약 10만원 계좌송금	40가구 (7,157천원)
	크리스마스 행복 꾸러미	▸크리스마스 맞이 읍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생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및 선물 꾸러미 전달	1회 (30명)
민·관협력 공모사업	월(月)간 짜장 나눔 사업	▸청계고기짬뽕에서 함평삼애원 아동대상으로 월 1회 특식(짜장면 등) 지원	12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건강한 보금자리 만들기	▸재능나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 보일러 교체, 전기배선 수리, 집안정리정돈, 청소,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43가구/ (43,000천원)

다. 사업성과

- 지역사회 나눔 분위기 확산 및 체험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 형성

-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들의 나눔 문화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관내 20개 소상공인 후원업체 기부 협약으로 1,000여 개 이상 물품 후원
  - 청계공기짬뽕과 협력한 함평삼애원 아동 월 1회 특식(짜장면 등) 지원

- 맞춤형 정서 지원 및 취약계층 정서적 안정 및 만족도 향상

-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보호체계 구축 사업 지속 추진으로 반복접촉에 따른 관계 형성, 정서적·환경적 복지 동시 지원
  - 미니과일 사랑애 드림(6가구 15회), 구석구석 클린클린 사업(6가구 1회)


행복보따리 사업


월(月)간 나눔 짜장 사업


크리스마스 행복 꾸러미 사업


건강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보도자료(369 행복 보따리 지원)

호남신문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016면

함평군 함평읍, 가가호호 행복 전파 '369 행복 보따리 지원'

소외계층 위한 주민 나눔 정신 돋보여



함평군 함평읍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눔 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 업소, 주민들이 지난달 25일 '369 행복 보따리 나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369 행복보따리 나눔 사업'은 3월·6월·9월에 진행되는 함평읍 지역특화사업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 내 19개 업소가 참여해 부식과 생필품을 후원했다.

역사회보장협의체는 후원 물품으로 행복보따리를 꾸려 마을당 1가구씩 총 43가구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안부를 물으며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의식을 강화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어린이 행복드림 행사)

대한일보 2026년 5월 8일 금요일 009면

함평군 함평읍, 어린이날 맞아 '햇살 가득, 어린이 행복 드림(Dream)' 행사 성료

함평군 함평읍사무소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체험 행사를 열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함평군은 6일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개최한 '햇살 가득 어린이 행복 드림(Dream)'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평군 아동양육시설인 삼애원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마술·풍선 공연과 마술 체험 등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아이들에게는 함평읍 소재 카페 키친205가 후원한 케이크와 양말, 간식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가 전달됐다.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선물 꾸러미를 정성껏 포장하고 직접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특별하고 즐거운 어린이날을 선물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돌봄과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함평=나영주 기자 freemoo1@naver.com

보도자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호남신문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016면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활동 펼쳐



함평군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평군 함평읍은 "지난 6일 함평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마을 이장들이 힘을 합쳐 주거 취약 가구 12개소를 발굴하고 그중 첫 번째 가구를 방문해 쓰레기 수거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함평읍 복지기동대는 최근 함평읍 자풍길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최근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거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복지기동대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내부에 방치된 음식 쓰레기를 정리하고 새 장판을 깔아 거주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노후화된 냉장고·싱크대·수납장 등은 중고품을 기부해 교체하는 등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월간 짜장 나눔사업)

전남매일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011면



함평읍 지사협, 월간 짜장 나눔사업 착수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청계고기짬뽕 함평직영점과 아동양육시설 삼애원에 매월 특식을 제공하는 '월간 짜장 나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삼애원에 거주 중인 아동 14명에게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특별식으로 짜장면을 무료 제공하기 마련됐다.

이건석 청계고기짬뽕 함평직영점 사장은 "한 달에 한 번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화자 공공위원장은 "특식을 통해 아동들의 식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보도자료(성탄절 행복꾸러미)

아시아일보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012면

함평군 함평읍 '크리스마스 행복 꾸러미'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전남 함평군 함평읍이 성탄절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했다.

지난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이 23일 함평읍 어울림커뮤니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행복 꾸러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탄절을 맞아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선 아이들은 직접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성취감과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이들에게 목도리·장갑·모자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01. 연혁

백제시대 굴내현,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함풍현, 조선시대에는 함평현에 속했으며, 1895년부터 함평군에 속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의 일부가 조정되어 죽림, 목교의 일부가 함평읍 장년리로, 장전의 일부는 신광면 계천리로, 등촌, 소명의 일부가 신광면 가덕리에, 농암의 일부가 신광면 유천리에, 장재동의 일부가 영광군 군남면 오동리에, 완정의 일부가 군남면 옥슬리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34개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2. 지역특성

산세가 손자인 스님이 할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자세(孫僧拜祖佛)라는 명당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함평에서 불교와 관계되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면이며, 우리군 서북쪽에 위치한 해안산간 평야지대로 남북으로 지방도 808호선, 동서로는 지방도 838호선이 국도 23호선과 연결 광주광역시와 영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뛰어난 맛과 미질을 자랑하는 간척지쌀과 함평한우, 우리 전통 그대로의 비법을 재현해 만든 함평천지토속주, 입맛 잃기 쉬운 여름철 식탁에서 입맛을 돋우는 엽삭젓 등이 있으며 게르마늄해수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효도관광지입니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55.2km2	1,878	3,040	34	64	1,736	-	-

03. 일반현황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2	2	2	1	-	6	33	6	-	17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82	665	203	259	371	384	8	22	-	-

04. 특색사업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손불 만들기

가. 추진배경

- 손불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구호 및 특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저소득 취약계층 위기가구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단위 : 가구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4.현재
발굴가구	47	99	110	29	8

04. 특색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사업명	내용	수혜내역
첫 만남 축하금 지원사업	▶저출산 시대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가정 대상 축하금 지원	18가구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이불, 선풍기, 습기제거제 등 계절용품 지원	234가구
새 학기 초·중학생 영어 학습기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 대상 영어 학습기 지원	90명
더 안전한 손불!사고제로!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사업	▶고령자 및 취약계층 가구의 낙상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지원	30가구
어린이날 '꿈 박스' 지원사업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간식꾸러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에 기여	70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마사지기 지원 사업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관내 경로당 대상 발·허리 마사지기 지원	관내경로당 52개소
새 학기 및 입학 축하 딸기케이크 지원 사업	▶새학기 및 입학을 맞은 아동청소년에게 축하와 응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돌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딸기케이크 지원	110명



새 학기 초·중학생 영어 학습기 지원 사업('25.3.30.)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사업('25.6.24.)



어린이날 '꿈 박스' 지원사업('25.5.2.)



새 학기 및 입학 축하 딸기케이크 지원 사업('26.2.20.)

보도자료(여름나기 물품 지원)

전남매일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011면



함평군 손불면 지사협, 여름나기 물품 지원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에 5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손불면 지사협은 지체 복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와 복지기동대는 가정을 방문해 물품 전달하며 폭염·무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관리 수칙과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백형갑 민간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을 앞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여중 기자

보도자료(초중학생 학습기 지원)

광주타임즈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006면

함평 손불면 지사협, 초·중학생 학습기 지원



함평군은 30일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남 손불면 관내 초·중학생 90명에게 360만원 상당의 영어 학습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연합모금액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의 일환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함평=나근체 기자

보도자료(어린이 행복드림 행사)

호남신문 2026년 3월 3일 화요일 014면

함평군 손불면 지사협, 관내 어린이집에 딸기 케이크 나눔 실천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새 학기 시작을 축하 달콤한 응원을 전달했다.

함평군 손불면은 "최근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딸기 케이크를 전달하며 새 학기 시작을 응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바자회 수익금으로 꿈나무들 격려

이번 행사는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 바자회 수익금으로 구입한 딸기 케이크를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새 출발을 축하하고자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딸기 케이크를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아이들은 달콤한 선물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손불면 관계자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 모은 소중한 후원금을 아이들을 위해 환원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

백형갑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과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월 초 입학 예정 관내 초·중학생에게도 케이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이번 행사가 새로운 출발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 됐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04. 특색사업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추진내용 : 도배·장판, 씽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주거환경 안전점검 등

단위 : 가구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4.현재
추진실적	24	24	26	27	10

- 「사랑나눔 바자회」개최

단위 :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현금	13,224,340	17,515,000	29,200,000	30,199,000	-
현물	-	-	5,870,000	9,800,000	-

- 「희망나눔 캠페인」모금활동 전개

단위 :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모금액	21,863	31,226	41,457	57,001	51,339



119생활안전순찰대 합동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점검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도배·장판 교체)

보도자료(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대한일보 2026년 1월 9일 금요일 014면



함평군 손불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활동 실시

함평군 손불면이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협력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지원 활동은 겨울철 한파·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6일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난방시설 및 전기·가스 사용 실태 등 화재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점검 현장에서는 생활 불편 사항과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을 즉시 제거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사고 예방을 돕기 위해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 방지 매트 ▲연기 감지기 ▲소화기 등으로 구성된 '안전꾸러미'를 전달하며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한편, 손불면 복지기동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평=남궁주기자freamoo1@naver.com

보도자료(저장강박증 위기가구 지원)

光州日報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013면



함평군, 민·관 협력 '저장강박' 위기가구 지원

대대적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함평군이 최근 저장강박증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해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손불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손불농협과 마을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대상 가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으로 주택 내외부가 잡동사니와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 중이었다.

군은 1년 넘게 꾸준히 방문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지에 거주 중인 자녀에게 연락해 대상자가 정리에 동의하도록 설득한 끝에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했다.

손불면은 우리동네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봉사자를 모집해 위생 개선을 위한 청소와 거주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5에 달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말끔히 정리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임수영 손불면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마을 주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2024년 함께해요 사랑나눔 바자회('24.12.6.)



2025년 함께해요 사랑나눔 바자회('25.12.5.)

신 광 면

01. 연혁

백제때는 굴내현, 신라와 고려때는 함풍현, 조선시대에는 함평현에 속하였고, 신광면이란 이름이 바뀜없이 오늘에 이르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54개 마을을 관할하였는데 관할 구역도 몇 개의 부락만 조정되었을뿐 큰 변동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산과 하계부락 일부가 손불면 동암리로, 학천일부가 손불면 죽암리로 바뀌었으며, 손불면의 농암 일부가 유천리에 편입되었고 장전 일부가 계천리로, 등촌·소명 각각 일부가 가덕리로, 보전 일부가 군남면 대덕리로, 영광군 불갑면의 암촌 일부와 구봉 전역이 함정리에 편입되었다.

동쪽은 해보면과 대동면, 남쪽은 대동면과 함평읍, 서쪽은 손불면 북쪽은 영광군 군남면과 불갑면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항일정신이 뚜렷하여 많은 애국자를 배출 하였으며 사납장(5일장)이라는 상권을 갖고 인근 손불, 해보, 대동, 불갑면의 중심지였다.

02. 지역특성

- 지리적 특성
  - 함평군의 서북쪽에 위치한 중산간지대로 1개 군과 6개 읍면에 접한 지역이며 국도 23호선과 군유산 계곡평야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

- 씨족적, 사상적 특성
  - 송사리 송계마을에 집단거주하는 김해김씨, 복흥리 복치마을의 청송심씨, 삼덕리 덕천마을의 함평모씨, 백운리 운제마을의 광산김씨, 함정리 연화마을의 함평이씨, 유천리 미출마을의 함평노씨, 유천리 학천마을의 달성배씨, 가덕리 가리마을의 밀양박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순박하고 온순한 품성으로 마을간 결속력이 뛰어나 농번기철에 품앗이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관광코스
  - ● 가리마을 – 양서파충류생태공원– 자연생태공원 – 장산들백비 – 연천(대동제상류) – 대동제 생태수목원
  - ● 복분자주공장(레드마운틴) – 흥무공원 – 남일공원
  - ●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기념관 – 동정저수지 – 군유산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 립	아파트
41.1㎢	1,008	1,592	25	40	889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4개소	-	1개교 8명	1개교 11명	-	3	17	2	1	9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97	339	81	106	183	196	1	4	32	34

04. 특색사업

신광면 1, 2기 주민자치회 운영

가. 추진배경

- 신광면 주민자치회는 "내 손으로 만드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2022년 11월 함평군 최초로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 기반을 마련
  - 주민이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직접 제안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참여형 자치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 중심의 맞춤형 자치사업 추진 필요성이 증대

04. 특색사업

나. 추진내용

- 주민제안 자체사업
  - 청소년 문화탐방, 뮤지컬 관람
  - 마을회관 내 안전바 설치
  - 찾아가는 마을문화교육 프로그램
  - 마을회관 내 구급함 설치
  - 고령자 스마트태그(위치추적기) 보급

다. 사업성과

- 청소년 문화 향유 지원
  - 청소년 문화탐방 및 뮤지컬 관람을 통해 지역 청소년 20명의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

- 마을 안전환경 개선
  - 신광면 마을회관 32개소에 안전바 및 구급함 설치를 통해 고령자 중심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대응 기반을 마련

- 주민 문화교육 활성화
  - 찾아가는 마을문화교육 프로그램을 3개년 70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 고령자 안전망 구축
  - 고령자 117명에게 스마트태그(위치추적기) 보급을 통해 실종 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


청소년 문화탐방, 뮤지컬 관람


마을 회관 내 안전바 설치


찾아가는 마을 문화교육 프로그램


마을 회관 내 구급함 설치



제2회 신광면 주민총회



제3회 신광면 주민총회

04. 특색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행복나눔 실현

가. 추진배경

- 신광면은 2026년 4월 기준 65세 이상이 총 인구의 52.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가호호방문단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특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나.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특화 민간 · 공공 협력 복지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주체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신광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경로당 LED교체 지원사업	▸경로당에 led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밝고 안전 생활공간 제공	11개소
	따뜻한 겨울나기 및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겨울철 추위로 인한 건강 문제 및 생활 어려움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이불세트 지원	65가구 (8,000천원)
	'까치까치 설날은' 설선물 지원사업	▸실거주 신광관내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한과세트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함평사랑상품권 전달	62명 (4,440천원)
	신나는 행복한 어린이날 지원사업	▸신광관내 초·중학생에게 어린이날을 맞아 간식 및 특별한 선물(레터링 케이크, 손편지) 전달	25명
	저소득층 꾸러미 지원사업	▸저소득취약계층에 부식 및 생필품 지원	100명 (5,000천원)
	설·추석 명절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명절지원금 지급 ※약 15만원 계좌송금	50가구 (7,500천원)
	온기나눔 신광포차	▸연말연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 전달 ▸먹거리 나눔 및 성금 모금 행사 추진	2회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재능나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보일러 교체, 마당포장작업, 집안정리정돈, 청소,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54가구

다. 사업성과

-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 복지안전망을 강화

- 신광포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형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모금된 재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
  - 2025년 온기나눔 신광포차 모금액 : 34,541천원

'까치까치 설날은' 설선물 지원사업



온기나눔 신광포차



보도자료(안녕하세요 밥상지원)

광주타임즈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009면

함평 신광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보양식 전달



함평군은 이달부터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에 보양식을 제공하는 '안녕하세효(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녕하세효(孝) 지원사업'은 9개월간 매월 신광면 관내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2명씩 취약계층을 선정해 보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광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영양가 높은 보양식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제공한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광주타임즈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009면

함평 신광면 복지기동대, 주거 환경 개선 활동



함평군은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4일 전남도 소방본부 산하 119생활순찰대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전성을 대폭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순찰대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자체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해 총 3가구를 선정해 낡은 분전반과 콘센트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 및 차단기 상태를 점검·정비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한일보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014면



함평군 신광면 복지기동대, 장애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앞장'

함평군 신광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임의석)가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활동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집수리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했다. 복지기동대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낡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대상 가정은 한층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함평=나광주기자freemoo1@naver.com

보도자료(저소득층 꾸러미 지원)

전남매일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011면



함평군 신광면 지사협, 저소득층 꾸러미 지원

함평군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 꾸러미 지원 사업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사협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100세대를 대상으로 꾸러미 1세트씩을 지원하고 있다.

꾸러미는 햇반, 라면, 즉석국, 통조림, 세제 등 실생활에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수혜자 의견을 반영해 영양 균형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품목으로 준비됐다.

장영식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광전매일신문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010면



함평군 신광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겨울 맞춤 선물 '훈훈'

전남 함평군 신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군은 12일 "신광면 지사협(공공위원장 심희숙, 민간위원장 장영식)가 지난 10일 취약계층 25가구에 탄소매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지원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사협 위원들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탄소매트를 전달하고, 난방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며 주거 환경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복지활동도 병행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제4장 학교면

함평군 민정8기 군정백서

01. 연혁

학교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 무안군에 속하여 왔다. 무안군은 백제시대 물아혜군이라 칭하였고, 신라시대에는 면주로 개칭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일시적으로 물양군이라 불린 바 있다. 이후 면성군으로 개칭되어 조선 말기까지 그 명칭이 유지되었고, 1910년에는 목포부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에 학교면 지역에는 금동면, 진례면, 좌촌면의 3개 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기 3개 면을 통합하여 학교면이 신설되었다.

금동면의 관할구역은 고막리, 복천리, 마산리, 월송리, 백호리, 금곡리, 상옥리 일원이었으며, 1973년 7월 1일 면 간 경계 조정에 따라 월송리, 백호리, 금곡리, 상옥리의 4개 리가 대동면으로 편입되었다.

진례면은 곡창리, 월호리, 금송리, 석정리 일원을 관할하였고, 좌촌면은 학교리, 월산리, 서거리, 죽정리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후 행정구역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1985년에는 11개 법정리에서 30개 운영리로 개편되었고, 1987년에는 34개 운영리로 확대되었다. 현재 학교면은 11개 법정리, 35개 행정리, 61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02. 지역특성

함평군의 남동쪽이며 호남선 철도 및 국도 1·23호선, 무안광주-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영산강과 함평천 합류 지역으로 대부분 평야 지대며, 전국 최초로 학교농공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문화재로는 함평고막천석교(보물 1372), (구)학다리역 급수탑(등록문화재 63), 함평군 월호리 282번지 일본식 가옥 및 창고(등록문화재 118), 마산리고분군(전남기념물 122)이 있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46.4㎢	2,066	3,294	37	-	2,028	38	-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7	1	1	-	1	71	673	6	13	16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다문화)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28	900	326	407	119	124	12	31	71	338

04. 특색사업

학교면과 늘 함께!, '내 이웃 건강·행복·안전 지킴이'

가. 추진배경

- 고령화의 심화, 지역 내 돌봄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의 확대
  - 학교면의 65세 이상 인구가 1,635명으로 전체 인구수(3,294명)의 49.6%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며, 경제 활동 인구 비중 낮음
  - 생계·의료·돌봄·정신건강·가정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 사유로 복지혜택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지원체계 필요
  - 위기 상황 발생 시 행정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주민 생활 속 위험을 충분히 예방·관리하는 데 한계 존재
  - 학교면민 스스로가 내 이웃이 되어 나를 지키는 주민 참여형 상호 돌봄 체계 필요성 증대

나. 추진내용

- 누구보다 먼저 우리 집에 도착하는 '내 이웃 건강·행복·안전 지킴이!'
  - 먼 곳에 거주하는 가족보다 내 이웃의 안부를 먼저, 자주 살필 수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장, 협의체, 기동대 등) 역할 강화
  - 주기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방문, 생활환경 점검 등으로 내 이웃의 건강과 행복, 안전을 살피며 이웃 사랑 실천

세부사업 추진 목록

행복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건강	구급함은 안전을 싣고	건강관리 취약계층 대상 구급상자 지원 및 응급처치법 안내	200가구
	독거어르신 생신 축하드려	독거노인 대상 생신상 및 선물 지원	60명
	선선한 여름나기/ 훈훈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계절용품 및 부식지원	224가구
행복	사계절 행복밥상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사대에 사계절 제철음식 전달	243가구
	여름, 나누면 행복할 수박	여름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수박지원 및 안부 살핌	52개소
	연말연시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 가구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및 격려	30명
	사랑의 김장김치, 국화빵, 떡국 나눔 행사	취약계층 및 지역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식료품 전달과 이웃 사랑 실천	233명
안전	명절(설, 추석) 생계비 지원사업	명절 맞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비 지원	68가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서비스	주거 취약계층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84가구
	민관 합동 침수피해 복구	침수 주택 토사 및 잔해물 제거, 주택 내·외부 세척, 방역 등 다양한 복구활동	41가구

다. 사업성과

- 고령화 및 돌봄 공백 확대에 대응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행복·안전 분야 맞춤형 지원 추진
  -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도모

-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
  - 구급함 지원, 계절용품 제공, 생신축하, 장학금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진
  -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복지기동대, 소방, 경찰 합동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보도자료(취약계층 여름침구 지원)

광주타임즈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009면

함평 학교면 지사협, 취약계층 여름 침구 지원



함평군은 학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독거노인·장애인·다자녀가정 등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을 30가구에 여름 침구 세트를 전달하며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학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획 나눔 사업이다. 사업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학교면사무소도 함께 참여해 각 가정을 방문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현장 복지를 실천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

광주타임즈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009면

함평 학교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활동



함평군은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최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복지기동대는 대상 가구를 찾아 청소와 방역은 물론, 싱크대 교체 등 생활환경 전반을 정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마련했다. 송주완 학교면 복지기동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즉시 출동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독거노인 청소 봉사활동)

함평군 학교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대상 청소 봉사활동 전개



함평군 학교면 복지기동대가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청소 봉사활동에 나섰다.

함평군은 2일 "이날 학교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거동이 어려워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복지기동대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기동대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집안을 가득 채웠던 쓰레기와 생활용품을 정리해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대상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생활이 편리하도록 정리정돈을 진행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민관 협력 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 복지기동대 운영, 생활불편 개선 및 재난 피해 복구 등 현장 중심 지원 추진
  - 이웃 간 유대감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고독사 및 생활밀착형 위험 감소 기여

보도자료(사랑의 김장나눔)

광전매일신문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004면



함평군 학교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함평군은 1일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란)가 지난달 28일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와 국화빵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겨울철 식료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김장 나눔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행사에는 회원 35명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봉사에 동참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른 아침부터 학교면 경로식당에 모여 배추 절이기, 양념 만들기, 버무리기,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했다. 특히 김장김치와 함께 회원들이 구운 국화빵을 함께 담아 나눔의 따뜻함을 더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침수피해 복구)

광전매일신문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009면

함평군 학교면·기관사회단체·소방서, 침수 피해복구 '한뜻'



전남 함평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긴급 복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함평군은 21일 "학교면과 함평소방서, 기관사회단체 등이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택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복구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호우는 7월 19일 학교면을 기준으로 300㎜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며, 학교면 일대 40여 세대가 침수되고 가재도구 유실, 담장 붕괴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세대 중에는 고령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많아 신속하고 세심한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면은 집중호우 당시 취약지 순찰과 주민 대피, 긴급 물품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선 경험, 단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초기 대응을 마쳤다.

또한, 축약 재난 상황 종료에게를 가동해 지역 내 사회단체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복구 지원에는 학교면 8개 기관사회단체와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나서 ▲침수 주택 토사 및 잔해물 제거 ▲오염 물품 반출 ▲주택 내외부 세척 및 살균 ▲분리수거 등 다양한 복구 활동을 진개했다.

함평소방서에서는 고압 세척 차량 등 장비를 지원해 원장 복구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다.

학교면은 피해복구가 100% 완료될 때까지 기관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복구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우석 학교면장은 "예상치 못한 세찬 큰 피해를 입은 면민들을 위해 지역이 힘이돕으로 나선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며 "면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 집중호우 피해 현장 민·관 합동 긴급 복구 작업 추진
  - 고령의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수 피해가 컸으나, 민관 합동으로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져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음
  - 주택 토사 제거, 가재 세척, 이재민 안부 살피기 및 식사 지원 등 주민의 몸과 마음의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돌봄 서비스 지원

엄다면

01. 연혁

엄다면은 1914년까지 현 무안군에 속해 있었는데 무안군은 백제시대에는 물아혜군(物阿兮郡), 신라시대(757년도)에는 무안군(務安郡), 고려때는 물양군(物良郡)이라 잠시 부른적이 있으나 무안군(務安郡 991년)으로 바꾸어 조선 말까지 불러 왔으며 1895년에는 목포부, 1914년에는 무안군이라 하였다.

엄다면에는 1789년 호구총수의 지명에 의하면 2개의 면이 있었는데 엄다산면(嚴多山面), 신마로면(身丫老面)이었다. 엄다산면의 관할구역은 지금의 송로, 학야, 엄다, 삼정, 영흥리며, 신마로면은 지금의 화양, 성천, 신계리와 함평읍 수호리 수산, 만흥리 국산(당시 國堂)이였다.

1914년 이제(里制)가 시행되면서 면간 조정으로 기성면(箕城面. 현 함평읍)의 수산(水山) 일부지역이 화양리에 편입되었고, 영풍면(永豊面. 현 함평읍)의 송정 (松亭)일부지역이 성천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신로면의 신흥(新興) 일부지역이 함평면 만흥리에, 신로면 장동(壯洞)이 성남리에, 신로면의 금곡(金谷), 자연(自然), 노송정(老松亭) 전역이 자풍리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에 엄다산면(嚴多山面)과 신마로면(身丫老面)2개의 면을 합하여 엄다면을 새로 만들었고, 함평군에 편입시켰으며, 엄다, 송노, 신계, 삼정, 영흥, 학야, 성천, 화양리 8개 법정리에 23개 행정리로 운영되고 있다.

02. 지역특성

엄다면은 함평군의 서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구릉 및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심이 온후하고 순박한 지역이다. 면적은 다른 면에 비해 적은 편이나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호남선 철도, 국도 1호선과 군도 1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동(東)으로는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나주시, 광주광역시, 서(西)로는 전남도청과 무안국제공항,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무안군과 목포시 등이 인접하고 있다.

엄다면 전체 농경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군에서 가장 넓은 엄다평야는 곡창지대로 이름나 있으며, 양질의 갯벌토질에서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한 엄다쌀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직거래되고 있어 우리군의 대표 특산품인 한우고기, 마늘, 양파, 콩 등을 활용한 제품화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해 오고 있다.

자산서원은 "정주자(程朱子) 뒤의 한 사람, 동방의 진유(眞儒)로 이황(李滉)과 버금간다."라고 칭송하며 유학(儒學), 역사, 천문, 지리, 약학(藥學), 산수, 역학(易學), 전진법(戰陣法), 가무(歌舞)등의 넓은 학문의 경지로 윤암(輪岩)에 정사(精舍)를 짓고 후학양성에 전념하며, 수수기(隨手記) 9권, 변례편성(變禮編成) 2권, 우 득록(愚得錄) 3권의 저서가 있는 곤재 정개청(鄭介淸)선생이 참다운 선비정신의 학풍을 일군 곳으로 우득록은 1689년 왕의 등진 특명(謄進 特命)으로 발간이 착수되어 1692년 여름에 간행을 완료하였으며, 1987년 6월 우득록 각판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되었고, 1988년 12월에 전라남도 향토문화총서 제35집으로 국역본을 간행하였다. 1616년 6월 15일 엄다면 엄다리 제동마을에 곤재의 학행을 기리기 위한 서원설립이 인가되고 자산서원(紫山書院)이란 사액을 받았으나 서인 쪽의 훼철 상소에 의해 네 번 뜯기고 남인 쪽의 복설 상소에 의해 다섯 번 세워지는 당쟁의 비운을 겪다가 1997년도 현재의 장소에 자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 평야지역의 긴소리권에서 전승되는 노동요(들놀이)의 기능보유자 천학실 선생(전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 등 유명인사를 배출한 오선박주(五船泊柱)의 형국(명당자리)으로 거부가 될 명당자리라는 풍수설이 있는 지역으로 살만 하고,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23.3㎢	1,092	1,755	23	43	1,003	-	-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3	2	1	-	-	10	67	1	34	8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다문화)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349	500	111	165	205	277	3	6	30	52

04. 특색사업

작은 나눔 큰 변화
민관이 함께 여는 엄다면 희망복지

가. 추진배경

- 지역 내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및 돌봄 체계 강화 필요
-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나. 추진내용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
- 주최주관 : 엄다면 /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력기관 : 엄다면 기관·사회단체
- 사업내용

세부사업 추진 목록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지원 ※1가구당 175천원 지원	취약계층 7가구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엄다면여성자원봉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르신 생신 축하공연 및 선물증정 ▸이미용 서비스, 시력검사 및 생신상 제공을 통한 생활편의 및 건강지원 실시	관내 어르신 60명
어린이날 기념 선물꾸러미 나눔행사	▸엄다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대상 선물꾸러미 및 간식 전달 ▸어린이날 격려 인사 및 정서적 지원 실시	엄다초 34명 엄다유치원 2명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에게 여름 침구세트 지원 ▸폭염 대비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30가구
중복더위 건강닭백숙 나눔행사	▸지역 주민 기부로 마련된 재료를 활용하여 자원봉사 단체가 백숙을 직접 조리·제공하는 나눔 행사 실시 ▸관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식사 대접 및 정서적 지원 제공	관내 어르신 100명

세부사업 추진 목록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새마을부녀회의 협력으로 김장김치 나눔행사 추진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지원 및 나눔 실천	경로당 33개소 취약계층 160가구
사랑의 쌀 기부창고 운영	▸지역 내 기업 및 개인에게 쌀을 기부받아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지원하는 나눔사업 ▸자발적 기부 참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경로당 33개소 취약계층 31가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개선 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 보일러 교체, 전기 배선 보수, 생활공간 정리 및 청소, 도배·장판 교체,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 점검 등 주거 내 환경 전반 개선 지원	취약계층 16가구

다. 사업성과

-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정기적 나눔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지지 강화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
  - 어르신,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나눔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돌봄체계 유지
-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및 복지 체감도 향상
  -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자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주민 등 민간자원과 행정기관이 협력을 통해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체계 강화함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어린이날 기념 선물꾸러미 나눔행사



취약계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보도자료(어린이날 선물꾸러미 전달)

광주타임즈 2023년 5월 3일 수요일 006면

함평 엄다면 지사협, 어린이날 선물꾸러미 전달



함평군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정수)가 어린이 날을 기념해 지역 아동을 위한 선물꾸러미 지원 행사를 추진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엄다면 지사협 회원 16명은 이날 오전 엄다초등학교를 방문해 25명의 아이들에게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선물꾸러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용품, 과자, 측구화, 드론, 여행용품 등이 담겨있다. 엄다면 지사협은 방학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꿈과 비전을 품은 어린이 성장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사랑의 쌀 기부창고)

광주타임즈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006면

함평 엄다면 지사협 '사랑의 쌀 기부창고' 운영



함평군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미정·서정수)가 겨울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사랑의 쌀 기부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엄다면 사무소에 마련된 '사랑의 쌀 기부창고'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달간 운영된다. 기부된 쌀은 내년 1월 '새해 떡국 떡 나눔 행사'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여름나기 지원)

호남신문 2024년 7월 8일 월요일 014면

함평 엄다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여름이불세트 전달

취약계층 50가구 대상, 300만 원 상당 물품 전해



함평군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일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300만 원 상당의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나눔문화확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깨끗한 여름 침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정수 민간위원장은 "무더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시원한 여름이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민들을 돕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순용 엄다면장은 "이번에 지원한 물품으로 지역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년에서도 소외된 주민들에게 사랑의 온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부터 매년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광주타임즈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008면

함평 엄다면 지사협,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함평군 엄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미정·서정수)는 지난 24일 엄다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팔례)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엄다면 주민들이 정성스레 농사지은 배추, 무, 마늘 등을 후원해 김장의 주재료로 사용하는 등 회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총 4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50가구와 경로당 33개소에 직접 전달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사랑의 닭백숙)

무등일보 2025년 8월 4일 월요일 017면

함평 엄다면 어르신 건강 기원 나눔행사



함평군 엄다면이 중복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닭백숙 나눔 행사를 열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실현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엄다오선박 주권역센터에서 지역사회가 협력해 어르신 100여 명에게 닭백숙을 대접하며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함평축산물종합처리장(대표 이동우)가 주최로 마련됐으며 여성자원봉사회가 정성껏 조리한 백숙을 대접해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도왔다.

또한 엄다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 봉사자들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냉장고 청소, 이불 세탁 등 생활 지원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지원 활동을 펼쳤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힘썼다.

한편, 엄다면여성자원봉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독거 어르신 복지지원)

호남신문 2025년 6월 2일 월요일 016면

'홀몸 어르신께 전한 따뜻한 정' 함평 엄다면, 이웃사랑 나눔 펼쳐

여성자원봉사회·복지기동대, 독거어르신 위한 '행복칼로리UP' 추진



함평군 엄다면이 지역 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엄다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연옥)가 지난 27일 엄다면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관내 독거 어르신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식생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5년 1인 가구 어르신 행복 칼로리 UP'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자원봉사회 회원 10명과 엄다면장, 복지기동대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대 동 면

01. 연혁

대동면은 이름과는 달리 함평군에서 면적이나 인구가 가장 작은 면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러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친 오늘에 있어서는 이름 그대로 함평에서 가장 큰 고을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들 대동(大洞.큰 고을)이라는 이름의 불가사의(不可思議)를 이야기하고 있다. 원래 대동면은 현 덕산리, 용성리, 운교리, 금산리, 서호리, 연암리의 6개리로 출발하였다.

1914년 기성면(箕城面.현 함평읍)에 속해 있던 향교리와 강운리가 편입되었는데 이 지역은 백제 시대에는 굴내현(屈乃縣)이라 했고, 통일신라시대와 고려때에는 함풍현(咸豊縣), 조선시대 때는 함평현(咸平縣)이라 했으며 1895년에는 함평군이라 했다.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大統領令) 제6542호에 의거 같은 해 7월 1일 학교면의 상옥, 월송, 금곡, 백호의 4개리가 대동면으로 편입되면서 법정리가 8개리에서 12개리로 늘어나 군내의 면 중 면적에 있어 가장 큰 면이 되었다.

편입된 4개리는 백제때는 물아혜군(勿阿兮郡), 신라때는 면주(綿州), 고려때는 물양군(勿良郡)이라 하다가 면성군(綿城郡)으로 바꿔 조선조말에 이르렀으며 1895년부터 목포부 금동면(木浦府 金洞面)이라 하다가 1914년에 함평군 학교면 금곡, 상옥, 월송, 백호리에서 1973년 대동면으로 편입되었다.

1982년에는 목포시 상수원이 된 대동댐 공사로 서호리의 분매(分梅), 호정(虎丁) 일부, 호암(虎岩), 서변(西邊 일명은 행정), 동호(東湖)마을의 일부와 연암리의 수현(水峴), 수암(水岩) 마을이 수몰되었다.

02. 지역특성

대동면은 동쪽으로는 나산면, 서쪽으로는 함평읍, 남쪽은 학교면, 북쪽은 신광면과 해보면이 연접되어 있어 함평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마등에서 고산봉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난 산세와 서쪽과 남쪽으로 기름진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로 전형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고을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산봉(高山峰 359m) 일대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자연생태보호(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환경부 2002.05.01)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황금(붉은)박쥐, 먹황새,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전국 제일의 친환경 지역이다.

아울러, 철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유기농 친환경 생태마을 육성 등으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밀, 쌀, 단호박(만차랑), 마늘, 양파, 복분자, 화훼, 등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있다.

대동면은 함평군의 중심에 위치하고 읍소재지 인접지역으로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전남야구장, 함평야구장, 리틀야구장, 나비베이스타운, 게이트볼장, 장애인학교 수영장, 체력 단련실 등 문화·체육시설이 집중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대동면 향교리에는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여가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다.

대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2023년 대동휴센터, 공동홈 등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발돋움하였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 대	인 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56.5㎢	1,820	2,964	30	48	1,389	-	382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5	2	1	-	1	43	362	3	-	15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다문화)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687	1,313	535	802	143	494	9	17	-	-

04. 특색사업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행복을 나누는 지역사회 조성

가. 추진배경

-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확산

나. 추진내용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전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대상 지원물품 전달	18가구
오월애(愛) 전해효(孝)	▸가정의 달 맞이 독거어르신에게 카네이션 및 과일바구니 전달	30가구
시원한 여름나기	▸폭염 취약계층 대상 선풍기, 이불 등 여름용품 지원	115가구
따뜻한 겨울 만들기	▸한파 취약계층 대상 겨울이불 및 난방비 지원	60가구
민관협력 사랑의 추어탕 나눔행사	▸월 1회 영양결핍 노출 대상자에게 보양식 전달 (관내 업체 후원)	25회 (500명)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거동 불편 가구 대상 LED전등 및 무선리모컨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8가구
생활 속 안전더하기	▸생활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설치를 통한 낙상 사고 예방 및 안전 도모	24가구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재능나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보일러 교체, 청소, 도배장판 등)	52가구

다. 사업성과

- 계절별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 지속적인 안부 살피기와 맞춤형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복지기동대 활동사진



오월애(愛) 전해효(孝) 활동사진

보도자료(2024 여름나기 지원)

광주타임즈 2024년 7월 3일 수요일 006면

함평 대동면,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전달



함평군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관내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했다. 대동면 지사협 위원과 마을 이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등 50가구에 여름이불 세트와 인견소재의 시원한 실내복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대동면 지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함평=나근제 기자

보도자료(2025 여름나기 지원)

광전매일신문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010면



함평군 대동면, '시원한 대동 여름나기'로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 실천에 나섰다.

함평군은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시원한 대동 여름나기' 특화사업을 추진해, 무더위에 취약한 32가구에 여름이불세트와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무더위에 취약한 주민이며, 협의체 위원들과 대동면 직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재갑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공춘 기자

보도자료(오월애 만나효 사업추진)



광전매일신문 2026년 5월 8일 금요일 010면

함평군 대동면, 어버이날 맞아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대동면이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사업인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을 추진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

함평군은 "이날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특화사업인 '오월애(愛) 만나효(孝)' 사업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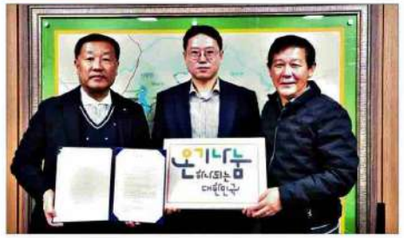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돌봄이 부족한 독거 어르신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께 카네이션과 과일바구니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진행했다.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재갑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권광춘 기자

보도자료(아임푸드 기부협약)



전남매일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011면

함평 대동면지사협-아임푸드, 기부 협약

함평군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대동면 소재 식품기업 ㈜아임푸드와 나눔복지 실천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임푸드는 지난해부터 매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추어탕, 장어탕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아임푸드에서는 매월 20여 가구의 저소득 계층에 정기적으로 추어탕, 장어탕을 제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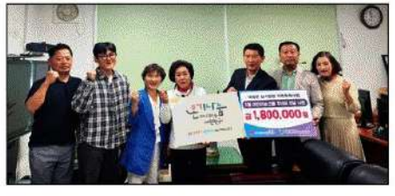
이재갑 대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임귀범 아임푸드 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보도자료(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전달)

호남신문 2024년 5월 9일 목요일 014면

함평 대동면,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전달

관내 취약계층 가정 대상



함평군 대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선물 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대동면 지사협은 지난 7일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최근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선물 꾸러미는 '신발 기프트 카드'(1인 10만원)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부모 총 18명에게 전달했다.

황영 대동면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기나눔 캠페인' 참여하여 지역사회 봉사와 온기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날 선물 꾸러미 전달' 사업은 대동면민들의 십시일반 모금한 금액으로 시행된 지역 특화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주민이 만드는 대동, 자치로 완성하다" 대동면 주민자치회 전환

가. 추진배경

-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기존 행정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 기반 마련 요구 증가
  - 함평군의 '함평형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필요

-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회복 기대
  -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 강화
  - 행정과 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도모

나. 추진내용

- 주민자치회 전환 및 조직 구성 추진
  - 2024. 7. 15. 함평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 2024. 10. 4.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 2024. 10. 14. ~ 10. 28.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2024. 10. 3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2024. 12. 1. 제1기 대동면 주민자치회 출범(임기 2024. 12. ~ 2026. 11.)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의제 발굴 활동 추진
  - 2025. 3. 27. 선진지 견학 실시(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 2025. 3. ~ 6. 마을 자원조사 실시 및 지역 의제 발굴
  - 주민자치회 회의 및 토론회를 통한 총회 상정 의제 정리

- 주민총회 개최 및 주민참여 사업 추진
  - 2025. 7. 24. 주민총회 개최 및 의제 선정
  -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된 의제를 기반으로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다. 사업성과

-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성과
  - "행복가득한 장수사진 사업" 어르신 50명 사진 촬영 및 액자 전달 완료
  - 어르신 보행보조 지팡이 150명 지원 완료
  - 고령층 복지 향상 및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 성과 창출

-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사업 기반 마련
  - 2026년 주민총회 의제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불세탁 지원)" 추진(20개 마을, 215가구 지원, 2026. 4. 30. 기준)
  - 경로당 화장실 안전바 설치사업(15개소) 추진 예정으로 생활안전 개선 기대
  - 마을기록화 사업 추진을 통해 사계절 사진 촬영 및 전시회 개최 예정

- 주민자치 기반 형성 및 참여 활성화
  -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자치역량 강화
  -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및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정착
  -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제1회 주민총회 사진



행복가득한 장수사진 사업



어르신 보행보조 지팡이 사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이불세탁 지원)



보도자료(주민총회 개최)

광전매일신문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005면

함평군 대동면, '제1회 주민총회 개최' 성황리 개최

250여 명 참여… 지역민 화합과 참여 자치의 본격 출발

전남 함평군 대동면이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본격적인 참여자치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함평군은 25일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재갑)가 전날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과 투표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동면 주민자치회 출범 이후 주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결정한 첫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총회에는 2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높은 참여 열기를 보여 주민자치를 향한 주민의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에 앞서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마을 방문 조사, 주민 설문조사,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2건의 주민제안사업과 3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총 5건의 안건을 발굴했다.

주민 제안 사업으로는 ▲행복가득한 장수사진 ▲어르신 지팡이 지원, 주민 참여 예산사업은 ▲이불세탁 서비스 ▲경로당 안전바 설치 ▲기억의 사진관이 상정됐다.

총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 안건 설명, 주민자치 교육,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안건 설명 시간에는 각 분과 위원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진행된 신상선 공감컴퍼니 대표의 주민자치 교육 또한 주민 역량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했으며, 현장 투표 후 즉시 개표까지 이뤄진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주민자치회의 실행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장수사진 촬영)

호남신문 2025년 12월 16일 월요일 01면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회, '행복 가득한 장수사진' 촬영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 고려, 마을별 일정 마련 및 차량 지원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오래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제안사업인 "행복 가득한 장수사진" 촬영을 8일 시작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함평군은 10일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재갑)가 8일부터 12일까지 대동면사무소 2층 복지센터에서 관내 80세 이상 어르신 38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신행한다"고 밝혔다.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제1회 대동면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복가득한 장수사진 촬영 ▲어르신 지팡이 지원 등 3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주민 투표로 선정했다.

장수사진 촬영은 어르신들의 삶을 존중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추진되는 것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이 실제 실현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민 자치의 성과를 보여준다.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마을별 촬영 일정을 마련하고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촬영에는 전문 업체 원앙사진관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담아내고 있다.

첫날인 8일에는 상옥리·금곡1리·벽요리 어르신 15명이 참여해 촬영을 마쳤으며,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을 위해 희망자 추가 촬영도 별도로 진행된다.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장수사진 촬영을 시작으로 지역의 지원사업, 이웃세탁 서비스, 경로당 안전바 설치, 기억의 사진관 운영 등 주민총회에서 확정된 다른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주민 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대동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르신과 가족에게 오래 남을 소중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미순 대동면장은 "첫날부터 높은 참여로 주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자치가 지역 변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경춘 기자

보도자료(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광전매일신문 2026년 4월 3일 금요일 010면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본격 운영

취약계층 위생환경 개선·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전남 함평군 대동면 주민자치회(회장 이재갑)가 취약계층의 위생환경 개선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함평군은 1일 "대동면 주민자치회가 지난달 31일부터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세탁·건조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이불 빨래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주민총회에서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주민 주도형 복지사업으로, 마을 단위 세탁물 수거·배송 방식으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대동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해 이불 세탁이 어려운 주민 등이다. 가구당 최대 2채까지 무료로 세탁·건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동면 각 마을 이장 또는 새마을부녀회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마을별 일정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된다. 사업은 마을별 연 2~3회 지원을 목표로 12월까지 추진한다.

사업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세탁물 수거 후 대동휴센터 빨래방에서 세탁·건조·포장 과정을 거쳐 다시 경로당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공공근로 인력이 함께 참여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대동면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18일 화순군 사평면에서 운영하는 '사평빨래방'을 방문해 선진 운영 사례를 견학했다.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 포장, 배송에 이르는 전반적인 운영 과정과 인력 배치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사업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동면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돌봄 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갑 대동면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시작된 사업이 실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새마을부녀회 국화빵 나눔)

광전매일신문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010면

함평군 대동면 새마을부녀회, '국화빵 나눔 행사'로 이웃사랑



전남 함평군은 "지난 14일 함평군 대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윤심)가 '사랑의 국화빵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 따뜻한 국화빵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나눔과 배려의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동면 반영희장·이장협의회장·주민자치회장 등 사회단체장들도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직접 구운 국화빵을 나누며 성금을 모금했으며, 행사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모금한 성금 203만 원은 전액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전달되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심 대동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에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미순 대동면장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며 "전해주신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제7장 | 나산면

함평군 민정8기 군정백서

01. 연혁

선사시대 ~ 마한시대는 현재 발굴된 유적으로 보아 강력한 소국(小國)의 중심지로 추정, 백제시대에는 다지현(多只峴), 신라시대에는 다기현(多岐縣), 고려초에는 모평현(牟平縣)이 합병되어 함평현이 됨, 조선조때는 2개의 면(面)인 평능면(平陵面)과 식지면(食知面)이 있었음. 1932. 11. 1. 평능면과 식지면을 통합해 나산면(羅山面) 신설.

02. 지역특성

광주광역시 도심으로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한 동부관문으로 국도24호선과 지방도 825·836호선이 통과하는 미맥위주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나산강을 중심으로 촌락이 발달하여 주민 성향이 너그러우며 인자함.

지역내 수변공원, 시설채소단지, 화훼단지의 유통이 활발한 지역으로 특산물로는 방울토마토, 동충하초, 메주, 딸기 등이 있음.

우리 전통 민속을 되새기고 유적지 등과 연계한 현존하는 솟대섬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솟대·장승공원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들녘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역임.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55.6㎢	1,612	2,599	29	71	1,423	-	-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3	2	1	1	-	6	17	3	6	13

03. 일반현황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다문화)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612	2,599	164	211	282	356	6	14	846	1,039

04. 특색사업

나눔은 더하고, 보금자리는 새롭게! 행복나산 프로젝트

가. 추진배경

-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바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화합 분위기 조성
-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참여형 맞춤복지 실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 추진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주최주관 : 나산면/나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산면우리동네복지기동대
- 사업내용
  - 주민참여형「꽃피는 봄, 나산사랑 행복나눔」운영(2026년)
  -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관·사회단체, 주민이 협력하여 기부물품 판매 및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나눔문화 확산과 면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
  - ·2026. 3. 25. 나산노인복센터 앞 주차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및 판매수익금 약 3,900만원을 확보, 향후 지역특화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제공
  - ·전기·건축 등 다양한 기술을 가진 마을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 ·현대식 주방·화장실 신설, 도배·장판 교체, 창호 교체, 지붕 보수 등(34가구 지원/2025년)

다. 사업성과

- 주민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화합 및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
- 기부문화 확산과 자발적 후원 참여를 이끌어 내 지속 가능한 나눔체계 기반 조성
-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꽃피는 봄, 나산사랑 행복나눔 행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보도자료(복지기동대 어르신 안전보호 앞장)

호남신문 2025년 4월 3일 목요일 016면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지 안전망 강화 앞장



거동 불편 어르신 안전 보호…화장실 바닥 데크 설치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김판호)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함평군은 지난 3월 27일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26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해 화장실 바닥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편마비로 인해 집안을 기어서 생활해야 했던 어르신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기동대는 기존에 높낮이 차이가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낙상 위험이 있던 화장실 바닥에 덱(Deck)을 시공해 평탄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했는데 복지기동대원분들 덕분에 훨씬 편하고 안전해졌다"며 "항상 주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복지기동대원분들과 나산면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석 나산면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화장실 단차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거 환경개선, 생활안전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사랑나눔 부식꾸러미 전달)

호남신문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016면

함평군 나산면, 취약계층 30가구에 '사랑 나눔 부식 꾸러미' 전달



무더위 취약계층 안전 확보와 호우 피해 점검 등 현장 복지 강화

다.

함평군은 27일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5일 무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부식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나산면 직원들도 동참했다.

꾸러미에는 여름철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즉석 국류와 간편 조리 식품 등 필수 식료품이 담겼다.

함평군 나산면이 무더위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현장 맞춤형 복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나산면은 가정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특히,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주거 피해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폭염 대응 요령도 안내하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겼다.

정석 나산면장은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돌보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독거노인 싱크대, 등기구 교체)

광전매일신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010면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 개선 앞장

복권 기금 활용… 독거노인 가구 싱크대 및 LED 등기구 교체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김판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에 적극 나섰다.

함평군은 17일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 13일 복권 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 불편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 복지기동대는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고 실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 선반을 직접 제작해 설치했다. 또한,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주방 조명을 LED로 교체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해 독거노인의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김판호 나산면 복지기동대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활동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석 나산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헌신해주시는 복지기동대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권 기금사업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보금자리 마련)

호남신문 2026년 2월 2일 월요일 016면



함평군 나산면, 취약계층 새 보금자리 마련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달 30일 나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붕괴 위험이 있는 위험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로, 기존 주택이 심각하게 노후화돼 천장 붕괴 위험 등 전반적인 안전 문제가 있었다. 부엌·사워 공간이 없어 면지가 가득한 곳에서 조리해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나산면사무소와 복지기동대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컨테이너를 주거용으로 설치하는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새 보금자리 조성에 나섰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총 47일간 진행됐으며, 사업비는 대한적십자사·이랜드복지재단, 함평군 지원금과 지정기탁 후원금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며 힘을 보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완공 기념식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오찬이 경로당에서 마련됐으며, 여러 기관·단체들의 후원이 더해져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지사협 온기나눔)

광전매일신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010면



함평군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온기나눔 캠페인

전남 함평군 나산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정석, 민간위원장 정천수)가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나눔 부식꾸러미를 지원하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함평군은 21일 "나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남 거동 불편, 중증 장애 등의 사유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가구에 부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따뜻한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어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공동의 표어 아래 여러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나눔·봉사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석 나산면장은 "사랑의 온기가 꾸준히 필요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온기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나산면은 겨울철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 기간(24.12.02.~25.02.28.)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바 있으며 온기나눔 캠페인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나눔에 참여할 계획이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나산 365 나눔창구)

대한일보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014면



함평군, '나산365 나눔창구' 기부행렬 잇따라

함평군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 기부가 줄을 이으며 '나산365 나눔창구'를 가득 메웠다.

함평군 나산면은 지난 14일 "나산면 월봉2리 주민 이삼용 씨가 지난 13일 식용유, 세탁세제 등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나산365 나눔창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나산365 나눔창구'는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나산면은 기부받은 물품을 창구에 비치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이 구비된 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freemoc1@naver.com

해보면

01. 연혁

해보면은 백제시대에는 다지현에 속했고 신라시대에는 다기현 고려와 조선 초에는 모평현에 속했으며 1409년 함풍현과 모평현이 합해져 함평현이 되면서 함평현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능면의 공정일부지역이 대창리에 월악면 용천일부가 용산리에 편입되었고 편출된 지역으로는 성대와 계동 일부지역이 나산면 우치리로 성산 일부 지역이 월야면 용월리와 양정리로 문암이 월야면 정산리로 대수는 영광군 묘량리로 속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해보면은 10개의 법정리와 26개 운영리, 32개의 자연마을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02. 지역특성

함평군의 동북방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월야면, 서쪽으로는 대동면, 남쪽으로는 나산면, 북쪽으로는 영광군과 인접하고 있으며 영광방면 국도 22호선과 장성방면 국도 24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주변 자연환경은 모악산, 옥녀봉, 수양산, 월양산 등 비교적 높은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며 광암리 용천사 꽃무릇공원에는 천혜의 자원인 꽃무릇(상사화)이 1.5㎢의 규모로 광활하게 자생하고 있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39.5㎢	1,581	2,616	31	-	1,494	-	87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4개소	2개교 6명	1개교 42명	1개교 33명	-	61개소	434명	6개소	5개소	13개소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기초연금)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817	1,307	105	105	-	284	7	17	705	888

04. 특색사업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가. 추진배경

-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및 지원
- 인적, 물적 자원 발굴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연계·지원

나. 추진내용

세부사업 추진 목록

주체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지원사업	▸중위소득 100%이내 소외계층에게 설명절을 맞아 생계비 전달 ※20만원 계좌송금	9가구
	꾸러미 나눔으로 행복키우기	▸저소득 취약계층의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식료품, 부식 등 꾸러미 전달	26가구 (2회, 2,600천원)
	더위 극복,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쿨매트 지원	26가구 (1,300천원)
	중복엔 닭이죠! 건강 닭드림 (Dream)	▸31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무더위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여름철 보양식 제공	2,000천원
	2025년 해보면 어르신 생신 잔치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생신상 준비 및 선물 전달	4,000천원

세부사업 추진 목록

주체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해보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따뜻한 마음, 온수매트로 나누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수매트 지원	16가구 (3,800천원)
	겨울철 생계비 및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00%이내 소외계층에게 겨울철 생계비 및 난방비 지원을	20가구 2,000천원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능나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보일러 교체, 전기배선 수리, 집안정리정돈, 청소,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11가구 21,000천원

다. 사업성과

-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
- 민관 협력체계로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꾸러미 나눔으로 행복키우기 사업



따듯한 마음, 온수매트로 나누기



보도자료(민관협력 여름나기 돕기)



호남신문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010면

'연대의 힘' 함평군 해보면, 민관협력해 어르신 건강 보호 나서

함평군 해보면이 민관협력을 통해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돕기에 나섰다.

함평군은 30일 "해보면이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을 중심으로 지난 28일 혼태 경로당 외곽에 영양음료 4박스씩 총 12박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기획 나눔문화확산 사업(꾸밈사업(DIY))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해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해보면과 지사협은 경로당을 방문해 영양음료를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등 건강 관리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민관이 협력해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의 기력 보복과 면역력 증진을 돕는 정서적 지원까지 제공한 사례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 연대감을 회복했다는 평가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호남신문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014면

함평 해보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출동'

함평군 해보면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해보면 복지기동대원 3명은 지붕 누수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붕 개량 및 천정 보수 작업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 대상자인 장 모 씨는 "올해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감에 잠을 설쳤는데 도와주신 덕분에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새마을부녀회 붕어빵 나눔)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붕어빵을 만들고 있다. 해보면 부녀회는 13년째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나눠주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 13년째 붕어빵 나눔

함평군 해보면 새마을부녀회가 13년째 붕어빵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일 해보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8일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붕어빵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0여명의 해보면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참여해 밀가루 반죽과 팥앙금을 직접 준비하고 붕어빵을 정성껏 구워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배부했다.

김남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정성껏 구운 붕어빵이 작지만 큰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채현 기자

보도자료(지사협 식료품 꾸러미 나눔)



광주타임즈 2025년 4월 1일 화요일 006면

함평 해보면 지사협, 식료품 꾸러미 나눔

함평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꾸러미 나눔으로 행복 키우기' 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가정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 나눔으로 행복 키우기'는 해보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곰탕, 참치 통조림, 간강 주스, 천마차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함평에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주민자치위원회 나눔)



광주매일신문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010면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온정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바람이 퍼지고 있다.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19일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지역 내 경로당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현금 100만 원과 컵라면 62박스, 백미(4kg) 31포대를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2025년 12월 1일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출범할 예정이며, 이번 기부는 전환을 앞둔 마지막 주민자치위원회의 의미 있는 나눔 활동으로 더욱 뜻깊다.

또한, (사)한국쌀전업농 박재은 함평군연합회장도 백미 10kg 50포대를 기부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기탁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훈훈한 정을 전달하고, 주민 중심의 나눔 문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집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는 "연말을 맞아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생활개선회 쌀국수 나눔)



광주매일 2026년 3월 4일 수요일 011면

함평 해보면 생활개선회, 어르신에 쌀국수 나눔

함평군 해보면은 최근 해보면 생활개선회가 경로당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쌀국수 40박스를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생활개선회가 지난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과 '2025 함평겨울빛축제' 에 참여해 호떡과 어묵 등 간식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회원들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을 모아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

이정희 해보면 생활개선회장은 "회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어르신들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만기 기자

보도자료(어르신 생신잔치 돌봄정책)



광주매일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013면

함평 어르신 생신잔치로 공동체 돌봄문화 확산

해보면 50명 '축하'…이상익 군수·이남오 군의장 등 참석

함평군 해보면이 독거 어르신을 위해 따뜻한 생신 잔치로 공동체 문화에 앞장서며 지역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해보공동솜센터에서 지역 특거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해보면 어르신 생신 축하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고독감 해소를 돕고 따뜻한 공동체 돌봄 분화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군의회 의장, 사회단체장 등 내빈 10명과 자원봉사자 40여명이 함께했다.

생신 잔치뿐만 아니라 농촌체능나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시력검사, 디퓨저 만들기 체험 등 다채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또 나르다예술단의 민요·모듬북 공연, 함평퀸즈의 에어로빅과

한홍 공연이 이우리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90세 생신을 맞은 박순덕 어르신의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이상익 함평군수와 이남오 의장이 따뜻한 축사를 전해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보도자료(온수매트 나눔)

서울일보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015면

함평, 해보면 취약계층 독거노인 16가구 온수매트 나눔

함평군 해보면이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선제적 복지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3일 "해보면이 11월 7일까지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16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따뜻한 마음, 온수매트로 나누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보면은 지난달 28일부터 난방 취약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고립 해소와 지역사회 온정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보면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온수매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온수매트는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물품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한 나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 강화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온수매트를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이번 사업은 협의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준비한 나눔 사업으로,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돌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월야면

01. 연혁

백제시대에는 다지현(多只縣) 신라시대에는 다기현(多岐縣) 고려시대에는 모평현(牟平縣)에 속하다가 조선조 태종 9년(太宗, 1409) 함평현과 모평현이 합하여 함평현(咸平縣)이 됨으로써 함평현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조때 현 월야면 지역에는 월악(月岳), 갈동(葛洞), 대야동면(大野洞, 大也面)이 있었는데 월악면의 관할구역은 현 외치, 월야, 월악리였고, 갈동면의 관할구역은 용월, 양정, 영월리였으며, 대야면의 관할구역은 계림, 예덕, 정산, 용암, 용정, 월계리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월악, 갈동, 대야면을 합쳐 월야면이 신설되었고 리제(里制)가 시행되면서 면간, 군간의 구역조정이 있었는데, 이 때 월야면에서 다른 면으로 편출되어간 곳은 월야면 용촌 일부가 해보면 용산리로, 대야면 복용 일부가 해보면 금덕리로, 갈동면 내기 일부와 월악면 외치 일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동 양정리로, 월악면 고와, 복만 일부가 광산구 본양동 덕림리로, 월악면 주곡 일부가 삼서면 금산리로, 대야면 연정, 용계, 신월, 신평, 팔음, 전역이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로 편출되었다.

한편 편입된 지역은 해보면 성산 일부가 용월, 양정리로, 해보면 문암 일부가 정산리로, 삼서면의 반학 일부가 예덕리로 삼가면(현 삼도동)의 치암 일부가 외치리로 편입되었다.

월악(月岳)과 대야(大也)의 이름을 따서 "월야면(月也面)"이라 하였다.

02. 지역특성

군청소재지로부터 동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광산구(삼도,본양)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해보면, 북쪽으로는 영광군 묘량면, 지리적 위치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원도시 등 특히, 빛그린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과 북을 영산강과 연결되는 월야천이 관통하고 있어 마르지 않는 기름진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미맥 위주의 경종 농업과 낙농, 한우, 양계 등 축산업에 종사하고 도로망이 사통팔달로 산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빛그린국가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

역사 유적인 지석묘와 옹관묘, 백제시대의 고분군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역사적 문화가 살아 숨쉬는 월야면은 충·효·열의 민족자주성이 강하며, 구한말 심남일 의병대장과 안후덕 선생, 기미년 4.8만세 발상지가 있는 영예로운 전통을 가진 고장이며, 정유재란때 월악리의 팔열부는 순절의 사표가 되고 있다.

03.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면적	세대	인구	행정구역		주택		
			통	반	단독주택	연 립	아파트
34.4㎢	2,094	3,419	31	61	1,971	1	2

나. 기관 및 시설현황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업체수	종업원			
7	2	1	1	1	59	1,290	8	1	13

다. 복지서비스대상

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타(다문화)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12	614	133	169	343	375	12	29	24	41

04. 특색사업

"나눔의 행복, 함께 여는 복지 월야"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

가.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 고령화, 취약계층의 지속적 확대 등으로 각종 복지 욕구가 다양화·세분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구축 필요
- 민·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세부사업 추진 목록

주체	사업명	내용	수혜가구
월야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건강 up! 행복 up!	▸관내 마을 경로당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상담, 건강체조, 기부물품(베이커리, 요플레) 전달	경로당 22개소 (204명)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관내 마을 경로당 방문하여 눈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돋보기 나눔	경로당 10개소 (87명)
	2025년 설 명절 생계비 지원사업	▸명절 소외계층에게 설 명절 대비 생계비 지급	7가구 (1,900천원)
	cool~한 여름나기 이불지원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 이불 지원	35가구 (3,000천원)
	한가위 복(福)꾸러미 나눔사업	▸명절 소외계층 위문 및 복꾸러미(부식, 생필품 등) 지원	30가구 (3,000천원)
	온(溫)동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한파 취약계층에 혹한기 대비 난방물품(목도리, 장갑) 및 부식지원	30가구 (3,000천원)
	건강지킴이 뉴케어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일상생활 유지 위해 뉴케어 영양식 지원	75가구 (3,000천원)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축제나들이	▸외부활동이 적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국향대전 관람 및 식사지원	20가구 (2,000천원)
	메리월야, 크리스마스	▸관내 저소득 가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전달	11가구 (1,000천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사업	▸재능나눔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보일러 교체, 전기배선 수리, 집안정리정돈, 청소, 도배, 장판 교체,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	37가구/ 34,000천원

다. 사업성과

- 관내 후원업체의 정기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는 참여형 복지모델 제시
- 주민의 나눔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 협력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여름나기 이불지원 사업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축제나들이



메리월야, 크리스마스



보도자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호남신문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01면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지역 내 취약계층 2가구 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 위해 이번 활동 추진



함평군(군수 이상익)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함평군은 14일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정점오)가 지난 13일 지역 내 취약계층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디기오는 겨울을 앞두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첫 대상은 독거노인 어르신 댁으로, perennial 어려움을 겪어 집 안 곳곳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생활 중이었다. 복지기동대는 낡은 창문을 안전하게 폐기하고 내부의 외부를 정리·청소해 어르신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번째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모자가구로, 부식된 다용도실 문짝과 파손된 자동 보기상 등 생활 불편이 있다. 복지기동대는 문짝을 새 합판으로 교체하고 보기장을 교체하는 등 주거 편의를 개선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경 정비를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활동으로 평가된다.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점오 월야면 복지기동대장은 "우리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복지기동대의 가장 큰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선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기동대의 헌신이 바로 현장 중심 복지의 참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군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사업)

광전매일신문 2026년 2월 9일 월요일 010면

함평군 월야면,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사업 추진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지난 4일부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야면 지역특화사업인 '심봉사도 눈뜨GO 밝은 눈 만들기'는 시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나 거동의 불편함 등으로 적절한 안경을 맞추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가온안경(대표 김유한)이 함께 추진하며, 월 1회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돋보기 지원 ▲시력에 맞는 안경 교정 ▲올바른 안경 사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월야면은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병행해 복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승이 월야면장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신 가온안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도자료(지장협 영양꾸러미 나눔)

서울일보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014면

함평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情)나눔 영양꾸러미' 전달



▲함평군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情)나눔 영양꾸러미'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순영·장수복)가 지난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情)나눔 영양꾸러미'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저소득가정 30세대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한과, 건과세트, 간편조리식 등으로 구성된 풍성한 명절 음식 꾸러미를 준비했으며, 복지기동대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대상 가구의 안부를 확인했다.

'정(情)나눔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 특화사업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명절 상차림 비용이 부담스러운 지역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장수복 민간위원장은 "이번 한가위 꾸러미가 이웃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에 사랑의 온기가 널리 퍼지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순영 월야면장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신 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철 기자

보도자료(어르신 돋보기 지원)

호남신문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014면

함평 월야면 가온안경, 어르신 돋보기 지원



함평군 월야면이 매월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의 시력검사와 함께 맞춤형 돋보기안경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나눔가게 3호점인 가온안경(대표 김유한)의 후원으로 성사된 월야면 특화사업으로, 상반기에만 80가구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

가온안경 김유한 대표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작은 재능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꾸준한 후원 활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에 눈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안순영 월야면장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도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추후 본 사업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사회적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도자료(쌀떡 나눔)

광주타임즈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006면

함평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쌀떡 나눔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쌀떡 1240kg을 관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월야면민들이 기부한 쌀떡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지기동대는 이를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아동 가구 등 6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생활안전 수칙 안내와 건강상태 확인을 병행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함평=나근채 기자

보도자료(어르신과 가을나들이)

전남매일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011면



함평군 월야면, 어르신과 함께 가을 나들이

함평군은 월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와 복지기동대가 지난 4일 월야면 소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평 국화축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평소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사회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기동대원과 지사협 위원들이 1:1로 어르신을 동행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도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지역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만기 기자

보도자료(한가위 영양꾸러미 나눔)

광주타임즈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006면

함평 월야면 지사협, 한가위 영양꾸러미 나눔



함평군은 월야면 지사협가 최근 정(情)나눔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가정 30세대에 한가위 영양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연계 특화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사협은 한과세트와 간편 조리식품, 가정식 반찬류 등 풍성한 명절 음식 꾸러미를 마련했으며,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저소득가정 3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주민의 안부도 확인했다.

함평=나근채 기자

VI

함평군의회

01 군의회 운영 590
제1절 의회 일반현황 591
제2절 제9대 의원소개 593
제3절 역대 의장단 및 의원현황 595
02 의정활동 599
제1절 의회운영 현황 600
제2절 의안처리 현황 606
제3절 군정질문 607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608
제5절 특별위원회 운영 609
제6절 상임위원회 운영 610
제7절 건의안(결의안) 채택 현황 611
제8절 의원별 조례 등 주요 의안 612

제1장
군의회 운영

제1절 의회 일반현황

제2절 제9대 의원소개

제3절 역대 의장단 및 의원현황

제1절
의회 일반현황



연혁

194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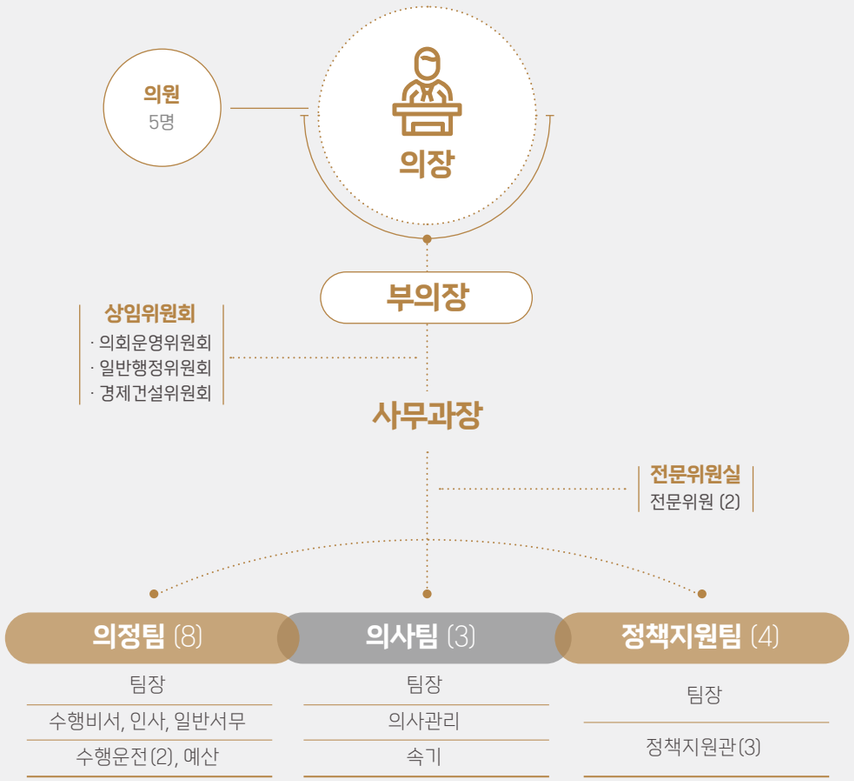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
1952. 4. 25.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실질적 지방자치 시작
1952. 5. ~ 1956. 8.	제1대 읍·면 의회 운영
1956. 8. ~ 1960. 12.	제2대 읍·면 의회 운영
1960. 12. ~ 1961. 5.	제3대 읍·면 의회 운영
1961. 5. 16.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 해산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부활
1991. 3. 26.	시·군의회 의원 선거
1991. 4. ~ 1995. 6.	제1대 함평군의회 운영
1995. 7. ~ 1998. 6.	제2대 함평군의회 운영
1998. 7. ~ 2002. 6.	제3대 함평군의회 운영

2020s

2002. 7. ~ 2006. 6.	제4대 함평군의회 운영
2006. 7. ~ 2010. 6.	제5대 함평군의회 운영
2010. 7. ~ 2014. 6.	제6대 함평군의회 운영
2014. 7. ~ 2018. 6.	제7대 함평군의회 운영
2018. 7. ~ 2022. 6.	제8대 함평군의회 운영
2022. 7. ~ 2026. 6.	제9대 함평군의회 운영

군의회 기구 및 현황

가. 의회기구표



나. 의회공무원 현황(파견직포함)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직
현원	18	2	4	5	4	1	2

제2절
제9대 의원소개



정철희 | 선거구명 가선거구(함평,손불,신광,엄다)

주요경력
- 제6대 함평군의회 전·후반기 일반행정위원장
- 제7대 전·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8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장
- 제8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부의장



김영인 | 선거구명 가선거구(함평,손불,신광,엄다)

주요경력
- (사)전국 한우협회 함평군지부장
- 함평군 축산단체 협의회장
- 함평군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장
- 함평군 교육청 참여위원장
- 제8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8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 제9대 전·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이남오 | 선거구명 가선거구(함평,손불,신광,엄다)

주요경력
- 함평청년회의소(JC) 회장
- 초당대학교 총동문회장
- KB손해보험 명예이사
- 함평군골프협회 회장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장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장



정현웅 | 선거구명 나선거구(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주요경력
- 제3대·제4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3대·제4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부의장
- 제8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 제8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윤앵랑 | 선거구명 나선거구(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주요경력
- 제5대 전·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7대 전·후반기 함평군의회 의원
- 제8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8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부의장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의장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서 | 선거구명 나선거구(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주요경력
- 함평군 월야농협 이사
- 함평군 월야면 의용소방대장
- 월야장학회 회원
-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부의장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 비례대표

주요경력
- 함평군 4-H연합회 생활개선부장
- 전라남도 4-H연합회 여성정책부장
- (사)한국여성농업인 대동면회장
- (사)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 부회장
- 제9대 전반기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 제9대 후반기 함평군의회 일반행정위원장

제3절
역대의장단 및 의원현황

01
역대의장단

대 별	기 별	의 장	부의장	비 고
제 1대	전반기	김봉학	윤여은	
	후반기	윤여은	정성화	
		김영관	정성화	
제 2대	전반기	윤 표	임인택	
	후반기	정봉곤	서수정	
제3대	전반기	나병기	이남경	
	후반기	나병기	정현웅	
제4대	전반기	김만환	조용무	
	후반기	정승근	정현웅	
		정영화	김청수	
제5대	전반기	정현철	이윤행	
	후반기	조용무	이동윤	
제6대	전반기	양규모	이화동	
	후반기	양규모	정수길	
제7대	전반기	정수길	이재영	
	후반기	이윤행	정경임	
제8대	전반기	정철희	허정임	
	후반기	김형모	윤앵랑	
제9대	전반기	윤앵랑	박문서	
	후반기	이남오	정철희	

02
역대의원

1대 의회
1991. 4. 15. ~ 1995. 6. 30.

지역구별	성명	지역구별	성명	비고
함평읍	김봉학	대동면	김영관	
손불면	이기노	나산면	김경호	
신광면	이용헌	해보면	윤여은	
학교면	정성화	월야면	이록범	1991. 4. 15. ~ 1993. 9. 9.
엄다면	윤 표	월야면	정윤철	1993. 9. 10. ~ 1995. 6. 30.

2대 의회
1995. 7. 1. ~ 1998. 6. 30.

지역구별	성명	지역구별	성명
함평읍	노금노	대동면	정봉곤
손불면	임인택	나산면	안종래
신광면	이진섭	해보면	이재화
학교면	이만근	월야면	서수정
엄다면	윤 표		

3대 의회
1995. 7. 1. ~ 1998.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지역구별	성명	비고
함평읍	이남경		대동면	이경연	1998. 7. 1. ~ 2000. 4. 11.
손불면	임인택		대동면	최미경	1999. 7. 22. ~ 2002. 6. 30.
신광면	모상영		나산면	나병기	
학교면	정성화	1998. 7. 1. ~ 2000. 4. 11.	해보면	윤종형	
학교면	이백주	2000. 6. 8. ~ 2002. 6. 30.	월야면	정현웅	
엄다면	이부헌				

4대 의회
2002. 7. 1. ~ 2006.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지역구별	성명	비고
함평읍	김청수		함평읍	정영화	2004. 10. 30. ~ 2006. 6. 30.
손불면	백맹조	2002. 7. 1. ~ 2006. 2. 24.	손불면	조용무	
신광면	모상영	2002. 7. 1. ~ 2006. 2. 24.	신광면	노화섭	
학교면	이백주	2002. 7. 1. ~ 2006. 2. 24.	학교면	정승근	2002. 7. 1. ~ 2006. 4. 14.
엄다면	김만환	2002. 7. 1. ~ 2004. 9. 23.	엄다면	정현웅	2002. 7. 1. ~ 2006. 2. 24.

5대 의회
2006. 7. 1. ~ 2010.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가선거구 (함평,손불,신광,엄다)	이동윤	
	김백용	2006. 7. 1. ~ 2007. 9. 6.
	정창우	2007. 12. 19. ~ 2010. 6. 30.
	이윤행	
나선거구 (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김국도	
	조용무	
	정현철	
비례대표	김영종	2006. 7. 1. ~ 2008. 7. 18.
	윤앵랑	2008. 7. 25. ~ 2010. 6. 30.

6대 의회
2010. 7. 1. ~ 2014.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가선거구 (함평,손불,신광,엄다)	정철희	
	이화동	
	임용수	2010. 7. 1. ~ 2014. 5. 2.
나선거구 (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양규모	
	정수길	
	이재영	
비례대표	최옥정	2010. 7. 1. ~ 2012. 8. 24.
	김국도	2012. 9. 3. ~ 2014. 6. 30.

7대 의회
2014. 7. 1. ~ 2018.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가선거구 (함평,손불,신광,엄다)	이진섭	
	정철희	
	이윤행	
나선거구 (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정수길	
	이재영	
	정경임	
비례대표	윤앵랑	

8대 의회
2018. 7. 1. ~ 2022.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가선거구 (함평,손불,신광,엄다)	정철희	2018. 7. 1. ~ 2020. 3. 11.
	김형모	
	김영인	
	최종준	2020. 3. 12. ~ 2022. 6. 30.
나선거구 (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정현웅	
	정경임	
	윤앵랑	
비례대표	허정임	

9대 의회
2022. 7. 1. ~ 2026. 6. 30.

지역구별	성명	비고
가선거구 (함평,손불,신광,엄다)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나선거구 (학교,대동,나산,해보,월야)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비례대표	김은영	

제2장
의정활동

제1절 의회운영 현황
제2절 의안처리 현황
제3절 군정질문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5절 특별위원회 운영
제6절 상임위원회 운영
제7절 건의안(결의안) 채택 현황
제8절 의원별 조례 등 주요 의안

제1절
의회운영 현황

1. 연도별 운영 현황

함평군의회는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실시하며,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에 운영하고 있다.

임시회의 경우에는 함평군수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22년 후반기 회기운영 현황

총 6회, 64일

임시회 4회 18일간

정례회 2회 46일간(1차 23일, 2차 23일)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50일, 임시회 매회 15일 이내

연번	회기별	기 간	일수 (누계)	주요안건처리
1	제274회 임시회	'22.7.1.(금)	1 (1)	-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9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 제9대 함평군의회 개원식
2	제275회 임시회	'22.7.12.(화) ~ 7.22.(금)	11 (12)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3	제276회 제1차 정례회	'22.9.15.(목) ~ 10.7.(금)	23 (35)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1회계 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4	제277회 임시회	'22.11.8.(화) ~ 11.11.(금)	4 (39)	- 2022년도 군정질문·답변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5	제278회 제2차 정례회	'22.11.21.(월)~ 12.13.(화)	23 (62)	- 2023년도 본 예산안 - 2023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6	제279회 임시회	'22.12.20.(화)~ 12.21.(수)	2 (64)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 2023년 회기운영 현황

총8회, 91일

임시회 6회 53일간

정례회 2회 38일간(1차 16일, 2차 22일)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50일, 임시회 매회 15일 이내

연번	회기별	기 간	일수 (누계)	주요안건처리
1	제280회 임시회	'23.2.9.(목) ~ 2.21.(화)	13 (13)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2	제281회 임시회	'23.3.23.(목) ~ 4.5.(수)	14 (27)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3	제282회 임시회	'23.4.18.(화) ~ 4.20.(목)	3 (30)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4	제283회 제1차 정례회	'23.6.15.(목) ~ 6.30.(금)	16 (46)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5	제284회 임시회	'23.7.11.(화) ~ 7.20.(목)	10 (56)	-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6	제285회 임시회	'23.9.6.(수) ~ 9.14.(목)	9 (65)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7	제286회 임시회	'23.11.7.(화) ~ 11.10.(금)	4 (69)	- 2023년도 군정질문·답변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8	제287회 제2차정례회	'23.11.21.(화)~ 12.12.(화)	22 (91)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 2024년 회기운영 현황

총 10회, 93일

임시회 8회 56일간

정례회 2회 37일간(1차 15일, 2차 22일)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50일, 임시회 매회 15일 이내

연번	회기별	기 간	일수 (누계)	주요안건처리
1	제288회 임시회	'24.2.15.(목) ~ 2.28.(수)	14 (14)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2	제289회 임시회	'24.3.21.(목) ~ 4.3.(수)	14 (28)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3	제290회 임시회	'24.4.16.(화) ~ 4.19.(금)	4 (32)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4	제291회 제1차 정례회	'24.6.14.(금) ~ 6.28.(금)	15 (47)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3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5	제292회 임시회	'24.7.1.(월)	1 (48)	-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 -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6	제293회 임시회	'24.7.11.(목) ~ 7.19.(금)	9 (57)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7	제294회 임시회	'24.9.4.(수) ~ 9.12.(목)	9 (66)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8	제295회 임시회	'24.11.5.(화)~ 11.8.(금)	4 (70)	- 2024년도 군정질문·답변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9	제296회 제2차 정례회	'24.11.21.(목)~ 12.12.(목)	22 (92)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10	제297회 임시회	'24.12.17.(화)	1 (93)	- 결의문 채택

∘ 2025년 회기운영 현황

총 10회, 96일

임시회 8회 54일간

정례회 2회 42일간(1차 16일, 2차 26일)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50일, 임시회 매회 15일 이내

연번	회기별	기 간	일수 (누계)	주요안건처리
1	제298회 임시회	'25.1.24.(금)	1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2	제299회 임시회	'25.2.11.(화) ~ 2.21.(금)	11 (12)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3	제300회 임시회	'25.3.21.(금) ~ 4.4.(금)	15 (27)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4	제301회 임시회	'25.4.16.(수) ~ 4.18.(금)	3 (30)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5	제302회 제1차 정례회	'25.6.16.(월) ~ 7. 1.(화)	16 (46)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실시 -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6	제303회 임시회	'25.7.16.(수) ~ 7.24.(목)	9 (55)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7	제304회 임시회	'25.9.3.(수) ~ 9.12.(금)	10 (65)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8	제305회 임시회	'25.9.26.(금)	1 (66)	- 결의안 등 안건처리
9	제306회 임시회	'25.10.21.(화) ~ 10.24.(금)	4 (70)	- 2025년도 군정질문·답변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10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5.11.21.(금) ~ 12.16.(화)	26 (96)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 2026년 상반기 회기운영 현황

총 3회, 30일

임시회 3회 30일간

※ 법정회기일수 : 정례회 50일, 임시회 매회 15일 이내

연번	회기별	기 간	일수 (누계)	주요안건처리
1	제308회 임시회	'26. 1. 29.(목) ~ 2. 11.(수)	14 (14)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2	제309회 임시회	'26. 3. 26.(목) ~ 4. 9.(목)	15 (29)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처리
3	제310회 임시회	'26. 4. 17.(금)	1 (30)	- 함평군의회 의장 사임의 건

∘ 정례회 운영 현황

(단위 : 회/일)

계	2022년 (후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8/163	2/46	2/38	2/37	2/42	-

∘ 임시회 운영 현황

(단위 : 회/일)

계	2022년 (후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29/211	4/18	6/53	8/56	8/54	3/30

본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의원 간담회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제2절
의안처리 현황

의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출한 안건으로, 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 연도별 의안처리 실적

(단위 : 건)

계	합계	조례			예산및 기금	규칙	승인 동의	일반안건 (결의,중요 동의)	기타 안건
		소계	의원발의	단체장 발의					
계	492	263	113	150	19	10	71	13	110
2022년 하반기	120	58	17	41	4	1	11	2	44
2023년	143	81	45	36	4	5	5	6	42
2024년	97	58	22	36	6	0	24	3	6
2025년	112	60	27	33	4	3	30	2	13
2026년 상반기	20	6	2	4	1	1	1	0	5

제3절
군정질문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은 재적의원 1/5이상의 의원 발의로 요구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내용이 의원간에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후 군정질문이 있는 임시회 집회일 3일 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원별 현황

(단위 : 건)

의원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93	25	26	23	19
정철희	14	4	4	3	3
윤앵랑	6	-	-	4	2
김은영	20	5	6	5	4
박문서	12	2	3	4	3
정현웅	14	4	4	3	3
김영인	19	6	5	4	4
이남오	8	4	4	-	-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수사례는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구분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범 위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 사안
시 기	매년 제1차 정례회시 9일간	수 시
요 건	본회의 의결	재적의원 1/3이상 발의로 본회의 의결

∘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수감 현황

구분	수감기관 수(실과소, 사업소)					자료요구 건 수	시정 및 처리 요구건수
	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법인		
계	77	69	-	8	-	630	435
2022년	17	15	-	2	-	157	88
2023년	20	18	-	2	-	178	114
2024년	20	18	-	2	-	162	120
2025년	20	18	-	2	-	133	113

제5절
특별위원회 운영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 의회에서는 특별한 안건(예산안, 결산안,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였다.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

∘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진행절차
개회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론 (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 연도별 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회/일)

연도별	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	53/69	29/29	24/40
2022년 하반기	10/13	4/4	6/9
2023년	12/15	6/6	6/9
2024년	13/15	6/6	7/9
2025년	13/19	6/6	7/13
2026년 상반기	1/1	1/1	0/0

제6절
상임위원회 운영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운영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의사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회

∘ 의결정족수

모든 안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진행절차

개회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론 (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 위원장 정현웅 의원	· 위원장 이남오 의원	· 위원장 김은영 의원
· 간 사 정철희 의원	· 간 사 정현웅 의원	· 간 사 박문서 의원
· 위 원 김영인 의원	· 위 원 정철희 의원	· 위 원 정철희 의원
박문서 의원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
	박문서 의원	정현웅 의원

∘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 위원장 윤앵랑 의원	· 위원장 김은영 의원	· 위원장 박문서 의원
· 간 사 정철희 의원	· 간 사 정현웅 의원	· 간 사 윤앵랑 의원
· 위 원 김영인 의원	· 위 원 정철희 의원	· 위 원 정철희 의원
정현웅 의원	김영인 의원	김영인 의원
	윤앵랑 의원	정현웅 의원

∘ 연도별 상임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회/일)

계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157/131	36/31	53/45	53/43	49/43	14/13

제7절
건의(결의)안 채택 현황

연도	회 기	발의자	의결일	건(결)의안명	비고
2022	제276회	김은영 의원	2022. 9. 23.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	
2023	제282회	이남오 의원	2023. 4. 20.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23	제283회	정현웅 의원	2023. 6. 30.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2023	제285회	김영인 의원	2023. 9. 1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제287회	이남오 의원	2023. 11. 28.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안전성 확보 촉구 결의안	
2023	제287회	정철희 의원	2023. 12. 12.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2024	제288회	박문서 의원	2024. 2. 28.	신안 해상풍력 고압 송전선로 함평 관통 반대 결의안	
2024	제291회	이남오 의원	2024. 6. 28.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2024	제294회	김은영 의원	2024. 9. 12.	쌀값 안정 이행 촉구 건의문	
2024	제297회	정현웅 의원	2024. 12. 17.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개정 촉구 결의안	
2025	제300회	정철희 의원	2025. 4. 4.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2025	제303회	김은영 의원	2025. 7. 24	전남 서남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지역협의 및 상생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2025	제305회	김은영 의원	2025. 9. 26.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결의안	
2025	제307회	이남오 의원	2025. 12. 16.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	
2026	제308회	김은영 의원	2026. 1. 2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	제308회	이남오 의원	2026. 2. 11.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제8절
의원별 조례 등 주요 의안

정철희 의원

함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

함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민의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생활 속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걷기 앱 운영, 걷기 행사, 인센티브 제공 등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김영인 의원

함평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 축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인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 축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기여함.

함평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을 통합·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함.

이남오 의원

함평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

함평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추진단 운영, 생활인구 확대 등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함.

정현웅 의원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 현장점검, 예방대책 수립 등 노동안전보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함.

함평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목을 보존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나무은행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녹지자원 보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함.

윤앵랑 의원

함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치매 예방, 조기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함평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기반 조성, 해외 판로 확대,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박문서 의원

함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함.

함평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함.

김은영 의원

함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교육, 취업 지원, 경력 유지 기반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함.

함평군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에 기여함.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장애인식 및 4대폭력 예방교육



의회 의정연수



설명절 위문품 전달방문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함평군 도민공청회



고향사랑기부제 협약식


집중호우 피해복구 봉사



정책연구 용역 선진지 견학


의회 의정연수


의회 의정연수

VII

부록

01 역대 군수 현황 618
02 역대 부군수 현황 620
03 민선8기 간부 공무원 명단 621

01
역대 군수 현황

역대	성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1	오기홍(吳基洪)			
2	박기홍(朴基洪)			
3	손원배(孫元培)			
4	김영춘(金永春)	1948.12.11	1949.07.30	7월
5	김치준(金致俊)	1949.07.31	1950.05.14	9월
6	박종오(朴種午)	1950.05.15	1952.06.20	2년 2월
7	이시형(李時炯)	1952.06.21	1953.08.31	1년 2월
8	오세찬(吳世燦)	1953.09.01	1953.12.27	3월
9	한창석(韓昌錫)	1953.12.28	1955.08.03	1년 8월
10	박승규(朴升奎)	1955.08.04	1957.04.22	1년 8월
11	김종출(金鍾出)	1957.04.23	1960.02.07	2년 10월
12	정재수(丁在受)	1960.02.08	1960.05.22	3월
13	김병오(金秉吾)	1960.05.23	1961.06.20	1년 3월
14	이준형(李準炯)	1961.06.21	1963.01.07	1년 8월
15	이철수(李哲洙)	1963.03.27	1963.11.22	8월
16	정상열(鄭相烈)	1964.02.07	1965.07.31	1년 6월
17	조성칠(趙誠七)	1965.08.01	1966.07.19	1년
18	박남칠(朴南七)	1966.07.20	1968.06.14	1년 11월
19	송돈효(宋敦孝)	1968.06.15	1970.03.02	1년 6월
20	송인섭(宋仁燮)	1970.03.03	1971.08.20	1년 6월
21	김정동(金正東)	1971.08.21	1973.02.06	1년 5월
22	김석곤(金錫坤)	1973.02.07	1974.01.24	1년
23	윤성윤(尹盛胤)	1974.01.25	1974.08.05	7월
24	백하규(白夏圭)	1974.08.06	1975.10.30	1년 3월
25	김성흠(金聲欽)	1975.10.31	1976.08.31	10월
26	이영의(李永儀)	1976.09.01	1978.05.31	1년 10월
27	황영구(黃永九)	1978.06.01	1980.01.31	1년 8월
28	나승포(羅承布)	1980.02.01	1981.07.10	1년 5월
29	유민봉(庾珉鳳)	1981.07.11	1982.09.17	1년 3월
30	장재필(張再必)	1982.09.18	1985.03.10	2년 6월
31	정병섭(鄭炳燮)	1985.03.11	1986.10.31	1년 8월
32	김주호(金周鎬)	1986.11.01	1988.06.11	1년 8월
33	이정균(李鉦均)	1988.06.12	1989.03.02	9월
34	김해권(金海權)	1989.03.03	1990.08.26	1년 6월
35	정진오(鄭鎭午)	1990.08.27	1992.04.22	1년 8월
36	김한동(金韓東)	1992.04.30	1993.05.28	1년 1월
37	선종륜(宣鍾崙)	1993.05.29	1994.05.03	1년
38	기갑서(奇甲舒)	1994.05.06	1994.12.31	8월
39	박재영(朴在泳)	1995.01.01	1995.06.30	6월
40	정원강(鄭元强)	1995.07.01	1998.06.30	3년
41	이석형(李錫炯)	1998.07.01	2002.06.30	4년
42	이석형(李錫炯)	2002.07.01	2006.06.30	4년
43	이석형(李錫炯)	2006.07.01	2010.01.05	3년 6월
44	안병호(安柄鎬)	2010.07.01	2014.06.30	4년
45	안병호(安柄鎬)	2014.07.01	2018.06.30	4년
46	이윤행(李允行)	2018.07.01	2019.05.29	11월
47	이상익(李尙益)	2020.04.16	2022.06.30	2년 2월
48	이상익(李尙益)	2022.07.01	-	재임 중

02
역대 부군수 현황

역대	성명	취임년월일	이임년월일	재직기간
1	정동주(鄭東柱)	1975.01.09	1975.09.02	8월
2	한상철(韓相哲)	1975.09.03	1976.09.02	1년
3	강승회(姜承會)	1976.09.03	1977.03.21	6월
4	박준식(朴俊植)	1977.03.22	1978.08.15	1년 5월
5	김상섭(金相燮)	1978.08.16	1980.01.31	1년 5월
6	정형근(鄭亨根)	1980.02.01	1980.08.20	7월
7	김양식(金瀁植)	1980.08.21	1982.11.04	2년 3월
8	서삼현(徐三鉉)	1985.04.10	1986.03.21	11월
9	이기태(李奇泰)	1986.03.21	1988.07.03	2년 3월
10	조영욱(曺泳旭)	1988.07.04	1989.12.20	1년 6월
11	강박원(姜珀遠)	1989.12.21	1992.01.10	2년 2월
12	나인수(羅仁洙)	1992.01.11	1993.08.16	1년 8월
13	오만영(吳晩泳)	1993.08.17	1994.12.31	1년 4월
14	최복만(催福萬)	1995.01.01	1996.07.24	1년 7월
15	이상옥(李相鈺)	1996.07.25	1997.07.28	1년
16	박영효(朴永孝)	1997.09.24	1998.08.31	11월
17	김양기(金良基)	1998.09.01	2000.01.07	1년 4월
18	김영석(金英錫)	2000.01.08	2002.08.13	2년 7월
19	주신호(朱信鎬)	2002.08.15	2005.01.19	2년 3월
20	정병재(鄭炳栽)	2005.01.20	2006.01.11	1년
21	이호경(李滈坰)	2006.01.12	2009.01.12	3년
22	박윤식(朴允植)	2009.01.13	2012.01.03	3년
23	장석홍(長碩鴻)	2012.01.04	2013.06.30	1년 6월
24	설인철(薛仁喆)	2013.07.19	2015.01.06	1년 6월
25	홍영민(洪永珉)	2015.01.07	2017.01.03	2년
26	조태용(趙泰容)	2017.01.04	2018.07.12	1년 6월
27	나윤수(羅允洙)	2018.07.12	2020.06.30	1년 11월
28	고동석(高東錫)	2020.07.01	2022.01.02	1년 6월
29	이병용(李丙湧)	2022.01.03	2023.06.30	1년 5월
30	임만규(林晩奎)	2023.07.03.	2025.01.01	1년 5월
31	강하춘(姜夏春)	2025.01.02		재임 중

03
민선8기 간부 공무원 명단

실과소장 명단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기획예산실장	**최종욱**	**2025. 7. 9. ~**	
	장정진	2023. 1. 10. ~ 2025. 7. 8.	조직개편 후
기획감사실장	안상만	2021. 7. 5. ~ 2023. 1. 9.	조직개편 전
관광정책실장	**윤은희**	**2026. 1. 5. ~**	
	장지선	2025. 7. 9. ~ 2026. 1. 4.	
	최종욱	2024. 1. 5. ~ 2025. 7. 8.	
	정제원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신설)
축제엑스포사업소장	윤성태	2021. 7. 5. ~ 2023. 1. 9.	조직개편 전
농업정책실장	**노병철**	**2025. 1. 13. ~**	
	나판종	2023. 1. 10. ~ 2024. 12. 31.	조직개편 후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	2020. 7. 27. ~ 2023. 1. 9.	조직개편 전
총무과장	**노우석**	**2025. 7. 9. ~**	
	김우석	2023. 1. 10. ~ 2025. 7. 8.	
	정화자	2021. 7. 5. ~ 2023. 1. 9.	
민원봉사과장	**오호석**	**2025. 7. 9. ~**	
	정상우	2023. 1. 10. ~ 2025. 6. 30.	
민원봉사실장	장정진	2022. 1. 1. ~ 2023. 1. 9.	조직개편 전
재무과장	**정순용**	**2024. 10. 29. ~**	
	정동안	2022. 7. 5. ~ 2024. 10. 28.	
	정기태	2021. 7. 5. ~ 2022. 7. 4.	
인구경제과장	정선희	2026. 1. 5. ~	조직개편 후
	서혜련	2025. 7. 9. ~ 2026. 1. 4.	
	장지선	2024. 7. 3. ~ 2025. 7. 8.	
	김종환	2024. 1. 5. ~ 2024. 6. 30.	
	박옥미	2022. 7. 5. ~ 2024. 1. 4.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	2022. 1. 1. ~ 2022. 7. 4.	조직개편 전
지역개발과장	**김순종**	**2026. 1. 17. ~**	
	배준호	2026. 1. 5. ~ 2026. 1. 11.	
	정기태	2024. 1. 5. ~ 2025. 12. 31.	
	최종욱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
미래전략실장	정제원	2021. 7. 5. ~ 2023. 1. 9.	조직개편 전
문화체육과장	**양성환**	**2025. 1. 13. ~**	

민선8기 간부 공무원 명단

실과소장 명단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오호석	2024. 1. 5. ~ 2024. 10. 30.	
	이경연	2023. 1. 10. ~ 2023. 12. 31.	조직개편 후
문화관광체육과장	정상우	2022. 1. 1. ~ 2023. 1. 9.	조직개편 전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	**2024. 1. 5. ~ 2025. 12. 31.**	
	오호석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신설)
환경관리과장	**홍명희**	**2026. 1. 5. ~**	
	안순영	2025. 7. 9. ~ 2026. 1. 4.	
	김선근	2025. 3. 12. ~ 2025. 6. 29.	
	홍명희	2023. 1. 10. ~ 2025. 3. 11.	조직개편 후
환경상하수도과장	임 훈	2020. 1. 7. ~ 2023. 1. 9.	조직개편 전
주민복지과장	**정 석**	**2026. 1. 5. ~**	
	천성은	2025. 7. 9. ~ 2025. 8. 26.	
	노우석	2024. 7. 3. ~ 2025. 7. 8.	
	정화자	2024. 1. 5. ~ 2024. 7. 2.	
	정순용	2022. 1. 1. ~ 2024. 1. 4.	
가족행복과장	**윤성태**	**2025. 1. 13. ~**	
	고순천	2024. 7. 3. ~ 2024. 12. 31.	
	김종수	2023. 1. 10. ~ 2024. 7. 2.	
	정훈석	2022. 7. 5. ~ 2023. 1. 9.	
	박미정	2021. 7. 5. ~ 2022. 7. 4.	
축산과장	**한영자**	**2025. 7. 9. ~**	
	배판열	2025. 1. 13. ~ 2025. 6. 30.	
	정 석	2024. 1. 5. ~ 2025. 1. 12.	
	김환동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
축수산과장	김환동	2021. 7. 5. ~ 2023. 1. 9.	조직개편 전
안전관리과장	**안순영**	**2026. 1. 5. ~**	
	배준호	2025. 1. 21. ~ 2026. 1. 4.	
	김재곤	2024. 1. 5. ~ 2025. 1. 20.	
	정훈석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분리)
건설교통과장	**장택근**	**2025. 7. 9. ~**	
	김연근	2023. 1. 10. ~ 2025. 6. 30.	조직개편 후(분리)
안전건설과장	남 건	2022. 8. 12. ~ 2023. 1. 9.	조직개편 전
	서영배	2021. 7. 19. ~ 2022. 8. 11.	

실과소장 명단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비 고
산림공원과장	**김택곤**	**2025. 7. 9. ~**	
	천성은	2023. 1. 10. ~ 2025. 7. 8.	
	박남진	2022. 1. 1. ~ 2022. 12. 30.	
보건소장	**심화섭**	**2023. 7. 5. ~**	
	정명희	2019. 2. 11. ~ 2023. 6. 30.	
보건행정과장	**장지선**	**2026. 1. 5. ~**	
	김미숙	2025. 7. 9. ~ 2026. 1. 4.	
	서혜련	2024. 7. 3. ~ 2025. 7. 8.	
	이은희	2023. 7. 5. ~ 2024. 6. 30.	
	심화섭	2021. 2. 3. ~ 2023. 7. 4.	
건강증진과장	**김수진**	**2025. 7. 9. ~**	
	김미숙	2024. 7. 3. ~ 2025. 7. 8.	
	고순천	2023. 7. 5. ~ 2024. 7. 2.	
	이은희	2022. 1. 1. ~ 2023. 7. 4.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정모**	**2023. 7. 5. ~**	
	박은하	2021. 7. 5. ~ 2023. 6. 30.	
영농지원과장	**나재혁**	**2023. 7. 5. ~**	
	문정모	2021. 7. 5. ~ 2023. 7. 4.	
기술보급과장	**서진근**	**2023. 7. 5. ~**	
	나재혁	2020. 12. 1. ~ 2023. 7. 4.	
맑은물사업소장	**정훈석**	**2024. 1. 5. ~**	
	임 훈	2023. 1. 10. ~ 2024. 1. 4.	조직개편 후(신설)
의회사무과장	**류승열**	**2024. 1. 1. ~**	
	윤영선	2021. 7. 5. ~ 2023. 12. 31.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	**모현숙**	**2026. 1. 5. ~**	
	최영숙	2025. 7. 9. ~ 2025. 12. 31.	
	윤은희	2024. 1. 5. ~ 2025. 6. 3.	
	안순영	2021. 11. 26. ~ 2024. 1. 4.	

03
민선8기 간부 공무원 명단

읍·면장 명단

직 위	성 명	재직기간
함평읍장	정화자	2024. 7. 3. ~
	안상만	2023. 1. 10. ~ 2024. 6. 30.
	최종욱	2021. 7. 5. ~ 2023. 1. 9.
손불면장	임수영	2024. 1. 5. ~
	배만석	2023. 1. 10. ~ 2023. 12. 31.
	김우석	2021. 7. 5. ~ 2023. 1. 9.
신광면장	서혜련	2026. 1. 5. ~
	심희숙	2024. 10. 29. ~ 2026. 1. 4.
	박옥미	2024. 1. 5. ~ 2024. 10. 6.
	황 영	2022. 1. 1. ~ 2024. 1. 4.
학교면장	김우석	2025. 7. 9. ~
	안순영	2025. 3. 12. ~ 2025. 7. 8.
	김선근	2022. 7. 5. ~ 2025. 3. 11.
	박옥미	2021. 2. 3. ~ 2022. 7. 4.
엄다면장	정동안	2024. 10. 29. ~
	정순용	2024. 1. 5. ~ 2024. 10. 28.
	박미정	2022. 7. 5. ~ 2023. 12. 31.
	정동안	2021. 7. 5. ~ 2022. 7. 4.
대동면장	윤미순	2025. 7. 9. ~
	황 영	2024. 1. 5. ~ 2025. 6. 30.
	김재곤	2023. 7. 24. ~ 2024. 1. 4.
	남 건	2023. 1. 10. ~ 2023. 7. 23.
	천성은	2021. 7. 5. ~ 2023. 1. 9.
나산면장	김미숙	2026. 1. 5. ~
	정 석	2025. 1. 13. ~ 2026. 1. 4.
	정제원	2024. 1. 5. ~ 2024. 12. 31.
	정화자	2023. 1. 10. ~ 2024. 1. 4.
	이경연	2020. 1. 7. ~ 2023. 1. 9.
해보면장	정영심	2026. 1. 5. ~
	정선희	2025. 1. 13. ~ 2026. 1. 4.
	윤성태	2023. 1. 10. ~ 2025. 1. 12.
	오호석	2021. 7. 5. ~ 2023. 1. 9.
월야면장	박승이	2026. 1. 5. ~
	홍명희	2025. 3. 12. ~ 2026. 1. 4.
	안순영	2024. 1. 5. ~ 2025. 3. 11.
	정기태	2022. 7. 5. ~ 2024. 1. 4.
	백인상	2020. 1. 7. ~ 2022. 6. 29.

민선 8기 2022-2026

발 행 일 2026. 06월
발 행 처 전라남도 함평군
편　　집 기획예산실장 I 최종욱
기획정책팀장 I 박철근
담당 주 무 관 I 모성환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Tel (061)320-1401 / **Fax** (061)320-3575
www.hampyeong.go.kr

함평군
HAMPYEONG COUNTY